

朝鮮寰輿勝覽

李秉延 著
李德寧 譯



大川文化院

朝鮮寰輿勝覽



大川文化院



| 발 간 사 |



조선환여승람은 구 한말 공주의 유학자 이병연(李秉延 1894-1977) 선생이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민족 자존과 자주 독립을 염원하고 문화 유산과 민족정기를 보존 유지할 목적으로 유사 이래로 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세종 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등 많은 서적을 저본으로 1910년 부터 100여명을 동원하여 12년동안 전국 13도 229개 군 가운데 129개 군을 조사하여 편찬한 백과 사전적인 지리서이다.

특히 각 군에 관련된 인문지리 현황 49개 항목은 군건치연혁(郡建置沿革)·산천·군세·명소·사찰·학교·명묘·토산·유현·학행·명신·청백리·선행·효자·효부·효녀·정렬 등을 폭넓게 기록하고 있다.

일제의 작위를 거부한 한말 대신 윤용구(尹用求)는 서문에서“조선환여승람이 자주정신 배양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저자 이병연 선생은 발문에서 “이 책이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진작시키는 데 모체가 될 것이다.”라고 발간 배경을 밝히고 있다.

본 책자 번역 발간을 계기로 향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민족 자존의 숭고한 정신을 전승하여 도덕성 회복과 전통적 미풍양속이 전래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령시 당국에 감사드리며, 번역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영 선생님과 명문인쇄사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0. 7.

대천문화원장 임 기 석 삼가씀



충청수영성(忠清水營城)

- 사적 제501호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 西门인 「망화문(望華門)」의 석축이다.



충청수영성 안 객사(客舍)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6호
-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시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렸으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소로도 사용되던 곳이다.



해산루(海山樓)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6호
-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 조선시대 보령읍성(保寧邑城)의 남문으로 편액 글씨는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李山海)의 글씨라고 전해진다.



진서루(鎭西樓)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65호
-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
- 조선시대 남포현(藍浦縣) 관아의 정문이다.



보령향교(保寧鄕校)

- 충청남도 기념물 제112호
-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 조선 초기 보령현에 세워진 향교로, 大成殿, 明倫堂, 東齋, 西齋, 外三門, 內三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암서원(花巖書院)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38호
-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 이지함, 이산보, 이몽규, 이정암, 구계우를 배향한 서원이다. 1624년 세워지고 1686년 사액되었으며, 1868년 철폐되었다가 1922년 복설되었다.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 국보 제8호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 신라 말엽 구산선문 중 성주 산문을 크게 일으킨 무염대사(無染大師)를 기리기 위해 고운 최치원이 왕명으로 찬하여, 890년경에 세워졌다.



이시방 신도비(李時昉神道碑)

-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李肱의 아들, 영의정 李時白의 아우인 연성군(延城君) 이시방은 인조 반정과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웠다. 우암 송시열이 찬하였다.

目 次

□ 조선환어승람 서(朝鮮寰輿勝覽 序)	1
□ 조선환어승람 목록(朝鮮寰輿勝覽 目錄)	3
조선지리총설	3
도내지리총설	3
지리부(地理部)	3
인물부(人物部)	3
□ 조선환어승람 총설(朝鮮寰輿勝覽 總說)	6
조선명의(朝鮮名義)	6
조선위치(朝鮮位置)	8
조선경계(朝鮮境界)	8
조선광무(朝鮮廣袤)	8
조선연혁(朝鮮沿革)	9
조선인종(朝鮮人種)	20
조선방언(朝鮮方言)	21
□ 충청남도지리 총설(忠淸南道地理 總說)	22
위치 및 경계	22
연혁(沿革)	22
산악(山岳)	23
하류(河流)	26
해안 및 도서	27

□ 조선환어승람 보령군편(朝鮮寰輿勝覽 保寧郡篇) 28

보령군(保寧郡) ... 30	정려(旌閭) 54	선문(善文) ... 107
건치연혁(建置沿革) 30	석총(石塚) 55	선시(善詩) ... 108
신구속현(新舊屬縣) 31	명묘(名墓) 67	선필(善筆) ... 108
군명(郡名) 31	누정(樓亭) 69	명망(名望) ... 109
산천(山川) 31	제영(題詠) 76	선행(善行) ... 111
도서(島嶼) 38	유현(儒賢) 78	진목(賑睦) ... 112
군세(郡勢) 40	학행(學行) 79	충신(忠臣) ... 114
형승(形勝) 40	유일(遺逸) 82	절의(節義) ... 115
토산(土産) 41	유행(儒行) 85	효자(孝子) ... 118
기차역(汽車驛) ... 41	문행(文行) 92	효부(孝婦) ... 126
명소(名所) 41	훈신(勳臣) 95	정열(貞烈) ... 126
교량(橋梁) 42	원종훈(原從勳) 97	여행(女行) ... 132
고적(古蹟) 42	공신(功臣) 99	문과(文科) ... 133
교궁(校宮) 43	명신(名臣) 99	사마(司馬) ... 135
원사(院司) 43	명환(名宦) 101	무과(武科) ... 138
사찰(寺刹) 43	명관(名官) 103	음사(蔭仕) ... 140
학교(學校) 47	청백(淸白) 105	수직(壽職) ... 145
부조묘(不祧) 47	문장(文章) ... 106	증직(贈職) ... 145
수비(豎碑) 48	문원(文苑) ... 106	명석(名釋) ... 146

□ 조선환어승람 발(朝鮮寰輿勝覽 跋) 148

□ 조선환어승람 원문(朝鮮寰輿勝覽 原文) 150

朝鮮寰輿勝覽 序 (조선환여승람 서)

나는 소시 때 「우공(禹貢: 書傳의 篇名)」을 읽고 중화 산천에 대하여 간략히 알았고, 중년에는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읽고 또한 우리 나라의 연혁과 인물의 정신이며 바다의 작고 넓음을 알았다.

그러나 근대에 이 같은 글이 이어지지 않아서 항상 자국의 정신을 잃어버릴까 근심하던 중 다행히 이번에 척질(戚姪)되는 이병연(李秉延)이 수삼의 동지와 더불어 여러 해 동안 먼저 이어오는 환우(寰宇: 영토 내의 전부)의 연혁에 대하여 근거를 상고하고, 다음으로 여지(輿地: 우리 땅: 수레처럼 만물을 싣는다는 뜻에서 온 말)의 인물을 밝히고, 또한 동사(東史: 조선의 역사) 중 큰 요지에 고치어 표기해야 할 부분을 더 함으로써 「환여승람(寰輿勝覽)」이 그 규모야 작더라도 뜻이야 다름이 있으랴.

아! 어찌 이 글을 쉽게쉽게 말할 수 있으랴. 우리 조국의 판도와 연혁에 현인 군자며 도덕과 명절을 가진 동량(棟梁)들이 우주에 빛나는 일월 처럼 비록 세상에 내려와 있다 해도 의리의 소관과 강상이 있는 바에 무릇 혈기 있는 자 열복하지 않을 자 없으리니 그 세상에 중합이며 교육에 밝음이 되리라.

탄식하노니 공부자의 말씀에 하은(夏殷)의 의례가 기(杞)와 송(宋)에서 징험할 문헌이 없음을 탄식하셨으며, 숙손표(叔孫豹)의 논리 중에 썩지 않는 세 가지를 말했으니 입덕(立德). 입공(立功). 입언(立言)이

라 했는 데 대개 사람의 일과 공인 바 일과 공에 문헌을 어찌 가벼이 할까 보나. 진실로 백세까지 전해 내릴 소중화의 소식이 그 장차 여기에 있음이라.

이에 간략히 뜻을 베풀어 서술하고 뒤에 오는 군자에게 여러 풍속의 교화에 도움이 되고 후인을 인도할 공이 또한 크겠기로 감탄함을 이기지 못하여 두어 말을 변권지언(弁卷之言 책 머리에 쓰는 말)으로 쓰노라

공부자 탄강 2480년 기사 소춘 상완(上浣)

(서기 1929년 기사 음력 10월 상순)

석촌거사(石村居士) 윤용구(尹用求)는 기록하다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땅이 있으며 그 사이에 사람이 있으니 만물 중에 가장 영특한 자라. 하늘인 즉 명명(冥冥: 어둡고 아득하다)하여 가히 헤아리지 못하겠으나 땅인 즉 태산 교악(喬嶽)이 있듯이 사람에게겐 공훈 업적과 높은 행적이 있는 것이니 그 의(義)가 제일이다.

태산인즉 반드시 이름이 있듯이 높은 행적엔 반드시 역사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만약 땅에 산과 사람에게 행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즉 이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땡사께서 이르신 바 태산이 높아 하늘까지 닿아서 구름까지 들어가 있다 해도 장님은 볼 수가 없고, 황하의 파도가 우레처럼 격랑을 쳐도 귀 먹은 자는 듣지 못한다 하셨다.

자헌대부 장례원경원임 규장각 학사 여흥 민경호 서

선환여승람 목록(朝鮮實輿勝覽 目錄)

- 조선지리총설 : • 조선명의 • 동 위치 • 동 경계
 - 동광무(부록 : 산야·답·전·화전·면적·인구)
 - 동 연혁 • 동 인종 • 동 방언
- 도내지리총설 : • 위치와 경계 • 연혁 • 산악 • 하류
 - 해한만 및 도서

지 리 부

[지지편(地誌篇)]

- 군사표(郡四標: 군의 사방경계표시) ○건치연혁-관원의 개체
- 신구 속현(폐합) ○군명(신구) ○산천 ○군세 ○토산 ○기차역
- 명소(명승) ○교량 ○형승 ○고적 ○교궁(가르치는 집) ○궁전
- 원사(院祠, 답사坵社, 답묘坵廟) ○사찰(寺刹) ○부조묘(不祧廟)
- 비전(碑殿: 비 세워진 집. 수비(豎碑: 세워진 비) ○정려(旌閭)
- 능원(陵園) ○석총(碩塚: 큰 무덤. 正卿 이상) ○명묘(名墓)
- 누정(樓亭) ○제영(題詠)

인 물 부

[도학편(道學篇)]

선정(先正) 승무제현(升廡諸賢 : 승무는 학덕이 있는 사람을 문묘에 올려 한꺼번에 올려 제사지냄)

유현(儒賢) 도학이 일세에 훌륭한 분들

학행(學行) 학문과 덕행이 백세에 사표인 분들

은일(隱逸) 숨어사신 분들, 지조와 덕이 높고 넓으면서도 왕정에 신하노릇하지 않은 분들

유일(遺逸) 숨어살면서도 이름을 남긴 분들. 세상을 숨어살며 걱정 없이 문학에만 순정한 분

※ 돈세무민(遯世無憫 : 세상에 숨어살며 걱정이 없음.
주역 문언전 제일 건괘 문언에 있는 말)

유행(儒行) 학문에 연원이 있고 명리를 중히 여긴 사문(斯文)들

문행(文行) 문장이 유명하고 높은 행실을 가졌던 분들

[덕업편(德業篇)]

훈신(勳臣) 녹훈, 봉군

원종훈(原從勳) 부, 충훈

공신(功臣)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움

명신(名臣) 지위가 정경에 오르고 치군택민(致君澤民) 즉 임금에게 몸 바쳐 충성하고 백성을 윤택하게 함

명환(名宦) 맑고 나타난 일을 베풀어 지낸 분

명관(名官) 벼슬의 자리에 나가 다스림에 이름을 남긴 분

청백(清白) 본군의 자리에 있을 때 정치를 깨끗하게 한 분

- 문장(文章) 문원에서 글을 잘 했던 분들을 부록함
 시가(詩家) 시를 잘 했던 분들을 부록함
 필원(筆苑) 글씨를 잘 썼던 분들을 부록함
 화가(畫家) 그림을 잘 그렸던 분들을 부록함
 행의(行誼) 명망 있고 선행한 분들을 부록함
 진목(賑睦) 자선사업한 분들을 부록함

[삼강편(三綱篇)]

- 충신(忠臣) 나라를 위해 순절한 분이나 절의가 있었던 분들을 부록함
 효자(孝子) 효녀, 효부, 순손(順孫: 조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손자), 우애한 분들을 부록함
 정렬(貞烈) 현숙한 여자나 규수와 여자행실이 도타웠던 분들

[과환편(科宦篇)]

- 문과·사마·무과·음사·수직·중직
 부명석(附名釋) 유명한 스님 부록

조선환여승람지리 총설 (朝鮮寰輿勝覽地理 叢說)

연안 이병연 편집
광릉 안병태 교열

□ 조선 명의(朝鮮名義)

거금 4262년 전(당요 25년 무진) 단군[성은 환, 명은 왕검 태백산 지금의 평안북도 영변 묘향산 박달나무 아래 석굴 중에서 탄강하여 드디어 구리(九夷 : 아홉 부족의 동이족의) 군장이 된 고로 단군이라 말하다]이 처음으로 평양에 도읍을 정하여 나라를 일으키고 국호를 조선이라 했으나

조선이란 이름의 뜻을 혹은 말하기를 조수(潮水)와 산수(汕水)가 있다 해서 생긴 이름이라 하고[조(朝)음은 조(潮), 선(鮮)음은 산(汕)이라 봄. 마사(馬史: 마한사) 색은(索隱)에 보임], 혹은 말하기를 나라가 동쪽 해 뜨는 땅에 있기 때문이라 하고(여지승람에 보임),

혹은 말하기를 조일선명[朝日鮮明: 아침에 뜨는 해가 선명하다]의 뜻이라 하고[학봉 김성일의 조선고이설에 보임], 혹은 말하기를 나라가 선비(鮮卑)족의 산중에 있었던 고로 조선이라 칭했다 한다. 조(朝)는 동방을 이른다는 것이다[순암 안정복의 동사강목 잡설에 보임].

이후 1212년이 지나(周 무왕 원년 己卯) 기자[성은 자, 명은 서여(胥餘) 상왕(商王) 주(紂)의 제부(諸父)로서 자작으로 기국에 봉해졌던 고로 기자라 말한다]

가 동으로 와서[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함에 시서, 예악, 의약, 복무(卜筮) 등을 잘하는 사람 5천여 인을 거느리고 동으로 왔다 함]

또한 도읍을 평양에 정하고 국호를 인하여 조선이라 칭했으며 그 한강[옛날의 열수(洌水)] 이남 옛 삼한의 땅에서 뒤에 삼국이 일어났으니 신라는[東史에 말하기를 옛날엔 서라벌, 계림이라 칭했고 덕업일신(德業日新: 덕업이 날로 새롭다) 망라사방(網羅四方: 사방을 망라했다)의 뜻이라 함] 진한과 가락울 아우르고 변한(뒤에 신라에 겸병(兼併)된다)을 아울렀다.

백제[東史寶鑑에 말하기를 시조는 온조(溫祚) 처음 오간 등 열 명의 신하가 따라와 국호를 십제(十濟)라 했는데 뒤에 백성들이 즐겨 따르는 고로 백제로 개칭했다 함]는 마한을 아우르고 고구려(동사보감에 말하기를 시조는 고주몽으로 요동의 구려 산하에서 생긴 고로 그 성을 고(高)자로 했으니 산상이 높기 때문이고 국호를 삼았다고 한다)는 조선이 있던 땅을 점령했다(한강 이북). 뒤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고려는 [동사보감에 말하기를 산고(山高) 수려(水麗)의 뜻을 취했다 함] 통일 신라의 전구역(全區)에 영토가 이르고 송도에 도읍을 정해(지금의 개성) 475년을 지내다. 천명(天命)이 조선에 돌아와 태조께서 한양에 정혁(鼎革: 정신개혁(鼎新改革)의 약어. 왕자의 역성혁명이나 왕조의 변천을 말함. 주역 鼎卦는 新을 취하고 革卦는 故를 버리는 것, 정(鼎)은 새로라는 뜻이 있다]으로 도읍을 정하여 506년에 이르러

고종 34년 국호를 한국[동사에 말하기를 한(韓)은 방언으로 대(大)크다 또는 일(一: 하나)로 대일통(大一統: 크게 하나로 통일하다)의 뜻을 취했다 함]으로 개칭하고 처음 연호를 광무(光武)로 세워 14년을 지내더니 순종 융희(隆熙) 4년 경술에 이르러 (일본 명치 43년) 일본에 병합되어 다시 조선이라 칭하다.

□ 조선 위치(朝鮮位置)

조선의 위치는 아시아주 동부에 위치하여 중국으로부터는 동북부로 발해에 들출되어 황해와 일본해(지금의 국민정서에 용납지 못할 용어이나 때가 왜정 때였던 고로 동해를 이같이 지칭한 것임) 간에 긴 타원형 같은 반도국이 되어 그 남단은 제주도 모슬포로 북위 33도 46분, 또 완도 서남쪽은 달능각(達陵角) 하니 북위 34도 55분이요,

그 끝 북쪽 땅은 즉 두만강 연안 경원(慶源)으로 북위 43도 2분이요, 서쪽 끝은 즉 장연 장산곶으로 동경 125도 5분이요, 동쪽 끝은 즉 아라사국 접경인 두만강 입구로 동경 130도 58분으로 전국이 북반구 온대지방 중에 있다.

□ 조선 경계(朝鮮境界)

조선의 경계는 동·서·남 삼면이 바다에 임해 있고, 그 동남 끝은 조선해협에 격해서 더불어 대마도와 멀리 서로 대하고 있으며, 서북의 한계는 압록강으로 중국 성경성(盛京省)과 더불어 땅을 접해있고, 북은 두만 토문(족, 圖們) 두 강이 경계가 되니 중국 길림성과 더불어 인접해 있고, 동북은 아라사(러시아) 영 오소리(烏蘇里)와 경계를 나누고 있다.

□ 조선 광무(朝鮮廣袤 : 조선 땅의 펼쳐짐)

(산야, 畚(논), 田(밭) 火田, 면적과 인구)

조선의 펼쳐짐은 동북으로부터 서남에 이르는 3,600여 리로 동서로는 넓고 좁고가 일정치 않아 혹은 천여 리 혹은 6~7백리로 그 전면적은 14,312방리로 전 세계에 비하면 총 면적에 일만분의 16이 되니

산야 면적이 1,588만 3천정보(3천평이 1정), 논 면적이 155만 3,998

정보, 밭의 면적이 276만 8,205정보, 화전 면적은 71,726정보, 인구 19,138,000인이다.

□ 조선 연혁(朝鮮沿革)

조선은 옛날 처음 각각 부락으로 나뉘어 있을 때 거금 4262년 전 [당요(唐堯) 25년, 戊辰] 단군(위 이름의 뜻을 볼 것)께서 처음 일어나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했으니 그 구역은 서북으로 지금의 만주지방과 동으로 지금의 강원도 등지였으며 1017년을 지낸 뒤 [상(商)나라 무정 8년] 백악산 아사달에 도읍을 옮기어(지금의 문화 구월산, 혹은 당장경(唐藏京)이라 이르니 지금의 문화군 동쪽으로 15리에 궁궐터가 있고 속칭 장장평(藏藏平)이라 한다) 196년을 지내고(주 무왕 원년 己卯),

북부여에 옮기어 거함으로[지금의 중국 성경(盛京) 개원현(開原縣)] 지낸 연수(年數)가 모두 다 1212년이었고, 기자(이름의 뜻을 위를 볼 것)가 거금 3051년 전 (주 무왕 원년 己卯) 동으로 와서 또한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그 구역이 서쪽은 중국 광녕영평부(廣寧永平府)에서 요동에 이르고(지금의 성경성) 개평(蓋平) 금주(金州)[성경성(盛京省) 남쪽에 있음]를 경계로 했으며 남으로는 열수(洌水: 지금의 한강)에 이르고 동북으로는 예맥과 옥저에 접했으나[예맥은 지금의 강원도, 옥저는 지금의 함경도]

후손들이 쇠약해져 서쪽의 경계 천여 리를 연나라에 잃어버리고 만번한(滿番汗)[요동에 있음]을 경계로 하여 929년을 지내어[한 혜제 원년 丁未] 41세손 기준(箕準)이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의 기습 탈취로 남쪽 금마군(金馬郡: 지금의 익산)으로 달아나 거하여 이로 마한국의 왕이 되다[이하의 삼한의 연혁을 보라].

위1554군을 두니[한 무제 원봉 3년 癸酉] 역년이 모두 다 87년이였다. 4군은 거금 2047년 전[한 무제 원봉 3년 癸酉] 한 무제가 위 우거를 멸하고 4군을 나누어 설치한 것이니 낙랑(樂浪)은 [지금의 평안도 땅] 조

선현이[지금의 평양], 임둔(臨屯)은 [지금의 강원, 황해, 경기 이북의 땅] 동이현(東隴縣)[강릉, 또는 임진강 연안의 땅이라 이른다]이, 현토(玄菟)는 [지금의 함경남도 땅] 옥저성[지금의 함흥]이, 진번(眞番)은 [지금의 압록강 이북과 파저강(婆猪江)의 땅] 잡현(靺縣: 지금의 흥경)이 치소로 27년을 지내다

한나라 소제 유불릉(劉弗陵) 시원 5년(己亥)에 진번을 파하여 현토에 소속시키고, 임둔을 파하여 낙랑에 소속시키더니 현토는 이맥(夷貊)의 침략을 받아 군을 고구려 현으로 옮기니[성당성 내] 서북 단대령[지금의 설한령]으로부터 동옥저 및 예맥이 다 낙랑에 소속됨으로써 뒤에 경계의 땅이 넓고 멀어 영동 7현을 나누어 동부도위를 두고

불내성(不耐城: 未詳)을 치소로 하고 남부도위를 두어 소명현(昭明縣: 낙랑의 속현으로 지금의 춘천)을 치소로 하더니 그 후 요동태수 공손도가 낙랑군의 둔지가 있던 남쪽의 황폐한 곳을 나누어 대방군을 두더니 [지금의 경기 황해지방] 한나라 원제 건소 2년(甲申)에 이르러 고구려에 병합되었다. 지나온 해가 모두 다 72년이였다.

삼한은 즉 열수(洌水: 지금의 한강) 이남의 땅으로 고대에 진국의 부락이었다. 마한은 지금의 경기 이남 충청 전라가 다 그 땅이라 거금 2123년 전[한나라 혜제 원년 丁未] 기준이 위만에게 쫓겨 남쪽의 금마군[지금의 익산]으로 달아나 왕이 되어 50여 국을 통합하였다.

그 지역은 북으로 낙랑과 이웃하고 남으로 왜의 지경에 접하고 서로 는 대해(大海)였으며 203년을 지내어[신분(新奔) 원년 己巳] 백제에 병합되었다. 진한은 지금의 경상도 낙동강 동쪽의 땅으로 북으로는 예맥과 연해 있고, 서북으로는 마한에 접해 있으며, 동남은 변한 및 일본에 접해 있어 12국을 통합하고 있더니, 한나라 선제 오봉 원년(甲子)에 이르러 신라에 병합되었다.

변한은 또 말하면 변진이니 지금의 경상도 낙동강 서쪽 땅으로 서남은 지리산을 넘고 서북은 마한과 접했으며 동은 진한과 더불어 혼잡

해서 거했고 남은 일본과 접해 있더니 한나라 원제 영광 5년(壬午)에 이르러 가락 및 5가야국이 되었다.

사군(四郡) 삼한의 무렵에 삼국이 일어났으니 지금 1986년 전[마한 왕 138년, 한나라 선제 오봉 원년 甲子] 신라 시조 혁거세[성은 박, 이름은 혁거세로 처음 양산의 숲 사이에서 이상한 기운이 있어 찾아보았더니 한 개의 알을 얻어 쪼개어 보니 어린 아기가 들어 있었는데 모습이 단정하고 예쁘며 동천에 목욕시키자 몸에서 광채가 발생하고 신과 같아 보이므로 나이 13세가 되었을 때 임금으로 삼았다

- 석탈해는 처음 파라국 왕이 여국 왕의 딸에게 장가가서 한 개의 알을 낳은지라 비단으로 싸서 강에 띄웠더니 진한까지 이르러 노파에게 발견되어 보니 아이가 있는지라 거두어 왔는데 이때에 까치가 따라오며 우는 고로 새를 살피며 까치 ‘鶻’ (작) 자의 옛 ‘昔’ (석) 자로 성을 삼고 꺾적을 풀어 나왔던 고로 이름을 탈해(脫解)라 했는데 뒤에 남해왕의 사위가 되어 임금이 되었다.
- 미추왕(昧鄒王)은 즉 알지(闕智)의 7세손이니 처음 탈해왕이 금성 서쪽 시림(始林)에서 닭 우는 소리가 있다 하므로 가서 보니 금빛 나는 작은 꺾적이 나무에 걸려 있고 그 아래에서 흰 닭이 울고 있는지라 왕이 취하여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는데 기특하고 잘 생긴지라 기뻐하며 말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자식을 주었다 하고 인하여 아들을 삼았는데 이름을 알지라 하고, 금꺾 속에서 나온 고로 금(金)자로 성을 삼았는데 7세손에 이르러 왕이 되었다. 처음 닭의 신표가 있었으므로 시림을 계림으로 고쳐 부르고 인하여 이것을 나라 이름으로 삼다]는

진한에 유부의 사람들이 나라를 계림에 세웠는데[지금의 경주] 뒤에 점점 강해져서 이서(伊西)[청도] 압량(押梁)[일명 압록 경산] 골화(骨火)[일명 골불 영천] 소문(召文)[의성] 음즙벌(音汁伐)[경주의 속지] 실직(悉直)[삼척] 우시산(于尸山)[영해] 미질부(彌秩夫)[홍해] 장산[일명 거칠산(居漆山) 동래] 감문(甘文)[개령] 사벌(沙伐)[상주]

가락(駕洛)[뒤에 금관국으로 고쳤는데 지금의 김해로 시조는 김수로왕으로 처음에 아간도 등이 구(龜)봉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운이 있어 여기에서 금합(金盒) 얻었는데 열어보니 여섯 개의 금란이 있었고 불일새로 여섯 사내가 꺾질을 가르고 나오므로 먼저 나온 자를 임금으로 삼으니 신장이 구척이요 용의 눈에 눈동자가

들이고 머리가 서물(庶物)에서 나왔던 고로 이름을 수로(首露)라 하고 금란에서 나온 고로 성을 금(金-김)이라 했다 왕비는 보희태후 허씨니 친축국 왕의 딸로 아들 열을 낳아 두 아들은 어머니를 따라 성을 전하였다. 11세를 전하여 구해왕에 이르러 신라 법흥왕에게 항복하니 지낸 해가 모두 491년이였다]

대가야(大伽倻)[일명 임나(任那) 지금의 고령, 시조는 이진(伊珍) 아고왕이며 도설지왕에 이르러 신라 진흥왕에게 소멸되었으니 무릇 16세로 역년 520년이였다] 소가야(小伽倻)[고성] 벽진가야(碧珍伽倻)[성주] 아라가야(阿羅伽倻)[함안] 고령가야(高靈伽倻)[합창] 초팔(草八)[초계] 비지(比只)[미상] 다벌(多伐)[미상] 및 포상팔국(浦上八國)[칠원, 사천, 창원, 웅천 등지] 우산국(于山國)[울릉도] 등 모든 나라를 병탄하여 강토가 점점 커지고 717년을 지내어 무열왕 7년에 이르러 [당 고종 현경 5년 庚申]

백제를 멸하고[당나라 소정방과 함께 멸함으로 나누어 도독부를 두고 유인원이 사비성(부여)에 머물 진무하더니 뒤에 철수하여 돌아가다] 9년 뒤에[당 고종 총장 원년 무진 문무왕 8년] 또 고구려를 멸하여[당나라 장군 이세적과 함께 멸하여 당나라는 나누어 9도부를 두고 설인귀로 안동부(평양)에 머물러 진무케 하더니 이어 철수하여 돌아가다] 삼국을 통일하고

그 강역이 동서남 삼면이 바다에 제음하고 서북은 패수[지금의 대동강]가 경계가 되고, 북은 발해국 니하(지금의 덕원)가 경계가 되며, 처음 도읍은 금성[경주 동쪽에 있음]이었다가 파사왕 원년에 이르러[한나라 장제 건초 5년 庚辰] 월성[금성 동쪽에 있음]으로 옮기었다.

또 명활성[월성 동쪽에 있음]으로 옮기었다. 통일 후부터 268년이 지나 [후당 노왕 청태 2년 乙未]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므로 박·석·김 세 성이 서로 바꾸어 가며 왕을 해서[살펴보니 박씨 10세, 석씨 8세, 김씨 38세, 여왕이 3인이었음] 무릇 56왕으로 지내온 해가 모두 다 992년이였다.

고구려[위에 이름의 뜻을 볼 것]는 거금 1966년 전[마한 왕 158년, 신라 시조 21년, 한 원제 건소 2년 甲申] 북부여[지금의 중국 성경성 개원현(開原縣)]왕 해모수(解慕漱)[그 아들 해부루(解扶婁)는 조선 동해가로 옮겨 동부여 시조가 됨]

아들 고주몽[처음 해모수가 하백녀 유화부인과 더불어 사통하여 주몽을 낳으니 주몽이라 칭하고 고신씨의 후예이므로 인하여 성을 고라 하였다. 7세 때에도 활을 잘 쏘았다. 부여의 풍속에는 활을 잘 쏘는 자를 주몽이라 일컫던 고로 인하여 이름이 되었다 한다]은 비류수(沸流水) 위에 와서[혹은 지금의 성천 흘골성이라 이른다] 나라를 세우고 졸본에 도읍하더니[지금의 압록강 북쪽 흥경의 경계 안에 옛날 발해의 솔빈부] 처음부터 40년이 지나[유리왕 21년 계해]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고[일명 위나암성(尉那巖城)이니 지금의 초산 강북 울자산성(兀刺山城)에 있다], 또 207년을 지나[산상왕 13년 己丑] 환도성으로 도읍을 옮겼었고[지금의 강계 만포강 북쪽], 또 39년이 지나[동천왕 21년, 丁卯]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또 96년이 지나[고국원왕 11년, 壬寅] 다시 환도성에 도읍했는데 모용황(慕容皝)의 도륙으로 명년[癸卯]에

다시 평양 동쪽 황성으로 옮겨 도읍했다가[지금의 평양 동쪽 4리 목덕산 중 일명 동성(綱城)] 또 85년이 지나[장수왕 15년, 丁卯] 평양으로 환도하고 또 160년이 지나[평원왕 27년, 丙午] 장안성으로 도읍을 옮겼는데[지금의 평양 외성에 있음] 83년을 지나[당 고종 총장 원년, 戊辰] 왕, 장이 신라 문무왕에게 망하였다.

그 구역은 처음 개마산[지금의 백두산] 서북쪽 한나라 현토군의 땅에서 일어나 점점 그 곁의 가까운 소국들인 비류, 행인, 개마, 구다, 황룡 같은 곳을 병탄하고 주나(朱那) 갈사(曷思) 동옥저(東沃沮) 북옥저(北沃沮) 부여, 낙랑, 숙신(肅愼) 양맥(梁貊) 등 제국과 후에 또 대방, 현토, 요동 등의 군현을 취하여 서쪽으로는 요하, 북으로는 북부여, 말갈의 여러 지방에 이르고,

동북은 창해로 끝나며 하이(遐夷)에 접하였고 동남으로는 신라, 백제를 분할하여 취하고 백제 강토에 남평양을 두었으니 지방은 3천여 리에 이르고 매우 넓게 개척하였으나 자손이 교만하고 사치하여 결국 망하게 되었으니 무릇 28왕으로 지내온 해가 모두 다 705년이 었다.

백제[위에 이름의 뜻을 볼 것]는 거금 1947년 전[마한 왕 177년 신라 시조 40년 고구려 유리왕 2년 한나라 성제 홍가 3년 쫓卯] 북부여 사람 온조(溫祚)[東史에 이르기를 고구려 동명왕 고주몽이 죽자 장자 유리를 세우고 차자 비류 및 온조를 두려워 나라에서 용납지 못하게 함으로 드디어 오간, 마여 등 열 명의 신하들과 더불어 남쪽으로 행하여 한산(漢山)에 이르러(지금의 남한(南漢)) 부아악(負兒岳 : 지금의 삼각산)에 올라 가히 거할만한 땅을 바라다보고

비류는 미추홀(彌鄒忽 : 지금의 인천), 온조는 하남위례성(지금의 직산)에 도읍했는데 뒤에 비류는 미추홀이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안거하지 못하고 다시 위례성으로 돌아와 인하여 죽으므로 백성들이 모두다 온조에게 귀속하다]가 남으로 열수[지금의 한강]를 건너 위례성[직산]에 정도하니 마한 왕이 동북 백리의 땅을 배어주었다.

13년 한산[광주 남한산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 27년[신분 원년 기사] 마한을 기습하여 멸하고 그 땅이 있던 곳을 그 강역으로 하여 북쪽의 한계는 패강(溟江)[지금의 수안 능성강 혹은 평산, 저비(猪灘)이라 이르는데 지금의 예성강이 옛날 패강이라 칭했다]이요 서남은 바다에 제음하고 동으로는 신라와 이웃하고 동북으로는 낙랑, 예맥과 접하였다.

373년을 지내어[근초고왕 26년 신미] 북한성[지금의 한성]으로 도읍을 옮기더니 또 105년을 지내어[개로왕 21년 乙卯] 한성을 잃고 문주왕 원년[신라 자비왕 18년 을묘]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겼다가 또 64년이 지나[성왕 16년, 신라 법흥왕 25년, 戊午] 또 사비[부여]로 옮기어

또 113년이 지나[당 고종 현경 5년, 庚申] 의자왕이 혼음하여 신라 무열왕에게 멸망되고, 왕자 풍은 주류성(周留城)[연기]에 웅거하고 기병하여 웅진으로 나가 포위하고 옛날의 위업을 회복하려 했으나 군사의 패주로 망하였다[왕자 풍은 재위 4년, 당 고종 용삭 3년, 쫓亥] 무릇 31왕으로 역년이 모두 681년이였다.

고려[위에 이름의 뜻을 볼 것]는 거금 1012년 전[신라 경명왕 2년, 후양에

균왕 정명 4년, 戊寅] 태조 왕건[한주 송악군 사람 아버지는 융(隆) 아내 한씨와 더불어 송악 남쪽에 살며 태조를 낳았으니 용안 일각(日角)으로 그릇과 도량이 크고 나이 17세에 궁예에게 가서 투신하니 궁예가 보고 기특하게 생각하여 받아들여 철원 태수를 삼고 남정북벌할 때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으나 궁예의 포학이 날로 심하여져 태봉제장이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다]이 송악[개성]에 정도하고

건원에 천명을 받아 후백제[전훤은 상주 사람으로 본래의 성은 이(李)였는데 체모가 크고 기특한 지략이 많았는데 세상이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도둑이 일어나자 5천여 인을 취합하여 무진주(지금의 광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서서 왕이 된 후 완산에 도읍을 옮기고 후백제라 칭하였으나 왕위에 거한 지 44년에 고려에 항복하다]

태봉[궁예는 신라 현안왕의 서자로 태어나자마자 이빨이 있어 일관이 말하기를 나라에 이롭지 못하다하여 죽이려 했으나 유모가 안고 도망하여 자랐는데 중이 되어 뒤에 반기를 들고 철원에 웅거하여 국호를 태봉이라 했다. 성질이 포학하여 부왕의 화상을 보고 칼을 빼어 치니 그 아내 강씨가 그 비행을 간하자 궁예는 쇠방망이로 쳐서 두 아들과 함께 죽이니 고려 태조께서 의거를 일으키자 궁예는 도망했으나 부양민에게 죽었다]을 멸하고

신라[당나라 노왕 청태 2년, 乙未]를 항복받아 전국을 통일하니 서북은 여진에 접하고 동남은 바다에 제음했었는데 76년을 지내어 성종 12년[癸巳]에 이르러 거란(契丹) 숙손영이 대거 내침하여 말하기를 고구려의 구지를 회복하겠다 하니 여러 논의가 두려워하여 황주 파산령[자비령, 서흥 서쪽 60리에 있음]을 배어 주고자 함으로써 서뢰, 시랑 서희의 항변으로 무사하게 장흥을 봉강하여 취득하고

귀주와 광주 등 4성을 귀화시켰으나 이때부터 병화의 연화로 강토를 결정하는 다툼이 해마다 쉬지 않았는데 또 27년이 지나 현종 10년[己未]에 이르러 상원수 강감찬을 보내어 거란병을 대파하고 크게 국위를 떨치더니 또 55년을 지내어 문종 27년[癸丑]에 이르러 동 여진 일곱 주의 추장이 무리들을 거느리고 와서 부속하므로 성명을 하사하니 각각 받고 장군으로 불리었다.

또 삼산[삼철(三撤) 지금의 북청] 대란(大蘭) 지졸(支節)[함흥 서북 설한령(薛

罕嶺)의 남쪽 영원(寧遠)의 경계] 등 구촌(九村) 소(所)와 을포촌(乙浦村) 소지줄(小支櫛) 전리(前里) 대지줄(大支櫛) 등이 모두 다 내부(來附) 하므로 열한 주를 두고 또 동번[즉 동여진] 대제자(大齊者) 고하사(古河查) 등 열두 추장 및 두룽골이(豆籠骨伊)[지금의 두만강] 여파한(餘波漢) 등 제번(諸蕃)이 다 돌아와 복속하므로 나누어 주현을 두고 34년을 지나 예종 2년[丁亥]에 이르러 이때에 여진이 강성해져

추장 오아속(烏雅束)[즉 금나라 강종, 세조 핵리발(劾里勃)의 아들 목종 영가(盈歌)의 형의 아들]이 숙종 때로부터 여러 차례 변방을 침략하여 원수 윤관(尹瓘)과 오연총(吳延寵)을 보내니 군사 17만을 거느리고 여진을 쳐서 평정하고 땅의 경계를 획정하니 동쪽의 경계는 화곶령이요 북의 경계는 궁한이령(弓漢伊嶺)이요 서쪽의 경계는 몽라골령(蒙羅骨嶺)이니 영·웅·북·길[모두 다 지금의 길주 이북에 있음] 등 네 주를 두었다.

명년에 또 함·의(咸·宜) 두 고을 및 공협(公嶮) 통태(通泰) 평융(平戎) 등 3진을 두니 이들을 9성이라 하고, 남쪽 경계에 백성 6만 8천호를 이주시켜 선춘령(先春嶺)에 정계비를 세웠으니 이는 고구려의 옛 강토를 비로소 판도 안에 돌아오게 되자 이미 몰락한 구성에 여진 부락이 보복을 맹세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구적의 침략이 있으므로 변방의 경비를 쉬지 못하더니 뒤 4년에 여진 태사 오아속이 공형(公兄)[벼슬이름] 사현(史顯) 등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고

구성을 되돌려 줄것을 애걸하므로 조의에서 허락하고 이에 승령·통태 및 영·웅·북·길·함 등 5주와 진양 선화 등 진에서 철수하여 돌리니 여진 추장 등이 함주 문밖에 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맹세하여 말하기를 지금부터 이후 해마다 조공하기로 하고 만약 변하면 이때 번토를 멸망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 후 함북 일로(一路)에 여진은 몽고에 함락되었다.

공민왕 5년에 유인우를 보내어 쌍성[옛 화주로 지금의 영흥]을 공파하고, 화(和)[영흥] 등(登)[안변] 정(定)[정평] 장(長)[옛날의 장주, 지금의 정평

서남 55리에 있다] 예(預)[옛 예주로 지금의 정평 남쪽 45리에 있다] 고(高)[고원] 문(文)[문천] 의(宜)[덕원] 등의 주(州) 및 선덕(宣德)[지금의 함흥 남쪽 45리에 있다] 원흥(元興)[지금의 정평 남쪽 50리에 있다] 영인(寧仁)[지금의 영흥 쪽 60리에 있다] 요덕(耀德)[지금의 영흥 서쪽 120리에 있다] 정변(靜邊)[지금의 영흥 동쪽 60리에 있다] 등의 진을 수복했는데

대개가 삭방도(朔方道)[지금의 함경도] 앞 도련포(都連浦)[지금의 함흥 남쪽 30리에 있음]를 경계로 하여 장성을 쌓고[덕종 2년, 癸酉에 장성을 쌓아 의주로부터 영흥의 요덕, 정변진을 지나 곧게 도련포에 이르렀음] 삼관문[정주, 선덕, 원흥]을 설치하여 여진을 막았는데 몽고에 함몰되었으니 무릇 99년 만에 이때 비로소 수복하고 또 함주(咸州)[원래는 함란부(哈蘭府)] 길주(吉州)[원래는 해양(海洋)이라 칭함] 복주(福州)[원래 독노원(禿魯元) 지금의 단천(端川)] 북청주(北靑州)[원래는 삼철(三撤)이라 칭함] 등 4성을 수복했다.

4성은 여진에 함몰됐던 바 무릇 240여 년 만에 비로소 고려에 돌아왔다. 공양왕 3년에 이르러 갑주[갑산]를 수복하고 명년에 차이필(差李必) 등을 불러 간도리(幹都里)[회령] 올랑합(兀良哈) 등 모든 부락을 효유하였는데 이 해[명 태조 홍무(洪武) 25년, 壬申] 추 7월 천명(天命)이 조선 태조[지금 539년 전]에게 돌아오니 고려는 무릇 34왕, 역년이 모두 475년이였다[고려 통일이 태조 18년 乙未에 있었은즉 실제의 역년은 458년이다]

조선 태조[성은 이, 휘(諱)는 단(旦), 초휘(初諱)는 성계(成桂)] 개국 기원 원년[명 태조 홍무 25년 임신(壬申), 일본 후소송제(後小松帝) 남북통일 원중(元中) 9년, 1392] 한양에 정도하고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다. 처음 고려 공민왕 19년(庚戌)에 태조께서 보기병(步騎兵) 1만 5천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북원(北元)의 동녕부(東寧府)[요동의 파저강(婆猪江) 을자산정(兀刺山城)]를 쳐서 파하고, 또 나가 요양성(遼陽場)을 쳐서 파하고, 방을 붙여 인민을 효유하여 말씀하기를 요하 동쪽은 우리 나라의 강토이다.

대소 두목들은 빠르게 마땅히 내조(來朝)하고 함께 작록(爵祿)을 향

유하라 했다. 명년 복원에 요양성, 평장 유익(劉益)이 요양을 위하여 본시 조선의 땅이니 우리 나라에 귀부하려 한다고 사신을 보내어 청하였으나 이때에 조정의 논의가 한결같지 못했다. 끝에 가서야 회보하니 유익은 드디어 금주(金州) 복주(復州) 등 대개 평해성(平海城) 요양 등지를 가지고 귀부하므 태종 2년에야 비로소 이산(理山)[초산], 위원(渭原), 창성(昌城), 삭주(朔州) 등 4군을 두고, 7년에 또 경원(慶源) 정흥(慶興)의 2부(二府)를 두었다.

뒤에 세종조에 이르러 서북에 무창(茂昌), 여연(閔延), 우예(虞芮), 자성(慈城) 4군을 두고 김종서에게 명하여 북의 여진부락을 두만강 밖으로 쫓아내고 강토를 회복하여 육진(六鎭)을 개척하였다. 선조조에 번호[藩湖 : 여진족 동북방 민족을 말함]를 초멸(剿滅)하고 무산부(茂山府)를 설치하여 육진에 병렬케 했다. 정종(正宗)조에 장진부(長津府)를 두었다.

숙종 38년[청나라 강희 51년, 壬辰] 청나라 오랄(烏喇) 총관 목극등(穆克登)이 우리의 사신 박권(朴權), 이의복(李義復) 등과 백두산에 나라의 경계를 찾아 정하고 분수령(分水嶺) 상에 이르러 정계비를 세우고 글을 새겼으니 석면에 말하기를 대 청나라 오랄총관 목극등은 뜻을 받들어 변방을 조사하고 여기에 이르러 살펴본 바 서쪽은 압록강이 되고 동쪽은 토문(土門)이 되는 고로 분수령 위에 돌에 새겨 기록하노라 했다.

뒤에 172년이 지나[즉 개국 기원 492년, 癸未] 북간도를 마감 경계로 청나라를 섬기므로 길림 장군 및 우리 서북 경략사 어윤중이 서로 찾아 정하려 했으나 결정치 못하고 그 후 감계사(勘界使) 이중하(李重夏)가 청나라 원덕(員德) 옥매원(玉賈元) 계진영(桂秦瑛) 등과 더불어 마감 경계를 심사했으나 또한 미결하고, 피아간 여러 차례 교섭을 했지만 타결하여 결정치 못했으나, 대개 백두산 큰 연못[천지] 남쪽 10리 허에 정계비가 있으므로 그 서

쪽 가 두어 발짝 땅에 구렁과 도랑이 있어 즉 압록강의 원류라 동쪽 가 두어 발짝 땅에 또한 구렁과 도랑이 있어 즉 토문강의 근원이라 그 중간에 도랑의 형태가 심히 협소하여 양쪽 언덕이 대립해 있어 문과 같이 생긴 고로 토문이라 이르는 것이니 이는 소위 동으로는 토문이 되고 서로는 압록강이 되는 곳이니 토문강이 각각 있는 산의 골짜기 물을 합쳐 동으로 300리를 흘러 송화강으로 들어가니

간도는 즉 토문의 남쪽에 있는 곳임으로써 토문의 정계 인즉 간도는 이에 우리나라 강역의 경계인 것이다. 청나라 사람은 두만강이 토문강이라고 하는데 또한 도문(圖們)이라 칭하는 음이 와전된 것이다. 즉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이 즉 송화강의 상류인데도 서로 고 집한다.

두만강의 원류는 장산령에서 나온 즉 더불어 분수령에 비를 세운 곳에서 구십 리나 되어 동으로 토문이 된다는 비문과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두만과 토문의 지음을 함께 한다는 억지주장은[畧: 경계 또는 대략] 해석치 않은 변론을 기다리지 않고도 경계의 지역이 자명한 것이다.

고종께서 나라에 등극하신 지 34년[개국기원 506년, 丁酉, 거금 33년 전] 국호를 한국으로 개칭하고[이름의 뜻은 위를 볼 것] 건원(建元) 광무(光武) 14년을 지내어[순종 융희 4년, 庚戌, 일본 명치 13년] 추 칠월 일본에 병합되므로 무릇 27왕에 모두 다 지난 해가 519년이었고,

단군 개국기원[戊辰]으로부터 융희 4년[庚戌]까지 무릇 4243년이라, 거금 20년 전[명치 43년] 조선총독부를 경성에 두고 조선총독부가 육·해·군을 통솔하여 조선방비사를 관장하고 법률 제령 발표를 대신하여 조선중앙 통치사무를 관할하고 13도에 각각 장관[지금의 지사]을 두었으며, 12부에 각각 두었던 부윤을 혁파하고, 317군을 219군으로 하여 각각 군수를 두었으며, 섬(島)에 두었던 도사를 혁파하고 4,356면을 2,461면으로 하여 각각 면장을 두고 행정사무를 분할케 하다

□ 조선 인종(朝鮮人種)

조선인종은 즉 아세아의 황색인종이니 상고시절 구종(九種)의 부락이 있어 문화에 따라 열렸었는데 각지로 이주하여 섞이게 되었고 대개 그 구별을 삼족(三族)으로 할 수 있으니 하나는 조선본족으로 처음 옛날부터 토착한 민족이나 서북으로부터 동남으로 뻗어온 자들이고,

두 번째는 한족(漢族) 즉 중국인으로 이주한 자이니 은·주시대부터 전국시대 및 진한대에 일이 있을 때마다 시시로 이주[기자가 5천인을 거느리고 동으로 온 것과 연(燕) 제(濟) 조(趙)나라 등의 백성이 피난한 것과 전란 시에 사류들의 망명자 수만이며 위만을 좇아 망명한 자 수천 인 등을 말함] 당송 이래 전란으로 인하여 이주한 자가 심히 많았던 것이다.

세 번째는 부여족[옛날 예맥종] 즉 단군의 후예로[단군 후손의 무리가 북부여] 북부여왕 해부루를 좇아와 조선 동북해 쪽에 동부여[즉 불내예(不耐濊)] 왕을 삼고 점차 번식하여 뒤에 예맥의 군주로 남려(南閔) 28만구를 거느렸다. 한나라에 귀속되고 고구려, 백제 또한 부여족으로 서남쪽으로 널리 번식되었으나 고구려의 멸망으로 남려 20만구가 당나라에 옮겨졌고, 그 나머지는 장백산 동쪽에 의지해서 발해국이 되었다.

또한 백제의 무리도 남려 2,800여 구가 당나라에 기타 수만 구가 다 일본에 이주하였다[구주 서해 녹아도 등지]. 그 외에 또 말갈족, 몽고족, 일본족 등이 있고 고려 초에 동서 여진부락에서 서북 양도에 들어와 살다 번속(蕃屬)[오랑캐에 소속하다]된 경우와 뒤에 동 여진의 완안(完顔)씨가 요동을 멸하고 송나라와 더불어 중국에 들어가 금국의 황제가 되었으며, 서 여진의 후예가 청국의 시작이 되었다. 몽고족은 고려 말년에 이주자가 심히 많았고 일본족은 자고로 대대로 내왕하여 복잡하게 이주한 경우가 심히 많고 일선 병합 이래에 관공의 관리 및 농·상민의 이주자가 매년 증가하여 수십만 구에 이른다.

□ 조선방언(朝鮮方言)

대가락(大駕洛) : 동방의 나라이름으로 3한(三韓)의 큰 씨족을 일러 대가락이라 함.

나 록(羅祿) : 신라 백관의 반료(頒料)를 조세로 했던 고로 조세를 일러 나록이라 함.

가남아(假男兒) : 고려에서 여아를 일러 말하기를 가남아라 하다.

을 라(乙那) : 신라 때에 영아를 일러 을라라고 하다.

화 랑(花郎) : 신라 귀남자의 칭호

서 울(徐鬱) : 문헌비고에 말하기를 신라국 또 서라벌이라 부르던 것을 후인들이 경도(京都)를 칭하게 되었으니 서벌이라 말하던 것이 뒤에 서울로 변했다 함.

한 골(韓骨) : 제1골은 신라왕족, 후족(後族)을 말할 때 제2골.

충청남도지리총설 (忠淸南道地理叢說)

□ 위치(位置) 및 경계(境界)

충청남도는 경기도 남방에 있고 동으로는 충청북도와 연해 있고 서북 연변의 여러 군은 해상에 돌출되어 황해도 연백, 용진 등의 군들과 상치(相峙)되어 있고, 서변 일대는 해면에 임해서 중국 천진 상해로부터 일본 통상 항로로 왕래할 수 있고, 남으로는 전라북도 전주 익산 등의 군과 접해 있고,

동서는 대략 200리, 남북은 약 250리로 북위 35도에서 37도에 이르고, 동경 126도로부터 27도반에 이른다. 지세는 동북으로 봉만(峰巒)이 중첩하고 서남으로는 평원광야가 많으며 지질은 기름지고 비옥하며 도서(島嶼)가 많다.

□ 연혁(沿革)

충청남도는 옛 마한지역으로 뒤에 백제에 병합되고 문주왕 때 북한(北漢: 한수북쪽)에서 용진[공주]에 이도했다. 성왕 때 또 사비[부여]로 도읍을 옮겼다가, 의자왕 20년 당 고종이 보낸 소정방과 신라 무열왕이 함께 침공하여 멸망되고,

다섯 개의 도독부를 나누어 두고 각 주현을 통솔함에 추장을 뽑아 도독, 지사, 현령을 삼아 다스리더니 당나라 원수가 이미 돌아가고

신라가 그 땅을 모두가 아우르더니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하고, 성종 14년 국내를 10도로 하여 공운(公運) 등 11주로 나누어 하남도(河南道)가 되었고, 예종 원년 관내도에 합쳐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라 칭하다.

공민왕 5년 충청도라 칭했고, 조선 태조조에 양광주가 거느렸던바 군현을 경기도에 소속시키고, 충청도에 공홍주(公洪州)가 거느렸던 군현의 나머지만 충청도라 칭하고 각기 관찰사를 두었다. 고종 광무 원년 공홍주에 소속되어 거느렸던 군현을 나누어 충청남도가 되었고, 지금은 이로 인하여 14군을 거느렸다.

□ 산악(山岳)

충청북도 속리산맥, 남쪽에 덕유산(무주)이 되었고 서쪽에 마이산(진안)이 되고 다시 행맥은 계룡산 1맥을 이루었으며 또 서쪽으로 가서 대문령과 마일령이 되고 공주 북쪽에 이르러 차령이 되었다. 나뉘어 무성산이 되고 서쪽으로 홍주에 이르러 경계 위에 오서산이 되었다.

계룡산은 공주, 대전, 논산 3군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으며 석각의 봉우리와 화살촉같이 선 산세가 위이(逶迤: 비틀비틀 또는 장중하게) 정수(精秀)[정교하게 빼어남]하며 팽박(磅礴: 울퉁불퉁한 지세) 울률(鬱律)[산이 높고 지세가 굴곡하다]하여 호중(호서, 호남)에 명산이 되었고,

그 남쪽 깊은 축동은 국명(局名)이 신도안이니 조선 초에 정도하고자 3일간 역사했으나 결과적으로 못했지만 초석이 오히려 존재하고, 그 부근의 지명이 한양과 더불어 서로 같으며, 서쪽에 용연이 있는데 지극히 깊고 또한 넘쳐나 국중(局中)에 큰 시내가 되어 남으로 주입된다.

산의 남북 또한 명승이 많으니 서쪽으로 신원사와 감사가 있고 절

의 곁에 서산, 사명, 영규 세 대사(大師)의 표충사(表忠祠)가 있고, 동으로 동학사가 있으며 절의 곁에 삼은각(三隱閣) 즉 정포은, 이목은, 길야은 삼현의 제각이 있고, 그 곁에 숙모전(肅慕殿)이 있으니 조선 단종 손위(遜位)에 원통히 죽은 3상 6신과 김매월당 등 6신의 혼을 불러 설단하여 제사하는 곳이다.

세조가(이 부분이 의심스럽다) 행어 행차에 비단 글을 내리어 단종 및 종실 이하 절개를 지키다 죽은 제신들의 혼을 불러 제사하도록 명하므로 초혼각을 세웠었다 고종조에 편액을 숙모전이라 하고 아울러 사람들이 향화하고 있다.

서쪽 지맥은 굴곡으로 판치가 되고 완연(蜿蜒: 꿈틀꿈틀한 모양)하다가 돌기(突起)하여 월성산과 봉황산이 되니 즉 공주읍 진산읍으로 북에는 쌍수산성이 있고, 금강의 위쪽에 서리어 끝맺었으므로 그 형상이 흡사 ‘公(공)’자와 같은 고로 주(州)의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 산세로 인하여 성을 쌓아 한도를 보장하게 되었다.

조선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하여 남으로 행어하실 때 여기에 머무르신 것은 위에 쌍수가 있기 때문이었으니 인조께서 매양 한 나무를 의지해 북쪽을 바라보시더니 하루는 기마가 날듯이 급히 이르러 첩서를 드리는지라 인조께서 대희하여 쌍수를 봉하여 통정대부로 더해서 부르게 하더니 뒤에 관에서 산상에 작은 정자를 세우고 쌍수정이라 이름하고 정자 아래 머물게 된 사적 비각을 세웠는데 지금은 나무는 고사하고 정자만 남아있다.

북쪽에는 공북루(拱北樓)가 있으니 자못 장려하고 강을 임해 있는 명승이다. 곁에는 영은사가 있는데 산을 등지고 흐르는 물을 임해 있어 경치가 또한 아름답다. 판치부터 또 서쪽으로 달려 부소산(부여)이 되었으니 즉 백제의 고도라. 동쪽가로 반월성이 있고 성안에는 유인원의 비각이 있으며 서쪽가에는 고란사 낙화암[백제가 망하자

궁녀가 바위에 올라 강물에 몸을 던졌다 함]이 있고 위에 백화정, 사자루의 경치가 다 절승하며 천정대[백제 때 매양대에서 사람을 가려 서로 절했다 함], 조룡대[소정방이 목마른 용을 낚았다 함],

자온대[의자왕이 매양 잔치하고 놀 때 간신들이 먼저 불을 놓아 따뜻하게 하고 스스로 따뜻해졌다고 품하여 일컫는 말이라 함], 대재각[효종이 이문정공 경여의 상소에 비답으로 준 '지극한 아픔 마음속에 있는데 해는 저물고 길은 멀다' 는 글을 그 후 송문정 시열이 글씨 써서 문정공의 아들 문간공 민서에게 주니 문간공의 종자 충문공 이명이 돌에 새기고 누각을 세움], 수북정[김홍국이 세움] 등이 동서 강안(江岸)에 산재해 경치가 절승하고 아름답다.

평제탑[소정방의 공을 기록한 탑 ※지금은 정립사지탑으로 부름] 소정방석상, 김유신비들이 아울러 들 가운데 서있고 많은 고적으로 인하여 명소들이 되었으나 능히 상술하지 못하고 이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망월산(석성)이 되고 산세가 또한 강을 임해서 수려하다.

또 판치의 한 지맥이 남으로 내려와 노성산(노성)이 되었는데 산봉우리들이 돌기하여 계룡산과 더불어 상치하고 위에는 석성이 있는데 성안에는 부처를 모신 암자들이 많다. 올라와 경치를 보면 그 상봉은 니구봉이고 그 남쪽기슭 아래에 궤리사(闕里祠)가 세워졌으니 즉 공자와 주자의 두 분에 제사지내는 곳이다. 그 남쪽 30리허 반야산(은진)에 관촉사가 있으니 고려 광종 때[거금 970년 전] 중 혜명이 돌로 미륵을 세웠는데 높이가 54척으로 동양 석불의 최고가 되며 매년 단오에는 남녀들이 가서 절하는 자 만여 명이나 된다.

금강 서북에 모든 산이 진천 길상산[김유신이 이곳에서 생겨 태를 묻은 고로 일명 태령산이라 한다]으로부터 서남쪽에 작성(전의) 오봉(연기) 등 산이 완연[품틀거리는 모양]하여 기복하며 더불어 동방의 모든 대령(大嶺)들과 상대해 있고 또 연면히 천안에 뻗쳐 온양의 경계 위에 재가 솟아 연암산이 되었고 산 아래는 온천이 용출하여 고래로 유명한 온천이다.

차령이 공주의 경계 상에 재로 솟아서 준령과 깊은 계곡이 서려서 돌고 굴곡 하였는데 그 북방에 한고개가 점점 낮아져 통행하니 즉 차현(車峴)이라 한다. 연하여 무성산 태황산(공주)까지 뻗게 되어 그 가운데 북쪽에 마곡사가 있으니 즉 신라 고찰로[조선 세조가 유람 행어하여 영산전 석 자를 서액했다 함] 33층 석탑이 있고 현재 충남의 본사이다.

또 남으로 달려 대치, 백월(청양) 칠갑(정산) 성흥(임천 산성이 있음) 등 제산이 벌려 우뚝하고 금강의 서쪽에 오서산이 있으니 홍주의 남쪽 경계다. 봉우리가 높고 높아 구름까지 솟았고 그 아래로 여러 봉우리들이 멀리 멀리 나열되어 한 지맥은 남으로 달려 성주산(남포) 만수산(홍산)이 되었는데 동쪽에 무량사가 있으니 즉 김 매월당이 신선으로 화한 곳이다. 또 연해서 뻗쳐 아미, 비홍(홍산) 명월(비인) 천방(서천) 등 제산이 되었다.

가야산은 덕산 서쪽 경계에 있는 데 동쪽에는 가야산, 동학(洞壑)이 있는데 즉 상고 때 몽왕(蒙王)의 궁궐터라 하고 서쪽에 수렴동이 있는데 바위에 폭포가 절경으로 기특하다. 북으로는 강학동이 있고 무릉, 수석이 또한 아름답다.

기타 높이 솟은 입암(아산) 태미 다불(면천) 신암(당진) 상왕(해미) 성왕(서산) 백화[태안, 산맥이 바다 위에 서려서 맺어진 안홍산성] 등 모든 산이 비틀거리며 뻗어가 기복하여 우뚝한 산들이 본도의 서북해상에 나열되어 있다.

□ 하류(河流)

금강은 본도의 진강(鎭江)으로 그 근원이 둘이 있으니 하나인즉 덕유산에서(무주) 출발하여 달계(용담) 소라진(무진) 고당강(영동)에서 들어오고, 하나는 속리산(보은)에서 발원하여 황간 영동(삼천 송천)에 여러 물들과 합쳐져 서쪽으로 흘러 옥천 동북에 이르러 차탄 화인진이 되고 적등진에 이르러 고당강과 더불어 합해서 흐른다.

말흘탄, 이원진, 신탄진이 되고 공주 동북에 이르러 동진강과 함께 합해져 흐르다 남쪽에서 나뉘어 와탄(瓦灘) 금강진, 웅진(공주)을 통하여 백마강(부여)을 통하여 강경포에 이르러 진강이 되고 임천, 한산, 서천 등 군의 동쪽 경계를 지나 군산의 바다로 들어간다.

동진강(일명 작천)은 진천 대문령에서 발원하여 여러 봉들의 사이에 허다한 계수를 합하여 남쪽으로 청주 문의를 지나 연기에 이르고 동으로 부용진(부강)이 되었다. 공주에 이르러 동으로 금강으로 들어간다.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빛이 맑고 아름다워 깨끗한 모래가 미륵천[원류는 차령에서 나옴]의 물에 펼쳐졌다.

북으로 흘러 신창에 이르고 단양포 정포가 되더니 서쪽으로 전류(轉流)하여 아산 영인산변의 회정에 이르러 돈곶진[백원산에서 출발]에서 더불어 서로 합쳐져 태호(아산만)가 되고 수문에 나가 모아서 바다로 들어간다. 하구는 일대 암석으로 참연(巖然: 보통보다 훨씬 높은 모양)히 높이 서서 모양이 발해의 갈석과 같다.

그 북은 소사평(직산) 백리 큰 들로 정유왜란 때 명나라 제록마귀가 원병(猿兵)(※ 援의 오자일 듯) 놓아 이곳에서 대첩한 곳이다.

□ 해안(海灣) 및 도서(島嶼)

아산만은 충청 경기 간에 있어 전·후 두 만으로 나뉘었으니 전만(前灣)은 즉 옛날의 온포요 후만(後灣)은 즉 공세곶(貢稅串)이니 호에 옛날 본도의 공세미를 배로 실어다 옮겨 쌓았던 땅이기 때문이다.

당진포는 당진군에서 북으로 30리에 있는데 옛 수군 만호진으로 배를 정박하기에 편의해서 그런 고로 옛날 중국에 사신이 왕래하는데 중요한 나루였다. 채운교와 석문산이 있어 양국 사신이 부시(賦詩)를 지으며 칭찬하며 보던 곳이어서 그 이름이 자못 저명하였다.

맹곶은 난지도 초락도 등이 열립하여 당진호와 더불어 서로 하나의 만(灣)을 싸안고[서양 사람들이 네시 부손만이라 함] 있어서 선박을 정박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었다. 서쪽에는 서산, 태안 간이 깊숙이 들어와 즉 굴포만이고, 동으로는 천수만이 있고 굴곶이 깊이 들어와 좋은 항이다.

그러나 암초가 많고 모래가 얇아 배로 실어 옮기기에 마땅치 않고 동산포(결성)는 내해에 임해 있으나 조류가 심히 급해 불편하였다. 그러나 안면도가 전면이 벌려 있어 자못 좋은 경계가 있었다.

보령진[옛 수군절도진] 또한 내해를 베고 안면도와 더불어 서로 바라보며 서호 및 영보정이 함께 있어 산과 바다가 좋은 경치로 무수한 작은 섬들이 서남쪽에 벌여 있으며 기타 마량진 비인만[일명 도두음곶(都豆音串) 동백정이 있다]은 서천포와 아울러 연해에 있으나 다 물이 얇아 큰 배가 정박하기에 마땅치 않다.

금강배수구에 용당진이 있으니(서천) 전라북도 군산항과 더불어 강을 격해 상대하여 서울과 남쪽 철도의 종점으로 점차 발전하니 장차 충남의 일대 항구가 되리라.

태안반도는 서산과 더불어 겨우 통하는 하나의 길뿐이고 삼면이 다 둘러 바다라 서쪽엔 안흥진과 소근진이 있고 백화산맥이 두출[산세가 쏙 내밀음]하여 해중으로 들어가 암초가 위험하여 배로 실어 옮기다 낭패하기가 많았던 고로 안흥량을 일컬었으니 동방 일대가 깊은 바닷물을 안고 내해엔 수십의 섬들이 나열하여 가로로 바다에 뻗치고 형태가 기괴하며 백사장이 물가를 수십 리나 주회하며 박지(葍池)가 있고 춘절을 당할 것 같으면 해당화가 찬란하게 피어 향기가 십리에 퍼진다고 소문이 나 있다.

안면도는 횡으로 태안 남방에 연해 있고 길이가 70리 광이 2~3십리로 여러 봉우리들이 둘러 벌려 있어 계곡에 골들이 심히 많아 처

처에 경포[거울 같은 포구]와 금모래가 있고 풍경이 아름답고 수려해 어가의 집들이 떼지어 있는 촌락들이 즐비하고 또 농사로 영리하여 사는 백성들이 산출이 크게 풍부하여 옛날 평파 일대가 화목하고 더불어 연해있는 고로 안면곶이라 칭했다.

안면도 서남은 군도가 흩어져 나열해 있어 서쪽엔 죽도가 있어 대화살의 산지였고 남쪽엔 요아랑, 파지도가 있어 다 옛날에 수군이 둔쳐 막던 곳이며 청도엔 토지가 비옥하고 옛 돌성의 유지가 있어 세칭 전횡도라 하고 간월도[옛 백련암이 있었던 곳 무학이 이곳에서 나왔다 함] 가의도, 삼시도, 연도, 외연도, 백아도, 울도, 이작도, 굴다도 등이 멀고 멀리 산재해 있고 그 외에 작은 섬은 능히 다 기록하지 못한다.

조선환어승람(朝鮮寰輿勝覽)

보령군(保寧郡)

동으로는 청양군계가 30리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해안이 삼리에 이르고,
남으로는 서천군계가 40리에 이르고,
북으로는 홍성군계가 30리에 이른다.

건치연혁(建置沿革)

본시 백제 때 신촌현(일운 사촌) 신라 때 신읍으로 고쳐 결성군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 초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졌다. 현종 때 운주에 속했고 예종 원년(병술) 감무를 두더니 조선 태종 때 전례에 의해 현감이 되었고 효종 3년(임진) 수영과 합속시켜 부로 승격하여 부사를 겸하여 다스리게 했으나 인하여 도백 이후산의 장계로 다시 현감을 설치하더니 고종 32년(을미) 예규로 군으로 고치고 군수를 두었다가 순종 융희 4년 경술 후(대정 3년, 甲寅) 남포와 오천을 파하여 내속시키고 인하여 군수를 두어 지금에 이어진다.

신구속현(新舊屬縣)

남포폐현

본시 백제 사포현으로 고읍면 수안(水岸)에 있었는데 신라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서림군의 영현이 되었고 고려 현종 9년 가림현에 이속시키더니 뒤에 감무를 두고 공양왕 2년 처음으로 진성을 두었으며 조선 태조 6년 병마사를 두어 겸해서 판현사(判縣事)를 겸하게 하더니 세조 12년 진을 개혁하고 규례에 의하여 현감을 삼고 고종 12년 예규에 의하여 군으로 개정 군수를 두더니 순종 융희 4년 경술 후 갑인에 개혁되어 본 군에 소속되다.

오천폐현

본시 충청도 수군절도사 진영으로 고종 광무 6년 진을 폐하고 군수를 두었다. 순종 융희 4년 경술 후 갑인에 개혁되어 본 군에 소속되다

군 명(郡名)

신촌, 신읍, 유성, 보령(사포, 마산, 남포)

산 천(山川)

진당산 : 군 북쪽 20리에 있다.

오서산

군 북쪽 20리에 있고 천안 광덕산으로부터 왔으며 높이 799m 즉 충남 서부의 거악으로 오행 형체로 되어있는 고로 일명 오성산 이라 하며 우편에 내원암이 있고 아래에 성연촌이 있고 현인(賢人) 재호(才豪)들이 다 이 산 아래에서 나왔다.

- ◎ 이동구(李東九) 호는 미산(峴山) 여주이씨, 의헌공(毅憲公) 광수(光輸)의 후예, 시가 있으니

鬱碧嵯峨近碧空
울벽차아근벽공

울창히 푸른 산은 벽공까지 솟았는데

鍾英未必讓衡嵩
종영미필양형송

아름다운 경치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으리

秀形排立東南界
수형배립동남계

동남의 경계에 벌려선 빼어난 경치

寄勢分成十二峯
기세분성십이봉

열두 봉으로 나누어진 기이한 형세

聖高千年猶有跡
성고천년유유적

높은 곳엔 천년의 자취가 남아있고

太皇一世最多功
태황일세최다공

오랜 옛날부터 세상에 많은 것을 주었다

今來古往相傳語
금래고왕상전어

지금이 오고 옛것은 갔다고 서로가 말들을 전하는데

隨序風烟也不窮
수서풍연야불궁

계절 따라 바람안개 끊이지 않는다

- ◎ 성혁기(成赫基) 호는 이운(怡雲) 창녕성씨, 문효공(文孝公) 사달(士達)의 후예 벼슬은 성균관 교수, 시가 있으니

山號以星星五宜
산호이성성오의

오성의 별이름을 산이름으로 붙였지만

五星精彩畫難移
오성정채화난이

별빛까지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려움도다

西南郡距中間屹
서남군거중간屹

서남의 두 고을 중간거리에 우뚝 솟아

十二峯回次第奇
십이봉회차계기

열두 봉이 차례대로 기이하게 서 있다

內院寺深僧禮佛
내원사심승례불

내원사 깊은 곳에 승려는 예불하고

聖堂里僻士歌芝
성당리벽사가지

성당의 마을 두메어 수사가 찬송한다

有如錦繡蔥蔥裡
유여금수葱葱리

비단에 푸른 수를 놓은 듯한

佳景不同隨四時
가경불동수사시

아름다운 경치는 계절마다 변하는구나

◎ 정석조(鄭奭朝) 호(號)는 청은(靑隱), 동래정씨로 문익공(文翼公) 광필(光弼)의 후예, 시가 있으니

一 抹烏山聚五星 오서산 한 곳으로 오성이 모여
 일 말 오 산 쥘 오 성

鳳飛龍臥固爲形 봉이 날고 용이 누은 듯 진실로 형상을 이루었구나
 봉 비 용 와 고 위 형

百年貨寶多天造 오래 가는 부귀는 하늘이 만들지만
 백 년 화 보 다 천 조

幾個英豪應地靈 여러 영웅호걸은 지령에 의해서 나온다
 기 개 영 호 응 지 령

欲洗塵埃西抱海 진세의 티끌 씻어버리고 서해를 안았고
 욱 세 진 애 서 포 해

遠分州鎮下通峒 멀리 구역을 나누었어도 아래에서 들은 서로 통한다
 원 분 주 진 하 통 경

輿圖千載曾何漏 여지도는 천년 전 일찍이 어떻게 뚫어보았나
 여 도 천 세 중 하 루

信筆於今著竹青 믿음 있는 기록은 지금까지 글로 싱싱하게 나타난다
 신 필 어 금 저 죽 청

◎ 김봉성(金鳳聲) 호(號)는 동련(東蓮), 벼슬은 학부주사(學部主事), 시가 있으니

登覽名山愛亦宜 명산에 올라보니 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등 략 명 산 애 역 의

應從鰲背此間移 삼신산이 이곳으로 옮겨온 모양이다
 응 중 오 배 차 간 이

自生公益藏無盡 사람이 유익한 것이 무진장 자생하고
 자 생 공 익 장 무 진

特立形容大且奇 특이하게 서 있는 모습은 크고도 기이하다
 특 립 형 용 대 차 기

競集騷人尋古寺 시인 묵객들이 모여들고 옛 절을 찾는데
 경 집 소 인 심 고 사

幾多隱士採靈芝 몇몇의 많은 은사들은 영지만 캐는구나
 기 다 은 사 채 영 지

淸天削出雲常住 하늘 향해 솟은 산은 구름 항상 끼었는데
 청 천 삭 출 운 상 주

山降於斯必有時 이산에서 내려갈 땐 필요한 때가 있어서이겠지
 산 강 어 사 필 유 시

※ 鰲背 : 여섯 마리 자라가 삼신산을 지고 있다는 데서 인용한 것임

- 백월산(白月山) : 군 동쪽 15리에 있다.
- 고만산(高巒山) : 군 서쪽 10리에 있다. 옛 진수처(鎭戍處)가 있었다.
- 천마산(天馬山) : 군 서쪽 12리에 있고 옛 진성(鎭城)과 여러 마塚(馬塚: 말무덤)이 있고 층암의 형세가 창칼 같은 형세를 하고 있다.
- 조익원(趙翼元) 호(號)가 몽호(夢胡). 한양조씨 돈계(遯溪) 일찍이 문묘직원을 역임함. 시가 있으니

天 馬 山

一山峻嶽聳天根 <small>일 산 준 율 천 근</small>	높고 험한 산이 하늘 밑에 솟았는데
堡堞天年尙有痕 <small>보 첩 천 년 상 유 흔</small>	천년이 지났어도 옛 성터 흔적이 남아있다
馬塚荒涼新草合 <small>마塚 황 양 신 초 합</small>	말무덤은 황량한데 새 풀들만 어우러졌고
龍宮深邃老猴喧 <small>룡 궁 심 수 노 후 환</small>	깊은 연못엔 산짐승 소리만 시끄럽다
叅差古木旌旗列 <small>삼 차 고 목 경 기 렌</small>	높고 낮은 고목들은 깃대처럼 서있고
磅礴危巖鈴戟翻 <small>박 위 암 경 극 번</small>	울퉁불퉁 바위들은 번득이는 창칼 같구나
遯世幽人居此地 <small>세 유 인 거 차 지</small>	깊은 곳 이 땅에서 세상을 숨어 살며
躬勤稼穡教兒孫 <small>궁 근 가 색 교 아 손</small>	몸소 부지런히 농사짓고 손자들이나 가르치려다

※ 磅礴(방박) : 혼합하여 하나가 됨 : 장자에 ‘萬物以爲磅礴’ 이란 말이 있다.
가득 찬 모양 - ‘磅礴이鬱積’ 이란 말이 있다.
팽박-울퉁불퉁한 모양

- 왕대(王臺)(왕대산) : 군 남쪽 5리에 있음
- 지을현(地乙峴) : 군 동쪽 20리에 있음
- 타고산(打鼓山) : 군 서쪽 15리에 있음
- 아현(我峴) : 군 서쪽 15리에 있음
- 사읍현(沙邑峴) : 군 남쪽 15리에 있음
- 관암(冠岩) : 군 남쪽 12리에 있음. 고려 말 김장군 성우(金成雨)가 왜적을 토멸할 때 관을 벗어 돌에 걸었던 고로 인하여 이름이 되었다고 사실이 읍지에 실렸음.
- 해(海) : 군 서쪽 12리에 있음
- 대천(大川) : 대천면 시장 앞에 있음 원류는 성주산에서 나옴
- 화암천(花巖川) : 군 북쪽 15리에 있음
- 청현천(靑峴川) : 군 북쪽 10리에 있음
- 백로주(白鷺州) : 군 동쪽 16리에 있음
- 군입포(軍入浦) : 군 남쪽 15리에 있음. 해안은 고려 말 김장군 성우가 왜적을 토멸할 때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했던 곳이라 이로 인하여 이름이 됐다 하고 지금은 어항이 되었다.
- 해포(蟹浦) : 군 서쪽 14리에 있다.
- 이천폭포(伊川瀑布) : 군 남쪽 이천 리 뒤에 충암 간에 있다
- 용연(龍淵) : 오서산 아래 있으며 절벽이 막아서서 비단 병풍을 매달은 것 같고 길기가 가히 천척(千尺)이 되어 기특하고 절묘한 형상이라고 할만하다.

● 부사 유탁연(柳卓然)이 시가 있으니

一自龍飛去 일 자 용 비 거	물줄기는 한 마리 용이 나는 듯
深湫更作灘 심 추 갱 작 단	깊은 웅덩이 이루었다가 다시 여울을 이루네
常留山外雨 상 유 산 외 우	산 밖엔 항상 비가 오는 듯
時灑古仙壇 시 채 고 선 단	계속해서 고선단에 물을 뿌리네

※ 고선단 : 옛 신선이 놀던 곳

- 나원천(蘿院川) : 군 동쪽 20리에 있음. 원류는 만령(晩嶺)에서 나와 대천으로 유입됨
- 옥계(玉溪) : 군 북쪽 15리에 있음. 원류는 오성산(오서산)에서 나와 대천으로 유입되며 석벽에 특별히 ‘玉溪’라 새긴 두 글자가 남았다. 앞에는 옥계정이 있다.
- 이상 원래 보령이다.-
- 옥마산(玉馬山) : 군 남쪽 10리에 있다.
- 무이산(武夷山) : 군 남쪽 10리에 있다.
- 성주산(聖住山) : 군 동쪽 10리에 있고 여러 봉우리들이 나열하여 푸르름이 하늘 향해 꽃혀 있는 듯하고 좋은 돌과 영약이 산출되고 위에 백운사가 있고 중간엔 성주사가 있어 천년 고적으로 석조유적들이 자리잡고 있는 고로 세상에서 명승자라 말하더라

● 승 도선의 시가 있으니

行行成州山前路 <small>행행성주산전로</small>	성주산 앞길을 걸어가노라니
雲霧重重不暫開 <small>운무중중불잠개</small>	구름안개 질게 끼어 잠시로 견히지 않는구나
看取牧丹何處折 <small>간취목단하저절</small>	모란이 어느 곳에 있는가 꺾어 보렸더니
靑山萬疊水千廻 <small>청산만첩수천회</small>	청산은 만첩이요 물은 천 굽이로구나

- 구룡산(九龍山) : 군 남쪽 20리에 있다. 성주산 내맥
- 운봉산(雲峰山) : 군 남쪽 30리에 있음
- 주렴산(珠簾山) : 군 남쪽 35리에 있음
- 통달산(通達山) : 군 남쪽 37리에 있음
- 양각산(羊角山) : 군 남쪽 35리에 있음

◎ 정혁세(鄭赫世) 학행편을 볼 것. 시가 있으니

- 九星羊角半浮天 공중에 반쯤 떠있는 양각산
구성양각반부천
- 湖海群山擁後前 산과 물 바다가 전후에서 옹위한다
호해군산옹후전
- 關地化翁多費力 조화옹(조물주)이 힘들여 이 땅을 만들었겠구나
벽지화옹다비력
- 養來東表幾英賢 동방에 표해둔 이곳에서 몇 명이나 영웅현사가 길러
양래동표기영현 졌던고

- 백산(柏山) : 군 남쪽 30리에 있음.
- 아미산(峨嵋山) : 군 동쪽 35리에 있음. 월명산의 내맥이다.
 위에는 증대암이 있고 금지사가 있으며 명승으로 큰 산이다.
- 금강산(金剛山) : 군 동쪽 30리에 있고 성주산 내맥으로 일천봉
 우리가 나열되어 기묘 절승하다. 조로화가 양봉에 피어 있어
 세칭 소금강이라 한다.

◎ 이지함(李之菡) 유현편을 보라. 시가 있으니

- 聖住幹龍接玉馬 성주산에서 내려온 줄기가 옥마산에 접해 있고
성주간룡접옥마
- 一朵牧丹向東開 한 송이 모란이 동쪽을 향해 피었구나
일타목단향동개
- 羊角蹲蹲如虎踞 양각산에 올라앉으면 호랑이 등을 탄 것 같고
양각준준여호거
- 峨嵋轟轟抱龍回 뽕족한 아미산 줄기가 용처럼 감싸고 도는구나
아미족족포룡회

- 등경산(燈檠山) : 군 남쪽 10리에 있다
- 대천(大川)[웅천 대천을 말함] : 군 남쪽 30리에 있고 원류는 홍산
 방치(房峙)에서 나와 청련포에 유입된다.
- 청련포(靑淵浦) : 대천(웅천) 아래 지금의 완장포(莞場浦)
- 저수지(貯水池) : 남포면에 있고 새로 독을 쌓다
- 용암천(龍岩川) : 군 남쪽 40리에 있음

- 도화담(桃花潭) : 군 남쪽 30리에 있음 아미산과 성주산의 두산에 물이 합쳐 흘러 못을 이루고 완장포로 내려 흐른다. 위에는 박효자촌이 있으니 즉 도화담리이다.
- 응암(鷹巖) : 용암천에 있으며 상층바위 절벽이 매가 나는 것 같은 형세로 웅위하여 서 있는 듯 휘장을 펼쳐놓은 듯 비단수를 놓은 병풍 같아 이름난 재상이며 큰 선비들이 이름을 새겨 놓은 것이 오히려 남아있다. (매바위)
- 용연(龍淵) : 도화담 아래에 있고 깊이가 가히 천척(千尺)이나 되는데 세상에선 노(盧)씨 삼강연(三綱淵)이라 칭함.
- 탁영암(濯纓岩) : 화산리에 용추(龍湫) 위에 있고 바위 위에 가히 수십 인이 앉을만 한데 이재(彝齋) 백이정(白頤正)이 물러나 은거할 때 휘파람 불고 시 읊던 곳이라 한다.
- 생명보호제방(生命保護堤坊) : 웅천면 성동리에 있고 길이가 700간(間) 높이가 3간 통해서 활동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길에 기념비가 있다.
- 웅동제(瓮洞堤) : 남포면 저수지에 있음
- 동곡제(東谷堤) : 주산면에 있는 저수지
- 무창포(武倉浦) : 웅천면 관당리 해안에 있고 어선이 왕래하며 산물이 많고 해수욕장을 신설하여 명승이 되는 곳이다.

- 이상이 원 남포임.-

도 서(島嶼)

- 타고도(打鼓島) : 군 서쪽 12리에 있다
- 송도(松島) : 군 서쪽 20리에 있고 조수가 물러가면 고만도와 더불어 서로 통할 수 있다. 토정 이지함이 여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통행했다 한다.

- 죽도(竹島) : 군 서쪽 18리에 있음.
- 고만도(高巒島) : 주포면 고정에 있고 토정 이지함의 만점장신지(晩占葬身之地: 죽어 묻혀있는 땅)이다.
- 쌍오도(雙鰲島) : 오천 수영문 밖에 있는데 이 섬 이름으로 인하여 오천군이 되었다.
- 원산도(元山島) : 군 서쪽 바다에 있는데 태안만의 주회가 47리이고, 남북으로 배가 경유하는 땅으로 옛날에 군대의 창고가 있었고, 옛날에 수영의 우후(虞候)가 겨울과 봄인즉 들어가 거하고 여름이면 수영으로 돌아오고 했다.
- 삽시도(挿矢島) : 군 서쪽에 있고 주회가 59리 양록자(養鹿子)세전에 제주도에서 배로 싣고 와서 이곳에 놓았다고 한다.
- 외연도(外烟島) : 오천면에 있고 주회가 23리.
- 녹도(鹿島) : 주회가 25리.
- 개야도(開也島) · 오호도(嗚呼島) : 군 남쪽에 있고 지금은 청도(靑陶)라하고 물길로 200여 리인데 주회가 95리 토품(土品:땅의 질)이 심히 비옥하고 닥나무와 대나무가 생산되고 옛 성터가 있으며 세상에선 전횡도(田橫島)라 칭한다.

- 이상이 보령 -

- 울도(栗島) : 군 남쪽 월전리에 있음
- 맥도(麥島) : 월전리에 있으며 여덟 척의 줄이 병풍처럼 있어 자마석이라 하고 자시에 받드시 스스로 갈린다고 한다.
고운 최치원의 소유처라 한다.
- 거차라도(巨次羅島) : 웅천면 독산리에 있다.
- 황죽도(黃竹島) : 위와 같음
- 석대도(石大島) : 웅천면 관당리에 있음
- 죽도(竹島) : 군 남쪽 23리에 있음
- 해수욕장(海水浴場) : 무창포에 있음

- 이상 남포 -

군 세(郡勢)

- 면(面) 10면
- 리(里) 110리
- 호수(戶數) 12,320호
- 인구(人口) 72,220명

형 승(形勝)

◎ 청연철해옥마탱천(靑煙徹海玉馬撐天)

푸른 안개 바다에 걷히고 옥마산은 하늘 향에 우뚝 하도다

◎ 이안우(李安愚)의 시(詩)가 있으니

北顧雲生壑 북을 바라보니 골짜기 구름 생기고
북 고 운 생 학

南臨浪拍天 남쪽에 이르니 물결은 높이 파도친다.
남 립 낭 박 천

好風時自至 시원한 바람 때때로 불어오면
호 풍 시 자 지

快意坐簫邊 상쾌한 기분으로 주변에 앉아있다.
쾌 의 좌 주 변

※ 동국여지승람 보령편에 실렸음

◎ 산련동북해대서남(山連東北海帶西南)

산은 동북으로 이어졌고 바다는 서남쪽으로 돌렸다.

◎ 이병연(李秉延)의 시(詩)가 있으니

山連東北週遭立 동북쪽엔 산이 이어져 둘러 서있고
산 연 동 북 주 조 립

海帶西南流梁圍 서남쪽엔 바다가 둘러 흐른다
해 대 서 남 유 양 위

◎ 북진오산서위대해(北鎭烏山西圍大海)

북은 오서산이 방진이 되고 서쪽은 바다가 둘러있다.

◎ 정석조(鄭奭朝)의 시(詩)가 있으니

北鎮烏山天府國 북쪽으론 오서산이 방어진을 이룬 천혜의 고을이고
북진오산천부국
 西圍大海地雄州 서쪽으론 큰 바다가 둘러진 땅으로 살기 좋은 고을이다
서위대해지웅주

토 산(土産)

솜(棉), 삼(麻), 모시(苧), 벼(稻), 보리(大麥), 콩(大豆), 대추(棘),
 밤(栗), 감(柿), 배(梨), 대그릇(竹器), 도기, 사기, 애석(군 남쪽 월
 전에서 나옴) 오석(성주산 우치에서 나옴), 전죽(화살에 쓰는대)(죽도
 에서 나옴) 당귀, 백지, 작약, 맥문동, 복령, 은구어, 홍합, 청어,
 송어(秀魚), 굴(石花), 조기(石首魚), 복어, 김(해태), 전어, 도미,
 갈어, 민어, 농어(鱸魚), 金, 銀

기차역(汽車驛)

- 대천역 : 경남선(京南線)에 북으로 광천역과 접해 있고 남으로
 웅천역에 접해 있다.
- 웅천역 : 북으로 대천역과 접해 있고 남으로 주산역(간치역)에
 접해 있다.
- 주산역 : 북으로 웅천역에 접해 있고 남으로 판교역에 접해 있음

명 소(名所)

- 해수욕장 : 하나는 대천면 군입포(군들이)에 있고 하나는 웅천면
 무창포에 있다.
- 오 천 항 : 오천면 구(舊) 수군절도사영에 있음.

교 량(橋梁)

- 대천교 : 대천시장에 있음
- 청천교 : 청라면 북병리에 있음
- 웅천교 : 웅천면 대창리에 있음
- 라원교 : 청라면 라월리에 있음
- 주산교 : 주산면 시장에 있음

고 적(古蹟)

- 읍성 : 석축 주회 2109척(尺) 높이 12척 성내에 3개의 샘이 있다.
- 성황사 : 지을현 서쪽에 있다.
- 사직단 : 군 서쪽 20리에 있다.
- 당산성 : 군 동쪽 4리에 있다. 석축한 주회가 1,810척이며, 안에 샘 하나가 있다.
- 신라 경순왕사 : 옥마산 정상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 마량진터 : 웅천면에 있고 만암(晩庵) 이상진(李尙眞)이 순무하다 이곳에 이르러 배가 정박하기 불편하다 하여 비인에 옮겨 설치하다.
- 남포성 : 석축한 주회가 2476척 높이 15척 동남문이 있는 다웅성으로 되어 있고 안에 세 개의 샘이 있다.
- 오천성 : 석축으로 둘레 3,104척이며 높이 11척(충청수영성, 지금은 사적지로 지정됨)
- 구진성(舊鎭城) : 통달산에 있으며 옛날 병마를 두어 서해의 도적을 살피게 했다.
- 고소성 : 오천면 수영문 밖에 있음.
- 사현성 : 백산(栢山)[잔미산]에 있고 옛날 병마를 두었던 곳.

- 운봉성 : 운봉산에 있고 옛 병마를 두었던 곳.
- 사직단 : 남포면 야동(冶洞)에 있다.
- 옥미봉수 : 응천면 백산(栢山 : 잔미산)
- 구화역 : 주산면 창암리에 있다.

교 궁(校宮)

- 보령문묘 : 주포면 신성리에 있다.
- 남포문묘 : 남포면 옥마산 아래에 있다.
- 오천문묘 : 오천면 교성리에 있다.

원 사(院祠)

- 신안사 : 남포면 무이산 아래에 있고 주부자와 익재 백이정, 익재 이제현, 우암 송시열, 수암 권상하, 남당 한원진을 모신 곳이다.
- 화암서원 : 청라면 장산리에 있고 광해군 경술년에 세웠고 숙종 병인에 사액. 토정 이지함, 명곡 이산보, 천휴당 이몽규, 추배 4유재(四留齋) 이정암을 모셨다.
- 집성당 : 응천면 화정리에 있고 주부자와 우암 송시열, 삼희당 윤석봉이 창립하여 춘추로 향사한다.
- 영정각 : 미산면 용수리에 있고 익재 이제현 영정을 봉안했다.
- 수현사 : 용수리에 있고 매헌(梅軒) 염제신(廉悌臣)의 영정을 봉안했다.

사 찰(寺刹)

- 선림사 : 오천면 교성리에 있다.

◎ 조익원(趙翼元) 위를 보라. 시(詩)가 있으니

禪林寺在古營頭 <small>선림사재고영두</small>	선림사는 옛날 수영의 위쪽에 있는데
一面青山一面洲 <small>일면청산일면주</small>	한쪽은 청산이요 한쪽은 섬을 바라본다
背後烏岑來牧笛 <small>배후오잠래목적</small>	뒷산에서 목동이 풀피리 불며 오고
眼前龍島送漁舟 <small>안전용도송어주</small>	눈앞엔 용도 앞에 고깃배 지나간다
佛家梵唄傳今日 <small>불가범배전금일</small>	절집엔 염불소리 지금도 끊이지 않는데
騷客登臨感昔秋 <small>소객등림감석추</small>	소객은 이곳에 올라 옛 가을을 느끼노라
回憶昇平當世事 <small>회억승평당세사</small>	평화로웠던 그때의 세상사를 생각하나니
使君節鉞幾停留 <small>사군절현기정유</small>	그대로 하여금 절개의 도끼를 몇 번이나 멈추게 했던고

- 천정암(天井菴) : 오서산에 있다 정상에 올라 보면 이를 수 있다.
- 용화사(龍華寺) : 대천면 왕대산 북쪽에 있다.
- 성주사 : 성주산 아래에 있었다. 다만, 대낭혜화상(大朗慧和尚)의 비가 있으니 탐비문은 고운 최치원이 짓고 최인연이 쓴 것으로 높이 13척 광이 4척으로 귀두 상에 떠 있어 세칭 부석이라 하는데 해동 8대 기적의 하나이다.
- 옥계사 : 미산면 금강산에 있다.
- 백운사 : 미산면 성주산에 있으니 즉 신라의 고찰로 기특한 자취가 많은 절승한 형상이다.

◎ 정석조(鄭奭朝) 위를 보라. 시(詩)가 있으니

聖住山頭日影斜 <small>성주산두일영사</small>	성주산머리에 해그림자 기울었는데
白雲深處有禪家 <small>백운심처유선가</small>	흰 구름 깊은 곳에 선가(禪家)가 있네

頓忘歸路停驂立 귀로에 말세우고 서서
돈 망 귀 로 정 찰 입

歷歷看來總是花 지나온 길 바라보니 이곳이 다 꽃이었구나
력 력 간 래 총 시 화

□ 중대암 : 미산면 아미산 남쪽기슭에 있고 높은 산 절벽을 의지해 푸른 물 흐름을 굽어본다.

◎ 임선호(任宣鎬) 호는 돈암(遯菴) 풍천임씨로 화재(和齋) 자순(字順)의 후예 시(詩)가 있으니

中坵五月谷風寒 성주산머리에 해그림자 기울었는데
중 대 오 월 곡 풍 한

作雨靈泉寫石湍 흰 구름 깊은 곳에 선가(禪家)가 있네
작 우 영 천 사 석 단

緩步能攀天仞壁 천천히 걸어서 칼날같이 절벽을 부여잡고
완 보 능 반 천 인 벽

到頭更上一層欄 층층히 높이 올라왔다
도 두 갱 상 일 층 난

塙花不語還供笑 담장에 핀 꽃은 말없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장 화 불 어 환 공 소

林鳥無驚得慣看 숲속의 새들은 사람보고도 놀라지 않는다
림 조 무 경 득 관 간

喚起主翁翁自在 주인을 불러보니 주인노인은 그대로 있는데
환 기 주 웅 웅 자 재

齋僧河事拜神賣 잿간에 스님은 무슨 일로 신단에서 절만 하는가
재 승 하 사 배 신 단

두 번째(其二)

古寺鐘名後 옛 절에 쇠북이 울고
고 사 종 명 후

空山月上時 공산에 달이 떴는데
공 산 월 상 시

仙蹤憑學問 신선 있는 곳 학에게 물을까?
선 종憑 학 문

隱隱玉笙吹 은은히 들려오는 피리소리 ...
은 은 옥 생 취

◎ 임민호(任民鎬) 호는 소천(小川) 풍천임씨로 화재(和齋) 자순(字順)의 후예 시(詩)가 있으니

老佛觀心關海山 오래된 부처는 마음을 보고 세상이치 열어보련만
노 불 관 심 벽 해 산
 鐘聲每聽四時間 매일 듣는 종소리 언제나 한가롭다
종 성 매 청 사 시 한
 落花寂寂雲溪路 구름 낀 시냇길에 꽃은 떨어지고 고요한데
낙 화 적 적 운 계 로
 短髮牧童弄笛還 머리 짧은 목동만 풀피리 불며 돌아가네
단 발 목 동 농 적 환

◎ 임건재(任建宰) 호는 해석(海石), 풍천임씨로 화재 임자순의 후예 시(詩)가 있으니

蒼松斷壑一蹊幽 푸른 솔 계곡 사이에 으스스하게 난 지름길 하나
창 송 단 학 일 배 유
 剩得仙緣更上樓 신선의 인연이 남아있어 다시 루에 올랐다
임 득 선 연 경 상 루
 古塔天年雲影逗 천년의 그 탑 위엔 구름 그림자 머물고
고 탑 천 년 운 영 투
 諸天三界磬管流 온 우주 끝까지 석경소리 흐른다
제 천 삼 계 경 관 류
 尋春佳約侵花氣 봄이 오니 아름다운 약속처럼 꽃이 피는데
심 춘 가 약 침 화 기
 盡日寄談點石頭 하루 종일 기이한 얘기를 돌머리에서 나눈다
진 일 기 담 점 석 투
 借問禪房何所樂 묻나니! 선방은 어디가 제일 좋소?
차 문 선 방 하 소 락
 頓忘塵劫好相留 속세의 시간들 잊어버리려 함께 머물면 좋겠소.
돈 망 진 겁 호 상 류

◎ 이만영(李晩榮) 호는 우담(宇潭) 경주이씨 문충공(文忠公) 백사(白沙) 항복(恒福)의 후예 시(詩)가 있으니

中臺菴古不知年 중대암은 옛절이라 몇 년이나 되었는지 모르는데
중 탑 고 불 지 년
 惟有老僧望若仙 오직 노스님을 바라보니 신선 같구나
유 유 노 승 망 약 선
 遇托疎蹤秋日晚 우연히 찾아오는 드문 발자취 가을은 늦었는데
우 탁 소 종 추 일 만

浮生斷送世塵煙
부생 단송 세진연

속세의 사람들은 답답한 일들 잊어보려 한다

◎ 정석조(鄭奭朝) 시(詩)가 있으니

半輪秋月蛾岷山
반윤주월 아미산

가을밤 아미산에 반달이 떴는데

僧與白雲心自閒
승여백운심자한

흰 구름 깊은 곳에 스님과 함께하니 마음이 한가롭다

寂寂孤燈禮佛夜
적적고등례불야

고요히 외로운 등불아래서 예불하는 밤

鐘聲時出聞人間
종성시출문인간

종소리만 울려 인간 세계에 퍼진다

학 교(學校)

- 보통학교 : 대천면, 남포면, 오천면, 주포면, 청라면, 웅천면, 주산면, 미산면, 천북면에 각각 하나씩
-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 주포면에 있음.
- 심상고등학교(尋常高等學校) : 대천면에 있음.

부조묘(不祧廟)

- 김극성(金克成) : 훈신(勳臣)편을 볼 것. 묘(廟)는 청라면 장산리에 있고 제사하는 자손은 병현(秉鉉).
- 조창원(趙昌遠) : 자(字)는 대형(大亨) 양주 조씨 문강공(文剛公) 말생(末生)의 후예. 인조의 국구(國舅:장인)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에 봉해졌으며 나이 10세에 아버이를 따라 난리가 난 곳에 다다랐는데도 능히 좌우로 돌아보며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 시(諡)호가 혜목(惠穆)이며 묘(廟)는 청라면 장산리에 있다.

- **윤자운(尹子雲)** : 자(字)는 망지(望之), 호(號)는 낙한재(樂閑齋), 무송(茂松) 윤씨 송원(松原)부원군 경연(景淵)의 아들로 성종조에 좌리(佐理)공신 영상(領相) 무송(茂松)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헌(文獻), 묘(廟)는 웅천면 황곡리에 있음.
- **이기(李夔)** : 자(字)는 자후(子侯), 수안(遂安)이씨 참판 영견(永肩)의 손자. 중종조에 정국(靖國)공신에 기록되고 벼슬이 병판에 이르렀으며 요산군(遼山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경(文敬), 묘(廟)는 청소면 진죽리에 있다.
- **이시직(李時稷)** : 자(字)는 성유(聖兪), 호(號)는 죽창(竹窓), 연안이씨 문강공(文康公) 화헌(樗軒) 석형(石亨)의 후예. 문과 장령(掌令)으로 강화도에서 순절하다. 증(贈)이조판서 시호 충목(忠穆). 강화도 충렬사(忠烈祠)에 향사(享祀)하며 묘(廟)는 미산면 평라리에 있고 사손(祀孫)은 병직(秉直)이다.

수 비(豎碑)

- **대낭혜화상비** : 미산면 성주리에 있다. 높이 12척(尺), 너비 4척 비문은 고운 최치원이 짓고 최인연(崔仁澆)이 썼으며 귀두(龜頭)위에 떠 있어 세상에서는 부석(浮石: 떠있는 돌)이라 칭하며 해동 8대 기적의 하나라 한다.
- ◎ **이병연(李秉延)** 자는 백윤(伯允), 연안이씨로 좌찬성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충정공(忠定公) 묵재(默齋) 귀(貴)의 후예이다. 시(詩)가 있으니

山高聖住岳 성주산은 높는데
산고성주악

- 碑古儒仙文 옛 비에 유선의 글
비고 유선문
- 迓跡千年事 지난 자취 천년의 일을
황적천년사
- 問來只白雲 묻고자 왔으나 다만 흰 구름뿐이로다.
문래지백운

- 광성부원군 김극성(光城府院君 金克成) 신도비(神道碑)
 : 청소면 재정리에 있다.
- 이몽규 유허비(李夢奎 遺墟碑) : 대천면 독정리
- 이봉구 선정비(李鳳九 善政碑) : 주포면 관창리
- 민영상 불망비(閔泳商 不忘碑) : 응천면에 있다. 본도에 도백이 되었을 때 선정의 비가 있다.
- 심의신 송덕비(沈宜臣 頌德碑) : 응천면 화정리에 있다. 본도에 도백이었을 때 치적이 있다.
- 박홍양 송덕비(朴鴻陽 頌德碑) : 주포면 마강리에 있다. 본군의 자리에 있을 때 청백한 치적이 있다.
- 이건하 불망비(李乾夏 不忘碑) : 응천면에 있다 본도 관찰사일 때 진흥의 선정이 있다.
- 이석구 송덕비(李錫九 頌德碑) : 청라면 의평리에 있고 가난을 진흥하였으며 공경하고 은혜를 베풀어 한 고을이 살아가는 데 힘입었으므로 덕을 칭송했다.
- ◎ 김윤환(金閔煥) : 자(字)는 문화, 호(號)가 청암(淸菴), 통천(通川)김씨. 충신 응의(應漪)의 후예 고종조에 진사 벼슬이 내장원(內藏院) 경(卿)에 이르고 일찍이 다섯 군(郡)을 지나며 업적의 소리가 많이 있다. 빈궁한 자들을 진흥한 일이 많았고 혜택을 베풀어 송덕비가 남포면 옥동리에 있으니 새겨 말하되

寬廣之德 <small>관 광 지 덕</small>	널리 덕을 베풀고
愷悌其儀 <small>개 제 기 의</small>	그 모습이 화락하고 단아했으며
捐廩賑恤 <small>헌 름 주 름</small>	창고를 털어 기민 먹여 진휼함으로
萬口濟飢 <small>만 구 제 기</small>	수많은 사람이 배고픔에서 구제되었도다
篤誠尊聖 <small>독 성 존 성</small>	도타운 성심으로 성현을 존중하였으니
段木可師 <small>가 목 가 사</small>	큰 나무로 가히 스승이라 할만하다
遠近咸頌 <small>원 근 함 송</small>	원근이 모두 다 칭송하니
永世有辭 <small>영 세 유 사</small>	오랜 후세까지 칭송의 말이 있으리라

※ 개제(愷悌) : 용모 기상이 화락하고 단아한 것을 말함
 가목(段木) : 가(段)는 가(假)와 통하니 여기서는 ‘크다’ 는 뜻 즉 ‘큰 나무’

◎ 신흥리에 있는 송덕비에 새겨 말하되

公住公城 <small>공 주 공 성</small>	공은 공성에 거주하며
爲公干城 <small>위 공 간 성</small>	나라에 간성이리고
保民以寧 <small>보 민 이 평</small>	백성을 보하여 편안케 하니
惠及保寧 <small>혜 급 보 평</small>	보령에 은혜를 미치었도다
如雨賑穀 <small>여 우 진 곡</small>	비 쏟아지듯 곡식으로 진휼하고
如旱雨穀 <small>여 한 우 곡</small>	가뭄에 단비같이 양식을 베푸시었네
減賭農作 <small>감 도 농 작</small>	농사지은 자들에게 도조를 감해주니
舞稻農作 <small>무 도 농 작</small>	농사짓는 사람들은 춤을 추도다
奚潤九里 <small>해 윤 구 리</small>	여러 마을이 윤택해지니
海潤天里 <small>해 윤 천 리</small>	바다 밖 천리 까지도 윤택해지도다

德重頭 덕이 ()머리처럼 중하기에

頌刻龜頭 거북 위에 새겨 칭송하노라

- ※ · 한자(一字) 가 결손되어 없음. 최고 끝 내구(內句) 세 번째 글자
- 귀두(龜頭) : 빗돌을 말함. 유명한 비는 거북등 위에 많이 세웠기 때문
- ※ 말미에 두 자씩 꼭 같은 자를 쓴 것이 특이하다.

◎ 송덕비 주산면 신구리에 있음. 새겨 말하되

遠悅近來 원근이 모두 와서 기뻐하니

普惠如流 넓은 은혜가 물 흐르는 것 같았다

勸祖公審 만드는 걸 권장하여 공이 심사하여

褒賞拔優 우수한 자를 뽑아 포상하였다

便宜給苗 묘를 공급하여 편의케 하고

忠良刊編 충성스럽고 어진 자를 책으로 엮어 간행하였으니

片石可語 편석에나마 가히 말하여

永世美傳 영세토록 아름다움을 전하려 한다

◎ 송덕비 두룡리에 있음

順天誠意 천리를 거스르지 않고 순리로 성의를 다했으며

就仁且惠 인의롭고 또한 은혜로웠다

患其不能 걱정거리는 없애고

用之有節 일을 할 때는 절의를 중히 했다

以義親遠 친하고 멀리 하기를 의리로써 했고

施恩恤貧 은혜를 베풀어 가난한 자들을 구휼했다
 曾無憎愛 일찍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 없이
 常多謙和 항상 많이 겸손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 송덕비 신안면에 있음. 새겨 말하되

歲值饑荒 흉년의 해를 당하여
 邑里飢療 고을과 마을에 배고픔을 구료할 때
 村多未炊 촌에는 불 때지 못하는 집이 많고
 人呼突餒 사람마다 숨 쉬고 입속에 물기 돌릴 것도 없이 굶는데
 藍浦鳳村 남포 봉촌에
 賑貧救恤 가난한 자들을 기민 먹여 구휼하니
 周窮郭元 두루 가난하여 마음의 안정을 잃은 자들을 복원시키고
 活貧富弼 가난한 자는 살리고 부자는 도와
 濟世生靈 세상에 생명들을 구제하고
 前後休匹 전후에 아름다움에 짝 했으니
 德加五面 덕은 다섯 개의 면에 더해지고
 惠及萬人 은혜는 만인에게 미쳤도다
 豎碑頌德 비를 세워 덕을 칭송하나니
 生此款春 이곳에 흉년의 봄을 살게 했음을 ...

※ • 계(癸) - 계혈경와(癸穴庚渦)의 뜻을 줄인 것으로 입속에 물기를 말함.
 • 곽(郭) - 곽색(郭索)의 뜻을 줄인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잃은 모양을 말함.

◎ 송덕비 남포면에 있음. 새겨 말하되

世值飢荒 세치기황 세상에 배고픈 흉년을 당하여
 人多貧寒 인다빈한 사람들은 빈한한 자가 많은 고로
 境多饑孿 경다기 곳곳에 흉년으로 굶어죽은 자가 많은데
 誰有賑貸 수유진대 누가 있어 진휼미를 대여해 줄 것인가
 世遠魯肅 세원노숙 세상은 노숙의 시대에서 멀고
 人無文淵 인무문연 사람은 문연 같은 자가 없지만
 善心救恤 선심구휼 선심으로 구휼하려
 乃發廩粟 내발립속 이에 창고를 풀었기에
 德加兩面 덕가양면 덕은 두 개 면에 더해졌고
 惠被千人 혜외천인 혜택은 천인에게 힘입었다
 頌以且歌 송이차가 칭송하고 또 노래하며
 可豐口碑 가풍구비 가히 입소문이 풍성하구나

※ • 노숙 :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 일찍 재산을 나누어 빈민을 구제하여 주유에게 발탁되었다 한다
 • 문연 : 한나라 伏波장군 馬援을 말함. 만석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사람

◎ 송덕비 남포면에 있다. 홍성으로부터 옮겨 세움. 새겨 말하되

滔滔一世 도도일세 도도한 한세상은
 皆趨於利 개이리 모두 다 이익을 좇아 쏠리는데
 公惟行仁 공유행인 공은 오직 인을 행할 뿐으로
 惠及窮鄙 혜급궁부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치게 했다

土既均施 <small>토기균사</small>	땅을 이미 고르게 주어
穀又平均 <small>곡우평균</small>	곡식 또한 평균하게 하고
忠良之道 <small>충량지도</small>	충량의 길로 인도키 위해
購書勸勉 <small>구서권면</small>	책을 사서 부지런히 공부할 것을 권하였으니
此鄉奚獨 <small>차향해독</small>	어찌 이 향리에서만 유독히 그러했으랴
他方亦然 <small>타방역연</small>	다른 지방에서도 또한 그러했으므로
四里同聲 <small>사리동성</small>	사방에서 똑 같은 소리로 칭찬한다
紀石永傳 <small>기석영전</small>	오래도록 전하기 위해 돌에 기록하노라

◎ 송덕비 : 미산면에 있다. 새겨 말하되

施賑恤鄙 <small>시진훈부</small>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휼을 베풀고
設校育英 <small>설교육영</small>	학교를 세워 육영을 하였으며
架橋利涉 <small>가교이섭</small>	다리를 가설하여 건너기 편리하게 하고
均田助耕 <small>균전조경</small>	균전으로 경작을 도왔다
慕聖獎學 <small>모성장학</small>	성현을 사모하여 장학을 하였고
修道刊編 <small>수도간편</small>	수신 수덕의 길로 책을 간행하였다
頌德不忘 <small>송덕불망</small>	덕을 칭송하며 잊지 못하고
勒石以鐫 <small>녹석이전</small>	새기기 위해 돌에 새기노라

정 려(旌閭)

- 최광필(崔光弼) : 효자편을 보라. 정려는 응천면 대창리에 있다.
- 황정직(黃廷直) : 효자편을 보라. 정려는 응천면 황교리에 있다.

- 고씨(高氏) : 구사심(具思諶)의 아내. 정렬편을 보라. 정려는 주산면 삼곡리에 있다.
- 이선원(李善元) : 효자편을 보라. 정려는 남포면 소송리에 있다.
- 황유업(黃有業) : 효자편을 보라. 정려는 웅천면 황교리에 있다.
- 김씨(金氏) : 구익수(具益壽)의 아내. 정렬편을 보라. 정려는 청라면 옥계리에 있다.
- 이씨(李氏) : 구효민(具孝閔)의 아내. 위와 같다.
- 박세주(朴世胄) : 효자편을 보라. 정려는 미산면 도화담리에 있다.
- 조씨(趙氏) : 임세헌(任世憲)의 아내. 정렬편을 보라. 정려는 주산면 황률리에 있다.
- 오씨(吳氏) : 임성순(任聖舜)의 아내. 정렬편을 보라. 정려는 주산면 금암리에 있다.
- 백씨(白氏) : 이진영(李震榮)의 아내. 정렬편을 보라. 정려는 주산면 오상동에 있다.
- 김계환(金啓煥) : 효자편을 보라. 정려는 청소면 성연리에 있다.
- 조씨(趙氏) : 김인기(金寅基)의 아내. 정렬편을 보라. 정려는 위와 같다.
- 신씨(申氏) : 백낙완(白樂完)의 아내. 정렬편을 보라. 정려는 주산면 화산리에 있다.

석 총(碩塚)

- 백광원(白光元) : 남포백씨, 간관(諫官) 중학(仲鶴)의 후예, 신라 경문왕조의 명신. 묘는 원남포 심전면 양각산 서쪽 기슭 동막동 갑좌.
- 백이정(白頤正) : 유현편을 보라. 묘는 양각산 서쪽 기슭 동막동

선조 광원(光元) 묘 아래 갑좌에 있다. 신도비는 봉조하 김이양(金履陽)이 짓고, 예조판서 이익회(李翊會)가 썼으며 이조판서 서준보(徐俊輔)가 전(篆)하다. 갈명(碣銘: 묘비명]은 이조 서신 재식(申在植)이 짓고 지제교 송상래(宋祥來)가 쓰다.

- **임향(任珦)** : 명신편을 보라. 묘는 보령군 웅천면 평리 원남포현 심전면 양각산 동막동 묘좌원에 있다. 신도비명이 있으니 새김에 말하기를

“오직 우리 임씨는 멀리 고려 때부터의 씨족으로 바탕이 귀한 망족이었던 사실이 사서에 쓰인 바 공에 대하여 그 모아진 실마리로 지위에 이르름이 높이나 나타나 한결 같이 가리킴이 다시 없지 않으나 오직 험한 세상에 먼 세월을 면면하게 이어오는 중 그 자취가 민멸됨에 이르러 더불어 방묘를 징험 할 수 없게 되어 찾고자 하나 이루지 못하고 자손들이 심히 통탄하였는데 밝은 영혼의 감통으로 완옥이 드러나니 비록 저 사람들이 속이고 있지만 신표를 상고한즉 명백한지라.

옛날에 주부자께서도 잃어버린 조상의 산소를 수호할 것을 말씀했으니 유사를 불러 옛날을 되돌아보니 희미치 않게 천년이 서로 부합하는 바 그 일은 심히 기특한 지라. 이에 의논하고 추모하여 비를 만들어 전지 곁에 세우고 제사 지내게 되니 어찌 제수를 차리고 고축하는 것뿐이며 어찌 유택이 오래도록 평안하고 신도의 배부름을 주는 데뿐이겠는가.

천억 자손이 또한 같은 뿌리에서 가지의 영달을 말할 수 있고 오직 은덕에 보답하며 신령스런 이치에 어그러짐이 없이 근본을 알고 즐거워할 일이다. 산과 물이 맞잡고 푸른데 저 숲을 조건 자들(산의 권리로 분쟁하는 당사자를 말함)을 감결(용감한 결정)할 수 없어 혹은 상하고 우리 기록과 무덤으로 가는 길이 조서에 쓰이는 등 망망(흐릿하고 분명치 못함. 그 피곤한 모양)하도다.

경연관 방계 후예인 현회(1811~1876, 순조11~고종13호, 대사헌을 역임)가 짓다. 기해(1839, 현종 5년) 송사가 결정된 후 숙재 조선생에게 수호의 절도를 품고하였는데 선생이 안동김씨 태사묘단의 예를 이끌어 가르쳐주었다. 지석을 보려 해도 한번 잃은 바라 금일에 저들이 부수어 숨겼으니 대략 본 바와 같다. 계해년(1863, 철종 14년)에 다시 문서하였는데 조선생이 김씨의 묘단을 상고하고 가르쳐 말하되 지금 임씨의 모든 문적을 보니 그 본말이 자세한 즉 지석이 비록 부서졌으나 묘는 실재하니 김씨 묘가 징험할 것이 없어

단에 제사하여 의를 나타냄과는 같지 않다 하고 판명된 그 묘가 선산이 된즉 그 단을 파하고 직접 묘에 제사하도록 일렀다.

전재(임현회) 임 선생이 지은 신도비명이 이미 40여 년이 지나 지금에야 비로소 새겨 세우니 후손의 더딘 상고가 불초함이라. 오직 모두 탄식하노니 깊이 명심할 일이다. 통한이 진실로 백세에 무궁하나 유현(조병덕을 가리킴)이 정한 논리는 백세까지도 마멸되지 않을 것으로 모두가 위로하며 자손들이 추원할 일이다.

17세손 흥준 추기하고, 성균관 대사성 양주 조중엽은 쓰다.

- 김극성(金克成) : 훈신편을 보라. 묘는 청소면 재정리에 있고 비문은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가 짓고 현감 최응천(崔應天)이 쓰다.
- 조창원(趙昌遠) : 부조묘편을 보라. 묘는 대천면 죽정리에 있고 신도비는 우암 송시열이 짓다.
- 이지함(李之菡) : 유현편을 보라. 묘는 주포면 고정리 자좌에 있다.
- 이산보(李山甫) : 훈신편을 보라. 묘는 위와 같다.
- 이시방(李時昉) : 자는 계명(季明), 호는 서봉(西峰). 연안 이씨(延安 李氏) 충정공 귀(貴)의 아들. 인조조 정사공신으로 연성군(延城君)에 훈록되고 벼슬은 호조판서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충정(忠靖). 묘는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솟재 갑좌, 묘표는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가, 신도비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짓다.

연평부원군 시호 충정공 이공 귀(李貴)께서 세 아들을 두었는데 끝의 아들이 연성군이다. 이름은 시방(時昉)이요, 자는 계명(季明)이다. 연평부원군은 충효롭고 큰 절조가 있어 일찍이 상소하여 울곡 등 여러 어진 분들을 무고한 이산해 등의 간사함을 배척했다.

새 세상이 열렸던(인조반정을 말함) 계해(1623)년에 아들들과 더불어 승평부원군 김유(金瑬) 및 충의로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궁으로 나아가 인목대비를 받들고 그 위호를 회복시켜서 대비의 명으로 광해주를 폐하고 인조대왕이 즉위하게 하여 위로는 선조묘의 대통을 잇게 하고 몇몇한 윤리가 다시 바로 서고 종사가 편안케 되었으니 불세출의 큰 공훈이요 대업이라 할 수 있다. 공훈을 책봉할 때 공도 함께 군호(군으로 불림)에 책봉되었다.

정묘(1627)년에 호로(금나라)들의 침략이 있어 경계를 할 때 이에 앞서 공은 대부인(어머니) 심제(대상에서 담체에 입는 복)를 지키던 중 이괄의 난으로 인하여 기복(起復: 상중에 있는 관리를 탈상 전 관직에 다시 불러 쓰는 것)하여 나가 고을을 지키더니 공조 참판이 되고 이때 상장군에 이르게 되었으며, 강화도로 임금께서 피난 행어하실 때 공을 순검사로 삼으니 임금님보다 먼저 강화도에 가서 군의 모든 일을 정제하였다. 김공 유가 체찰사가 되어 여기에 왔으나 군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심히 격노했다. 공이 말하기를 주장(주관하는 장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니 비록 임금님의 수레가 이른다 해도 반드시 표신의 확인을 기다려야 문을 열 수 있다 했다.

임금님의 수레가 이르고 전담관에게 명하여 팔도 군에게 밥을 먹일 때 와전된 말이 있어 호로들이 벌써 성도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공은 단기(單騎)로 달려가서 사정을 알아보고 내력을 아뢰었다. 종묘가 정해지고 거듭 난민선과 운용할 물자들이 행재소에 이르렀다. 무진(1628) 3월에 광주(廣州) 목사 겸 방어사가 되었고 다시 교체되어 한성부 좌, 우 윤이 되었다. 계유(1633)년에 충청공이 세상을 뜨셨고, 병진(1636)년에 나주 목사였다가 본도(전라도)감사에 승진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남쪽 지방에서 군대를 조발하여 관서(마천령 서쪽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지역) 지방을 막으려 함에 공이 양서(평안도와 황해도)에 백성을 모집하여 병사를 만들고 남쪽 지방에서는 부세를 내게 하여 군대를 먹이게 하자고 청했으나 조정에서는 이 말을 쓰지 않았다.

이때에 호로들이 이 땅에 피를 바르는 침략이 이미 시작되었다. 공은 입암산 성을 쌓고 빠르고 더디고 간에 침략에 대비하더니 그해 12월에 호로의 철기(무장한 기마병)가 경기 서울 지방을 부수며 퍽박하여 쳐들어온지라 임금님은 남한산성으로 행어 하시게 되었다. 공은 군병을 모두다 병마절도사에게 소속시켜 신발케 하고 또 모아서 정년이 아직 되지 못한 나머지를 거느리고 이어서 가려 했다. 회의에서 다들 말하기를 본도에 머물러 병마절도사를 성원하고 또 합심하여 진압해야 한다고들 했다. 공이 울며 말하기를 주상께서 편안히 계신데도 차마 이 말을 했으랴. 마땅히 죽을 결심으로 남한산성 아래로 가리라 하고 출발하여 드디어 안성에 이르렀을 때 여러 도의 군사들이 서로 이어서 패하였다.

본도의 병마절도사인 김준용이 처음으로 험한 곳을 의지해 겨우 적졸을 죽였으나 또한 패하여 달아났다. 정축(1637)년 정월에 공이 병권을 받아 중군에 돌아왔더니 공주 목에 모이었던 군사들이 흩어져 도망한지라 두 원수가 방금 양근, 미월에 있다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고자 하여 청주의 경계에 이르렀는

데 호로들이 화친이 이루어져 돌아가고 임금님도 궁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공이 달려 나가서 청죄했다.

상의 특명으로 아직 입소에 다다랐는데 대론(대간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탄핵 하는 것)이 다시 발생하여 드디어 정산으로 정배되었다. 경진(1640)년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제주 목사에 배수되었다. 광해주가 먼저 이 섬 중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신사(1641) 7월에 죽었으나 바닷길이 험하고 먼 관계로 공이 섬 중에 여러 관속들을 거느리고 소복하고 들어가 친히 염습하고 후하게 다스려 결함이 없이 했다. 그리고 인하여 임의대로 천단한 죄를 청하니 이때 조정에 논의들이 모두 다 변고를 잘 대처했다고 칭찬했다.

임오(1642)년 병으로 교체되었다가 겨울에 광주(廣州)수어사가 되고 형조 참판에 배수되었다가 일로 인하여 파직되더니 갑신(1644)년에 다시 수어사가 되었으나 공의 백씨(공의 큰 형님 이시백)가 경기 지역의 군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보직에 있었음으로 불편함을 진정하고 힘써 사양하더니 마침 심기원의 역변 사건에 있어 말이 있고 광주(廣州)에서 뜰의 돌 아래 흉서가 있었는데, 뜻이 공을 지목함으로 공이 백씨(이시백)와 함께 대명하였는데, 논의가 오히려 이 글을 전파한 사람으로 의심 받게 되어 붙잡아 올릴 것을 청하므로 상이 하문 하시기에 이르니 염려 하는 일이 점점 난처하게 되어 갔다.

드디어 두 가지를 스스로 해명하고 공이 더욱 놀라고 두려워하여 힘써 직무에서 사직하려 했으나 상이 굳게 허락지 않으시고 뒤에 경연(임금이 학식과 덕망 높은 신하들과 경적이나 사서 등을 강론하며 학문을 닦는 자리)에서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왕년의 흉서 사건이 있었을 때 나는 연평(연평부원군)의 아들을 말하는 것에 반드시 그렇지 않다” 했다. 어찌 나의 충신을 의심하랴 하셨다. 공이 마침 입시하여 있다가 일어나 눈물 흘려 울며 절하고 말하기를 “신의 형제가 흉서에 나오므로 신등이 죽으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성상의 하교를 받자오니 만 번 죽어도 한이 없나이다.” 하니 상이 말씀하시기를 “경들의 자제들도 마음가짐을 다 경들과 같게 함이 옳다” 했다.

을유(1645)년에 청나라 사람이 와서 수탈 해 가느라고 배고프다 공갈해서 양식을 수송해 갈 때 공으로 그 일을 맡게 하니 마침내 뒤탈이 없게 했다. 여름에 소현세자가 죽으니 공이 명을 받고 도타웁게 일을 하였고 호조 참판이 되었다.

이 해에 마침 큰 침략이 있었다(청나라가 남경을 함락시킨 것을 말함). 공

이 가난한 백성들을 진휼하여 구제하는 일을 주관하였는데 다 정당하게 처리하였다. 공은 항상 백성들이 편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듦으로 대동법의 양식 제도에 우선할 수 있는 게 없다 했고, 가난한 해서(황해도)에서 결마다 쌀 5두씩 거두던 것을 공사 양편에서 지금 다만 3두씩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하고 시험 삼아 먼저 양호(호서, 호남)에서 실시해 보자고 상소로 청하니 상이 좋은 뜻이라고 하셨으나 결과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다.

그 후에 잠곡(潛谷) 김상공 육(金堉)이 마침내 공의에 붙여 쓰려 했으므로 호서·호남의 백성들이 고무하여 비를 세우고 덕을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형조 참판으로 교체되고 가의(嘉義: 가정대부나 자의대부)의 품계에 오르게 되었으며, 정해(1647)년에 병조참판으로서 자헌(資憲)에 오르고 다시 진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무자(1648)년에 공조판서에 배수되어 전년에 진휼청이 먼저 세워진 곳에 나머지 일을 맡아보도록 별도로 상평청을 두어 잉여된 그 일들을 관장케 하고 형조판서로 옮기었다. 기축(1649)년에 명을 받고 서문으로 나가 변방의 장수를 효시(죄인의 목을 베어 매달아 여러 사람이 보게 하는 것)하였으니, 군중에서 호로와 내통한 자였다. 개미구멍 하나가 뚫려 제방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5월에 인묘(인조)의 상빈(장례의 고위 책임자)으로 능을 치산하는 곳에 보내 지니 제조(각사 또는 청의 관제상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에게 그 관청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벼슬)로서 화려한 것만을 제일로 하고 흥청망청 하는 것을 경계하며 한결같이 검약하게 주관 했다.

9월에 형조판서에서 다시 정헌(正憲)이 더해져 부사로서 연경에 사신으로 갈 때에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구구하여 일 되어가는 기미를 예측할 수 없게 된 체 현지에 이르게 되자 사세 물질을 단속하는 관리가 심하게 본국 사정을 힐문하는데 근색하고 욕됨이 백가지라, 공이 죽음으로 항거하여 막아내었다.

호로가 장차 일만 기병을 동원해 동쪽으로 출병시켜도 오히려 이같이 은휘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으나 공이 움직이지 않으니 최후로 맘을 홀리면서 말하기를 김상헌, 조경, 김집 등을 주로 말하며 옛 신하들을 다 쫓아내고 다 새사람들로 쓰라 하고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또 대간들에 대하여도 주론(主論)하면서 힐문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나 또한 선왕(인조)조정의 옛 신하다. 어찌 이같이 대간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거듭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대개로 공은 절대 공포심이 없었다. 그런 고로 호로가 마침내 공을 굴복시키기는 불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청나라가 사신을 장차 직접 동으로 보내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지라 사신으로 본조에 몰래 밀통하여 먼저 기미에 대하여 말하고 잘 대응하도록 하였기에 청나라 사신이 이르러서도 다만 종실녀만 취해 가지고 가므로 청음(김상헌)을 비롯한 제공들은 면책되었다.

상이 또 수어사를 제수하시니 이때에 연양군(이시백)이 방금 훈련국의 군병을 관장하는 때라 공이 고사하므로 전과 같이 공조로 옮겨다가 다시 형조로 돌아왔는데 궁내 노비의 소송이 있어 상이 거듭 구명코자 하였다. 공이 간하여 말하기를

“본조에 글로 송사한 궁내 노비 문제는 열이면 다섯여섯은 이와 같이 성세(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는 좋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여기서는 현임금이 다스리는 때가 아닌 광해주 때의 일이란 것). 일찍이 대간의 탄핵에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공에게 답하되 사연을 상소로 말한 것은 경이 성심을 다한 것이나 오히려 사람들의 말거리에 이른다 하고, 호조로 옮겨서 폐단을 개혁하는 데 마음을 다하라 하시다.

김자점의 모역사건에 복주하여 말하는 자가 공을 엮어 역신과 친한 부류라 하니 상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믿지 못하겠다. 나라를 위해 성심을 다했는데 급하게 죄를 청하니 나는 그것에 놀랄 뿐이로다.” 하시고 다른 대신들도 또 청하였으나 아직 교체하지 않고 법도를 지행하며 상이 또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 직위를 교체 하면 이것은 곧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라.” 하니 사간 김좌명이 대론(대간, 즉 사헌부 사간원에서 하는 탄핵)을 열어 그르다 하고 김상공 육(堉)도 사퇴었다. 상이 말씀하시기를

“그 집에 3부자는 세전(세대로 전하는)하는 충효인데 어찌 대론을 열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 집의 세전하는 충성은 나의 어린 때부터 일찍이 감탄하며 보아온 터라.” 하시고 이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들을 배척하고 또한 공에 대한 추궁을 파하게 하고 진정시키었다. 공이 오랫동안 금오(의금부)에 나가 명을 기다리다가 이에 이르러 처음으로 강사(江舍)로 나가서 다스림에 나가 추궁에 합구했던 것을 말하기를

“신이 처음 심기원, 김자점 등과 더불어 훈적에 동참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찌하여 친부에 이르렀고 하면 김자점은 훈인과 관련된 연분이 견해 있고 모역의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불능히 따랐음이라. 대중의 분노와 매도가 이 같음은 인지상정이니 그것을 면치 못할 바이나 만약 마지막이 된다면 처음을 돌아보아 생각컨대 원통함이 극할 뿐입니다.” 하였다. 아가의

서용이 대간의 당상에서 주결 된 즉 돌아가 사례하고 강사 밖으로 나왔다.

호조판서에 배수되었던 때라 이때에 객사(청나라 사신)가 장차 이르러 즉 명패로 공을 부르므로 부득이 출사하였다가 호로의 사신이 간 뒤에 곧 사정을 고하니 비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정의 집 충의는 세상이 다 아는 바인데 한때의 사사로운 여론으로 누가 감히 통할 것인가. 유죄 무죄는 오직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 감히 월권이 있으랴.” 하니 그 뜻에 공은 황공해 하며 일을 보았다.

겸하여 수어사로서 인하여 재이(災異: 재앙이 되는 이상야릇한 일)에 대하여 진언하기를 “재앙을 그치게 하는 길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몸소 덕을 닦는 데 있는 것이니 이로 인하여 베푼다는 것이 시폐(시대의 폐단)에 심히 절실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아름답게 받아들였다. 또 진언하기를 “백성의 고락은 수령이 어진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린 것이니 비록 일일이 가려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큰 고을인즉 직책의 차례에 고하를 막론하고 가려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대책은 낭비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만한 것이 없으며 나머지는 민역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고 “궁가(왕족 등 힘 있는 사람들)에서 전횡독점하는 폐단을 또한 마땅히 금하고 끊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택하시었다. 호로의 사신들을 자주 대접하는 일로 시민의 곤폐가 과잉한지라, 나라에서 은포를 대출하여 이익을 취케 하고 다만 그 시민에게서 거두던 폐단을 없애 모든 고을에서 힘입게 하여 저축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편의하게 생업에 종사토록 하였다.

또 도움 일을 맡은 노비 총 19만에게서 지금 공물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다만 2만 뿐이라. 그 숨고 빠진 자들을 쇄출(추쇄해 내는 것)하여 경계를 돕고 나라에 쓸 것을 청하고 처음 비록 추쇄(수색하여 잡아 본래로 보내는 것)를 행했으나 또한 공변하고 바른 법규를 두어 지금 불가불 아울러 행했다. 사신의 일로 장차 서쪽으로 나가게 됨에 상이 연양군(이시백)으로 하여금 권한을 통찰케 하고 공의 직무에 일은 또한 달리 계산하여 겸직으로 금오(의금부 또는 호위하는 일)의 일을 총 관리하도록 했다.

또 형조로 옮기여 잘못을 저질러 수감된 자들을 신문(캐어물음)케 했으나 체직(직책을 바꾸는 것)할 뜻을 갖고 있었다. 여가를 빌어 호서에서 성묘하는 데 홀연히 번고스런 무지개가 있어 상하가 흥흥하고 두려워하는지라 즉시 조정으로 돌아와 백성들의 병고를 진소하여 또 남한산성 때 같은 어려운 시의에 베풀었던 상평청에 편리하지 못한 것을 두었던 것을 없애고, 대신들과

더불어 화폐제도의 불완전으로 일어나는 갖가지 병폐를 쟁론하고 다시 형조 판서로 돌아오니 도성에 급하게 다시 돌아온 자들이 3~4칸의 거주 문제로 종실과 송사하니 상이 공을 책하였으나 달리 할 여지가 없었다.

민공 정(閔鼎)이 거듭 상소하여 그것을 논하니 미안함에 이르러 말하기를 “한나라 때의 상산사호처럼 피해서 숨어 살고 싶다.” 고 했다. 상이 공을 보고 효유(알아듣게 일러줌)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허물을 반성하는 중이라, 경이 또한 상산사호처럼 나를 버리고 가버리면 누구와 더불어 나랏 일을 하랴.” 하시니 대개 상이 기뻐하거나 기롱하는 뜻이 애연(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한 모양)했다.

때에 공은 온 나라가 서쪽의 사신(청나라 사신)을 맞는 일에 열중인 관계로 인하여 국경의 경비가 텅 빈 것을 보고 일찍이 입시하여 자주 대책을 논의해 마지않았다.

문정공 송준길이 세월이 험악함에 연해(바닷가 근처 일대의 땅)에서 거두는 쌀을 감해 줄 것을 청하니 공이 산골에 고을까지 고루 감해 줄 것을 청하고, 또 서리들이 시민들과 더불어 간사한 일들을 넘쳐 나게 같이 해 놓고는 돈 많은 시민들만 독이형신(정쟁이를 때리며 캐어묻는 형벌)을 면케 해 주는 것을 공이 겨루어 막고 관료 회의에서 아울러 신문케 하니 물정을 보는 백성들의 감정에 통쾌해 하였다.

이때 호남에 대동법의 논의가 있었는데 공이 호서에서와 같이 할 것을 청하고 쌀 수십 두가 이외로 옳지 않게 더 거두는 것이 아직도 지탱되므로 한결 같은 절도를 갖고 바르고 밝은 제도를 쓰게 했다. 잠깐 있다가 일 때문에 형조에서 교체되어 공조판서가 되고 다시 호남에서 대동법을 거스르는 대신들의 뜻을 급하고 더욱 절실하게 청했다.

상이 매양 위로의 효유를 더하고 또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개정한 공물에 안건을 시행토록 명하였다. 대체로 상께서 이때에 지극히 묵은 폐단의 규제 법도를 크게 고치고자 하시니 공이 또한 마음을 다하여 구획함으로써 높은 지식으로 보답했다. 종종히 활과 칼을 안고 심산궁곡에서도 통절한 마음으로 분주히 비명처럼 부르짖지 않음이 없었으니 공께서는 매우 심한 특별함이 있었다.

매양 홀로 있는 곳에서는 불능함을 한탄하고 눈물 흘렸다. 현묘(현종)께서 즉위하시자 판의금을 겸하여 다시 호남의 대동법을 논하고, 또 바야흐로 남한산성의 상처를 수선하였다. 공이 이미 병들었는지라 송문정공(송준길)이

병문안을 가본 즉 정신은 어지럽지 않았고 더불어 말도 평일과 같았다 했다. 경자(1660) 정월 16일에 부음을 듣게 되니 향년 67세였다. 상이 특별히 명하여 예로써 장사 지내니 묘는 보령 우치(숫재)에 있고 좌향은 갑좌의 언덕이다.

충정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이 스승의 무고를 씻고 마침내 종사에 공업을 나타냈으니, 울연(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진 모습)한 문헌 중에 으뜸의 신화가 되었으며, 공은 연양군(형, 이시백)과 함께 즐기고 기뻐했었다. 문장에는 기력이 있는 글이었고, 약관에 이미 해득을 취했으며, 위에 거하여 해엄치며 잠깐 본 것을 시험 삼아 취하지 않고,

공은 자기의 온전한 뜻을 경륜과 훈련으로 해서 입조한 지 몇 차례였던고. 40여 년을 삼조에 역사하며 진심갈려하여 부지런히 극복하고 정성껏 극복함으로써 임금께 알아줌을 받았던 고로 변고를 지내고 험한 세상을 밟으면서도 신명에 옥의 티를 이루지 않고 그 쇠하고 저무는 때도 성심을 다하고 지혜가 더해져 터럭은 짧아져가도 마음은 신장되어 그 국가 대계를 진언드리고,

모두 법도에 거하여 그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 했은 즉, 위를 털어서 아래를 이익케 했으며 병법과 군사 문제에 관하여 논할 때는 형식은 숨기고 실속을 드러내니 그러므로 그 구획을 동적으로 하여 둘러서 두 끝을 매어 만나게 하였으며 마침내 갖은 뜻을 놓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가히 훌륭한 일을 하셨음에 감탄하는 바로다.

졸(卒)하신 날에 위로는 공경대부로부터 아래로 하인들에 이르기까지 탄식하며 애석해 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비록 본시 좋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그 충근함이 사실이었던 즉, 마침내 옥의 티가 될 만한 흠집을 잡지 못했으니 공은 가히 어진 분이라 하리라.

연안 이씨 시조는 당나라 중랑장 무(茂)이니 무는 소정방을 좇아 백제를 평정하고 머물러서 벼슬하고 연안 지방을 직(籍)으로 받아 그 후 세대에 귀중한 집안이 되니 본조의 문강공 석형(石亨)이 문장 훈업으로써 세조 때 명신이 되었고, 3세를 건너서 휘(諱) 기(李縷)는 정암(趙光祖) 문하에서 배우고 옥당에 선정되어 남상(南床: 조선시대 正字에 해당되는 정3품의 벼슬)의 지위에 나갔으며, 할아버지는 정화(廷華)이니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충정공 부인(공의 모친)은 장씨였다.

공의 배위는 이씨이니 부덕을 대단히 갖춘 분이었으며 그 친정아버지는 학생으로 검소하게 살았던 분이다.

공보다 7년 먼저 세상을 떴으나 아들 넷을 두었으니 회(恢), 관(慣), 항(恒),

준(僑)인데 회와 향은 모두 목사였으며 관은 참판이었고 준은 현감이었다. 딸은 셋을 두었으니 생원 한이명과 승지 김세정, 현감 이주에게 시집갔다. 참판(慣)은 아들이 의저·의저·규저이고, 의저는 현감이다.

목사(恒)의 아들 언저는 백부인 목사공(恢)의 후계가 되었다. 두 딸은 홍중래, 정각선에게 시집갔다. 현감(僑)의 아들은 겸저와 승저이며 딸은 김진옥에게 시집갔다. 내외에 증손이나 현손들이 너무 많으므로 다 기록하지 못한다.

나는 무술(1658)년 가을부터 효종 대왕과 외람되게도 유약(군사진영에 쓰는 장막)에 있으며 공과 매양 함께 좇아 용신하였는데, 우선 급선무 아닌 게 없었다. 기해(1659) 4월에 밝으신 명을 함께 받고, 특별히 국(局)을 설치하여 공안(貢案: 공물을 기록한 문서, 공물은 조정에 바치는 물건을 말한다)에 대하여 의논했다.

임금의 어가가 신선의 세계에 오르시던 때(※효종의 승하를 말함) 수개월 동안 피눈물 흘림을 서로 보았다.

나에겐 이미 그때의 나라님도 가시고 공 또한 서거하시니 지난날을 미루어 생각하건대 눈물 흐름을 이기지 못하겠도다. 이 어찌 나 홀로의 사사로운 일만이리오. 공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오히려 꿈속에서도 여러 자손들에게 국사를 말씀하실 고인이라 하리라.

사후에도 공은 가히 죽음이 또한 끝이 아니라고 말할 만하다. 모든 자손들이 직위를 지키고 그 뜻을 이어감은 다 같이 인묘(인조)의 성교(임금님의 훌륭한 가르침) 때문이니 충정공은 자손을 두었다고 가히 이를 만하도다.

지금 참판(慣)을 비롯한 제공이 묘도지문(묘지문이나 비문)을 부탁하기에 돌아보아 생각하니 어찌 차마 늙고 병들었다 하여 사양할 수가 있겠는가.

새겨 말하노니,

오직 연성군은 충정공의 아들이요 연양군의 아우이시다.

계해(1623)년에 다시 천리(하늘의 도리)를 극명하였을 때(인조반정을 말함)

아! 공이 도운 바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형이나 아버지에 못지않다 하니 능한 아들이었다 말 할 수 있으리라.

한 집에서 세 명의 충신이 나와 함께 기린각에 빛나니

사람들이 감히 비길 수가 없었다.

공평치 못하거나 기울어짐이 없었으되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무너지는 재앙을 만나기도 했었으니

공이 말하기를 오호라! 어찌 그 같을 수가 있으랴.
 오직 나는 의로움을 갖고 부지런히 수고로움을 다하여
 잠자는 것과 밥 먹는 것도 잊었다 했다.
 불꽃같은 충성과 지혜로 효묘(효종조)에서
 처음 복무하여 일할 때 어려움이 있었으니

사신의 임무를 분명할 때 청나라 조정의 뜻이 굳게 닫혀 외로운 객관에서 만
 단으로 공갈 협박하고 성낼 때에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기로써
 항거하고 술을 짙는(귀에 차마 듣기 어려운 소리) 거리끼는 힐문으로도 어찌
 할 수 없었다.

마침내 전 사류들이 이것을 좇아갔으며 국익을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성지
 (임금의 뜻: 여기서는 효종의 뜻을 말함)에 보답할까 하여 오직 백성과 병사
 들이 내외에서 성을 쌓고 못을 파며 무기와 병장기를 정비하려는 마음이 사
 람마다에 있었으나(효종의 북벌계획을 말한 것으로 보임) 우리의 일에 다른
 말을 지어내는 자가 있을 것을 누가 알았으리요

나는 병든 모년에도 성심으로 나갔으나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다 했다.
 죽은 뒤에 처음으로 조리 돌려짐에 이르렀고
 마침내 그것이 구명(究明)되었다(김자점의 역변을 말한 것으로 보임)
 공은 나라와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신 분이라 이르리라
 그 대강을 이 돌에 새겨 보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하리라.

- 원수신(元守身) : 명신편을 보라. 묘는 청라면 내현리 당내 앞산
 에 있다.
- 이경전(李慶全) : 호는 석루(石樓). 한산이씨로 훈신 산해(山海)
 의 아들이다. 인조조에 문과 좌참찬 기사(耆社:기로사)에 들어갔
 으며 한평(韓平)부원군에 봉해지고 묘는 주포면 고정리 자좌에
 있다.
- 이무(李袤) : 명신편을 보라. 묘는 대천면 원갓머리 임좌에 있고
 신도비는 변암(樊麓) 채제공(蔡濟恭)이 짓다.
- 이관(李慣) : 자는 중습(仲習)이며 회(恢)의 아우. 효종조에 진사

공조참판 총융사(總戎使)를 지내다. 묘는 우치(牛峙:숫재) 백씨(伯氏) 묘 앞에 갑좌이고, 신도비는 문충공(文忠公) 남구만(南九萬)이 짓다.

- **이유민(李裕民)** : 명신편을 볼 것. 묘는 웅천면 황교리에 있음.
- **이창수(李昌壽)** : 명신편을 볼 것. 묘는 주산면 창암리 원 남전리 해좌에 있고, 비문은 아들 판서 병정(秉鼎)이 짓다.
- **정홍순(鄭弘淳)** : 명신편을 보라. 묘는 천북면 원 말마지(末馬地)에 있다.
- **이응식(李應植)** : 명신편을 보라. 묘는 남포면 봉덕리 오좌에 있다.
- **이경재(李景在)** : 명신편을 볼 것. 묘는 청소면 죽림리에 있음.
- **조병덕(趙秉德)** : 유현편을 볼 것. 내평리 통달산 해좌에 있음.
- **민치록(閔致祿)** : 여흥민씨 여양부원군 유중(維重)의 사손(祀孫)이다. 음사(蔭仕)로 첨정(僉正). 고종의 국구(國舅) 증(贈) 영상, 여성(驪城)부원군. 시호 순간(純簡)이며 묘는 주포면 관산리 을좌에 있다.

명 묘(名墓)

- **김성우(金成雨)** : 충신편을 볼 것. 묘는 청라면 소양리 발산(鉢山)에 있다.
- **김한(金漢)** : 원종훈(原從勳)편을 볼 것. 묘는 웅천면 원 양창동(陽暢洞) 축좌에 있고, 묘표는 대사성 규장각 검교, 직각(直閣) 지제교(知製敎) 김상덕(金商惠)이 짓다.

◎ 새겨 말하되

곰곰이 생각하니 단종이 손위한 세상에 집현전의 제현들이 의로움에 이를 용납지 못하고 죽지 않으면 대체로 생육신 같았은즉 반드시 죽음은 없었다 해도 의에는 대개 죽고 삶이 비록 다르다 해도 절의의 길은 함께 돌아가는 것이었다. 고로 우재(愚齋) 김공도 왕도를 따름이었다.

뒤에 휘(諱)자는 한(漢)이요 처음 휘(諱)자는 복(樸)이다. 적(籍:관향)은 경주이니 먼 선조는 휘(諱) 인관(仁瑄)으로 고려조에 태사가 되었다. 삼사부사 휘(諱) 영백(英伯)에 이르러는 양주목사 휘(諱) 대(垓)를 낳았으며 목사는 휘(諱) 자공(自恭)을 낳았으니 국초(조선조 초)에 벼슬이 봉래였으며 이분이 공의 증조이고 상촌(桑村)이라 칭하던 휘(諱) 자수(自粹)는 종숙이었다.

공은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 벼슬이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에 이르렀고 원종공신에 기록되었으나 단종 계유(1453)에 벼슬을 버리고 남포에 숨어 살았는데 을해(1453)에 손위 소식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매일 술에 취해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태도를 감추었으나 기실은 마침내 분함에 몸이 상해서 병을 이루어 이해 동 시월에 졸(卒)하니 묘는 남포의 양청동(陽靑洞) 축좌원에 있다.

배위는 광산김씨로 군수 극윤(克胤)의 여식이니 공과 더불어 같이 무덤 드렸다. 일남(一男)을 두었으니 아들은 돈(惇)이요 주부(主簿)였고 손자는 셋이니 큰손자는 부사 윤보(允輔)요, 다음 손자는 정랑 윤형(允衡)이요, 그다음 손자는 진사 윤충(允忠)으로 남포에 세거하며 세 파로 나뉘었다.

오호라! 공이 걸은 길은 중시 비록 죽음에 이르지는 아니했더라도 뜻은 실로 살 마음이 없었으니 그 절개가 높았음이다. 이는 족히 매월당(김시습)이나 추강(남효은) 제현과는 달리 숨겨질 일이 아니다. 이후에 마침내 인멸하여 후세에 그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는다면 어떠하겠는가?

대개 풀을 깎듯이 선한 동류들은 나머지 벼슬을 버리고 도회(韜晦: 재주와 지식 학식 등을 감춤)하였으니 범촉(犯觸: 일을 저지름)하는 것을 보고 이때에 피했던 것인즉 그 자손은 반드시 기쁘지 못했고 야인(野人: 보통 사람들)의 송설(誦說: 말로 전하여 하는 말들)뿐이었으며 또 여러 차례 병화에 불타다 보니 문헌들이 흩어져 버렸은즉 이와 함께 태어나고 죽고 벼슬의 차례들이 그 상세함을 잃어버린 바라

회옹부자(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상에 그 선함이 있다 해도 밝게 드러내어 전하지 못하면 뒤에 어질지 못함이 된다 했으니 지금 척(尺)의 빛돌에 족적을 기록하는 것이 비록 소홀하고 간략하나 가히 그 선한 것을 밝게 드러내기에는 족(足)하니 공의 자손은 가히 일러 인의 근본을 알게 되리라. 또 오는 자로 하여금

그 열사의 감추어진 체백(몸과 넋, 정신기력 등)을 알게 함이니 애연(藹然: 왕성한 모양)히 느낀 바가 있음인즉 또 가히 일러 백세에 나약함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되리라.

- 이몽규(李夢奎) : 학행편을 볼 것. 묘는 대천면 독정리에 있음.
- 이희삼(李希參) : 학행편을 볼 것. 묘는 주포면 관창리 원 후동에 있음.
- 이덕온(李德溫) : 명환(名宦)편을 볼 것. 묘는 주산면 증산리에 있음
- 이회(李恢) : 자는 대이(大而), 호는 수경당(水鏡堂)으로 연안이씨 충정공(忠靖公) 시방(時昉)의 아들이다. 벼슬이 상주목사였고 묘는 오천면 우치(牛峙:숫재) 친산의 우측 기슭 갑좌에 있다. 묘표는 문정공(文正公) 이재(李緯)가 지었다.
- 이항(李恒) : 자는 사상(士常), 호는 동계(東溪). 관(慣)의 아우로 동춘당(송준길)의 문인이며 벼슬이 가선(嘉善)대부로 함께 돈녕부(敦寧府)에 있었다(同知事に 당함). 묘는 오천면 효치(孝峙) 봉수동 임좌에 있고, 묘표는 문경공(文敬公) 박필주(朴弼周)가 짓다.
- 이언저(李彦著) : 자는 대이(大而: 잘못 기록된 것 같다. 위에 이회(양부)와 자가 같기 때문이다), 호는 계당(溪堂). 현종조에 문과 지평이었고, 묘는 할아버지 충정공(忠靖公) 묘 우측 기슭의 간좌에 있다.

누 정(樓亭)

- 무이정(撫夷亭) : 객관 동쪽에 있었으며 세종 임자(1432)에 현감 정세달이 어풍(馭風)이라 편역하고 박눌생(朴訥生)이 기록했다. 성종조에 현감 박적손(朴迪孫)이 증수하고 관찰사 정미수(鄭眉壽)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최부(崔溥)가 기록을 지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 빙허당(憑虛堂) : 무이정 서쪽에 있었으며

● 박은(朴聞)의 시(詩)가 있으니

地迫未窮千頃海 지 락 미 궁 천 경 해	땅끝에 넘실대는 끝없이 넓은 바다
山開猶納一頭潮 산 개 유 납 일 두 조	산이 열린 곳으로 한머리 조수가 들어온다
急風吹霧水如鏡 급 풍 취 무 수 여 경	바람불어 안개 걷히고 물은 거울 같은데
近渚無人禽自謠 근 저 무 인 금 자 요	가까운 물가엔 사람은 없고 새들만 노래하네
客裡每爲清境惱 객 리 매 위 청 경 뇌	객지에서 매양 맑은 경계 위하여 고뇌하지만
可邊更覺故園遙 가 변 경 각 고 원 요	해질 때는 고향동산에서 노닐던 일 다시 생각한다
苦吟不去乏新語 고 음 불 거 펍 신 어	고향에 가지 못함을 새로운 시어로 씩씩히 읊어보며
愁見落暈沈遠霄 수 견 낙 운 침 원 소	하늘끝 멀리 바다에 잠기는 낙조를 시름에 겨워 바라보노라

※ 동국여지승람에도 보령편에 기록되어 있음

□ 객관(客館) : 남포 구읍에 있었음

● 이승소(李承召)의 시(詩)가 있으니

萬古孤松在 만 고 고 송 재	만고에 외로운 성 있으니 (松은 城의 오자)
山河表裡雄 산 하 표 리 용	산하는 앞뒤가 웅장하다.
嵐深恒作雨 남 심 항 작 우	깊은 안개 항상 비를 만들고
海近苦多風 해 근 고 다 풍	바다가 가까워 바람이 많아 고통스럽다.
鹽竈燒烟白 염 조 소 연 백	밥 짓는 연기 희게 오르고
漁村返照紅 어 촌 반 조 홍	어촌엔 저녁노을이 붉구나.
行穿竹林去 행 천 죽 립 거	대 숲길을 뚫고 걸어가노라니
蒼雪糝途中 창 설 삼 도 중	푸른 대에 눈이 내려 길에 쌀가루가 뿌려진 것 같네.

※ 「동국여지승람」 남포편에도 실려 있음.

- 해산루(海山樓) : 보령구성 안에 있다
- 공해루(控海樓) : 오천 영문 내에 있고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이 편액을 쓰다.
- 영보정(永保亭) : 오천 수영성 안에 있고 연산 갑자(1504)에 수사 이양전(李良填)이 바다 어구에 세웠는데 이 정자를 호서의 명승이라 했다.

◎ 박은(朴聞)의 시(詩)가 있으니

地如拍拍將飛翼 지여 박박장비익 파도가 땅 쳐대니 장차 날아갈 날개짓 소리 같고
 樓似搖搖不繫蓬 루사 요요불계봉 누각은 흔들흔들 제멋대로 매놓지 않은 것 같다.
 北望雲山欲何極 북망운산욕하극 북쪽 마을 바라보니 산 구름은 어디로 향해가려는가
 南來襟帶此爲雄 남래금대차위웅 남쪽에 펼쳐이며 오는 이 웅장함이어
 海氣作霧因成雨 해기작무인성우 바다기운이 안개이루더니 어어서 비가되고
 浪勢蹴地自起風 랑세번지자기풍 물결은 하늘까지 일며 바람 일어나서(地는 天의 오자)
 暝裏如聞鳥相叫 명리여문조상규 어둠 속에서 새 지저귀는 것처럼 들린다
 坐間渾覺境俱空 좌간혼각경구공 앉아있는 곳 혼미함에서 깨어난 경계는 공허가 함께 할 뿐이다

※ 동국여지승람 보령편에도 실려 있음

◎ 송영망(宋英望)의 시(詩)가 있으니

樓外平湖百丈清 루외평호백장청 누각 밖엔 바다가 아스라이 넓고 맑은데
 熬擎雙鳥小蓬瀛 오경쌍도소봉영 자라가 들고 있는 쌍도는 작은 봉래와 영주로다
 衿三帶五滕王閣 금삼대오등왕각 몇 명의 선비와 관원들이 근무하는 관청
 陰閨陽開細柳營 음합양개세류영 그늘 걷히고 해 비친 영내에는 실버들이 드리워졌다
 露兔高時羣動息 노토고시군동식 높은 곳엔 때때로 산토끼들이 뛰놀다 쉬고

神驅戲處萬波驚 망아지 신명나게 뛰노는 곳에 파도가 넘실댄다
신 구 휘 처 만 파 경
 冷然自悟長生訣 냉연히 스스로 오래 사는 비결을 깨달으니
냉 연 자 오 장 생 결
 不必眞仙在玉京 참으로 신선이 있다는 옥경루가 필요치 않구나
불 필 진 선 재 옥 경

※ 오경(鰲擎)자라가 들고 있다는 것은 원래 삼신산이 여섯 마리의 자라가 등에 지고 있다는 데서 온 말. 등왕각(滕王閣): 여기서는 관청을 그렇게 간접표현 했다

◎ 박충원(朴忠元)의 시(詩)가 있으니

江亭高壓碧波心 강호에 높은 정자 푸른 물속을 눌렀는데
강 경 고 압 벽 파 심
 勝賞湖南豈似今 호남[중국호남성에 황학루와 악양루가 있다]의 명승을 보
승 상 호 남 기 사 금 았다 해도 어찌 지금 이만이야 하겠는가
 賓主歡娛稀萬古 주객이 서로 즐기기 매우 드문 일인데
빈 주 환 오 희 만 고
 明朝回首惜分袂 내일아침 돌아갈 길에 헤어질 것을 아쉬워하네
명 조 회 수 석 분 금

◎ 성언공(成彦功)의 시(詩)가 있으니

高亭迥出碧山頭 높은 정자는 푸른 산머리에 솟았는데
고 경 형 출 벽 산 두
 倦客登臨騁遠眸 게으른 나그네 멀리서 보고 정자에 올라본다
권 객 등 림骋 遠 眸
 潮入江干侵野濶 가엔 조수가 들어와 넓은 들을 침노하고
조 입 강 간 침 야 환
 波連滄海蹙天浮 바다에서 쉬지 않고 밀려오는 서늘한 파도는 하늘까
파 연 창 해 축 천 부 지 뚫다 가라앉는다
 歌聲激烈魚龍舞 노랫소리에 어룡도 격렬히 춤을 추는데
가 성 격 령 어 용 무
 詩興罕籠景物愁 시름 때문에 경물을 보아도 시흥이 굳게 막혔네
시 흥 노 롱 경 물 수
 獨立飄緲遺世慮 홀로 쓸쓸히 서서 세상근심 보내버리고
독 입 표 요 견 세 려
 仙槎更欲泛河流 신선같이 배 띄우고 다시 물 따라 흘러가고자 한다
선 사 갱 욱 범 하 류

※ 迥: 멀형, 倦: 게으른권, 騁: 달릴빙, 眸: 눈동자모, 干: 물가간, 滄: 서늘할창, 蹙: 찌르러질축
 激: 급할겨, 罕: 굳을노, 籠: 엮을농, 飄: 날릴표, 緲: 날릴요, 槎: 메사, 泛: 뜰범

◎ 이안눌(李安訥)의 시(詩)가 있으니

城上危樓跨太清 성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누각에 앉아 있으니 대단
성 상 위 루 과 태 청 히 쾌청하도다

仲捫星斗俯滄瀛 별이 만져질 듯 시원한 바다를 굽어본다
중 문 성 투 부 창 영

汀洲島嶼神仙窟 신선이 살 듯한 물가의 섬들이며
경 주 도 서 신 선 굴

舸艦旌旗節度營 절도영의 깃발은 배위에서 펄럭인다
가 함 정 기 절 도 영

老病乘輶孺子笑 늙고 병들어 초헌을 타고 가니 어린이들이 웃어대지만
노 병 승 초 유 자 소

秋風按劍健兒驚 가을바람은 젊은 병사들도 무서워한다
추 풍 안 검 건 아 경

鯨濤宜指三山路 큰 파도는 의당 삼신산 가는 길을 가리켜 줄 테니
경 도 의 지 삼 산 로

八月孤槎入帝京 팔월에 외로이 배를 타고 옥제가 계신 옥경루에나 들어가 볼까
팔 월 고 차 입 제 경

※ 跨:길터앉을과, 捫:어루만질문, 俯:굽을부, 瀛:바다영, 舸:큰배가, 輶:초헌초, 鯨濤:고래 같은 파도, 큰 파도를 뜻함.

◎ 황오(黃五)의 시(詩)가 있으니

愁來陟倚仲宣樓 걱정이 있어 중선루에 올라 의지해 보니
수 래 척 의 중 선 루

碧樹涼生暮色適 푸른 나무 시원한 바람 속에 날이 저물려 한다
벽 수 양 생 모 색 주

鰲背海空風萬里 자라섬 뒤에 바다는 공허한데 바람은 만리에서 불어오고
오 배 해 공 풍 만 리

鶴邊雲盡月千秋 학이 나르는 하늘가에 구름 걷히고 달은 천추에 빛난다
학 변 운 진 월 천 추

連漢使乘槎路地 한나라 사신이 연해서 배를 타고 오던 길이요
연 한 사 승 차 로 지

地接秦童採藥洲 진나라 동남동녀들이 불사약 캐러 오던 땅이다
지 접 진 동 채 약 주

長嘯一聲凌顯氣 길게 한번 휘파람불고 크게 호흡해 볼 때
장 소 일 성 능 호 기

夕陽西下水東流 석양은 서쪽으로 떨어지고 밀물은 동으로 흐르네
석 양 서 하 수 동 류

※ 適:다할주, 凌:지낼능, 顯:클호

- 만취당(晩翠堂) : 청라면에 있고 진사 김맹권(金孟權)이 세웠다.
- 우정(憂亭) : 대천면 남곡리에 있다. 김극성(金克成)이 세웠다.
- 지계정(支溪亭) : 청라면 역산(驛山)에 있고 이병천(李秉天)이 세웠다.
- 귀학정(歸鶴亭) : 청라면 위현(渭峴)의 위 금자동(金紫洞) 아래에 있고 동계(東溪) 이산광(李山光)이 세웠다.

◎ 스스로 지은 시(詩)가 있으니

解組還鄉里 <small>해 조 환 향 리</small>	벼슬에서 풀리어 향리에 돌아와
閒居十載餘 <small>한 거 십 재 여</small>	한가롭게 산지 십 년여
砌栽紅錦樹 <small>채 재 홍 금 수</small>	섬돌 앞에 단풍나무를 가꾸고
床積綠籤書 <small>상 적 륜 칩 서</small>	책상에 새로운 책들을 쌓아 놓았다
魏闕丹心苦 <small>위 권 단 심 고</small>	조정에선 일편단심 지키기 고통스러웠는데
江湖白髮疎 <small>강 호 백 말 소</small>	강호에선 백발만 성글어 가는 구나
平生多慷慨 <small>평 생 다 강 개</small>	평생에 강개함이 많았건만
今日竟歸虛 <small>금 일 경 귀 허</small>	오늘도 마침, 허망히 돌아갈 뿐이다

※ 慷慨 : ① 의분이 북바쳐 슬퍼하고 한탄함
② 뜻을 얻지 못한 모양

◎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의 시(詩)가 있으니

歸鶴亭猶在 <small>귀 학 정 유 재</small>	귀학정이라 이름은 있으나
亭空鶴不留 <small>정 공 학 불 유</small>	정자는 비었고 학도 머물지 않는다
壇明天漢近 <small>단 명 천 한 근</small>	단에는 두렛이 은하수가 가깝고
簾重海雲流 <small>렴 중 해 운 류</small>	여러 겹의 발 같은 바닷구름만 흐른다

月落泉鳴夜 달은 지고 샘물 소리만 들리는 밤
월 낙 천 명 야
 山高露滴秋 높은 산 가을날에 이슬만 맺히는데
산 고 로 적 추
 無由聞遠笛 까닭없이 멀리서 젓대소리 들리고
무 유 문 원 적
 歧路雪盈頭 갈림길 머리엔 눈만 쌓였다
기 로 설 영 두

◎ 후손 승하(承夏)의 시(詩)가 있으니

築亭世日遠 정자를 지은 지 세월이 오래 되어
축 정 세 일 원
 鶴去雲空留 학도 가고 구름만 하늘에 떠있구나
학 기 운 공 유
 地僻松身大 땅은 궁벽한데 소나무는 크게 자랐고
지 벽 송 신 대
 山深磻水流 산은 깊어 계곡물만 흐른다
산 심 간 수 류
 吊春月鵲夜 봄날의 달밤엔 두견새만 울고
적 춘 월 견 야
 史寒露菊秋 차가운 가을엔 들국화가 핀다
사 한 로 국 추
 追慕多餘感 추모하는 느낌 많이도 남았기에
추 모 다 여 감
 悠然坐石頭 유연히 돌머리에 앉아 있노라
유 연 좌 석 두

※ 史 : 화미의 뜻, 빛난다 즉 피었다.
 悠然 : 태연한 모습, 침착한 모습.

- 문월정(問月亭) : 군수 김극량(金克讓)이 세움
- 열파정(閱波亭) : 현감 김근행(金謹行)이 세움
- 옥계정(玉溪亭) : 청라면 옥계리에 있다. 이정민(李貞愍)이 세웠다.
석벽에 옥계(玉溪) 두 자를 새기었다.
- 가소정(可笑亭) : 청라면 장현리에 있다. 김이철(金履澈)의 호는 가소(可笑)이고 안동김씨이다. 선원(仙源) 상용(尙容)의 후예로 은거하여 휘파람 불며 시 읊는 뜻으로 세운 것이다.

◎ 시(詩)가 있다(역자의 말: 작자미상이나 뒤에 현손이 증수했다는 것으로 보아 현손 弘圭의 작품이 아닐지)

莫素一間可笑亭 막소일간가소정	한 간의 가소정이라 웃지 마오
亭名從古各有形 정명종고각유형	정자 이름은 예부터 각각 형세대로 있는 것
先生心事本如水 선생심사본여수	선생의 심사가 본래 물과 같아
八耋光陰以笑經 팔칠광음이소경	팔십 평생을 웃으며 지냈다오

제 영(題詠)

□ 서거정(徐居正) : 자는 강중(剛仲), 호는 사가정(四佳亭). 대구서씨 세종조에 문과 좌리(佐理) 훈신(勳臣)으로 달성군에 녹훈되고 벼슬이 찬성(贊成)에 이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일찍이 남포현에 대하여 시(詩)가 있으니

古郡瀕南海 고군빈남해	옛 고을 남쪽 바닷가
産河地裡雄 산하지리웅	산하 지리가 웅장하다
島烟能作雨 도연능작우	섬에 연무는 능히 비를 만들고
江樹易生風 강수이생풍	강가의 나무는 쉽게 바람을 맞는다
水染葡萄碧 수염포도벽	물은 포도 빛으로 물들었고
霞蒸菡萏紅 라증합답홍	햇불이 타는듯한 노을은 연꽃봉오리처럼 붉다
白沙黃竹島 백사황죽도	흰 모래밭 황죽도에 서니
身在畫圖中 신제화도중	이 몸이 그림가운데 있는 듯하구나

- 이안눌(李安訥) : 자(字)는 자민(子敏), 호는 동악(東岳), 덕수 이씨 파(芭)의 아들. 문장이 넓고 커서 당세에 유명했다. 선조조에 문과 예조판서, 시호 문혜(文惠)인데 일찍이 남포현에 대하여 시(詩)가 있으니

榜海潮聲壯 <small>방해조성장</small>	바닷가 조수 소리 웅장하고
連雲嶺勢雄 <small>연운령세웅</small>	구름 낀 산세 또한 웅장하다
城隍成弊邑 <small>성황성폐읍</small>	폐읍 자리엔 성황당이 되었고
父老變淳風 <small>부로변순풍</small>	백성들은 순박한 풍속으로 변했구나
地瘴嵐常黑 <small>지장남상흑</small>	땅의 기운은 어두운 남기가 되고
秋寒葉易紅 <small>추한엽이홍</small>	가을날 차가워 나뭇잎 붉게 변했네
百憂緣底事 <small>백우연지사</small>	여러 걱정은 이로 인연해서 생겨나고
原濕一年中 <small>원습일년중</small>	좋고 나쁜 일 일년 내내 있는 것을...

- 이인묵(李仁默) : 남포현에 대하여 시(詩)가 있으니

西門突瓦眼前生 <small>서문돌와안전생</small>	서문에 우뚝한 기와집 눈앞에 생겨나니
文武多人報落成 <small>문무다인보낙성</small>	문무의 많은 사람들이 낙성에 보답한다
野闢新安蒼竹老 <small>야백신안창죽노</small>	들이 열린 신안에는 푸른 대가 늙어가고
山高聖住白雲經 <small>산고성주백운경</small>	산 높은 성주에는 엷은 흰 구름이 떠 있구나
朝天水路千尋碧 <small>조천수로천십벽</small>	하늘까지 닿을 듯한 물줄기 항상 푸르르고
宗海津名百世清 <small>종해진명백세청</small>	큰 바닷가 나루이름 오래도록 선명하다
志士暮年餘慷慨 <small>지사모년여강개</small>	지사는 늘그막에 강개함이 남았기로
朗吟江漢謾傷情 <small>낭음강한만상정</small>	은하수 아래 낭랑히 시를 읊다 또 마음이 상한다

□ 최해(崔灌) : 보령 고만에 대하여 시(詩)가 있으니

日落腥烟合
일 낙 성 연 합

해가 지나 비릿한 안개 모이고

秋來瘠氣溫
추 래 좁 기 온

가을이 왔는데도 기온은 따뜻함을 머금었다

帆截分天影
범 절 분 천 영

돛단배 끊어지고 날은 저무는데

沙平認水痕
사 평 인 수 흔

평사에 물들어 왔던 흔적 알 수 있구나

老樹嫌風惡
노 수 혐 풍 악

고목나무는 사나운 바람을 미워하고

驚濤得石喧
경 도 득 석 환

놀란 파도는 돌에 부딪혀 철석이다

※ 截 : 끊을 절 斷也

유 현(儒賢)

□ 백이정(白頤正) : 자(字)는 약현(若軒), 호는 이재(彝齋). 남포백 씨로 명신 문절(文節)의 아들이다. 회현(晦軒:안향)의 문인으로 고려 충렬왕조에 문과 첨의평리 상의회의도감사 삼중대광, 상당군(上黨君)으로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원(元)나라에 들어가 정주학에 성리학의 글을 외워 터득하고 동방에 전했으니 이제현(李齊賢), 박충좌(朴忠佐)가 먼저 스승으로부터 받아 이어가며 열도록 한 공이 있다.

□ 이제현(李齊賢) : 자(字)는 중사(仲思), 호는 익재(益齋). 경주 이 씨로 진(瑱)의 아들. 이재(彝齋)의 문인으로 학문을 펴서 논의, 문장, 덕망이 일세를 덮었고 동방에 머물며 중국에까지도 유명하여 최고은 이후에 제1인자였다. 벼슬이 문하시중, 계림부원군(鷄林府院君)으로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 이지함(李之菡) : 자(字)는 형중(馨仲), 호는 토정(土亭). 한산이 씨로 문열공(文烈公) 계전(季甸)의 손자로 화담(花潭:서경덕)의

문인이다. 백가제서(百家諸書)에 무불통지하여 밝게 깨닫고 국내산천은 멀리까지도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선조조에 아산현감이었으며 증 이조판서, 시호는 문강(文康)으로 화암(花巖)서원에 배향되었다.

- 조병덕(趙秉德) : 자(字)는 유문(儒文), 호는 숙재(肅齋). 양주조씨로 참판 최순(最淳)의 아들. 오노주(吳老洲:오희상)와 홍매산(洪梅山:홍직필)의 문인이니 연원의 갈래에서 문하의 길이 순정한 유림으로 큰 덕은 사문에 으뜸이었다. 현종조에 경연에 나갔고 벼슬은 이조참판에 이르렀으며 문경(文敬)의 시호를 받다 문집이 있다.

학 행(學行)

- 이몽규(李夢奎) : 자(字)는 창서(昌瑞), 호는 천휴당(天休堂). 경주이씨로 상서 과(藹)의 후예이며 박눌재(朴訥齋)의 문인이다. 증종조에 생원, 나이 13세에 이미 대의(大義)를 통하여 진신선진(홀륭하게 된 분들)들이 모두 다 선생을 기특하게 여기며 더욱 감탄하여 보며 말하기를 타일에 반드시 나라를 위해 그릇이 되리라 했다. 인종이 승하하자 두문하고 스스로 다스리며 시(詩)가 있으니

東方一千載

동방 일천재

동방 일천년 세월에

皇天生舜禹

황천생순우

하늘은 순, 우 같은 임금을 태어나게 했으니

朝野共傾歡

조야공경환

조야가 함께 기뻐하고

至化其朝暮

지화기조모

그 아침저녁 교화가 지극하였다

晝音一夕播

부음일석파

부음은 하룻밤 사이에 퍼지고

厥疾由哀慕 <small>귓질유애모</small>	슬프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도다
御極未踰年 <small>어극미유년</small>	임금님 연광이 얼마 되지 않으신데
天意竟難愈 <small>천의경난유</small>	하늘의 뜻이라고 끝내 말하기도 어렵도다
歎心變惻慟 <small>탄심변측통</small>	탄식하는 마음이 변하여 측은하고 애통하니
臣民如喪父 <small>신민여상부</small>	신민이 아버지 상을 당한 것 같아 한다
士生欲何爲 <small>사생욕하위</small>	선비가 살면서 무엇을 하고자 해보나
成事無田疇 <small>성사무전토</small>	성사되는 일은 시골에서 볼 수가 없구나

※ 증(贈) 대헌(大憲:대사헌), 제주(祭酒)로 화암서원에 배향되고 문집이 있다

- **이희삼(李希參)** : 자(字)는 경노(景魯), 호는 노재(魯齋). 몽규의 아들로 청송(淸松)의 문인 율곡 등 제현을 좇아 노닐. 명종 때 진사, 세마(洗馬:世子翊衛에 속하는 正九品 벼슬)의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문집이 있다.
- **이산광(李山光)** : 호가 동계(東溪), 한산이씨로 문장에 숙취(夙就: 일찍이 이루어 성취함)하고 지조가 개결(介潔: 여럿 가운데 뛰어나게 조출하고 깨끗하다)하였다. 이때에 세상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자금동(紫金洞)에 은거하다. 여러 차례 불렀어도 나가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 호가(扈駕: 임금의 수레를 수행함)하였으므로 녹훈되고 현감에 제수되었으나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
- **최세경(崔世慶)** : 호가 졸수와(拙修窩). 해주최씨로 쌍백당(雙柏堂) 기(沂)의 증손. 우암의 문인으로 윤동토(尹童土: 윤순거의 호) 순거(舜舉) 등을 좇아 노니며 시문으로 이름이 중(重)했다. 현종조에 덕산 현감.
- **정혁신(鄭赫臣)** : 호가 성당(性堂), 경주정씨로 계림군(鷄林君) 효

상(孝常)의 후예. 남당(南塘)을 사숙(私淑: 직접 배우지는 않았어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의 학문을 배우거나 따르는 것을 말함)하여 학문과 경사에 도타웠음이 전해지나 임번(林燮: 산골)에 숨어 살기를 고수하여 참봉에도 나가지 않았고 문집이 있다. 일찍 시(詩)가 있었으니

吾生何值醜胡辰 오 생 하 치 추 호 신 내가 사는 때가 어쩌다 더러운 오랑캐시대를 당하여
 愧作其氓况作臣 괴 작 기 맹 황 작 신 부끄러운 백성이 되고 하물며 신하라 하게 되었는데
 泉下妻兒休謫我 천 하 처 아 휴 직 아 아내와 자식이 죽는 겨를에도 나를 꾸짖으며
 且甘凍餒庶終身 차 감 동 뇌 석 종 신 거의 종신토록 춥고 배고픔도 또한 달게 받을 수밖에...

- **이예환(李禮煥)** : 호는 난국재(蘭菊齋), 경주이씨 유현(儒賢)인 제현(齊賢)의 후예. 성당(性堂: 정혁신)의 문인으로 오촌(鰲村) 송치규(宋稚圭), 숙재(肅齋) 조병덕(趙秉德)과 더불어 도의(道義)의 사귀를 하니 학문에 힘써 경문을 밝히고 넓히기를 함께 약속하고 진실로 끝까지 실천하기에 이르러 사문에 우익(羽翼: 날개)이 되었다. 문집이 있고 고종조에 증(贈) 지평(持平).
- **이도중(李度中)** : 호는 신재(新齋), 연안이씨 충정공(忠靖公) 시방(時昉)의 후예이다. 현종조에 세마(벼슬이름)에서 일은(逸隱: 피하여 숨음)하였다. 문학에 크게 해박하여 이자, 성리서(李子, 性理書)를 지어 그 문인이 간행했으며 문집이 있다.
- **조진학(趙鎭鶴)** : 자는 성고(聖皐), 호는 둔간재(敦良齋). 양주조씨 참교(參校) 중휘(仲輝)의 후예로 숙재(肅齋: 조병덕)의 문인. 많은 경서를 갖고 산골에 살면서도 성리학에 밝았고, 고종 때 학문으로 감역(監役)에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문집이 남아있다.
- **윤석봉(尹錫鳳)** : 호는 삼희당(三希堂), 파평윤씨 좌찬성 중삼(重

三)의 후예. 김중암(重菴: 평묵)과 유성재(省齋: 종교)의 문인으로 최면암(勉菴: 익현)이나 유의암(毅庵)과 도의(道義)로 교류했다. 학문은 본시 효제(孝弟)로 리(理)를 밝히고(孝弟明理), 공경을 주장하여 의를 잡는(主敬義乘) 것이었으니 춘추(春秋: 공자님이 지은 책)의 말씀을 엄숙히 존중하여 겸손하였다.

문집이 있고 고종 무술(1898)에 집성당(集成堂)을 화정촌(花汀村)에 세워 사림들이 돌아가 의지할 곳을 만들다.

유일(遺逸 : 자취를 숨기는 것)

- **안사탁(安士擢)** : 자(字)는 방(防) 광주안씨 사마(司馬) 자문(子文)의 아들. 일찍 벼슬길에 나갈 것을 사양하고 자신을 신칙하여 학문에만 힘썼는데 섬천(剡薦: 고을에서 천거함)하여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 **김해수(金海壽)** : 호는 문거정(問渠亭), 광산김씨로 충신 성우(成雨)의 후예. 사계의 문인이며 학문에 연원이 있어 이름이 사문(斯文)에 중했으며 숙종조에 벼슬이 현감에 이르고 이괄의 난에 혼신에 기록됨.
- **이하춘(李賀春)** : 자는 경보(慶甫), 호는 남옥재(藍玉齋). 전주이씨 임영대군 정간공(貞簡公) 구(璆)의 후예로 일민당(逸民堂) 이양원(李養源)의 문인이다. 숙종조에 생원, 학행으로 이름이 세상에 천명(闡名)되다. 증(贈) 집의(執義).
- **이세욱(李世煜)** : 자는 회백(晦伯), 호는 매창(梅窓). 전주이씨 원종훈(原從勳) 몽열(夢說)의 손자로 명재(明齋)의 문인. 글에 능하고 행실이 있어 사문으로 날개가 되어 날고 숙종조에 생원(生員).
- **박부원(朴溥源)** : 호는 미곡(眉谷), 밀양박씨 효자 세주(世胄)의

손자. 남당(南塘)의 문인으로 효성스럽고 우애했으며 학행이 뛰어났으나 불행히 단명(短命)하였다. 선생의 슬픈 이야기가 나타난 포암(圃巖) 윤봉조(尹鳳朝)가 지은 비가 있다.

- 박정원(朴正源) : 자는 심보(心甫), 밀양박씨 낙촌(駱村). 충원(忠元)의 후예로 수암(遂菴)의 문인. 연원이 바른 맥통이었고 문행이 높고 특이했다. 숙종조에 사마(司馬)였다.
- 조연(趙堧) : 호가 양리재(兩理齋), 한양조씨 돈계(遯溪) 필(弼)의 후예. 이(李) 설천(雪天) 봉상(鳳祥)의 문인 학문으로써 도를 행하여 실행에 옮겼으며 영릉(英陵) 참봉. 유고(遺稿)가 남아 있다.
- 조성(趙城) : 호가 만오재(晩寤齋), 한양조씨 돈계(遯溪) 필(弼)의 후예. 채(蔡) 봉암(鳳岩)의 문인으로 나이 16세에 선생께 폐백을 드리고 뵈니 선생이 준 시가 있다.

<p>老去倍傷墜緒微 노기배상추서정</p> <p>始憐初學問依歸 시련초학문의귀</p> <p>慇懃設與江門訣 은근설여강문결</p> <p>夜半松潭月上扉 야반송담월상비</p>	<p>늙어가며 아픈 곳은 많아지고 쇠퇴해 가는 징후뿐인데</p> <p>비로소 초학으로 물어와 의지코자 함을 사랑한다</p> <p>은근한 얘기를 함께 하다가 강어귀에서 이별하니</p> <p>야반에 소나무도 속삭이는듯하고 달은 사립문까지 올랐구나</p>
---	---

※ 경문의 뜻과 예설을 많이 기록했고 울곡과 남당 두 선생을 으뜸으로 받들고 남긴 유고가 있다.

- 조수(趙琇) : 호가 야암(野菴)으로 한양조씨 돈계(遯溪) 필(弼)의 후예 설천(雪川) 이봉상(李鳳祥)의 문인이다. 오로지 일은 학문이었고 마음은 성리학에 이기(理氣)의 분별과 소발(所發: 생겨나는 바)에 대하여 시시로 경학을 연구한 바가 많이 있었다. 항상 오서(五書)를 집과 숙사에서 편집하여 옮기므로 후학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었다. 유집이 있다.

□ **이정영(李鼎榮)** : 자는 사구(士九), 호는 우가현(尤可軒). 경주이씨 유현(儒賢) 제현(齊賢)의 후예 난국재(蘭菊齋: 이예환)의 문인이다. 효성스럽고 우애스러웠으며 순후 돈독하고 문학이 크고 넓어 경전에 밝고 예설에 밝아 숙재 조병덕과 더불어 도의를 강마(講磨)했으며 문집이 있다.

□ **임태하(任泰夏)** : 호는 삼호당(三乎堂)으로 풍천임씨 증 참판 상유(祥由)의 아들이다. 고종조에 도(道)에서 감역(監役)에 천거되고 가선(嘉善) 동지 중추에 올랐으나 나가지 않고, 실기가 있다.

약재(約齋) 송병화(宋炳華) 글에(狀: 문서 또는 편지나 행장 따위) 그 행(行: 품행이나 지나온 일들)을 말하기를 “돌아보거나 지금 성인의 길이 진무(榛蕪: 황무와 같은 뜻)하고 삼강이 윤(淪: 침몰)하였으며 구법(九法: 홍범구주)이 무너졌으나 공은 능히 의연(毅然: 지조가 굳은 모양)히 홀로서서 여러 사람 중에서 불란하게 하늘의 뜻을 보전하고 밝은 이치를 붙들어서 세상의 길을 보(補)함이 있었던 바가 알지 않으니 어찌 진실로 남방의 호걸지사라 아니 하리요!” 했고,

심암(心巖) 김지수(金志洙)는 그 광(壙: 광중을 말하며 묘지문 등을 말함)의 글을 지움에 말하기를 “뜻을 지키고 수고로이 학문을 하였으며 순리로 살다 편안히 몰(沒: 죽음)했다” 고 했고,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이 표한 그 묘도지문에 말하기를 “별 때마다 생각커니 공 같은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 땅 밑에서 희미한 빛도 가히 얻지 못했은즉 이에 탄식하노라.” 했고,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이 명(銘)한 그 비갈에 말하기를 “세상은 모두 다 이름을 자랑코자 하나 그 실지를 도타움게 했을 뿐이며 세상은 모두다 나에 이득만을 탐하나 그 덕을 두루 퍼신 분이다.” 라 했다. 심석(心石) 송병순(宋秉珣)은 그 집에 대하여 기록한 것에 말하기를 “효와 학문이 호서에서 저명하고 돕고

교유하는 벗들이 칭송하기를 옛날에 정장(鄭莊: 정당시를 이르는 말. 사기열전 급정열전을 볼 것)과 같다” 했다.

- **임흥준(任興準)** : 자는 기숙(起叔), 호는 인재(詔齋). 풍천임씨 명신 향(珦)의 후예 태희(泰希)의 아들로 돈간재(조진학)의 문인이다. 숙재(조병덕)를 사숙(직접 배우지 않았어도 그러나 학문을 존경하고 따름)함으로써 영웅호걸 중에서도 빛나게 뺀 자질로 독실히 수신하는 길로 나가 밟으며 더욱 온전히 넓게 캐어냄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말에 성리학에 밝고 기강이 엄히 서서 후학을 효유했다 하고, 문집이 있다.

유 행(儒行)

- **이학영(李學榮)** : 자는 유문(幼文), 호는 선렴재(善濂齋). 경주이씨 유현 제현(齊賢)의 후예로 숙재 조병덕의 문(門)에서 교유하며 더불어 난국재 이에환과 경사를 강론하였다. 효행이 높고 남달라 흰 제비가 여막을 두르는 등 특별한 효로써 이교익(李喬翼) 심이택(沈履澤)의 추천으로 증 감찰이었으며, 숙재 조병덕이 행장을 짓다.
- **백사형(白師亨)** : 자는 중례(仲禮), 호는 청계(淸溪). 남포백씨 참의(叅議) 윤철(尹哲)의 후예. 정성당(鄭性堂: 정혁신)의 문인이며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 삼산재(三山齋) 김이안(金履安) 등과 더불어 좇아 교유했으며 경문에 밝고 행실을 닦아 성리(性理)에 깊었다. 문집이 있다.
- **임운백(任允白)** : 자는 청언(淸彦), 호는 호은(湖隱). 풍천임씨 명신 향(珦)의 후예 장탁(將鐸)의 아들. 흥매산(흥직필) 문(門)에서

교유하며 듣고 학문의 뜻을 결정했으며 조숙재(조병덕) 임전재(임헌회)와 널리 도의에 대하여 교감하고 묵묵히 성인의 뜻을 탐구하여 예설(禮說)을 캐어내고 지행(志行)이 아울러 현저하였다.

□ **백태진(白泰鎭)** : 자는 경화(景華), 호는 국사(菊史). 남포백씨 참의 윤철(允哲)의 후예로 동중추(同中樞) 동현(東賢)의 아들. 성리학에 깊고 예설에 밝아 아버지를 섬김에 지극한 효성으로 얼음 속에서 붕어를 얻어 드렸고 일찍이 똥도 달다 했다. 가난하면서도 숙재 조병덕 등과 좇아 교유했다. 향리에서 추천하여 증감찰이었고, 실기가 있다. 비명은 지산 김복한이 지었고,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가 썼다. 위관(韋觀) 김상덕(金商德)이 지문(誌文)을 지었다.

□ **임태희(任泰希)** : 자는 경삼(景三), 호는 노오재(老梧齋). 윤백(允白)의 아들로 임전재(임헌회)의 문인. 경학을 탐구하여 스승의 말씀을 독실하게 믿고 성리학을 쌓아갔으며 의심되는 곳이 있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분별하여 수없이 읽어 그 뜻을 이해하고는 명백히 의혹이 풀리면 춤을 추고 악기를 타며 즐거워하고 후학들을 이끌어 세워 주어서 관계(官界)로 나가게 했다. 문집이 있다.

- ※ • 독신(篤信 : 독실히 믿음)
- 의의(疑義 : 의심이 생기는 것)
- 완미(玩味 : 시문 등을 잘 읽어 그 뜻을 이해함)
- 통연(洞然 : 명백함, 명쾌한 모양)
- 빙석(氷釋 : 의혹이 풀림)
- 파사(婆娑 : 춤을 추다)
- 고반(考槃 : 악기를 타며 즐기는 것, 또는 은거실을 지어 제 마음대로 즐기는 것)
- 장진(獎進 : 사람을 권해서 관계에 나가게 하거나 이끌어 세워 주는 것)

※ 이상은 원문에 인용된 말들이며 위의 해석은 풀어서 해석한 것임.

- **이규구(李圭龜)** : 자는 중서(仲瑞), 호는 동소(東沼). 거사 학영(學榮)의 아들로 숙재(조병덕)의 문인. 학문에 힘쓰고 행실이 도타워 효도하고 우애했으며 정사를 위하고 지조가 개결(介潔:성품이 높고 깨끗함)하여 사람을 구하지 않았으나 아는 선비와 벗들이 거듭 추천하여 철종조에 승지를 증(贈)하다.
- **임직모(任直模)** : 자는 군방(君方), 호는 수옹(睡翁). 풍천임씨 명신 향(珞)의 후예로 난국재 이예환의 문인. 말은 따뜻하고 기상이 화(和)하였으며 독실하게 학문을 닦고 힘써 노력하였으며 신의가 밝음이 한 고을에 저명하게 퍼졌었다.
- **이경식(李敬植)** : 자는 양숙(養叔), 호는 희렴와(希濂窩). 경주이씨 유현 제현의 후예. 자품이 범인들과 달라 효성스럽고 우애하며 순후하고 지극히 학문에 힘써 여러 글들을 읽었으며 여러 유생들의 거듭된 추천으로 교관을 증(贈)하였고, 숙재 조병덕이 지은 행장과 금곡(錦谷) 송래희(宋來熙)가 지은 비명이 있다.
- **이일태(李一太)** : 자는 성망(聖望), 호는 영운당(瀛雲堂). 전주이씨 원종훈(原從勳) 우춘(遇春)의 후예로 통덕랑이었으며 유행(儒行)으로 이름이 드날려 사우(士友)들이 흠모하고 숭앙했다. 유고가 있다.
- **이정문(李正文)** : 자는 순여(純汝), 호는 인재(忍齋). 전주이씨 무산군(茂山君) 효정공(孝貞公) 종(宗)의 후예. 백파(白坡) 김준근(金駿根)의 문인으로 남당(한원진)을 사숙했다. 타고난 자품이 온윤(溫潤: 마음이 따뜻하고 몸에 화기가 있음)하고 기상과 뜻이 탁락(卓犖: 높고 뛰어난)하였으며 학문이 넓고 힘써 노력함으로 진실로 착한 도리를 다하고 후학의 선비들에게 힘써 전진하도록 하여 사림(士林)의 사문(斯文) 중에서 거듭 추대하였다. 그 중형 정순(正舜)은 재주가 슬기로워 동류에서 뛰어나고

기개가 호협하였으며 조행(操行: 몸가짐)이 단정하고 깨끗하였으며 효성과 우애가 도타웁고 경사에 널리 통했다.

- **신명윤(申命潤)** : 자는 경태(敬泰), 호는 심재(心齋). 평산신씨 문희공(文僖公) 개(槩)의 후예로 젊어서부터 마음을 가라앉히고 학문에 힘써 성리서를 널리 섭렵하지 않은 게 없었으므로 후학을 인도하고, 사림들의 거듭된 추천으로 참봉에 천거되다.
- **윤건오(尹建五)** : 호가 화정(華汀). 파평윤씨 찬성(贊成) 중삼(重三)의 후예로 진사 의식(義植)의 손자. 성품이 본시 도타웁고 고심으로 학문에 힘써 효성스럽고 우애하였으며 정사를 위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 살피니 오직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했다. 임종에 이르러 자손을 경계한 시(詩)의 끝 구에 ‘今此裕昆訣 失心判獸夷(지금 이곳에서 형제 자손들을 이별하나니 마음에 맹세코 잘잘못은 판단하고 살았노라)’ 라 하였다. 이를 보면 본디 도탑게 지냈음을 알리라.
- **민정훈(閔鼎勳)** : 호는 금하(錦霞), 여흥민씨 여평부원군의 후예. 순수하고 밝으며 용모와 기상이 화려하고 단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계는 절조가 있었고 학문에 박통하고 힘써 노력하여 스스로 지키었다. 아들 재국(載國) 호 월파(月波) 또한 유행(儒行)으로 문필을 함께 드러내었다.
- **윤석기(尹錫祺)** : 호가 지산(芝山), 건오의 아들. 가정의 교훈을 세습하여 도타운 뜻을 스스로 지키었고 타고난 자품이 강개(剛介: 굳고 깨끗함)하여 세속의 폐백(선물) 등에 집착하는 태도에 물들지 않고 김중암(김평묵), 유성재(유중교), 최면암(최익현) 삼문에서 오랫동안 훈도(薰陶)한 그 나머지 실마리로 평생을 도타웁게 존화(尊華: 중화의 문화를 높이 생각하는 것) 대의를 지키었음이 고층 속에서도 단단하여 유고 중에 갖추어 있다.

- 박영휘(朴永徽) : 자는 원덕(元德), 호는 기죽당(淇竹堂). 밀양박씨 문장공(文莊公) 계현(啓賢)의 후예로 사람들이 천거하여 말하기를 “학문이 독실하고 힘써 노력하며, 바위구멍 같고 높은 풍도와 학문의 교유는 근원이 있어 순후하고 바른 문로이다” 했다.

간재(艮齋) 전우(田愚)가 지은 행장에 말하기를 “뜻과 기개가 굳고 확실하며 지조를 지켜 마음을 정한다” 고 했다. 심당(心堂) 신응선(申應善)이 지은 묘명(墓銘: 묘비)에 말하기를 “학문에 있어 노력함이 있었고 뜻에 있어 지킴이 있었으니 열매가 화려하지 않고 싹이 빼어나지 않아 그 삶이 비록 짧다 해도 그 들리는 바는 기니 지나는 자는 응당 이곳에 현인이 묻혔다 하리라” 했다.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이 지은 묘지명에 말하기를 “성인의 시대가 멀어 말씀이 막히었어도 학문은 선명하건만 저 세상 선비들은 명성이 아니면 이것만 서로 응하나 박공은 능히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많이도 구부러져 있는 시절인데도(券曲: 장자에 卷曲不中規矩란 말에서 온 것) 긴 밤을 아버이를 섬기고 좇았으며 형제들에게 인을 근본으로 하였고 고요히 앉아 독서하여 성현의 유훈을 얻었은즉,

기록에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반드시 당세에 제현에게 질문하여 자품에 더욱 빼어나지 않은 게 없었으나 실로 애석하지 않은가! 그 명이 짧아 회룡지원에 이제 공을 묻은 바 효자가 이름을 아뢰고 유계를 밝힐 생각으로 나에게 써 달라기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 후인에게 이를 주노라” 했다. 문집이 있다.

- 김상집(金商楫) : 호는 노주(蘆洲) 경주김씨 원종훈(原從勳) 한(漢)의 후예, 문행을 갖추어 저명하고 사우들에게 공경과 우러름을 받았다. 유고가 있다.

- **조구원(趙龜元)** : 자는 석일(錫一), 호는 청농(靑農). 한양조씨 양절공(良節公) 온(溫)의 후예로 문학과 기개와 절개가 있었다. 송우암(송시열)을 숭상하고 사모하며 높이 겸양하는 뜻으로 남당(한원진)을 사숙하고, 심성지론을 복암(復菴) 이설(李楔),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 사가(四可) 유희근(柳浩根)들과 더불어 좇아 교유했다.
- **조종욱(趙鍾郁)** : 자는 덕운(德運), 호는 정재(靜齋). 한양조씨 노암(魯菴) 원범(元範)의 후예로 천성이 순수하고 덕을 지닌 그릇으로 종용(자연스럽고 태연함)하면서도 건고히 학문에 힘을 다하였다. 백가에 밝고 육영(育英 : 교육사업)의 일에 종사했으나 영리를 구하지 않았다.
- **이종완(李鍾浣)** : 자를 주현(周賢), 호를 석촌(石村)이라했으며 여주이씨로 춘주(春洲) 상홍(尙弘)의 후예이다. 성품이 간결하고 엄격했으며 덕을 갖춘 그릇으로 웅용(雍容: 화려하고 조용함)하고, 학문에 뜻을 두고, 도타운 행실로 경사에 박통하고, 신의가 밝게 드러났었다. 벼슬은 참봉.
- **유태근(柳台根)** : 호는 라운(蘿隱), 사가(四可). 호근(浩根)의 종제(從弟)로 효성스럽고 우애했으며 문행을 잘 했으니 부조(父祖)의 남긴 뜻을 이어 관대(冠帶)와 의이(衣履)를 성현의 옛 제도에서 고치지 않았다.
- **조익순(趙翊淳)** : 자는 필삼(弼三), 호는 송암(松庵). 양주조씨로 학행(學行) 진학(鎭鶴)의 아들이다. 가정에 연원한 학문을 승습(承襲)하여 능히 문장을 실행함에 있었으므로 사림(士林)들의 거둬들인 추앙이 있었고 문고(文稿)가 있다.
- **백낙철(白樂喆)** : 자는 명숙(明淑)이며 호는 취송(翠松), 국사(菊史). 태진(泰鎭)의 손자 추강 백낙관을 좇아 배웠고 덕을 갖춘

그릇으로 온후하고 예법을 준수하며 몸가짐을 정중히 하였다. 행실을 도타웁게 하고 효제(孝悌)를 실천했으며 신의로워 사우(士友)들이 중히 보았다.

- **채규룡(蔡奎龍)** : 호는 혜운(兮雲). 평강채씨 번천(樊川) 완묵(完默)의 아들로 가정의 교훈을 일찍이 전습하여 여러 글에 박통하고 성품이나 몸가짐이 간결하고 엄숙하였으며, 사람을 구하지 않고도 파사(거문고 소리가 꺾이는 모양)를 알고 고반(考槃: 악기를 타며 즐기는 일)하였다.
- **이응규(李應珪)** : 호가 건당(健堂)이며 한산이씨 유현 지함(之菡: 토정선생)의 후예이다. 그 뜻이 단아하고 그 행실을 근칙(謹飭: 삼가고 부지런히 닦음)함으로써 문학이 숙저(夙著: 일찍이 저명하다)하여 사우들이 추앙하였다.
- **이교훈(李喬薰)** : 호가 라산(蘿散)이며 전주이씨 유일(遺逸) 세욱(世煜)의 후예이다. 밖으로는 너그럽고 안으로는 덕을 갖춰 포용력이 크고 근검하여 스스로 신의를 갖추었음에 더욱 저명했었다. 성품은 본시 자애롭고 착하여 널리 추앙받는 바였으며 학식이 고명하여 한 고을에서 칭찬하고 기리었다.
- **이응복(李應復)** : 자는 겸오(謙五), 호는 돈암(遯菴). 전주이씨 인재(認齋) 정문(正文)의 손자로 삼희당 윤석봉(尹錫鳳)의 문인이다. 일찍이 가정의 교훈을 입었고 늦게 사우(士友)를 좇아 학문을 독실히 힘써 실행한 관계로 경사에 박통하였으며 고궁(固窮: 곤란한 지경, 곤궁한 것을 견디고 천명에 맡김) 실천하여 암혈(岩穴: 산중에 사는 선비) 고풍(高風: 고상한 인품, 덕이 높은 인격)이라 할만 했다.

문 행(文行)

- **임태면(任泰冕)** : 자는 보국(輔國), 호는 청암(淸菴). 풍천임씨 명신 향(珦)의 후예 종옥(宗沃)의 아들. 거동과 모습이 현걸차고 잘났으며 성품과 법도가 강직하고 아버이를 섬기고 선조를 받들기에 극히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움에 이르고 뜻을 세워 일을 제도할 때는 법규에 맞지 않게 하는 게 없었으며 경론의 뜻을 강론하고 연마해서 사우들이 흠양했다.
- **이규도(李圭道)** : 호는 상고당(尙古堂)으로 유일(遺逸: 자취를 숨김) 정영(鼎榮)의 아들. 숙재(肅齋: 조병덕)의 문인 효(孝)와 학문을 겸비하여 유풍(儒風)을 전함으로 여러 선비들이 공경하고 숭양했다.
- **임태진(任泰鎭)** : 자는 성등(聖登), 호는 성재(省齋). 명신 향(珦)의 후예로 황백(璜白)의 아들. 가정의 교훈을 이어 전습하여 장차 후학들에게 나아가게 하며 안빈(安貧: 가난을 불편케 생각지 않음) 구지(求志: 바른 뜻을 구함)하여 사우(士友: 선비의 벗들)들에게 중(重)한 추앙을 받았다.
- **오세추(吳世樞)** : 자는 도명(度明)으로 보성오씨 양무공(襄武公) 자경(子慶)의 후예이다. 난국재 이예환의 문인으로 천자(타고난 자품)가 순후하고 뿌리 깊은 경학과 성실하고 바르게 지음에 극진했으면서도 전공(戰兢: 전전공공의 준말. 두려워서 매우 조심함)하며 스스로 지키었다.
- **신건(申楨)** : 자는 성립(聖立)이며 평산신씨 유행(儒行) 명윤(命潤)의 아들이다. 가정에서 익히 읽어 화려한 문장에 일찍이 나가 오천문묘를 창립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칭찬했다.

- **오상린(吳相麟)** : 자는 공진(公振), 호는 추재(秋齋). 세추(世樞)의 아들로 숙재(조병덕)의 문인이다. 재덕을 구비하고 극진히 가정의 교훈을 이었으며 침체된 경사를 사문으로부터 장려하도록 허락했다.
- **임헌수(任憲壽)** : 자는 칭홍(稱弘), 호는 검계(儉溪). 유행(儒行) 직모(直模)의 아들로 총명함이 절대로 특이하여 가정에서 실지로 익힘에 공손하고 검소함을 스스로 지녔고 경사에도 세밀하였다.
- **김상필(金商弼)** : 자는 윤심(允心), 호는 미산(眉山). 원종훈(原從勳) 한(漢)의 후예로 그 성품이 순수하고 크고 굳센 자질과 재주에다 글과 거문고에 대하여 앎을 겸비하고 스스로 즐기었다.
- **이병두(李炳斗)** : 호는 송오(松塢)이며 공주이씨 진사 성(晟)의 후예로 타고난 재주가 빼어나고 화려하여 여러 책들을 널리 보고 또 천문을 좋아하였다. 둘러있는 산림을 밟아보며 듣는 것으로 구하지 않고 도달하여 보았으며, 여러 생도들에게 교수했으나 불행히 일찍 세상을 뜨므로 향리에서 애석해 했다.
- **김상철(金商哲)** : 자는 성칠(星七), 호는 화당(華堂). 원종훈(原從勳) 한(漢)의 후예로 영특하고 힘써 노력하는 자질로 격을 갖춘 학문을 다하여 무리의 사류들에서도 뛰어났다. 효성스럽고 우애가 돈독하고 화목하여 향중(鄉中)에서도 더욱 드러났으니 사람들이 모두 다 흠양했다.
- **한광이(韓光履)** : 자는 명숙(明淑)로 청주한씨 청원위(淸原尉) 경록(景祿)의 후예이다. 오성산(오서산을 말함)에 우거하며 독학으로 안빈(安貧)하였으며 임천(林泉: 은사의 정원을 이르는 말)에서 자적(自適: 무엇에 구애됨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즐김)하며 학문과 효행에 독실히 완전했고, 학문은 성당(性堂: 정혁신)을 본받았으며 교궁

(校宮: 향교)을 높이 사모했다.

- **임희창(任熙昌)** : 자는 윤경(允敬), 호는 죽헌(竹軒). 장흥임씨 정경공(貞敬公) 의(懿)의 후예로 그 자용(姿容)이 개제(慨悌: 용모와 기상이 화락하고 단아함)하고 행실을 맑게 지키며 수신제가에 독실하였다. 주경야독하며 효도로써 아버이를 섬기고 널리 화합하여 예로써 가르쳤다.
- **신학균(신학균)** : 자는 중현(重玄). 평산신씨 현감 곡(鵠)의 후예로 일찍 문학을 수업하며 태학에 거하여 7세에 경전에 박통하고 15세에 해석을 뗐으나 급제하지 못하여 사우들이 아깝게 생각했다.
- **이희인(李羲仁)** : 자는 공집(公執), 호는 석남(石南). 공주이씨 수사 사주(思周)의 후예로 번천(樊川) 채완묵(蔡完默) 문하에서 수업했으며 학문에 힘쓰고 실행하므로 문묘직원에 추천되었다.
- **임창호(任昌鎬)** : 자는 문숙(文叔), 호는 난곡(蘭谷)이며 풍천임씨 명신 향(珦)의 후예이다. 자질과 성품이 어질고 온화했으며 뜻과 기상이 강직하고 굳세었다. 근본 천성이 성실하고 효성스러웠으며 언행이 조심스럽고 삼갔다. 글방을 설치하여 영재를 길렀고 배우는 요금을 자담하여 가난한 벗들에게 혜택을 베풀므로 향리에서 모두 다 칭송했다.
- **김상기(金商起)** : 자는 경명(景明), 호는 우산(愚山). 원종훈(原從勳) 한(漢)의 후예로 천부적인 영매함으로 마음에 경계를 안고 계책을 드리는 데 힘써 마지않았다. 세상을 숨어살며 이름을 감추었어도 일찍이 시격(詩格)이 있는 사람으로 본성에 있어 처음 사물 중 영체(靈體)를 깨닫고 더불어 천지간에 한번 써 볼 때 일월같이 밝았다.

- **임선호(任宣鎬)** : 자는 유빈(孺賓), 호는 돈암(遯菴)으로 풍천임씨 유일(遺逸) 흥준(興準)의 아들이다. 김심암(金心岩)의 문인 김계운(金溪雲)을 사숙하고 용모와 거동이 단아하며 지기(志氣)가 고매하였다. 안으로 가정의 교훈을 잇고, 밖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에 정진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예(禮)를 논함에 심히 자세하였고, 조용하고 편안함을 스스로 지키어 선업(先業)을 계술(繼述)하였다. 산수(山水)를 즐기고 쇠연(灑然: 깨끗하고 산뜻한 모양)한 청풍을 즐기며 벽에는 도서가 가득했고 뜰에는 송국(松菊)이 가득했다.

- **임성순(任性淳)** : 자는 도경(道卿), 호는 수헌(水軒)으로 풍천임씨 현수(憲壽)의 손자이다. 삼희당(三希堂: 윤석봉)의 문인 성재(省齋: 유중교)를 사숙했다. 의표(儀標)가 단아하고 의의(疑疑: 덕이 높은 모양)하였으며 성품과 도량이 강직하고 굳세었다. 일찍이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 문학에 더욱 정진하여 묻는 뜻을 즉시 설복시키고 일에 임해서는 용단을 내릴 줄 알았으며 강가에 집을 짓고 시서를 스스로 즐겼다.

훈 신(勳臣)

- **윤자운(尹子雲)** : 위 부조묘(不祧廟)편을 보라.
성종조에 좌리훈(佐理勳)으로 무성부원군(茂性府院君)에 책봉되고 시호은 충정(忠貞)이다.

- **김극성(金克成)** : 자는 성지(誠之), 호는 청라(靑蘿)로 광주김씨 절의(節義) 맹권(孟權)의 아들이다. 글이 장했으며 기묘(己卯)에 이름난 사람으로 중종조에 정국훈(靖國勳)으로 벼슬이 영상이었으며(*실지 우상)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 **이기(李夔)** : 위 부조묘(不祧廟)편을 보라.
 중종조에 정국훈(靖國勳: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을 세움)으로 벼슬이 병판(兵判: 병조판서)에 이르고 요산군(遼山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 **이산해(李山海)** : 자는 여수(汝受), 호는 아계(鵝溪)로 한산이씨 문열공(文烈公) 계전(季甸)의 증손이다. 명종조에 문과급제 호당(湖堂)관에 뽑히고 벼슬은 영상에 이르렀으며 광국(光國: 명나라 역사서에 조선 왕실 이씨의 세계가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친 공훈) 평난(平難: 정여립의 반정을 진정시킨 공로) 양훈(兩勳)에 기록되고 기사(耆社: 조선 때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에 들어가고 아성부원군(鵝城府院君)에 봉해지다.
- **이산보(李山甫)** : 자는 중거(仲舉), 호는 명곡(鳴谷)으로 한산이씨 유현(儒賢) 지함(之菡)의 조카이다. 선조조에 문과급제, 이조판서 호성훈(扈聖勳: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모신 공훈)에 기록되고, 한흥군(韓興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간(忠簡)으로 화암서원(華巖書院)에 제향되다.
- **이정암(李廷菴)** : 자는 중훈(仲薰), 호는 사류재(四留齋)로 경주이씨 오재(鰲齋) 탕(宕)의 아들이다. 명종조에 문과급제, 한림(翰林) 이조참의(吏曹參議)였다가 임진에 창의(倡義: 국난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킴)하여 연안성을 지키어 대첩하여 적(敵)을 물리치므로 양호(兩湖: 호서와 호남)에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그 힘으로 선무공신(宣武功臣) 이등(二等)의 훈(勳)에 기록되고, 월산군(月山君)으로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현충사(顯忠祠)에 제향되고 화암서원에 추배(追配: 추가로 배향)되었다.

원 종 훈(原從勳)

- **김한(金漢)** : 호는 우재(愚齋)로 경주김씨 상촌(桑村) 자수(自粹)의 종질(從侄)이다. 세종조에 문(文) 감찰(監察) 좌명(佐命 原從勳)에 기록되고, 단종 계유년(1453)에 남포현에 숨어 살았다. 일찍이 시가 있어 말하기를

五柳清風今栗里 오류청풍금출리 지금의 밤나무 마을엔 오월의 맑은 바람 버들가지에 부는데

一竿明月古桐江 일간명월고동강 옛날에 동강에서 밝은 달 아래 한줄기 낚싯대를 드리운다

을해(1455)년 여름 단종이 손위(遜位)했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놓아 울면서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태도를 바꾸어 엄폐했으나 기실은 마침내 상심하고 분함으로 병이 되어 죽다.

- **이극공(李克恭)** : 수원이씨 참판(參判) 장길(長吉)의 후예로 중종조에 정국(靖國) 원종훈(原從勳)에 기록되고 벼슬은 경상 우수사에 이르렀다.
- **안대진(安大進)** : 자는 퇴지(退之), 호는 우재(迂齋)로 유일(遺逸)사탁(士擢)의 손자 증(贈)우상(右相) 공필(公弼)의 아들이다. 명종조에 문과급제하고 교리(校理)와 지제교(知製敎) 등을 거쳐 임진왜란 때 해운도감(海運都監)으로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워 치성(扈聖) 선무(宣武) 일등에 기록되고 녹권(錄券)이 있다. 이조참판이 추증되었다.
- **이대충(李大忠)** : 자는 보문(寶文), 전주이씨 임영대군 구(璆)의 후예. 인조조에 무과에 급제, 찰방(察訪)을 지내고 정축(1637)호란 때 싸우다 죽어 원종훈(原從勳)에 기록되다.

- **이몽열(李夢說)** : 호는 돈옹(遯翁), 전주이씨 완원군(完原君) 수(綏)의 현손(玄孫). 인조조에 부흥(傅興) 도정(都正) 청란(淸難: 이몽학의 난에 유공) 원종훈(原從勳)에 기록되고, 물러나 보령에 쉬면서 조존성(趙存性) 이상우(李商雨)와 더불어 도리를 숭선하여 풍속을 교화시켰으며 강론과 향약을 정하였다.
- **윤순(尹洵)** : 무송윤씨 훈신(勳臣) 자운(子雲)의 후예. 선조조에 부사과(副司果) 광국(光國: 1589년 선조 기록이 잘 정리되지 않았다 하여 다시 정리하고 사당을 고쳐 받들게 한 것) 원종훈(原從勳)에 기록되고 증(贈) 좌승지이며 물러난 후 남포에 쉬면서 자손들이 이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
- **이정민(李貞敏)** : 자는 자정(子正), 호는 옥계(玉溪). 용인이씨 쌍매당(雙梅堂) 홍간(弘幹)의 손자. 선조조에 진사, 벼슬은 현감에 그쳤으나 홍가신(洪可臣)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켜 이몽학을 토멸하므로 원종훈에 기록되고 증(贈) 좌승지였다. 유고가 있고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이 지은 비의 명문이 있다.
- **김수현(金守玄)** : 자는 순중(純仲). 경주김씨 한(漢)의 후예로 벼슬은 공조참의를 지내고, 숙종조에 보사(保社: 1680년 복선군 등 왕족의 역모사건을 막은 것) 원종(原從) 이등(二等) 훈(勳)에 기록되고 가선대부에 승진되나.
- **김수정(金守精)** : 자는 중숙(仲叔)이며 수현(守玄)의 아우이다. 보사원종훈에 기록되다.
- **김전(金銓)** : 자는 사원(士元)이며 수현(守玄)의 조카이다. 낙안(樂安) 군수를 지내고 보사원종훈에 기록되다.
- **이우춘(李遇春)** : 자는 취경(就卿), 호는 송월당(松月堂). 임영대군 구(璆)의 후예로 숙종조에 무과에 급제 후 영종조에 양무(楊

武: 이인좌, 김일정 등의 역모 토핑) 원종훈에 기록되고 벼슬은 호조 참판이었다.

공 신(功臣)

- **김홍달(金弘達)** : 무과 주부(主簿)로 임진왜란 중에 상중임에도 부름을 받아 전쟁을 돕고 장차 그 아우 홍선(弘選) 홍술(弘述)과 전쟁터에 다다라 순절한 공이 있다. 증(贈) 병의(兵議).
- **황증(黃葦)** : 호는 송재(松齋)로 장수황씨 방촌(尙村) 희(喜)의 후예이다. 광해군 때 천병(天兵: 중앙정부의 군대를 칭함. 광해 5년 조령의 적 남응서의 난이 있었음)이 남하할 때 백의종군하여 공이 있어 빈사 직장을 거쳐 좌부승지에 올랐다.

명 신(名臣)

- **백문절(白文節)** : 자는 빈연(彬然), 호는 담암(淡巖). 남포백씨 명환(名宦) 중학(仲鶴)의 후예. 고려 고종조에 벼슬이 국학 대사성, 보문각 학사에 이르고 고려사와 읍지를 보면 묘는 현(縣: 남포현)의 동쪽 30리 양각산 서쪽 기슭이라 했다.
- **임향(任瑠)** : 풍천임씨 명환(名宦). 자순(子順)의 아들로 고려조에 벼슬이 정승으로 고려의 정국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항거하는 상소로 누차 직간(直諫)하다 귀양 가는 것으로 은혜를 입었는데 혁명을 당하여 남포 오상동에 은거함.
- **원수신(元守身)** : 원주원씨(原州元氏) 참판(叅判) 계량(季良)의 아들. 선조조에 무과, 임진란에 나가 전의에서 적을 토벌하고 통

제사를 지냈으며 벼슬이 훈련대장에 이르렀다.

- **조계원(趙啓遠)** : 호는 약천(藥泉)이며 양주조씨 소민공(昭敏公) 존성(存性)의 아들이다. 병자호란에 호병이 별안간 물려움에 임금의 명으로 부임하는 원수의 막하에서 사람들에게 각각 베풀며 니에 모래를 담아다 쌓아서 성을 만듬으로써 일행이 함께 온전할 수 있었다. 인조조에 벼슬이 형판이었고 원종훈으로 시호 충정(忠靖)이다.
- **이무(李袤)** : 자는 연지(延之), 호는 과암(果庵)으로 훈신(勳臣) 산해(山海)의 손자이다. 현종조에 문과에 급제, 벼슬이 예조판서에 이르고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문집이 있다.
- **조사석(趙師錫)** : 자는 공거(公舉), 호는 만회(晩悔)로 계원(啓遠)의 아들이다. 현종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숙종조에 우상(右相)을 지내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 **이병상(李秉常)** : 호는 죽현(竹峴)으로 한산이씨 참판(叅判) 정기(廷慶)의 손자이다. 숙종조에 문과 벼슬이 이조판서에 이르고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 **이유민(李裕民)** : 자는 관보(寬甫)로 청해이씨 송계(松溪) 인기(麟奇)의 후예. 숙종조에 문(文) 판서(判書) 기로사에 들어갔고 영조조에 원종훈에 기록되었으며 증(贈) 승정(崇政)이며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 **채홍이(蔡弘履)** : 자는 사술(士述)이며 문장(文章) 유후(裕後)의 후예. 영조조에 문, 3사(三司) 동벽(東壁)을 지내다. 정조조에 벼슬이 형조판서였고 기로사에 들어갔으며 문집이 있다.
- **이태중(李台重)** : 호는 삼산(三山)이며 병상(秉常: 위를 볼 것)의 종질(從侄)로 영조조에 문(文), 호조판서를 지내고 시호는 문경

(文敬)이다.

- **정홍순(鄭弘淳)** : 자는 의중(毅仲), 호는 포천(匏泉)이다. 동래정씨 양파(陽坡) 익헌공(翼憲公) 태화(太和)의 현손(玄孫)이다. 영조조에 문과, 정조조에 벼슬이 우상에 이르렀고 시호는 정민(靖敏)이다.
- **이창수(李昌壽)** : 호는 노한재(老閒齋)이며 전주이씨 증(贈) 좌찬성, 민제(敏躋)의 아들. 영조조에 문과, 벼슬이 이조판서,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 **이경재(李景在)** : 자는 계행(季行), 호는 소은(紹隱)이다. 한산이씨 현감 의선(儀先)의 아들로 순조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우상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 **이응식(李應植)** : 자는 자정(子正)이며 전의이씨 병사(兵使) 윤춘(潤春)의 아들이다. 현종조에 어장(御將: 어영대장)에 다섯 번 임명되었고, 훈장(訓將: 훈련대장)에 두 번 임명되었으며 공조판서를 지냈다. 시호는 무숙(武肅)이다.

명 환(名宦)

- **백중학(白仲鶴)** : 자는 윤로(雲路)이며 남포백씨 송계(松溪) 우경(宇經)의 후예. 신라 문성왕조에 좌간의(左諫議)에 이르렀고 남포에 살았다.
- **임자순(任子順)** : 호는 화재(和齋)이며 풍천임씨 풍해군(豐海君) 천유(天裕)의 손자이다. 이재(彝齋: 백이정)의 문인으로 고려 충혜왕조에 벼슬이 민부전서(民部典書)에 이르렀다. 간신들이 나

라를 도모함에 당하여 절개를 다해 보좌함에 종시(終始:처음부터 끝까지) 일심이므로 왕의 말이 어짊을 펴서 말하는 자송(子松)과 자순(字順)은 즉 나에게 사직의 신하라 하고 명신록에 신다.

- **이장길(李長吉)** : 수성(隨城)이씨 자송(子松)의 아들로 고려 말 벼슬이 보문각(寶文閣) 대제학이었다. 성품이 곧고 개결(介潔: 성품이 높고 깨끗함)하며 항상 절의를 스스로 힘썼기에 한때에 사류들이 그 높은 뜻에 감복했다.
- **이승춘(李承春)** : 우봉이씨 두봉(斗峯) 길배(吉培)의 손자로 성종조에 생원, 문(文) 대사성(大司成), 연산 갑자에 옥당에서 시사를 논함.
- **이덕온(李德溫)** : 호는 구촌(龜村)으로 전주이씨 임영대군 구(璆)의 후예. 선조조에 문(文) 승지(承旨), 문학과 절의가 있었으며 읍지(邑誌)에 실림.
- **채명운(蔡明胤)** : 자는 중선(仲宣), 호는 오시재(五視齋)로 평강(平康)채씨 증(贈) 판서 시상(時祥)의 아들이다. 숙종조에 진사, 문과를 하고, 아우 팽운(彭胤)과 더불어 잇따라 방(榜: 방상과명의 준말)하였다. 벼슬은 수찬(修撰)에 그쳤으나 성리학의 이기지변(理氣之辨)에 무불정통하였다. 유고가 있고 종손(從孫) 제공(濟恭)이 행장을 짓다.
- **채성운(蔡成胤)** : 자는 중미(仲美), 호가 구봉(九峯)으로 명운의 아우이다. 숙종조에 문과 한림(翰林) 한성좌윤, 문학과 글씨가 일세에 명망으로 들리더라. 손자인 제공(濟恭)이 귀히 되자 증(贈) 좌찬성하다.
- **이정익(李禎翊)** : 호는 애헌(崖軒)으로 한산이씨 유현 지함(之菡)의 후예이다. 숙종조에 진사문과를 하고 예조참의를 지냈다. 신

임사화에 무고를 입어 삼수로 귀양갔다가 을사(乙巳)에 돌아와 이조참의에 승진하였다.

- **백홍수(白弘洙)** : 자는 자유(子猷), 호는 미산(眉山)으로 유현(儒賢) 이정(頤正)의 후예이다. 현종조에 문과, 벼슬이 병조참판에 이르고 삼조에 역사(歷仕)하였으며 고종의 명으로 진정(眞楨: 초상화)을 하사받았고 여러 전적에 박통하였으며 오매에도 나라가 평안히 다스려 지기를 바랐다.
- **조충희(趙忠熙)** : 자는 신부(信夫), 호는 수오재(遂吾齋)로 유현(儒賢) 병덕(秉憲)의 아들. 고종조에 진사, 문과, 이조참의.
- **김상덕(金商憲)** : 호는 위관(韋觀)이며 경주김씨 학주(鶴洲) 홍욱(弘郁)의 후예. 고종조에 문과, 규장각 검교(檢校) 지제교(知製敎) 성품이 청렴하고 문학이 있으나 명리를 구하지 않고 세상을 숨어 살며 고민이 없었다.
- **신응선(申應善)** : 호는 심당(心堂)으로 평산신씨 분애(汾崖) 정(暿)의 후예이다. 고종조에 문과 승지였으며 가선대부에 오르고 문학과 필법을 갖추어 향당(鄉黨)에 사표로 저명했으며 유고가 있다.

명관(名官)

- **홍병위(洪秉瑋)** : 호는 연사(蓮史)로 남양홍씨 학곡(鶴谷) 서봉(瑞峯)의 후예로. 부사로 나갔다 승직되어 가선(嘉善)에 이르렀고 문학으로 한 고을에서 추앙했다.
- **조병흥(趙秉興)** : 양주조씨 혜목공(惠穆公) 창원(昌遠)의 후예. 고종조에 감역(監役) 벼슬은 현령에 이르렀고 문학이 있었다.

- **이병규(李秉奎)** : 호는 부당(芙堂)이며 전주이씨 금장(禁將) 장림(章濂)의 아들이다. 고종조에 서사(筮仕)로 남행(南行: 음직을 말함), 선전(宣傳), 네 번의 주군을 맡아 청백으로써 이름이 났었고, 가선(嘉善)에 승직되었다.
- **조중구(趙重九)** : 자는 정여(正汝)이며 명환(名宦) 충희(忠熙)의 종질, 문과, 여러 차례 주군(州郡)을 맡아 치적이 멀리까지 퍼졌었다.
- **이교석(李教奭)** : 호는 이당(怡堂)이며 명신(名臣) 응식(應植)의 손자. 무과 선전관, 여섯 차례 주군을 맡아 청백으로 다스려 농부(農部)의 협판(協辦)이 되었고 가선(嘉善)에 승직되다.
- **채정묵(蔡定默)** : 명신 홍이(弘履)의 증손이며 벼슬이 군수로 아전들에겐 두려운 존재였고 백성은 사랑했다.
- **이완진(李完鎭)** : 자는 평여(平汝), 호는 오운(梧雲)으로 전주이씨 오리(梧里) 원익(元翼)의 후예이다. 생원, 벼슬이 좌랑(佐郎) 현감(縣監)에 그쳤다.
- **심재숙(沈在淑)** : 호는 월재(月齋)로 청송심씨 청송부원군 온(溫)의 사손(祀孫). 여러 차례 주군을 맡아 선정을 한 바 있다.
- **이두훈(李斗薰)** : 유일(遺逸) 세욱(世煜)의 후예로 감역(監役) 배근(培根)의 아들이다. 여러 차례 군읍을 맡아 나가서 벼슬에 처할 때 내 집과 같이 했다.
- **윤명오(尹命五)** : 호는 노포(老圃)로 유행(儒行) 건오(建五)의 아우이다. 세무관으로서 강계(江界) 초산(楚山)을 시찰하고 결(結)에서 떨어져 나간 땅들을 종속 집결, 백성들의 고통스러움을 면케 해주었으며 이원(利原), 북청(北靑) 적성(積城) 단양(丹陽)을

말아 지내며 모두다 청백히 다스림으로 인하여 선정비가 있다.

- **박지양(朴芝陽)** : 호가 기정(綺庭)으로 반남(潘南)박씨 여호(黎湖) 문경공(文敬公) 필주(弼周)의 후예이다. 두 번 주군을 말아 다스림이 계속 잘됨으로 나타났고 귀향하여 궁한 자들을 진휼하여 칭송하는 소리가 높았다.

청 백(清白)

- **이시연(李是鍊)** : 본군(本郡)의 자리에 있을 때 선정(善政)이 있어 비를 세움.
- **김제궁(金濟肯)** : 본군의 자리에 있을 때 선정으로 비가 세워짐.
- **방효함(方孝涵)** : 본군의 자리에 있을 때 청정한 정치로 비가 세워짐.
- **박홍양(朴鴻陽)** : 자는 돈오(敦五), 호는 금남(錦南). 반남박씨 금성위(錦城尉) 명원(明源)의 현손이다. 본군의 자리에 있을 때 치적이 많고 선정비가 있다.

- 이상 보령.-

- **양주석(梁柱石)** : 남원양씨 문양공(文襄公) 성지(誠之)의 후예로 본군에 있을 때 봉록을 감하여 백성을 진휼하여 칭송이 사방에 넘치고 송덕비가 있다.
- **박이명(朴履命)** : 이빈(李贇), 남이완(南履完), 유광벽(柳光壁), 이경간(李敬簡), 신봉규(申鳳圭), 송능규(宋能圭), 서래원(徐來遠), 송병학(宋秉學), 성달영(成達榮), 정인하(鄭寅夏) 모두 남포의 자리에 있을 때 공적의 소리가 있었다.

- **백동규(白東奎)** : 수원백씨 휴암(休庵) 인걸(仁傑)의 후예이다. 남포의 자리에 있을 때 폐단을 개혁하고 선정을 베풀어 비가 세워졌다.
- **이석재(李奭宰)** : 연안이씨 관찰사 도재(道宰)의 아우이다. 남포의 자리에 있을 때 치적이 많아 선정비가 있다.
- **김용제(金用濟)** : 자는 여집(汝楫), 호는 약천(若川)으로 효자 노정(魯貞)의 증손이다. 고종조에 두 번 주군을 맡아 남포의 자리에 있을 때 맑은 정치로 송덕비가 세워져 있음.

문 장(文章)

- **이산해(李山海)** : 훈신편을 보라.
- **채유후(蔡裕後)** : 자는 백창(伯昌), 호는 호주(湖洲)로 평강채씨 진사 충연(忠衍)의 아들이다. 인조조에 문과, 호당(湖堂: 독서당)에서 문적을 맡았었고 이조판서로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 **채팽운(蔡彭胤)** : 자는 중기(仲耆), 호는 희암(希菴)으로 명환(名宦) 명윤(明胤)의 아우이다. 숙종조에 진사 문과 한호당(翰湖堂: 한림호당)에 제학(提學). 벼슬이 예조참판에 그쳤지만 미원(薇垣: 사간원[紫微垣星左右掖垣])에 있을 때 잠소(箴疏), 문집이 있고 종손(從孫) 제공(濟恭)이 서(序)하다.

문 원(文苑)

- **류발(柳火+發)** : 자는 유원(惟源) 호는 덕린(德隣) 전주류씨 낙봉(駱峯) 현(軒)의 후예. 효성스럽고 우애로웠으며 문장으로 세상에 추앙 받은 바 비단옷을 입고 학행을 열었다. 증(贈) 교관이

며 우상(右相) 강로(姜滌)가 지은 행장과 유집이 있다.

- 류호근(柳浩根) : 호는 사가(四可) 발(火+發)의 증손. 타고난 영오(穎悟: 남보다 뛰어나게 총명함)¹⁾로 문학에 일찍 공령(국과문의 별칭, 또는 학령)을 익히고 성리학을 연구하여 남당(南塘: 韓元震)을 사숙하고 경적에 관습적으로 빠져들어 춘추를 밝게 강론하고, 정절이 업신여겨지는 때를 당하면 임하(林下: 벼슬을 그만두고 은퇴한 곳이나, 시골을 칭함)에서도 굽힘을 애석해 하였다. 문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훈도(薰陶: 덕을 베풀어 사람을 교화 훈육하는 것)를 성취했으며 문집이 있다.

선 문(善文)

- 임성윤(任聖尹) : 자는 사형(士衡), 호가 분의당(奮義堂)이며 명신(名臣) 향(珦)의 후예이다. 조회헌(趙梅軒)의 문인으로 의리를 강변하고 문명이 세상에 나타났다. 유고가 있다.
- 임장탁(任將鐸) : 자는 천경(天警)으로 성윤(聖尹)의 아들이다. 널리 여러 책들을 보고 문장이 위려(偉麗: 넉넉하고 화려함)했고 유고가 있다.
- 임희탁(任希鐸) : 자는 경연(景淵), 호는 경헌(警軒)으로 명신(名臣) 향(珦)의 후예 성교(聖敎)의 아들이다. 매산(흥직필) 문하에 좇아 노닐며 일찍이 문장을 익히고 늦게는 경적에 전심하여 후학들의 진출을 장려했고 유고가 있다.
- 김상우(金商雨) : 자는 경필(景弼), 호는 기천(杞泉)으로 원종훈(原從勳) 한(漢)의 후예 광희(光喜)의 아들이다. 임흥준(任興準) 문하에서 배우고 일찍이 공령(公令: 科文)으로 매양 장옥(場屋:

1) 晉書에 幼而穎悟 神彩秀徹 視日不眩이란 말이 있음.

관리를 등용할 때 시험장에 들어가려는 자들을 담벽같이 함으로써 경의(經義)를 문대(問對)했다. 고종 때 특별히 박사(博士)에 선임되었다.

선 시(善詩)

- **임수(任洙)** : 자는 덕연(德淵), 호는 묵가현(默可軒)이며 명신 향(珦)의 후예 승탁(昇鐸)의 아들이다. 성당(性堂: 정혁신)의 문인으로 천품의 재질이 초범하여 어려서부터 박학하고 성리학을 공부해서 송능규(宋能圭), 김용근(金龍根)과 더불어 수창(酬唱: 시문을 지어 서로 증답함)하였다.
- **채완묵(蔡完默)** : 호는 번천(樊川)이며 명환(名宦) 명윤(明胤)의 후예이다. 나이 약관에 이미 육경(六經)에 통했었고 더욱 자라며 재술로 이름을 드날려 장옥(場屋)에 문도들이 분집(分集)하여 사우들이 경앙(景仰: 덕을 사모하여 우러러봄)하였다.
- **이기하(李起夏)** : 호가 소산(素山)으로 완산이씨 병와(瓶窩) 형상(衡祥)의 후예이다. 고종조에 주사(主事) 시문을 잘했다.

선 필(善筆)

- **김성희(金成喜)** : 호는 송당(松堂)으로 원종훈(原從勳) 한(漢)의 후예이다. 고종조 의관(議官) 통정(대부)에 승직, 글쓰기를 잘하여 필법이 저명했으며 유집이 있다.
- **신현상(申鉉祥)** : 자는 국로(國老), 호는 노포(老圃)로 평산신씨 음사(蔭仕) 현감(縣監)이었던 곡(鵠)의 후예이다. 문필을 겸비하여 여러 차례 과거장에 다다랐으나 마침 해답을 얻지 못했다.

- **백낙창(白樂昶)** : 자는 원선(元善), 호는 취선(醉仙)으로 유현(儒賢) 이정(頤正)의 후예 현감 사천(師天)의 현손이다. 의표(儀表)가 범인과 달라 문예(文譽: 문명을 기리는 것)가 일찍이 퍼졌으며 글과 겸해서 전례(篆隸: 전서와 예서)에 능했으며 그림에서도 진경(眞境: 참된 경지)에 들어가 한 고을의 사류들이 칭찬했으며 유집이 있다.
- **신하영(申夏永)** : 호는 성산(聖山)이며 명환(名宦) 응선(應善)의 아들이다. 고종조에 박사를 지내고 필체는 추사체였으며 더욱 전서를 잘 썼다.
- **김승렬(金承烈)** : 자는 경무(景武), 호는 죽하(竹下)로 원종훈 수현(守玄)의 후예 병규(秉奎)의 아들이다. 심성이 단아하고 재덕을 겸전하여 일찍이 사문(斯文)에 들어 널리 경사(經史)를 보고 글은 농암(農巖)을 본 받았으며 글씨는 완당(阮堂: 秋史)에 합치하였으며 늦게 학원에 노닐었으니 여러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다.

명 망(名望)

- **임태언(任泰彦)** : 자는 사행(士行), 호는 취락재(取樂齋)로 명신 향(珦)의 후예인 주해(柱海)의 아들이다. 난국재(蘭菊齋: 李禮煥) 문인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가 편액(扁額)에서 “우리 종중의 어른으로써 선함을 쌓아 즐거움으로 삼으니 그 집에 이름을 흠탄하노라” 했고, 숙재 조병덕은 칭찬하여 “임군(任君)은 비록 학문을 못한다고 자처했지만 그 말을 상고해 보면 그 행실이 바로 군자였다” 라고 했다.
- **성하국(成夏國)** : 자는 대일(大一), 호는 라운(蘿雲)으로 창녕(昌

寧)성씨 문효공(文孝公) 사달(士達)의 후예 나산(蘿山) 만진(晩鎭)의 증손이다. 문장과 재주가 화려했고 사우들은 품위 있고 정중했다. 고종조에 벼슬이 찬의(贊議)였다.

- 임헌규(任憲圭) : 자는 윤집(允執)이며 명신 향(珦)의 후예이다. 영매(英邁: 재능과 지식이 뛰어남)한 자질과 교악(喬嶽: 높은 산악) 같은 형상으로 일에 임해서는 의심함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열복했고 본 고을의 원이 칭찬해 말하기를 처음 본 한 사람이라 했다.
- 상이현(尙利鉉) : 자는 하경(夏卿)이며 목천(木川)상씨 성안공(成安公) 진(震)의 후예이다. 성품이 본시 청렴하고 강직하며 근검하여 성가(成家)하였고, 씩씩이는 자신에게는 박하였으며 종인에 도타웁고 이웃을 진휼했으며, 지난 신미년 거금을 출연하여 本面 농업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 열성이었고 그 독지(篤志)함이 보통 사람이 미치기 어려운 바였다.
- 이익호(李翊鎬) : 자는 주현(周鉉), 호는 아석(我石)이며 전의이씨 수사(水使) 희눌(熙訥)의 손자이다. 약관(弱冠)에 무과, 남행[南行: 음직(蔭職)을 말함] 선전의관(宣傳議官)²⁾이었으며 주임관으로 6등으로 서임(敘任)되고 그후 지방공직 30여 년에 기국(器局: 재능과 도량)이 크고 사리(事理)를 종핵(綜核: 사물의 본말을 밝힘)하였다. 여러 사람들에게 명망을 추앙받는 바를 대수롭지 않게 마음 두지 않는 방면(不眉方面)에도 여러 번 학교를 일으켜 청년들을 훈도 용화시켜 이름이 원근에 퍼졌고 공경하고 숭앙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 이승규(李昇圭) : 호는 창동(滄東)이며 전주이씨 명환(名宦) 덕운

2) 문맥상 무과와 남행이 함께 들어간 것이 이상하다. 무과가 무과급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 문관 무관을 나눈 말인듯

(德溫)의 후예이다. 일찍이 가정에 교훈을 입어 문명이 높았고 지방직을 지내다가 늦게 경성에 노닐어 교사에 뽑혀 여러 생도들을 가르쳤다.

- **이필규(李弼珪)** : 호가 화은(華隱)으로 한산이씨 명신(名臣) 태중(台重)의 후예 부사(府使) 봉식(鳳植)의 아들이다. 와향산(臥鄉山)에 돌아와 재덕을 겸비했고 사방 이웃에 은혜가 미쳤으며 자손을 가르치고 친척들과 함께 기뻐하며 시와 술로 스스로를 즐겼다. 고종조에 참봉을 지냈다.
- **이석구(李錫九)** : 명관(名官) 두훈(斗薰)의 아들로 진흙하기를 공경스럽게 하여 은혜를 베풀고 열읍(여러 고을)이 은혜를 입어 살아났으며 경성고등여학교에 거금을 기부하여 유지케 하고 3천 석을 봉납하고 토지를 영원히 기부하여 쌓은 것을 능히 흘으니 예부터 있어서 비길 데가 없었다. 송덕비가 있고 벼슬은 참봉이었다.

선 행(善行)

- **김노신(金魯臣)** : 자는 계원(季元), 호는 야일(野逸)로 원종훈(原從勳) 한(漢)의 후예이다. 용모가 옥과 같고 변론이 현하(懸河: 현하지변의 준말, 거침없이 잘하는 말)하고 일찍이 공령(公令: 과문[課文])을 익혔고 제가(齊家)를 본으로 삼았으며 아버이를 섬김에 지극히 효도했고 문도들을 교육 지도했다.
- **임계모(任契模)** : 자는 응필(應弼), 호는 우당(遇堂)으로 명신(名臣) 향(珦)의 후예 태진(泰鎭)의 아들이다. 성품과 도량이 따듯하고 삼갔으며 아버이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했고, 집이 가난해

도 학문을 좋아해 자질(子姪)을 잘 훈도(訓導)했다.

- **김양희(金良喜)** : 자는 성팔(聖八), 호는 심당(心堂)으로 우재(愚齋) 한(漢)의 후예이다. 일찍이 가정의 습(襲)계로 문행에 일찍 나가 글씨 쓰기를 좋아했고 변론에 승순(承順)하고 지조의 행함이 탁월하고 남달라 사우들이 칭찬했다.
- **임세준(任世準)** : 자는 계현(季顯), 호는 문암(文菴)으로 효자 태석(泰奭)의 아들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아버이를 섬김에 정성을 다했고, 몸가짐이 장중하고 공경스러웠으며 뜻이 도타워 교육에 천원을 연출하여 농업학교를 보조하여 향리에서 칭찬하고 기리었다.

진 목(賑睦)

- **김위(金渭)** : 자는 흥백(興伯)으로 원종훈 한(漢)의 후예이다.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었으며 궁핍한 자들을 진휼하고 다년간의 흉년에 은혜가 해변(海邊)에 미쳐 일향에서 누차 천거하였다. 영조조에 무과(武科).
- **전재진(田載鎭)** : 자는 국필(國弼), 호는 놀암(訥岩)으로 담양전씨 문원공(文元公) 경은(耕隱)의 손자이다. 고종조에 생하여 벼슬은 감역(監役)이며, 성품이 본시 착하고 어질어 효성스럽고 우애하며 행실이 도타웠다. 널리 문호를 열어 손님을 대접하고 예로써 청렴하며 스스로 즐거움과 착함을 지니고 곡식을 흠어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두루 진휼했기에 다들 덕과 의를 칭송했다.
- **최환주(崔煥周)** : 자는 양집(良執)으로 경주최씨 관가정(觀稼亭) 청(淸)의 후예이다. 성품이 본시 인후하고 아버이를 섬김에 극

진히 공양하고 빈궁한 자들을 두루 진휼하여 추앙함이 이미 널리 펼쳐 있었고 사람들이 모두 다 착하다 칭찬했다.

- **이선규(李善圭)** : 호는 한은(漢隱)으로 원종훈 대충(大忠)의 후예이다. 성품이 본시 소박하고 청렴하며 곧아서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고 효성스럽고 우애하며 도타웁고 화목하였으며 특별한 뜻으로 자선하여 일향이 흠양했다.
- **이근수(李根壽)** : 자는 영조(永祚)로 원종훈 몽설(夢說)의 후예이다. 일찍이 의지할 데를 잃고 부지런과 검소함으로 치가(治家)하고 문호를 설립시켜 두루 가난한 자들을 진휼하고 향리에서 이웃과 사귄 때 햇불을 켜고 기다렸다.
- **김윤환(金潤煥)** : 자는 문화(文和), 호는 청암(淸庵)으로 통천(通川)김씨로 충신 응의(應漪)의 후예이다. 진사 내장원경(內藏院卿)으로서 벼 구십오(九十五) 석(石)으로 남포면 13리를 주휼(憫恤 주궁빈휼의 준말로 매우 가난한 사람을 구원함)하고 포고문이 있었다.

“오호라! 무릇 인생의 궁달에 정도가 각각 있어 정해져 있다 하나 혹은 게을러 가난한 자도 있겠으나 부지런해도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매년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무렵이면 묵은 곡식은 이미 떨어지고 보리가 가을까지 미처 대지 못하여 다소가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고로 있던 바입니다. 가까운 곳만 보더라도 사람은 많고 땅은 좁은 고로 농사짓는 자들이 일찍이 흡족하지 못한데다 가뭄 뒤에 늦게 비가 와 농사의 때를 잃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2만8천여원의 돈을 나투어 출연하여 이십여 자루의 만주 곡식을 사득(查得: 조사하여 알아낸 것)하여 사다가 공주군 일원의 13면 213동리에 극빈한 동포 2만6천여 사람에게 매 1인당 한 말씩 주어 구제했었는데 이때에 돌이켜 생각을 한번해보니 남포는 즉 잊지 못할 누대의 초향(椒鄉)으로 대소 동포가 함께 이처럼 적(籍)을 아는 바, 의당 남포면을 먼저하고 공주를 뒤에 해야 하나 다만, 보고들은 것이 각각 달랐던 바라,

비록 선후의 차별이 있어서 유감이 없지 않으나 작년 가을 제해둔 해당되는 면의 벧섬 약 1백석을 금일로 대기했는데 현금(現今)의 사정은 또 윤달까지 더하니 봄의 어려움이 문득 작년 공주사람들과 같은지라 업무에 몸소 나가고 자 했으나 면에 드리는 사소한 물건이 마침 사고로 인해서 부득이 하나 있는 종질에게 뜻을 부탁하여 수행케 하니

남포면 13동리 3천여 인의 동포는 지정한 대로 매인 앞에 벧 닷 되~1말씩을 도와서 지급하니 오직 제씨에게 원하노니 약소하다고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한때를 돕는 자료가 오히려 무안함이 많으나 장차 두어 줄로 정곡(情曲)을 표합니다.”

◎ **이계권(李啓權)** : 호는 지산(芝山)으로 함평이씨 장양공(莊襄公) 종생(從生)의 후예 음사(蔭仕) 민익(敏翼)의 손자이다. 성품이 본시 관후하고 효성스럽고 우애함이 천성에 뿌리를 두어 널리 두루 궁핍한 곳에 베풀므로 일향에서 흠양했고 문행이 있었다.

□ **이종래(李鍾來)** : 자는 희삼, 호는 만오(晩悟)로 훈신(勳臣) 정암(廷菴)의 후예이다. 성품이 본시 순후하고 근검으로 치가했으며 선조를 정성으로 받들고 사람을 화기로 접대했으며 빈궁한 자들을 진휼하고 특별한 뜻으로 교육에 바치므로 일향이 칭송했으며 벼슬이 참봉이었다.

충 신(忠臣)

□ **김성우(金成雨)** : 광산김씨 흥광(興光)의 후예로 여말에 전라우도의 만호(萬戶)가 되고 초토영전사(招討營田事)를 겸하였더니 이때에 왜적이 호서에 가득하여 명을 받들어 토평하였다. 태조(太祖)가 혁명(革命)하자 그 위용을 꺼려 여러 차례 부르는지라 허리에 칼을 찬 채 말을 타고 감치(甘峙)에 도달해서 말에게 ‘나와 더불어 너도 가면 장차 편안하리라’ 하니 말도 또한 눈물을 흘리며 땅에 꿇어앉는지라 인하여 칼을 빼어 말을 베고 돌이켜

서 곧 자처(自處: 제 목숨을 스스로 끊음, 자결과 같은 말)했다고 사연이 보령읍지에 실렸다.

- **김선지(金善之)** : 무주(茂朱)김씨 참의(叅議) 감(堪)의 아들로 벼슬이 교리였다. 단종이 손위(遜位: 양위와 같은 말)하자 성(成: 성삼문) 박(朴: 박평년) 제공(諸公)과 더불어 복위를 꾀하였다. 상왕을 상대하여 피눈물을 흘려 울었고 타고가 폐해짐이 명백하자 향리로 내려갔으나 병자(1456: 성삼문, 박평년 등이 죽던 때)의 일이 발각되어 아우 한지(漢之)와 더불어 있는 아들 둘이 함께 죽었다. 아내 유(兪)씨는 따라 순절했다.
- **이지인(李志仁)** : 수원이씨로 여말의 명현(名賢) 자송(子松)의 후예 공의(工議) 금(鎡)의 아들이다. 선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나이 16세에 숙천(肅川) 부사(府使)로서 종군하여 진주에서 두 형경인(景仁), 덕인(德仁)과 더불어 같은 날 의로움을 들어 함께 순국하다.

절 의(節義)

- **김맹권(金孟權)** : 호는 만취당(晩翠堂)이며 충신 성우(成雨)의 증손이다. 일찍이 연방(蓮榜: 조선시대 사마시, 향시, 회시 등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명부)에 올랐다. 세종조에 가려둔 집현전 20인에 공도 더불어 소대(召對: 왕명으로 입대(入對)하여 정사에 대한 의견을 상주함)하여 가까이 두었었다. 단종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여등(汝等)은 타일에 이 아이를 잘 도와달라.” 했다. 광묘(光廟: 광릉을 말하는 것으로 세조를 지칭함)가 선위를 받음에 이르러 즉일로 도보로 고향에 돌아와 종신토록 나가지 않았다. 『이월사집(李月沙集)』에 있다.

- 김해은(金海隱) : 충신 선지(善之)의 아들로 단종 손위시에 아버지와 형이 잡혀 나가자 형의 가르침을 받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호서 안면도로 숨었다. 이곳에서 상왕(上王: 단종)의 승하 소식을 듣고 땅에 혼도(昏倒: 정신없이 넘어짐)했다. 이에 시(詩)가 있어 말하기를

喪父不能葬 <small>상 부 불 능 장</small>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喪君亦不從 <small>상 군 역 불 종</small>	임금님 상을 당했어도 또한 따르지 못하니
雖云天地大 <small>수 운 천 지 대</small>	비록 천지가 크다 하나
隻身無處容 <small>적 신 무 처 용</small>	이 한 몸 용납할 곳이 없구나
我父爲君死 <small>아 부 위 군 사</small>	우리 아버지 임금 위해 돌아가셨고
我兄從父死 <small>아 형 종 부 사</small>	우리 형은 아버지 따라 돌아가셨다
無父無兄人 <small>무 부 무 형 인</small>	어버이도 없고 형도 없는 사람이
如何不滅死 <small>여 하 불 멸 사</small>	어찌하여 죽지도 못한단 말인가

땅에 뒹굴며 영월 땅에 이르렀으나 노릉(魯陵: 노산군의 능, 즉 단종 무덤)을 알 수 없어 술을 사다 바위 위에서 제사하며 또 아버지와 형의 원혼을 위로하고 인하여 감정을 시로 말하니

蜀山疊疊蜀江深 <small>속 산 칩 칩 속 강 심</small>	촉산은 첩첩하고 촉강은 깊은데
蜀帝孤魂何處尋 <small>속 제 고 혼 하 처 심</small>	촉제의 고혼은 어느 곳에 가서 찾나
啼不如歸歸不得 <small>제 불 여 귀 귀 불 득</small>	울며 돌아감만 같지 못하다 하나 돌아갈 수 없어
聲聲杜宇感人心 <small>성 성 두 우 감 인 심</small>	두우의 울음소리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구나

- **김훈(金勛)** : 호는 송재(松齋)로 통천(通川)김씨 판도판서(版圖判書) 원등(遠登)의 증손이다.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남포현 현감, 벼슬은 참의(參議)에 그쳤다. 단종이 손위하자 자취를 감추고 남포에 살며 다시는 벼슬을 좇지 않았다. 포옹(逋翁) 정지산(鄭之産)과 교유했다. 『동학지(東鶴誌)』에 실렸다.
- **원유정(元有貞)** : 원주원씨 명신(名臣) 수신(守身)의 아들로 선조조에 벼슬이 익위사(翊衛司) 시직(侍直) 병자호란 때 유수춘(柳秀春)과 더불어 척화(斥和) 상소를 하였다.
- **채극철(蔡克哲)** : 자는 자기(子畿), 호는 송오(松塢)로 인천채씨 인천군(仁川君) 수(壽)의 후예이다. 명종 때 정미사화(1547)에 과장에서 병적(屏跡: 멀리 피함)하여 두문(杜門)하고 독서와 시를 지으며 지내니 그 뜻을 보고 사람들이 승정(崇禎)처사라 칭했다.
- **백낙관(白樂寬)** : 자는 경교(景敎), 호는 추강(秋江)으로 명환(名宦) 홍수(弘洙)의 아들이다. 고종 기묘(1879)에 척화 상소를 했고, 임오(1882)에 재소하며 항언(抗言)을 꺼리지 않았다. 의금부에 갇혔다가 제주에 적거되었고 수명(受命)하여 뒤에 서문(西門) 밖에서 목숨을 마쳤다. 정미년(1907)에 신원(伸冤)되고 제주 굴림단(橋林壇)에 향사(享祀)되었다. 문집이 있다.
- **임의준(任義準)** : 자는 치경(致敬), 호는 난포(蘭圃)로 명신(名臣) 향(珦)의 후예 태수(泰壽)의 아들이다. 노단재(老檀齋) 임태희(任泰希)에게 수학했고 성품이 강직하고 굳세었으며 본디 경륜이 있어 갑오(1894)년 우두머리로 의병을 인도하여 초토하다 군영을 순회 중 잡히었는데 중군이 비도(匪徒)를 토멸했다. 병신년(1896) 열읍(列邑)이 군부에 포상을 추천했다.
- **류준근(柳濬根)** : 호가 우록(友鹿)으로 전주류씨 문원(文苑) 호근(浩根)의 종제(從弟)이다. 기개(氣槩)가 척당(倜儻: 남에게 구속되

지 않는 모양. ※기개가 척당하다함은 척당불기(倜儻不羈)와 같은 말이다)하여 산업에 관계된 일을 하지 않았고, 병오(1906)년 민종식(閔宗植)과 더불어 의거했다. 홍주와 청양 경계에서 체포되어 대마도에 4년 있다 돌아왔다.

- **입학준(任學準)** : 호가 노은(老隱)으로 유일(遺逸) 태하(泰夏)의 아들이다. 고종조에 사마(司馬). 학문이 유여하고 충효가 독실하여 실행함에 집에서도 고종 영정을 받들더니 아미산에 들어가 상대암을 짓고 삭망으로 우리러 배알하고 솔잎을 씹고 스스로 정안(靖安)하니 후인들이 그 집을 가리켜 말하기를 처사(處士) 은륜대(隱淪臺)라 했고 산에 들어갈 때 시(詩)에

入山覺山靜 <small>입 산 각 산 경</small>	산에 들어가 봐야 산이 고요함을 깨닫고
飲水知水清 <small>음 수 지 수 청</small>	물을 마셔 봐야 깨끗한 물을 안다
是非塵世事 <small>시 비 진 세 사</small>	옳으니 그르니 진세의 일들
從此不留名 <small>종 차 불 유 명</small>	이것을 좇아 명성에 머물지 않으리라

효 자(孝子)

- **최광필(崔光弼)** : 강릉최씨 충무공(忠武公) 필달(必達)의 후예로 선조조에 진사, 이랑(吏郎). 증(贈) 승지(承旨), 효로써 정려(旌閭)가 내렸다.
- **황정직(黃廷直)** : 호는 여벽당(汝碧堂)으로 장수(長水)황씨 방촌(彦村) 희(喜)의 후예. 사포서(司圃署) 별제(別提)에 제수되고 정려(旌閭)를 받고 복호(復戶: 조선 때 충신과 효자 절부가 태어난 집의 호역[戶役: 집집이 나서서 하는 부역]을 면제해 주던 것)를 받았다.

- **노흠(盧洽)** : 자는 공언(公彦), 호는 상청당(常靑堂)으로 교하(交河)노씨 보진재(葆眞齋) 사신(思愼)의 후예이다. 나이 열두 살에 난리를 만나 아버지를 받들며 이천에 이르러 도적들이 칼로 아버지를 해하려 하자 울며 도적에게 대신 죽기를 애걸하였다. 또한 의로운 글을 쓴 작은 수첩을 차고 스스로 이같이 걸림이 없었다. 강음현령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 **황유업(黃有業)** : 호가 치재(耻齋)로 정직(廷直)의 손자이다. 인조조에 정각(旌閣)을 명받았다.
- **고이대(高二大)** : 제주고씨로 아버지를 구제키 위해 똥을 맛보고 손가락을 찢었다. 효로 증(贈) 감찰(監察).
- **고득천(高得天)** : 이대(二大)의 아들. 효심이 근본 천성이어서 효로 증(贈) 동몽교관(童蒙敎官).
- **박승건(朴承健)** : 호가 성은(星隱)으로 밀양박씨 낙촌(駱村) 충원(忠元)의 증손이다. 효종조에 진사, 문과. 숙종조에 효로씨 정(旌)을 받은 일을 입재(立齋) 송근수(宋近洙)가 기록하다.
- **고필문(高弼文)** : 득천(得天)의 아들로 사람들이 이세에 걸쳐 효자라 칭했다. 증(贈) 동몽교관.
- **이선원(李善元)** : 자는 백인(伯仁), 호는 사오당(四吾堂)으로 성주(星州)이씨 도은(陶隱) 승인(崇仁)의 후예이다. 현종조에 사마(司馬) 첨추(僉樞) 효도로 증(贈) 지평(持平). 우암 송시열이 기록하다.
- **박세주(朴世胄)** : 호는 정수당(靜水堂)으로 승건(承健)의 아들이다. 나이 열세 살에 아버지가 용안(龍安)을 지킬 때 아버지 병환에 하늘에 빌어 효험을 얻었고, 옮겨서 상주(尙州)를 지킬 때

읍죽순(泣竹筍)을 얻어 부중(府中)에서 맹종(孟宗: 겨울에 죽순을 구했다는 효자)의 읍죽이 부족하므로 온전히 아름답게 생각해 정(旌)을 받았다.

※ 泣竹 : 맹종이 겨울에 죽순을 구할 수 없어 대밭에서 울자 대순이 솟았다는 고사로 효심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 대순을 말하기도 한다)

- 구만원(具萬元) : 능성(綾城)구씨 수암(睡菴) 계우(繼禹)의 후예로 아버이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해 특별히 정려를 명받았다.
- 서한경(徐漢慶) : 달성서씨로 정려가 내려졌다.
- 신광제(申光濟) : 고령(高靈)신씨 학자로 증직(贈職)이 지평(持平)이다.
- 이재휘(李再輝) : 호는 삼현당(三賢堂)으로 전주이씨 덕흥(德興)대 원군 휘(諱) 초(紹)의 후예이다. 어머니 병환에 똥을 맛보고 손가락을 베었으며 얼음 속에서 잉어를 구하고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함에 감복하여 복호(復戶: 충신, 효자, 열부의 집에 호역을 면제해주는 것)하였다. 아우 덕휘(德輝)도 또한 근본 천성이 진실로 효성스러워 3년을 시묘했으며 복호되었다.
- 이백귀(李百貴) : 재휘(再輝)의 종질로 아버이를 섬김에 지극한 정성을 다했고 병환으로 고달플 땐 읍죽을 구하고 손가락을 찢었으며 정려가 삼현리(三賢里)에 있다.
- 오상순(吳相舜) : 보성오씨 양무공(襄武公) 자경(子慶)의 후예로 효로써 증(贈) 동몽교관(童蒙教官)과 정(旌)을 받았다.
- 이기상(李基商) : 전주이씨 임영대군 구(璆)의 후예로 아버이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럽고 증직은 호조좌랑(戶曹佐郎)이다.

- **이기주(李基周)** : 기상(基商)의 아우로 통덕랑(通德郎) 효자비가 죽청리(竹靑里)에 있다.
- **김계환(金啓煥)** : 호가 오은(烏隱)으로 광산김씨 훈신(勳臣) 극성(克成)의 후예이다. 영재로 6세에 당시(唐詩)를 배우고 자라서는 경사(經史)에 능통하며 사마(司馬)였고 품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신명이 감동한 바 눈 속에서 게를 구하고 얼음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이변으로 정려를 받았다.
- **오치조(吳治祚)** : 양무공(襄武公) 자경(子慶)의 후예로 나이 약관에 어머니 병환에 하늘에 빌기를 원컨대 이 몸을 대신하게 해달라 했고 위극(危谷+尤: 危極 위태함)할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주입 소생시키고 수일 후 아버지 상을 당하여 여막에 거한 지 3년을 한결같이 제정된 예법을 좇았다. 증(贈) 동몽교관.
- **임은모(任殷模)** : 명신 향(珦)의 후예로 난국재(蘭菊齋) 이예환(李禮煥)의 문인이다. 효심이 출천하고 아버지 상을 당해서 잘(善)했으며 거상 중에 뜰앞의 영산홍이 삼년 동안 꽃이 피지 않았다. 어머니 병환에는 손가락을 잘라 연명시켰으며 상을 당해서도 여전히 한결같은 모양이었다.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가 비명을 지었다.
- **김노정(金魯貞)** : 경주김씨 원종훈 한(漢)의 후예로 증(贈) 호참(戶參: 호조참판)으로 정려각이 황교리에 있다.
- **이호정(李鎬鼎)** : 우봉이씨 대사성 승춘(承春)의 후예이다. 효행으로써 증(贈) 사헌부 감찰(監察)로 정려각이 늑전리에 있다.
- **오정희(吳鼎熙)** : 상순(相舜)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당갈력(孝當竭力) 충즉진명(忠則盡命)의 글장을 읽기에 이른즉 미

상불(未嘗不: 과연) 세 번을 반복하여 읽으며 감탄했다. 그 자라서는 거우(居憂: 부모님 병환중이나 상중)에는 예를 좇았으며 진정으로 이미 효행을 펼치므로 증(贈) 교관(敎官), 정(旌)을 받았다.

- 신석봉(申錫鵬) : 자는 성오(聖五)로 평산신씨 화당(化堂) 민일(敏一)의 후예 직장(直長) 재진(在晉)의 아들이다. 효로써 증(贈) 교관(敎官)과 정(旌)을 받았다.
- 신응수(申應秀) : 자는 치화(致和)이며 평산신씨 장절공(壯節公) 승겸(崇謙)의 후예이다. 효행으로써 증(贈) 가선(嘉善)대부 호조 참판이다.
- 이승협(李承協) : 자는 중화(仲華)로 한산이씨 명신(名臣) 산보(山甫)의 후예이며 효로써 증 교관(敎官)이다.
- 김함(金菡) : 자는 대진(大振)이며 원종훈(原從勳) 한(漢)의 후예이다. 천부적인 지극한 효로 뜻과 몸을 함께 봉양했는데 부친이 설사 이질에 걸렸을 때 두르는 옷과 수건을 스스로 빨고 노비에게 시키지 않았으며 가서 생선을 구하는데 홀연히 동쪽바다에 잡히는 연어가 서해에서 잡히니 생산자가 다른 곳이라 도(道)에서 천거하여 경종조에 증(贈) 승지(承旨)이다.
- 황엽(黃燁) : 자는 여화(汝華)로 쌍벽당(雙碧堂) 정직(廷直)의 후예이다. 아버지 병환에 단을 쌓고 하늘에 빌며 똥을 맛보고 손가락을 찢었을 뿐 아니라 흐르는 물을 더듬어 고기를 얻고 단맛으로 함께 공양하니 천거하는 글이 있었다.
- 오백양(吳伯讓) : 자는 치삼(致三)이며 양무공(襄武公) 자경(子慶)의 후예이다. 효행이 높고 남달라 포상의 은전을 입지 못한 것에 사람들이 아까워했다.

- **임경준(任敬準)** : 자는 의중(義仲), 호는 평헌(萍軒)으로 사마(司馬) 윤택(潤澤)의 증손 숙재(조병덕)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아버지가 기이한 병에 걸렸을 때 똥을 맛보아 증상을 징험하고 극히 위험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넣었으며 어머니상을 당하여는 행실을 깨끗이 하고 묘 앞에서는 피눈물을 흘렸다. 처(妻) 구씨(具氏) 또한 효성스러웠다.

- **오성호(吳成鎬)** : 자는 공숙(公叔), 호는 송재(松齋)로 양무공(襄武公) 자경(子慶)의 후예 진사(進士) 사권(史權)의 아들이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뜻과 몸을 함께 봉양함에 정성을 다했으며 문제를 시험할 때는 몽점(蒙占)을 쳤고 친산을 종신토록 성묘했다. 현종조에 수직(壽職) 통정대부이다.

- **김석희(金奭喜)** : 자는 주경(周卿)으로 원종훈(原從勳) 한(漢)의 후예이다. 아버지 병환에 백방으로 구호하다 마침내 아버지 상을 만나서 빈소(殯所)를 떠나지 않았고 행실을 소박하게 함은 물론 빗질을 하지 않았으며 파리함이 골수까지 깊이 물들었고 피눈물을 흘리며 3년을 수(燧: 遂와 통합)행했다. 향(鄉)에서 추천했다.

- **임금모(任兢模)** : 자는 중석(仲錫), 호는 거이재(居易齋)로 명신(名臣) 향(珦)의 후예 태일(泰日)의 아들이다. 몸소 농사지어 아버지를 봉양했으며 소학(小學)의 율도(律度)대로 처신했고 형제간에 우애했다.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가 ‘거이이사명(居易以族命: 중용, 주자장구 14장에 나오는 말로 군자는 평이함에 처신하여 명(命)을 기다린다는 뜻)’의 뜻을 취하여 그 당호의 이름을 손수 썼다. 증(贈) 감찰(監察)이다.

- **이재풍(李在澧)** : 용인(龍仁)이씨로 음사(蔭仕) 세해(世楷)의 현손

이다.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 뜻을 봉양하는 데 성심을 다했고 어머니 병환에 꿈을 꾸어 좋은 약을 얻어 달여서 올리니 회소했다. 고종조에 증(贈) 동몽교관(童蒙敎官)이다.

- **백경진(白景鎭)** : 자는 운흥(雲興), 호가 만송(晩松)으로 남포백씨 현령(縣令) 언영(彦榮)의 후예이다. 천성이 따뜻하고 어질었으며 효성과 우애를 겸비했었다. 아버지가 나가지 못할(※遂: 易에 不能退不能遂란 말이 있음) 병환으로 백방으로 조(調)섭, 치(治)료하였다. 임종엔 손가락을 찢어 피를 주입하니 다시 살아나 수일을 살았고, 상을 당하여는(丁憂: 상을 당하다) 삭망으로 성묘하여 산소 가는 길에 풀이 살지 못했다. 증(贈)가선(嘉善) 대부이다.
- **임헌정(任憲鼎)** : 명신(名臣) 향(珦)의 후예로 순모(舜模)의 아들이다. 아버지 뜻을 순리로 받들고 혼정신성(昏定晨省)하여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공양하고 극진히 뜻과 몸을 봉양한 효행으로써 고종조에 의관(議官)에 제수되고 가선(嘉善)에 승차되었다.
- **백낙면(白樂冕)** : 자는 경복(景福), 호는 우당(友堂)으로 명환(名宦) 홍수(弘洙)의 조카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양친의 병환에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드렸으며 얼음을 가르고 고기를 구하였다. 문학이 있어 숙재(조병덕)에게 출입했고 병환에는 일찍이 똥을 맛보았고 상을 당하여는 한결같이 예의 제도를 좇았으며 새벽 저녁으로 성묘하였다. 문서로 천거되어 삼강록(三綱錄)에 실렸다.
- **임태석(任泰奭)** : 자는 남숙(南叔), 호가 규당(圭堂)으로 명신(名臣) 향(珦)의 후예인 풍백(豐白)의 아들이다. 타고난 성품이 인후하고 뜻과 기상이 강직하고 밝았으며 효도로 아버지를 섬기고 기쁘게 승순(承順)하였으니 살아서는 섬기고 장사 제사에는 제도대로 예를 극진이 따랐다.

- **이규순(李奎淳)** : 자는 희오(喜吾)로 성주(星州)이씨 문경공(文景公) 직(稷)의 후예이다. 천성이 인후하고 효우(孝友) 겸전했었으며 아버지를 섬김에 극진히 정성을 다 했으며 뜻을 봉양함에 어그러짐이 없었다. 모친 병환에 3년을 곁에서 모시며 게으름이 없었고 손가락을 끊어 피를 주입하여 소생시켜 3일을 더 살게 하여 이에 선비들의 글들이 있었고 원근에서 칭찬들을 했다.
- **김박계(金珀濟)** : 자는 진규(振圭), 호는 성은(聲隱)으로 상현(商賢)의 아들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아버지 뜻을 계승하였으며 삭망으로 성묘함에 풍우로 그만 둔 일이 없고 생가집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는 피눈물을 흘려서 울며 여막에 거하였고 또 예제(禮制)를 좇았다. 향리의 추천으로 문묘 직원(直員)을 하였다.
- **송하섭(宋夏燮)** : 자는 기현(奇賢)으로 여산(礪山)송씨 충정공(忠靖公) 거신(居信)의 후예이다. 성품이 본시 지극히 효성스럽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병환에 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빌고, 손가락을 찌어 피를 주관(注灌)했다. 아내 정(鄭)씨도 또한 효성이 있어 포상의 표창이 있었으며 완전한 의문(議文)이 있다.
- **최종응(崔鐘應)** : 경주최씨 의관(議官) 준기(駿基)의 아들로 천성이 순수하고 성실하며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아버지의 돌림병에 백방으로 시험하여 약을 썼으나 위독함에 이르러 손가락을 씹어 피를 입에 넣었으나 피가 들어갈 만큼 나오지 않자 다시 입에 넣어 깨물어 피를 내어 소생시켜 하루를 연장시키고, 상을 당하여는 3년을 예로 마치므로 포양문(褒揚文: 칭찬하고 추어올리는 글)이 있다.

효 부(孝婦)

- 김씨(金氏) : 진주김씨(晉州金氏) 창환(昌煥)의 딸로 통정(通政) 임혁호(任赫鎬)의 아내이다. 성품이 본시 어질고 착했으며 시부모를 섬김에 지극한 효심으로 했고, 시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 염습해 보내는 제절을 극진히 하여 예로 보내드렸고, 시조부모 병환에 대소변을 받아낸 지 4~5년이었으며 상례를 3년을 마치자 사람들이 모두다 그 효를 칭찬했다.
- 임씨(林氏) : 평택임씨 통정(通政) 경호(景鎬)의 딸로 한산(韓山) 이완재(李完在)의 아내로 시집가 극진히 부도(婦道)를 행하여 나이 근 칠순에도 시어머니를 섬김에 시어머니 병환 2년을 정성을 다해 건대(巾帶: 수건과 허리띠)를 벗지 못하고 대소변을 스스로 손수 받아내므로 도(道)에서 추천하여 포상하였다.
- 김씨(金氏) : 경주김씨 학여(鶴汝)의 딸로 신상근(申尙根)의 아내가 되어 시아버지가 나창(癩瘡: 문둥병)으로 신음하는 거처에 음식을 드리고 그 뜻을 승순하여 십년을 하루 같이 했고, 상을 당해서는 한됨이 없이 염습하여 장사지냈으므로 이웃 마을까지 다 칭송하였고 포상이 있었다.

정 렬(貞烈)

- 고씨(高氏) : 개성(開城)고씨 거정(居正)의 현손녀로 내금위(內禁衛) 부사직(副司直) 구사심(具思謹)의 아내이다. 광해조 때 정려를 명(命) 받았다.
- 김씨(金氏) : 언양(彦陽)김씨 지평(持平) 상인(尙訥)의 딸로 선전

(宣傳) 구익수(具益壽)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좃아서 죽어 숙종조에 정려(旌閭)되었다.

- **이씨(李氏)** : 한산이씨 필명(必明)의 딸로 통덕랑(通德郎) 구효민(具孝閔)의 아내이다. 지아비를 따라 죽어 숙종조에 정려(旌閭)되다.
- **조씨(趙氏)** : 한양조씨 필중(弼重)의 딸로 풍천 임세헌(任世憲)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자 기년이 못 되어 스스로 목 짚러 죽었으니 숙종조에 정려를 명받아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가 지은 기록이 있다.
- **채씨(蔡氏)** : 평강(平康)채씨. 순후(順後)의 딸. 조유문(趙圍文)의 아내. 남편이 죽자 따라 죽어 영조조에 정(旌).
- **오씨(吳氏)** : 보성오씨 양무공(襄武公) 자경(子慶)의 후예 창(昌 혹은 以昌)의 딸로 명신 향(珦)의 후예 성순(聖舜)의 아내이다. 남편이 병으로 쌀남을 입에 넣지 못하자 목욕을 하고 머리 풀어 기도했고, 상을 당하자 다음날 목을 짚러 죽었다. 영조조에 정려(旌閭)를 받아 삼강록(三綱錄)에 실렸으며 전재 임헌회가 지은 비가 있다.
- **복씨(卜氏)** : 면천(沔川)복씨 경록(景祿)의 딸로 용인 이보충(李普忠)의 아내이다. 남편이 병들자 다리 살을 베어 두 차례에 걸쳐 다려 주어 회소했으므로 귀한 사람들의 추천으로 정문이 세워졌다.
- **임씨(任氏)** : 풍천임씨 이덕(以德)의 딸로 오대권(吳大權)의 아내이다. 친영(親迎: 남편이 처가에 가서 아내를 맞아 오는 것으로 여기에서 시집가는 날로 보는 것이 옳다)할 날을 며칠 남겨놓고 문득 남편

죽자, 머리 풀고 시집으로 가서 치상에 한 뿔이 없게 하고 가솔을 봉양하니 종질(從姪) 세준(世俊)이 후사(後嗣)가 되었다. 종신토록 수절(守節)하므로 향(鄉)에서 추천하였다.

- **백씨(白氏)** : 남포백씨 사일(師一)의 딸로 경주(慶州) 이진영(李震榮)의 아내이다. 시집가 부도(婦道)를 공손히 행하고 남편이 죽자 부즐불한(不櫛不澣: 빗질을 얹고 옷을 빨지 않았다는 뜻으로 즉, 몸단장을 하지 않았다는 뜻)하고, 슬픔으로 몸이 훼손되어 뼈만 앙상하게 되더니 남편 죽은 2년째 되는 날에 수승(數升: 두어 되의 뜻. 여기서는 '아주 많이' 를 뜻함)의 피눈물을 흘리고 죽으니 남편 묘에 합부(合祔)했다. 이때의 나이 스물한 살. 고종조에서 정문(旌門)을 명하다. 지평(持平) 이례환(李禮煥)이 지은 행장이 있다.
- **신씨(申氏)** : 평산신씨 선모(善模)의 딸로 통덕랑 파평 윤현로(尹顯魯)의 아내이다. 어려서부터 어버이에 효도하고, 시집가서는 효로써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의 뜻에 승순(承順)하더니 나이 74세에 남편의 죽음에(哭崩城常: 성이 무너짐에 계속 울었다, 남편의 죽음을 표현) 장사(葬事)후 이튿날 밤 의연(毅然: 지조가 굳은 모양)히 따라 죽으므로 고종 병자(1876)에 정려문을 명하다. 평리(坪里)에 있다.
- **신씨(申氏)** : 평산신씨 기선(基善)의 딸로 명환(名宦) 백홍수(白弘洙)의 아들 낙완(樂完)의 아내이다. 남편이 죽은 후에 3년의 예를 마치고 상이 끝나던 날 약을 먹고 따라 죽으므로 고종조에 정려문을 명(命) 받았다.
- **조씨(趙氏)** : 배천(白川)조씨로 김인기(金寅基)의 아내이다. 나이 겨우 20세에 과부가 되어 그 장사 전날 염습의 정차를 보내고 스스로 만든 관(棺)에 들어가 곧 따라 죽어 같이 묻혔다. 조정

에서 정려가 내려다.

- **정씨(鄭氏)** : 온양정씨 가선(嘉善) 덕호(德好)의 딸로 경녕군(敬寧君) 비(裨)의 후예 전주 이씨 희우(喜寓)의 아내이다. 남편이 병환에 있는 20년 동안을 북두칠성에 절하고 귀신에게 빌며 똥을 맛보아 증상을 징험하였고, 상례를 마치고 상기(祥壽: 소상의 기년, 즉 주년이 돌아온 것) 이튿날 남편 묘 아래에 가서 땅을 파고 피를 토하며 따라 순절했다. 선비들의 글이 있다.
- **이씨(李氏)** : 한산이씨 무과(武科) 응종(應鍾)의 딸로 구익조(具益祖)의 아내이다. 남편이 병으로 죽자 수절하는데 갑오(1894) 동학란에 적도들이 범하려 하자 곧 주머니칼로 스스로 목을 찔렀다. 그러자 적도들이 해산했는데 다시 찔러 절명했다. 암행어사의 포상이 있었다.
- **김씨(金氏)** : 경주김씨 충신(忠臣) 응의(應漪)의 후예로 비서승(秘書丞) 통천김씨 경한(敬漢)의 아내이다. 남편의 병이 극히 위독하자 손가락을 찢어 약에 타서 회소시킨 뒤 1년 후 남편의 죽음을 맞자 곡기를 끊고 따라 죽으니 사실이 『강헌록(綱獻錄)』에 실렸다.
- **이씨(李氏)** : 전주이씨 주봉(周鳳)의 딸로 경주김씨 상철(商哲)의 아내이다. 남편 병이 자주 위태해지자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빌기를 이 몸이 대신 죽기를 원한다고 하고 다리 살을 베어 공양하여 수일간 명을 연장했다. 마침내 죽음을 만나니 주야로 통곡하며 그 늙은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봉양했다. 조카 박제(珀濟)가 후사가 되다. 수절로 가문을 이어가므로 향(鄉)의 추천이 있었다.
- **임씨(任氏)** : 풍천임씨 의채(義采)의 딸로 경주김씨 봉희(鳳喜)의

아내이다. 남편의 병이 위급하자 백방으로 구호했으나 죽음에 이르자 주야로 통곡하고, 다만 세 아들이 있어 차자(次子)로 시숙의 후사를 잇게 했으나 불행히 단명하여 또 유복자로 다시 잇게 하여 문호를 이루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다 칭송 하였다.

- **이씨(李氏)** : 경주이씨 규각(圭恪)의 딸로 선전(宣傳) 백사준(白師俊)의 후예 남직(南直)의 아내이다. 효도로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했으며 상을 당하여는 하늘이 뒤집히게 슬퍼하고, 대상(大祥)이 끝나는 날 약을 먹고 순절하여 남편을 따랐다. 또 죽은 후에 반함(飯含: 무궁주로 죽은 입에 쌀 등을 떠먹이는 것), 염습 등의 기구며 제물에 쓸 찬이며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두고 조용히 의로움에 나갔었다. 유문에 행장이 있다.

- **한씨(韓氏)** : 청주한씨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명회(明澮)의 후예 장이(章履)의 딸로 전적(典籍) 백세진(白世鎭)의 손자 낙순(樂舜)의 아내이다.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공경하여 그 도리를 다하고 남편이 병으로 죽자 가슴을 치며 울어 몇 번이나 기절을 했다가 겨우 일어나 치상(治喪)함에 염습하여 장례를 모두 다 정성을 다하고 조심을 다하였다. 거상(居喪)엔 슬퍼하고 공경함을 갖추어 함께 했으며 소상 제사에 이르러 예와 같이 싸서 드리고, 말과 얼굴빛이 다르지 않게 하고 그 밥의 여분을 일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이고 어두어져 침실에 들자 용용(雍容: 화락하고 조용한 모양)한 모양으로 따라서 순절 하니 즉, 남편 죽은 날 그 시간이었다. 원근(遠近)이 경탄하여 향교에 추천하고 도에서 계도하였다. 묘표는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이 짓고 석촌(石村) 윤용구(尹用求)가 쓰다.

- **정씨(鄭氏)** : 온양정씨 만호(晩好)의 딸로 수안(遂安) 이상범(李相範)의 아내이다. 부도(婦道)를 극진히 행하고 시아버지를 섬김에 극진한 정성이었으며 남편이 기이한 병에 걸리자 마음을 다해

구호하였다. 급기야 낫지 못하고 죽자 염습 등을 모두 다 갖추
고 힘을 다하여 분변하여 다스리고 장례 후 침실에 들어가 약을
먹고 따라 죽었다.

- **장씨(張氏)** : 인동(仁同)장씨 운식(雲植)의 딸로 김해김씨 준배(俊培)의 아내이다. 시집가 규범(閨範)이 일찍이 널리 알려졌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기이한 병에 걸리자(嬰: 부딪칠 영-부딪치다-걸리다) 백방으로 치료했다. 점점 위급해지고 고달픔에 이르자 다리살을 베어 국을 만들어 주었으나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되자 또 두 손가락을 잘랐다. 포상의 서장이 있다.
- **박씨(朴氏)** : 밀양박씨 인규(仁圭)의 딸로 경주최씨 종환(鍾環)의 아내이다. 나이 열아홉에 시집가서 그 남편이 공주고등학교에 취학했다가 갑자기 돌림병에 걸려서 마침내 불행에 이르렀다. 성혼(成婚)하고 두어 달도 넘기지 못하고 그 여친(旅櫬: 밖에서 죽어서 집으로 오는 널(棺))이 밤에 집으로 돌아오자 하늘을 향해 울고 땅을 치며 몇 번이나 혼절하였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지켰으나 몇 차례 줄(縷)을 가져다 잠깐 사이를 타서 빈 대들보에 스스로 목매어 죽으므로 마침내 같은 무덤에 장사 지내 주었다.
- ◆ **장례원(掌禮院)** : 경(卿) 완산(完山) 이재현(李載現)이 지은 열부비(烈婦碑)가 있으니 명(銘)에 이르기를, 각시의 행적은 늙늙히도 그 매움을 행했으니 예를 받들어 겨우 지아버가 되었건만, 어떻게 영결(永訣: 죽음)하여 삶에 의(義)만을 중히 하고 따라 죽는 결단에 이르렀을까! 꽃다운 혼령은 대들보 위에서 깊은 밤달이 질 때 남 다른 가없는 변고가 되어 늦도록 문설주에 노질(흔들리다)했도다! 사론(士論: 선비들 사이에 일어난 의논들)이 크게 일어났으니, 정렬의 아름다움(珉)이 멀하지 않으리라!

여 행(女行)

- **박씨(朴氏)** : 밀양박씨 응상(應祥)의 딸로 충정공(忠貞公) 광산 김극성(金克成)의 후예 약흠(若欽)의 아내로 시집가서 부도(婦道)를 극진히 행하며 아들 하나 낙운(洛潤)을 낳았다. 산후 일곱 달 만에 남편이 병에 걸려 백방으로 치료했으나 상을 당하자 곧 따라 죽으려 했으나 일곱 달 된 유아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양육시킬 수 없어 인내하며 어루만져 키워서 김씨지문(金氏之門)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

- **신씨(申氏)** : 평산신씨 화당(化堂) 민일(敏一)의 후예 태오(泰五)의 여식으로 노암(魯菴) 한양조씨 원범(元範)의 후예인 두원(斗元)의 아내이다. 효도로써 시부모를 섬겼으며 부도(婦道)를 극진히 행하였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진실로 정절을 지키며 근검(勤儉)으로 성가(成家)시켜 살림하는 가정의 모범이 되고 조카 병린(炳麟)을 들여 가성(家聲: 그 집안의 명예 또는 명성)을 계술(繼述: 조상의 뜻과 사업을 이음)했다.

- **이씨(李氏)** : 청주이씨 중추부사(中樞府使) 희영(熙潁)의 딸로 충신 응의(應漪)의 후예 증(贈) 판협(辦協) 통천(通川) 김영돈(金榮敦)의 아내이다. 성품이 본시 검약하고 극히 정숙한 덕이 있어 선조를 받들며 정성을 다 했고, 시어머니를 섬김에 뜻을 잘 받들었다. 일찍이 자식을 낳아 기르지 못하자 후사를 생각하여 정성을 다해 용왕님과 부처님께 기도하여 아들 윤환(閔煥)을 낳았는데 일찍 짧은 머리 어린 나이때부터 교육시켜 바야흐로 일찍이 연방(蓮榜: 사마시, 향시, 회시 등에 합격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명부)에 오를 수 있게 하여 지위가 경재(卿宰: 재상을 뜻하는 말, 또는 높은 벼슬)에 이르게 하고 문호를 창성시켰다.

문 과(文科)

- **이경탁(李慶倬)** : 호가 반금(伴琴)으로 한산이씨 훈신(勳臣) 산보(山甫)의 아들이다. 문과 정언(正言)으로 광해군 때 거슬러 보여서 좌천되었다.
- **이후(李厚)** : 훈신(勳臣) 산해(山海)의 손자로 인조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지냈다.
- **오형(吳訥)** : 보성오씨 양무공(襄武公) 자경(子慶)의 후예로 인조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도원도(桃源道) 황산(黃山) 찰방(察訪)을 지내고 문학이 있었다.
- **노자길(盧子佶)** : 교하(交河)노씨 보진재(葆眞齋) 사신(思愼)의 후예로 경종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이조참판을 지냈다. 유고가 있다.
- **채응만(蔡膺萬)** : 평강(平康)채씨 명환(名宦) 성운(成胤)의 아들로 영조조에 문과 급제하고 지평(持平)을 지냈다.
- **채덕서(蔡德瑞)** : 인천채씨 풍정(楓汀) 여인(汝人)의 손자로 영조조에 문과 급제하고 예조판서를 지냈다. 기로사에 들어가다.
- **김신행(金申行)** : 호가 송파(松坡)로 광산김씨 군수 태국(泰國)의 아들이며. 문과 주서(注書) 증(贈) 수찬(修撰)이다.
- **이정익(李禎翊)** : 한산이씨 유현(儒賢) 지함(之菡)의 후예로 영조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부윤(府尹)을 지냈다.
- **구상은(具相殷)** : 자는 여형(汝衡)이며 능성(綾城)구씨로 현종조에 문과 급제하고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지냈다.

- 이승익(李承益) : 호가 서호(西湖)로 한산이씨 명신 태중(台重)의 증손이다. 현종조에 문과에 급제하고 이조참판을 지내고 문학이 있었다.
- 임상호(任尙鎬) : 자는 이숙(二叔), 호는 해은(海隱)으로 풍천임씨 위재(危齋) 정(琹)의 후예이다. 철종조에 문과 급제하고 승지를 지냈으며 문학이 있었다.
- 조충희(趙忠熙) : 명환(名宦)편을 보라. 고종조에 문과 급제하고 대사성을 지내다.
- 김상덕(金商德) : 명환편을 보라. 문과 급제하고 직각(直閣: 규장각에 복무하던 벼슬이름)을 지냈다.
- 신응선(申應善) : 명환편을 보라. 문과 급제하고 승지를 지냈다.
- 조중엽(趙重燁) : 자는 원지(元芝)이며 양주조씨 유현(儒賢) 병덕(秉德)의 손자이다. 진사, 문과 급제하고 대사성을 지냈다.
- 이규덕(李圭憲) : 자가 유심(儒心), 호가 기재(杞齋)로 경주이씨 진사 영희(榮熙)의 아들이다. 고종조에 문과 급제하고 정언(正言)을 지냈다.
- 백세진(白世鎭) : 자는 치현(致賢)으로 남포백씨 유현 이정(頤正)의 후예이다. 경사(經史)를 널리 섭렵(涉獵)하고 뜻에 경륜이 있었으나 하늘 수를 빌지 못하여 쌓인 바를 펴보지 못했다. 문과에 급제하고 전적(典籍)이 많았다.
- 오인영(吳麟泳) : 호는 취송(翠松)으로 동복(同福)오씨 이조판서 묵재(默齋) 백령(百齡)의 후예이다. 문과 급제하고 대사성을 지냈다. 나이 들어 보령에서 쉬다.

사 마(司馬)

- **이전(李荃)** : 경주이씨 유현(儒賢) 제현(齊賢)의 후예로 마곡(麻谷) 숙지(俶祉)의 증손이다. 중종 기묘(1519)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높은 재주와 깊은 학문으로 선배들에게 추천되었으나 정암 조광조가 화를 입는 것을 보고 드디어 과거사업(科擧事業)을 사양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남포에서 두문하며 스스로 수신하고 더불어 세상을 서로 잊어버리고 고민하는 바가 없었다. 자손들이 이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
- **안자문(安子文)** : 자는 가빈(可彬)이며 광주(廣州)안씨 호당(湖堂)윤(潤)의 손자로 중종조에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 **이요년(李堯年)** : 용인이씨 청백리(清白吏) 백지(伯持)의 후예로 인조조에 진사, 교관(敎官)을 지내고 외숙 김극성(金克成)을 따라 보령에 물러나 살았다.
- **오현(吳獻)** : 보성오씨 적개공신(敵愾功臣) 양무공(襄武公) 자경(子慶)의 후예로 진사이다.
- **이성(李晟)** : 호는 만강(晩岡)으로 공주이씨 현감 인정(麟禎)의 후예이다. 현종조에 진사를 하고, 유고가 있다.
- **임주원(任柱元)** : 호는 낙은재(樂隱齋)로 장흥(長興)임씨 직제학(直提學) 종선(從善)의 후예이다. 설천(雪川) 이봉상(李鳳祥)의 문인으로 문학이 있었다. 영조조에 진사를 하여 태학(太學)에서 3년간 학문의 규범에 필요한 것을 닦아서 정리했다.
- **윤희(尹淮)** : 자는 자원(自源)이며 파평윤씨 장령(掌令) 이림(爾霖)의 손자이다. 진사로 문장과 글씨가 유명했다.

- **임윤택(任潤澤)** : 자는 윤경(允卿), 호는 가은(可隱)으로 명신 향(珦)의 후예이다. 진사(進士) 학행(學行)으로 지평(持平)을 지내다.
- **이봉규(李鳳逵)** : 호는 오은(梧隱)으로 청해(靑海)이씨 명신 유민(裕民)의 증손이다. 정조조에 진사, 교관(敎官)이었으나 나가지 않고 두문하고 책만 읽었다. 유고가 있다.
- **김낙항(金洛恒)** : 자는 여종(汝宗)으로 광산김씨 훈신(勳臣) 극성(克成)의 사손(祀孫)이다. 진사로 문학이 있었다.
- **채신문(蔡愼文)** : 인천채씨 인천군(仁川君) 수(壽)의 후예로 풍정(楓汀) 여인(汝仁)의 현손이다. 순조조에 진사를 하였다.
- **박태진(朴泰鎭)** : 호가 양진관(養眞觀)으로 밀양박씨 유일(遺逸) 부원(溥源)의 현손이다. 현종조에 진사를 하였다.
- **이희영(李熙榮)** : 자는 사진(士進), 호는 한사(閑史)로 유현(儒賢) 제현(齊賢)의 후예이다. 진사로 시종(侍從)을 지냈다.
- **백영수(白泳洙)** : 자는 성함(聖涵), 호는 미산(峩山)으로 유현(儒賢) 이정(頤正)의 후예 유행(儒行) 태진(泰鎭)의 아들이다. 철종조에 진사를 하였다.
- **이준재(李準在)** : 자는 치명(致明), 호는 청오(聽悟)로 한산이씨 훈신 산보(山甫)의 후예이다. 진사를 하다.
- **오사권(吳史權)** : 자는 여강(汝綱), 보성오씨 양무공(襄武公) 자경(子慶)의 후예이다. 고종조에 진사를 하고, 효심과 우애가 깊고 지조와 행실이 단아하고 정중하였다.
- **이원식(李元植)** : 자는 선장(善長), 호는 지은(芝隱)으로 훈신(勳

- 臣) 산보(山甫)의 후예 교관(敎官) 승협(承協)의 아들이다. 진사(進士)를 하고 감역(監役)을 지냈다.
- 이봉식(李鳳植) : 자는 순의(舜儀)로 한산이씨 명신(名臣) 태중(台重)의 현손이다. 진사(進士)로 부사(府使)를 지내고 청렴함을 지키어 명리(名利)를 구하지 않았다.
 - 이관식(李觀植) : 자는 경년(景年), 호는 석암(石菴)으로 한산이씨 명신(名臣) 무(裘)의 후예이다. 진사(進士)로 기개가 준걸하고 지조가 높아 명리(名利)에 굽히지 않았으며 피를 잘 내고 생각이 빼어났다.
 - 이면식(李冕植) : 자가 경무(景武), 호는 석당(石堂: 위는 石菴으로 되었음)으로 관식(觀植)의 아우이다. 사마(司馬).
 - 민익훈(閔益勳) : 자는 겸여(謙汝), 호는 죽리(竹里)로 여흥민씨 여평(驪平) 부원군(府院君) 효증(孝曾)의 후예이다. 진사, 벼슬은 교수(敎授).
 - 임승재(任升宰) : 호는 단석(丹石)으로 풍천임씨 문과(文科) 상호(尙鎬)의 아들이다. 진사(進士), 문행이 있었다.
 - 조석원(趙錫元) : 자는 공일(公一)이며 한양조씨 돈계(遯溪) 필(弼)의 후예로 생원(生員)이다.
 - 신대영(申大永) : 호는 정심(庭心)으로 평산신씨 명환(名宦) 응선(應善)의 아들이다. 가정의 교훈을 승습(承襲)하여 글씨를 잘 썼으며 진사(進士), 교관(敎官)이었다.
 - 조일원(趙一元) : 자는 문유(文有), 호는 소산(蘇山)으로 한양조씨 유일(遺逸) 성(城)의 후예이다. 진사로 문학이 있었다.

- 조길원(趙吉元) : 자는 공이(公履)로 동몽교관, 진장(進壯: 진사의 장원)이다.
- 이승의(李承儀) : 자는 윤조(允祖), 호는 오당(梧堂)으로 전주이씨 효령대군 보(補)의 후예이다. 진사(進士), 문행이 있었다.
- 김민제(金敏濟) : 호는 위정(韋庭)으로 경주김씨 명환(名宦) 상덕(商德)의 아들이며 사마(司馬)이다.
- 심택진(沈宅鎭) : 호는 하정(荷汀)으로 청송심씨 명환(名宦) 재숙(在淑)의 아들이다. 진사(進士)로 곡성(谷城)과 고령(高靈)을 맡아 지내고 물러나 보령에 은거하며 산수(山水)에 자적했다.

무 과(武科)

- 이인정(李麟禎) : 공주이씨 공숙공(恭肅公) 명덕(明德)의 후예로 명종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현감을 지냈다.
- 최종호(崔終浩) : 자는 수연(粹然)이며 전주이씨로 무과에 급제하였다. 13군을 맡아 지내고 경상 좌병사(左兵使)로 옮겼다가 총관(摠管)이 되어 들어갔다.
- 이진의(李進義) : 자는 성진(星眞)으로 전주이씨 원종훈(原從勳) 대충(大忠)의 아들이다. 효종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은 첨추(僉樞)를 지냈다.
- 임정립(任廷立) : 자는 군망(君望), 호는 신재(愼齋)로 풍천임씨 명신(名臣) 향(珦)의 후예 증(贈)참판(參判) 시진(時珍)의 아들이다. 숙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지내고, 진휼한 공으로써 가선(嘉善)에 승계하고 동중추(同中樞: 동지중추)에 명

(命)해졌고 종2품의 은전을 주니 두 달 급료가 쌀 석 섬 두 말 이었고 정헌(正憲)에 승계되다.

- **김영재(金永載)** : 통천김씨 충신 응의(應漪)의 현손으로 경종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총융청(摠戎廳)의 군관(軍官)을 지내다.
- **백사준(白師俊)** : 자는 의경(毅卿)으로 남포백씨 유현(儒賢) 이정(頤正)의 후예이다. 영조조에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을 지내고 증직은 훈련원정(訓練院正)이다.
- **백사천(白師天)** : 자는 여문(汝文)으로 참의(叅議) 윤철(允哲)의 후예이다. 무과에 급제, 웅천현감(熊川縣監)을 지냈으며 무략(武略)이 발취(拔萃: 여럿 가운데 특별히 빼어남)하여 임신(壬申)난 때 의거(義舉)를 생각했으나 난리를 평정하지는 못하다.
- **임태두(任泰斗)** : 풍천임씨 참찬관(叅贊官) 대의(大義)의 증손으로 현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운총(雲寵) 진관(鎭管), 황주(黃州) 우후(虞侯) 겸 토포사(討捕使), 북청(北靑) 우후(虞侯), 전주영장(全州營將)을 지내고 가선(嘉善)에 승계되다.
- **이희완(李熙完)** : 호는 송헌(松軒)으로 전의이씨 명신(名臣) 응식(應植)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부사(府使)를 역임, 전라수사(水使)와 경상 우병사(右兵使)를 지냈으며 벼슬은 승지에서 그쳤다.
- **이두현(李斗鉉)** : 수안이씨 훈신(勳臣) 기(夔)의 후예로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병사(兵使)에 이르렀다.
- **이승영(李升榮)** : 자는 윤보(允甫)로 경주이씨 유현(儒賢) 제현(齊賢)의 후예 참판(叅判) 집존(集存)의 아들이다. 고종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충무위 우부장(忠武衛右部將)을 지냈다.

- **이중철(李鍾轍)** : 자는 공거(公車), 호는 근암(勤巖)으로 성주이씨 문경공(文景公) 직(稷)의 후예이다.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사마(司馬)의 길로 나와 성품은 인선(仁善)을 겸하고 천성의 뿌리가 효우(孝友)하고 힘써 노력하며 뜻이 독실하고, 근검으로 성가(成家) 시킴에 의로웠다. 아들은 홍순(弘淳), 범순(範淳), 돈순(敦淳), 긍순(肯淳)이다.
- **임도호(任道鎬)** : 자는 관일(貫一), 호는 위재(爲齋)로 명신(名臣) 향(珦)의 후예이다. 전간재(田良齋: 전우)의 문인으로 무과에 급제, 여섯 번 승진하여 진해 현감 부호군(副護軍)을 지내고, 갑오년(1894)에 사직하고 남포로 돌아오다.
- **이교원(李教元)** : 호는 우송(又松)으로 희원(熙元)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수사(水使)를 지내고 통정대부에 승계되다.

음 사(蔭仕)

- **임명신(任命新)** : 명신 향(珦)의 후예 동추(同樞: 同知中樞) 영지(永智)의 아들이다. 성종조에 참봉(參奉), 첨중추(僉中樞: 僉知中樞)에 나가다.
- **임백령(任百齡)** : 명신(名臣) 향(珦)의 후예 참봉(參奉) 팽조(彭祖)의 아들이다. 명종조에 첨중추(添中樞)를 지내다.
- **신곡(申鶴)** : 호는 영우재(寧寓齋)로 평산신씨 현감 정(禎)의 아들이다. 선조조에 현감, 임진왜란 때 보령에 숨어살았다. 이토정을 좇아 교유했었다.
- **원득회(元得會)** : 공신(功臣) 수신(守臣)의 아들로 벼슬은 현령(縣

승)을 지내고 이명곡(李鳴谷: 이산보)을 따라 교유했었다.

- **임언충(任彦忠)** : 자는 미여(美汝)로 백령(百齡)의 아들이다. 병절교위(秉節校尉)를 지내고, 증직은 사복시정(司僕寺正)이다.
- **최율(崔嶽)** : 자는 백침(伯瞻)으로 효자 광필(光弼)의 아들이다. 생원(生員), 벼슬은 현감(縣監)이다.
- **안우명(安遇明)** : 원종훈(原從勳) 대진(大進)의 아들이다. 아홉 살 때 상(上)께서 돌아보고 특별히 융숭한 대우로 종유석 명품석과 책을 주셨다. 교관(敎官)을 받았으나 도사(都事)에서 그쳤다.
- **이세해(李世楷)** : 용인이씨 청백리(清白吏) 백지(伯持)의 후예로 인조조에 평택현감을 지내다.
- **임경문(任慶門)** : 시정(寺正) 언충(彦忠)의 아들로 동중추(同中樞)를 지내다.
- **임경항(任慶恒)** : 경문(慶門)의 아우로 효종조에 판결사(判決事)를 지내다.
- **채준현(蔡俊賢)** : 인천채씨 송오(松塢) 극철(克哲)의 증손으로 10년간 진휼(賑恤)하는 일을 했다. 현종조에 한성(漢城) 우윤(右尹)을 지내다.
- **임정신(任廷信)** : 명신 향(珦)의 후예 시집(時輯)의 아들로 부호군(副護軍)을 지내다.
- **유탍연(柳卓然)** : 자는 탁이(卓爾)로 진주유씨 진양군(晉陽君) 효걸(孝傑)의 아들이다. 숙종조에 사마(司馬), 여러 차례 주(州)의 목사를 맡고 중제(仲弟)인 야당(野堂) 혁연(赫然)과 더불어 당시

에 명성이 높았다.

- **채성린(蔡聖麟)** : 우윤(右尹) 준현(俊賢)의 손자로 남포현감을 지내다.
- **한의(韓嶮)** : 청주한씨 청원위(淸原尉) 경록(景祿)의 증손으로 현감을 지내고, 증직은 호조참판이다.
- **임이흠(任以欽)** : 자는 군휘(君輝)로 명신 향(珦)의 후예 정구(廷龜)의 아들이다. 부호군(副護軍)을 지내고, 효우(孝友)하였으며 충근(忠勤)히 나라에 봉사했다.
- **박우춘(朴遇春)** : 밀양박씨 청재(淸齋) 심문(審問)의 후예로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지내다.
- **황상원(黃相輅)** : 자는 추경(樞卿)이며 장수황씨 효자 유업(有業)의 후예로 영조조에 현감을 지내다.
- **성영순(成永淳)** : 자는 백하(伯河)로 창녕(昌寧)성씨 문효공(文孝公) 사달(士達)의 후예 진사(進士) 만진(晩鎭)의 아들이다. 순조조에 별제(別提)를 지내고, 나이 들어 보령에서 쉬며 시문(詩文)을 즐겼다.
- **신재진(申在晉)** : 자는 일삼(日三)이며 평산신씨 화당(化堂) 민일(敏一)의 후예로 현종조에 의영고(義盈庫) 직장(直長)을 지내다.
- **백기진(白箕鎭)** : 자는 덕유(德裕), 호는 성암(性菴)이며 남포백씨 참판(參判) 시옥(時玉)의 후예로 철종조에 도사(都事)를 지내다.
- **이민익(李敏翼)** : 자는 자운(子雲), 호는 송암(松菴)으로 함평(咸平)이씨 장양공(莊襄公) 종생(終生)의 후예 증(贈) 규장각(奎章

閣) 제학(提學) 응서(應緒)의 아들이다. 품성이 관후하고 효성과 우애가 출천하였으며 경사(經史)에 박통(博通)하고 향리에 거(居)하면서도 법도가 있었다. 솔(松)로써 호를 삼았으니 스스로 산수를 사랑해 그 맑음을 취해서 절개를 지켰다.

고종 계사년(1893)에 네 아들과 한 손자의 등과(登科)에 견주어 통정대부의 품계를 몽은하고 도정(都正)에 이르고 가의(嘉儀)로 승계하고 또 의관(議官)에 제수되었으나 풍습(風濕)의 병으로 사직을 상소하였다. 비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니 칭찬 바가 다 갖추어 있기에 이에 의해서 시행한다.” 하였다. 시가 있으니

布夜半世樂山林
포야반세락산림

포의로 쉬며 반세상을 산림 속에서 즐겼는데

懸玉幾時又着金
현옥기시우착금

몇 번이나 옥관자를 달았고 또 금관자를 착용했던가

年至八旬衰病劇
년지팔순쇠병극

나이 팔순에 이르러 몸은 쇠해지고 또 병이 극한데도

資陞二品聖恩深
자승이품성은심

자품이 2품에 오르니 성은이 깊도다

本爲分內修身計
본위분내수신계

본시 분수 안에서 수신하기를 꾀했지만

虛負胷中報國心
허부중보국심

흉중에 보국하고자 하는 마음을 헛되이 저버리고만 있는데

似我不草增此秩
사아불초증차질

나 같은 불초에게 이같이 품수만 더해지니

仰看天日照人臨
양간천일조인림

우러러보는 하늘에 해가 사람을 비쳐오고 있음이여

유고가 있고 심당(心堂) 신응선(申應善)이 지은 비같이 있다.

- 유기찬(柳冀贊) : 자는 치원(致遠)이며 탁연(卓然)의 후예로 현감을 지내고 문행이 있었다.
- 박인화(朴麟和) : 호는 수곡(壽谷)으로 밀양박씨 진사(進士) 태진(泰鎭)의 아들이다. 벼슬이 참봉(參奉)에서 삼품(三品)에까지 올

랐었으나 시사(時事)가 날로 잘못되어 감을 보고 병을 칭하여 사양하고 돌아오다.

- **김영돈(金榮敦)** : 효자(孝子)편을 보라. 구례(求禮)현감을 지내고, 증직은 가선대부(嘉善大夫) 내부협판(內部協辦)이다.
- **조용호(趙龍鎬)** : 자는 여현(汝賢), 호는 계은(溪隱)으로 양주조씨 충정공(忠靖公) 계원(啓遠)의 후예 현감(縣監) 중세(重世)의 아들이다. 벼슬은 빙고(氷庫) 별제(別提), 의관(議官) 삼품(三品)에 오르다.
- **성혁기(成赫基)** : 호는 이운(怡雲)으로 창녕(昌寧)성씨 명망(名望) 하국(夏國)의 종질(從姪)이다. 성균관 교수를 지내고, 문학과 몸가짐에 품행이 있어 사우(士友)들에게까지 전송(傳誦)되었다.
- **이연오(李淵五)** : 명관(名官) 완진(完鎭)의 아들로 벼슬은 참봉(參奉)이다. 벼슬이나 명리(名利)를 고사(固辭)하고 거문고와 책에 뜻을 붙였을 뿐이다.
- **유기호(柳氣浩)** : 기찬(冀贊)의 손자로 벼슬은 참봉(參奉)이다. 자품과 성정이 혼후(渾厚: 사람됨이 크고 원만한 모양. 주희(朱熹)는 ‘如顔子便渾厚不同’ 이라는 말을 하였다)하고 조행(操行: 온갖 행실과 몸가짐)이 단아했다.
- **이동구(李東九)** : 호가 미산(峴山)으로 여주이씨 충신(忠臣) 의헌공(毅憲公) 광윤(光輪)의 후예이다. 벼슬은 주사(主事) 유학(儒學)과 행실이 올바라서 사람들에게 거듭 추대되었다.
- **임달호(任達鎬)** : 절의(節義) 학준(學準)의 아들로 벼슬은 주사(主事)이다. 전적(典籍) 속에 잡겨서 가풍(家風)을 소술(紹述: 앞사람

의 일을 이어받아 행함)하였다.

- **신창섭(申昌燮)** : 자는 성배(聖拜), 호는 소암(蘇菴)으로 현감 곽(鵠)의 후예 위원(委員) 동우(東禹)의 아들. 세무주사(稅務主事)에서 서천군수로 나갔다.

수 직(壽職)

- **고제형(高濟亨)** : 자는 상운(尙運)으로 장흥고씨 제봉(霽峯) 경명(敬命)의 후예 관진(觀鎭)의 아들이다. 현종조에 수직이 동지중추(同知中樞) 겸 오위장(五衛將)이다.
- **이집존(李集存)** : 자는 사심(士心)으로 경주이씨 진사 전(堧)의 후예이다. 고종조에 수직이 가선(嘉善) 공참(工叅: 공조참판)이다.
- **박봉래(朴鳳來)** : 자는 성신(誠信)으로 밀양박씨 좌랑(佐郎) 우춘(遇春)의 후예이다. 수직이 도정(都正)이다.
- **임순모(任純模)** : 자는 덕지(德之), 호는 호은(湖隱)으로 명신 향(珦)의 후예 태윤(泰倫)의 아들이다. 수직이 통정(通政) 가선(嘉善) 동중추(同中樞)이다.

증 직(贈職)

- **김수춘(金壽春)** : 무과(武科) 가선(嘉善)에 올랐고 증(贈) 병판(兵判: 병조판서)이다.
- **신광제(申光濟)** : 고령(高靈)신씨 승지(承旨) 학(濼)의 아들로 진

사(進士), 증(贈) 지평(持平)이다.

- 이제운(李濟運) : 한산이씨 훈신(勳臣) 산해(山海)의 후예 동근(東根)의 아들로 증(贈) 지평(持平)이다.
- 신응수(申應秀) : 효행이 있어 특별히 증(贈) 호참(戶叅).
- 김제기(金濟基) : 자는 경진(敬進)으로 김해김씨 대사간(大司諫) 홍복(洪福)의 후예이다. 증(贈) 공참(工叅).
- 고관진(高觀鎭) : 자는 여택(汝澤) 장흥고씨 제봉(霽峯) 경명(敬命)의 후예이다. 순조조에 증(贈) 호참(戶叅).
- 신시식(申時湜) : 자는 사직(士稷)으로 평산신씨 비서(秘書) 승윤(承允)의 아들이다. 고종조에 증(贈) 가선(嘉善) 탁지(度支) 참서(叅書).

명 식(名釋)

- 송운 유정(松雲 惟政) : 자는 이환(離幻), 호는 사명당(四溟堂), 풍천임씨이다. 총명하고 지혜롭게 태어나 나이 열세 살에 유촌(柳村) 황여헌(黃汝獻)에게 『맹자(孟子)』를 배울 때 책 배우는 것을 폐(廢)하고 탄식해 말하기를 속학(俗學: 세속의 책을 배우는 공부)은 천하고 고루하다 하고 즉시 황악산(黃岳山) 직지사(直指寺)에 투신해 신묵(信默)스님에게 머리를 깎았다.

이미 깨닫고는 깊은 뜻으로 선과(禪科)에 적중하여 주지(住持)가 되었으나 선종(禪宗)에 쓴말(苦辭)을 하고 묘향산(妙香山)으로 들어가 청허(淸虛: 서산대사)에게 2년을 더욱 받은 후에 풍악산

(楓嶽山: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가 남으로 팔공산(八公山), 청량산(淸涼山), 태백산(太白山), 오대산(五臺山) 등 모든 산을 유람했다.

선조 임진란에 청허(淸虛)가 총섭(摠攝)이 되어 모든 도(道)에 승병(僧兵)을 천발(薦拔)할 때 스스로 스승을 대신하여 곧 대중(大衆)을 거느리고 평양(平壤)을 파하고 내려와 영남 등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상(上)께서 아름답게 여겨 당상(堂上: 정3품 이상)의 계제를 제수하였다. 국서를 받들고 일본에 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약(和約)을 좋게 이루고 돌아오니 조정에서 병판(兵判: 병조판서)을 제수했으나 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빌었다. 세수(世壽: 세상에서 말하는 나이) 67세였다.

조선환여승람 발(朝鮮寰輿勝覽 跋)

대체로 백성이 있으므로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역사가 있어 版籍(판적)을 갖추어 천만세에 바뀌지 않는 전적(典籍)이 되는 것이다. 오직 우리 동방에 나라가 있음에 단군 무진에 조선이라 이름하고 지리 인물이 이때부터 발전되다가 기자 성인이 와서 도읍함에 교화법도가 찬연히 밝게 열리어 소중화라 이르게 되었고 삼한시대를 지나 고려에 이르기까지 국호는 비록 달랐어도 이 땅의 구역이야 변치 않았던 것이다. 다못, 임신년(1392) 태조께서 선위를 받아 국호를 다시 조선이라 하였다.

4천년 간을 지나오며 성군 현사들이 계승하여 토지를 파서 산야를 열고 천택(川澤)을 깊이 파서 도(道)와 군(郡)을 두고 도시를 설치하여 인사를 길러 내니 백성에겐 가보(家譜)가 있고, 나라에는 모아진 역사가 있고, 도와 군에는 각각 그 지(誌)가 있다.

그러나 세대가 멀다보니 속가(俗家)의 작은 문서나 표본들이 흩어져 완전치 못함으로 성묘조(成廟朝: 성종) 무술(1478)에 왕명으로 『동국여지승람』이 지어진 이후 400여 년에 현인군자의 갖추어진 저술이 비록 많다 해도 사물이 바뀌고 세월이 옮겨져서 환우 연혁 등 모두가 『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할 때 한결같지 못한지라.

재주 없어 물러나 쉬며 공산(公山: 공주)에 유지의 많은 선비들과 이곳 군지를 이어서 수찬했으나 나의 소속된 군에 관계된 글만인 고

로 감히 간략한 뜻을 말하면서도 그 전선지(全鮮誌: 전조선의 기록)에는 겨를이 없음을 탄식하던 바였는데 다행히 지금 21이사문(李斯文) 병연(秉延)이 여지승람을 본받아 전선지를 편집하여 책이름을 「조선환여승람」이라 말하고 나에게 바른 상고의 기록을 부탁하나 나의 고루함으로 어찌 감히 그간에 현안(玄晏: 어둡고 밝음)을 말하랴.

그러나 한갓 본시의 뜻이 아니라 해도 처음으로 편 이사문의 다년간 많은 적공을 생각하여 두렵고 주제넘음에도 불고하고 감히 거친 말을 붙이며 군자의 이어진 편집을 기다린다.

공부자(孔夫子) 탄강 2480년 기사(1929) 계추(9월) 중양일(9일)

종이품(從二品) 가선대부(嘉善大夫) 전임(前任) 내장원경(內藏院卿)
김윤환(金閔煥) 발(跋)

조선환어승람 원문(朝鮮寰輿勝覽 原文)

대체로 우리 조선이 비록 궁벽히 동남아의 바다 모퉁이에 있으나 처음 단기로부터 삼한시대를 지나서 삼국시대에 이르렀는데 대체로 한양 정도 후의 사적에 있어서는 밝게 징험할 수가 있으니 해동군자국이라 칭하기에 진실로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역사의 저술이 오랜 먼 세대의 변천 속에 판적을 옮겨온 관계로 세상의 중한 가르침을 새긴 것이 없어진 것을 날날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바라 고려 중엽에 문렬공(文烈公) 김부식(金富軾) 같은 분이 『삼국사기』를 이때에 지었으며 조선에 들어와 지어진 것으로는

사학인즉 문충공(文忠公) 서거정(徐居正) 같은 분의 『동국통감』과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 같은 게 있고 지리학인즉 성종조에 『여지승람』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강역고』,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 같은 글들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더욱 최고의 저술은 곧 『여지승람』이라 할 수 있다. 역대의 지리, 인물을 일목요연하게 상세히 모아서 편찬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저술이 이어지지 않았기에 이에 그것이 부족하게 되었다. 병연(秉延)이 그릇이 작고 모자란 재주이나 일찍이 이를 개연(慨然: 안타깝게 슬퍼 탄식하는 모양)해 한 지 오래였는데 외람히 동지들의 협찬에 힘입어 이 몸에 위임한 이 글을 이어갈 수 있는 일에 큰 힘이 되었다.

그 본뜻에 심히 긴요치 않은 것은 생략하고 그 동사에 실지로 관계가 되는 큰 뜻은 증보하였다. 먼저 해동의 환우(寰宇)와 흥체(興替) 연혁을 이었고 다음으로 조선여지의 배출 인물을 지어 넣었으나 그

로 감히 간략한 뜻을 말하면서도 그 전선지(全鮮誌: 전조선의 기록)에는 겨를이 없음을 탄식하던 바였는데 다행히 지금 21이사문(李斯文) 병연(秉延)이 여지승람을 본받아 전선지를 편집하여 책이름을 『조선환여승람』이라 말하고 나에게 바른 상고의 기록을 부탁하나 나의 고루함으로 어찌 감히 그간에 현안(玄晏: 어둡고 밝음)을 말하랴.

그러나 한갓 본시의 뜻이 아니라 해도 처음으로 편 이사문의 다년간 많은 적공을 생각하여 두렵고 주제넘음에도 불고하고 감히 거친 말을 붙이며 군자의 이어진 편집을 기다린다.

공부자(孔夫子) 탄강 2480년 기사(1929) 계추(9월) 중양일(9일)

종이품(從二品) 가선대부(嘉善大夫) 전임(前任) 내장원경(內藏院卿)
김윤환(金潤煥) 발(跋)

조선환여승람 원문(朝鮮寰輿勝覽 原文)

대체로 우리 조선이 비록 궁벽히 동남아의 바다 모퉁이에 있으나 처음 단기로부터 삼한시대를 지나서 삼국시대에 이르렀는데 대체로 한양 정도 후의 사적에 있어서는 밝게 징험할 수가 있으니 해동군자국이라 칭하기에 진실로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역사의 저술이 오랜 먼 세대의 변천 속에 판적을 옮겨온 관계로 세상의 중한 가르침을 새긴 것이 없어진 것을 날날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바라 고려 중엽에 문렬공(文烈公) 김부식(金富軾) 같은 분이 『삼국사기』를 이때에 지었으며 조선에 들어와 지어진 것으로는

사학인즉 문충공(文忠公) 서거정(徐居正) 같은 분의 『동국통감』과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 같은 게 있고 지리학인즉 성종조에 『여지승람』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강역고』,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 같은 글들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더욱 최고의 저술은 곧 『여지승람』이라 할 수 있다. 역대의 지리, 인물을 일목요연하게 상세히 모아서 편찬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저술이 이어지지 않았기에 이에 그것이 부족하게 되었다. 병연(秉延)이 그릇이 작고 모자란 재주이나 일찍이 이를 개연(慨然: 안타깝게 슬퍼 탄식하는 모양)해 한 지 오래였는데 외람히 동지들의 협찬에 힘입어 이 몸에 위임한 이 글을 이어갈 수 있는 일에 큰 힘이 되었다.

그 본뜻에 심히 긴요치 않은 것은 생략하고 그 동사에 실지로 관계가 되는 큰 뜻은 증보하였다. 먼저 해동의 환우(寰宇)와 흥체(興替) 연혁을 이었고 다음으로 조선여지의 배출 인물을 지어 넣었으나 그

규모가 작아 구본(舊本)과 다를 수 있는 고로 감히 온전히 그 이름을 다 이어가지는 못하고 『환여승람』에서 고쳐 표기되기도 했다.

대개로 뜻이 이와 같음에 심히 두려움에 이르는 바이다. 그러나 사서를 널리 채집하고 이어서 힘써 비교하여 정요한 것만 취해서 다시 이어 간행하니 판도는 옛 문적을 수놓은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덕과 명절(名節)은 일월 같으므로 우주연혁의 깊은 뜻을 밝히고 가히 그 바탕을 밝히어 의연히 사가의 눈에 저장케 하려면 역대의 이름난 족적을 차례차례 상고해야 할 일이다.

황연(恍然: 놀라 쳐다보는 모양)히 말하자면 이 같은 문장은 보감(寶鑑)이라 할 수 있으니 청구(靑丘)에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백성을 교화하고 중요한 풍속을 이루는 것이며, 또 지리 사학을 널리 건너게 하는 첩경이라 이는 앞의 글에서 빠짐이 없는 바이다.

탄식하거니 이글을 어찌 다 금세(今世)에만 아름답게 쓰리요, 진실로 백세까지 내려서 해석하며 중국과 우리 나라에 나누어 전하고 대동(大東: 크게 동아시아)에 까지 소식을 베풀면 어떻겠는가.

병연이 학식이 천단(淺短)하여 불능함이 지극하고 극진한데 감히 거친 말을 엮어 모아 전말을 모두 책의 꼬리에 붙여 간략히 서술하고 뒤에 입언(立言: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의견을 세우고 세상에 발표하는 것)할 군자를 기다리노라.

공부자 탄강 2480년 기사년(1929) 10월 일
연안 이병연은 삼성헌(三省軒)의 송석산방(松石山房)에서
삼가 기록하노라

(孔夫子 誕降 二千四百八十年 己巳 十月 日
延安 李秉延 謹識于 三省之軒 松石山房)

朝鮮寰輿勝覽(大川)

조선 환여승람 대천

2010년 2월 20일 인쇄
2010년 3월 1일 발행

발행처 대천문화원
원편집자 이병언
교열자 안병태
번역 이덕영
인쇄처 명문당 인쇄소(935-2850)

비매품

昭和十年二月二十日印刷
昭和十年三月一日發行

著作無發行著 李秉延

大田郡鎮西面大井里

印刷者 文光鉉

公州郡木洞面木洞里

印刷兼發行所 普文社

版權所有

海東寰宇之興替沿革次述朝鮮輿地之輩出人物其規少有異
於舊本故不敢全有其名改義以寰輿勝覽蓋義由於此而猥甚
之至矣然史以博採乘以校讐言務取精要更續刊行版圖舊籍文
繡乎權域道德名節日月乎宇宙汎革之奧旨昭々可質而依然
為史家之眼藏歷代之名蹟班々可攷而悅然若文章之寶鑑則
於青邱一幅為化民成俗之要而示於地理史學廣涉之捷徑無
出此右者矣噫此書豈用專美於今世也苟百世之下釋華夷之
分而傳大東消息者舍此奚以哉秉延學識淺短不能至矣盡矣
敢搆蕪辭略叙顛末附諸編尾以俟後之立言君子焉

孔夫子誕降二千四百八十年己巳十月 日

延安 李秉延謹識于三省軒之松石山房

朝鮮寰輿勝覽跋

夫我朝鮮雖僻在東亞之海隅肇自檀箕歷三韓以至三國逮夫漢都史籍昭然可徵而補為海東君子國者真無愧矣然史述悠遠世代變移版籍之關重世教者錢夷難以枚舉而高麗之中葉有若金文烈當軾二國史即是代之有述者入于朝鮮有若史學則徐文忠居正東國通鑑安順庵昂福東史綱目有若地理學則成廟朝輿地勝覽丁茶山若鏞疆域考李重煥擇里志並皆見稱於世而其中最尤著者即輿地勝覽耳歷代之地理人物瞭然可詳而纂輯日久續述尚闕是其次耳秉延以斗筭之器茂芳之才嘗慨然於斯者久矣猥蒙同志之協贊委身是書之續而以事鉅力綿略其本旨之不甚駁系要者增其東史之實關大上目者而先續

跋

朝鮮寰輿勝覽

二

革此諸輿地勝覽不可爲以一而同也不佞休退於公山
有志及士續修此郡之誌屬余而爲文故敢說略志而嘆
其全鮮誌之未遑矣幸於今者李斯文秉筴倣輿地勝覽
而編輯全鮮誌籍名曰朝鮮寰輿勝覽謂余考正而識之
以余之固陋豈敢玄晏於其間哉然而非徒素志之始展
爲念李斯文之多年積累不顧猥越敢付蕪辭以俟後來
君子之續輯焉

孔夫子誕降二千四百八十年己巳季秋重陽日

從二品嘉善大夫前任內藏院卿金閏煥跋

朝鮮寰輿勝覽跋

夫有民而有國有國而有史有史而備版籍千萬世不易之典也惟我海東之有國自檀君戊辰號為朝鮮地理人物始乃發展及其箕聖之來都教化法度燦然啓明謂之小中萃而歷三韓至高麗國號雖殊地區不變又暨壬申太祖受禪國號復為朝鮮爾來四千年之間聖君賢臣繼承葦出闢土地開山野濬川澤置道郡設都市養人士民有家譜國有史纂道郡各有其誌然世遠俗微文憲渙散考籍未完矣成廟朝戊戌命撰輿地勝覽以後四百餘年賢人君子雖備著述之多物換星移寰宇沿

跋

月華受國卷覽

一

申應秀

有孝行特贈戶參

金濟基

字敬進金海人

大司贈工參

高觀鎮

字汝澤長興人

壽峯敬命后

純祖朝贈戶參

申時湜

字士稷高宗朝

平山人秘書丞允禹子贈嘉善度支參書

松雲

惟政

姓任字離幻諱泗溟堂豐川人而聰慧年十

三學孟子於柳村黃汝獻廢卷歎曰俗學賤陋

即投黃岳山直持寺禮信默被劓既悟與旨中禪科為住持禪

宗苦辭八妙香山受益於清虛二年入楓岳有遊八公清涼太

白五臺諸山下 宣祖壬辰清虛掩攝諸道僧兵薦師自代遂統

大衆破平壤功 上嘉之授堂上皆奉 國書往

日本克成和好及還授以兵

判乞骸還山止壽六十七

聖恩浹本為分內修身計虛負宵中報國心似我不肖柳冀贊致

遠卓然有文行朴麟和號壽谷密陽人進士泰鎮子官終金榮敦

見孝子篇求禮監驛趙龍鎬字汝賢號溪隱揚州人忠靖公啓

官陞成懌基號怡雲昌寧人名望夏國從任官李淵五名官完

叅奉固謝名柳氣浩翼贊孫官終奉姿李東九號嶠山駐州人

行誼為人推重任達鎬節義學準子官主事申昌燮號蘇菴

縣監鵠后委員東禹子稅壽職高濟亨字尚運長興人嶽峯敬

兼五衛將李集存字士心慶州人進士荃石朴鳳來字誠信密

壽都正任純模字德之號湖隱名臣响后泰贈職金壽春武科

善判贈申光濟高靈人承旨澤子李濟運韓山人勳臣山海后

保寧 二月羊 贈持平 贈持平

教官止 **李世楷** 龍仁人清白吏伯特后 **任慶門** 寺正彥忠 **任慶恒**

慶門弟 **孝宗** **蔡俊賢** 仁川人松塢克哲曾孫以十年 **任廷信**

朝官判夾事 **柳卓然** 字卓甫曹州人昔陽君孝傑子肅宗朝司馬

名臣珣后時緝 **蔡聖麟** 右尹俊賢孫官監 **韓崑** 清州人清原尉景祿曾 **任以欽**

子官副護軍 **輝名** 臣珣后廷龜子官副 **朴遇春** 密陽人清齋審問 **黃相轅**

護軍居家孝友奉公忠勤 **成永淳** 字伯河昌寧人文孝公士達后進

卿長水人孝子有業后 **保寧詩** **申在晉** 字日三平山人化堂敏一 **白箕鎮** 字德裕號性

文自娛 **判時王后** **李敏翼** 字子雲號松菴咸平人莊襄公從生后

宗朝官都事 **高宗癸巳** 以四字一孫登科例 **蒙通政** 至都正陞嘉義又除

出天博通經史居鄉有度以松為號自愛山水取其清而守其節 **議官** 以風濕病上疏辭職 **批日** 省疏具悉所請依施有詩布

衣半世樂山林懸玉幾時又着金平至八旬衰病劇貧陞二品

高孫 景宗朝 白師俊 字毅卿 藍浦人 儒賢 贈訓鍊院正 白師天

武 略 拔萃 壬申 亂 擬舉 義亂 平 未 果 任 泰斗 豐川人 泰贊 官大

武 科 歷 靈 籠 鎮 管 黃 州 虞 侯 兼 討 李 熙完 號 松軒 全義 人名 臣

羅 水 使 慶 尚 右 李 斗 鉉 遂 安 人 勳 臣 夔 李 升 榮 字 允甫 慶州人

判 集 存 子 高 宗 朝 李 鍾 轍 字 公車 號 勤巖 星州人 文景 公 稷

武 忠 武 衛 右 部 將 李 鍾 轍 后 武 科 司 馬 出 陸 性 兼 仁 導 孝 友

根 天 力 行 篤 志 勤 儉 威 家 用 之 任 道 鎬 字 貫一 號 為齋 名 臣 珣

以 義 子 弘 淳 範 淳 敦 淳 肯 淳 任 道 鎬 后 田 良 齋 門 人 武 科 建

六 鎮 海 縣 監 副 護 李 教 元 號 又 松 熙 完 子 隆 任 命 新 名 臣 珣

軍 甲 午 辭 歸 藍 浦 李 教 元 武 水 使 陞 通 政 隆 任 命 新 后 同 樞

永 智 子 成 宗 朝 任 百 齡 名 臣 珣 后 參 奉 彭 祖 申 鵠 號 寧 寓 齋 平 山

宣 祖 朝 縣 監 王 乱 遜 元 得 會 功 臣 守 身 子 官 任 彥 忠 字 美汝 百 齡 子

于 保 軍 李 士 亭 從 遊 縣 令 李 鳴 谷 從 遊 任 彥 忠 兼 節 校 尉 贈

保 寧

崔 律 字 伯瞻 孝子 光弼

安 遇 明 原 從 勳 大 進 子 以 九 歲 兒

上 眷 遇 特 隆 以 乳 名 石 卷 授

李元植 字善長 號芝隱 勳臣 山南 監後 **李鳳植** 字舜儀 韓山人 名臣

清廉自持 **李觀植** 字景年 號石菴 韓山人 名臣 拔慮 **李冕植**

不求名利 **閔益勳** 字謙汝 號竹里 驛興人 驛平 丹

觀植 弟 司馬 **趙錫元** 字公一 漢陽人 申大永 號庭心 平山

石豐川人 文科尚 **趙一元** 字文有 號蘇山 漢陽人 **趙吉元** 字公

子承襲 庭訓 善於 **李承儀** 字允祖 號悟堂 全州人 孝 **金敏濟** 號韋庭 慶州人

筆翰 進士 教官 **沈宅鎮** 號荷汀 青松人 名宦 在馭子 進士 歷 **文科** **李麟楨**

公州人 恭肅公明德 **崔終浩** 字粹然 全州人 武科 歷典 十三郡

后 明宗朝 武縣監 **任廷立** 字君望 號慎齋 豐

李進義 字星真 全州人 原從勳 大忠 **金永載** 通川人

參判 時振子 肅宗朝 武宣傳 又以賑恤 功陞嘉善 **忠世應**

同中樞 命恩 賜從二品 兩朔料米 參石二十 陞正憲

默齋百齡后文 **司馬** 李荃 慶州人 儒賢齊賢后麻谷椒社曾孫
大司成晚休保寧 中宗已卯中司馬以高才遂學為先

輩所推見趙靜庵被禍遂謝舉業 遜跡于藍浦 安子文 字可彬 廣州人
杜門自修與世相忘而無所憫焉子孫仍居

湖堂潤孫子 **李堯年** 諱仁人清白更伯持后 仁祖朝 吳巖 寶
中宗朝司馬 進教官隨其外叔金克成退居保寧 城

人敵愾切臣襄武 **李晟** 號晚岡公州人 監麟積 任柱元 號樂
公子慶后進士 顯宗朝進士有遺稿 隱齋

長興人直提學從善后雲川李鳳祥門人有文 尹淮 字子源坡
學 英祖朝進士 避太學三年學 規必修整 理 尹淮 字子源坡

甬霖孫進士 **任潤澤** 字允卿號可隱名臣珣后 李鳳遠 號極隱
以文筆名 進士以學行 贈梓平 青海人

名臣裕民曾孫 正祖朝進士 **金洛恒** 字汝宗光山人 勳臣克
教官不就杜門讀書有遺稿 成祀孫進士有文學

蔡慎文 仁川人 仁川君壽后 楓汀 朴泰鎮 號養真觀密陽人 遺
汝仁玄孫 純祖朝進士 逸溥源玄孫 憲宗

朝進士 **李熙榮** 字士進號閑史 儒賢齊賢后進侍從 **白泳洙** 字聖濟 號嶺山 儒賢順正 后
士 賢齊賢后進侍從 儒行泰鎮子 哲宗朝進士

李準在 字致明 號壘 梅韓山 吳史 權 字汝綱 寶城人 襄武公子 慶后
人勳臣山甫后進士 高宗朝進士 孝友敦厚 操行雅重

保寧

月 羊 長 尺 卷 分 覽

二十一

榜位至卿宰昌成門戶

文科

李慶倬

號伴琴韓山人勳臣山甫子見忤左遷

李厚

勳臣山海孫

曹佐

吳調

寶城人襄武公子慶后仁祖朝文

學

盧子

信交河人

思慎后

景宗朝文

蔡膺萬

平康人名宦成胤子

蔡德瑞

仁川

人楓汀汝仁孫

英

金申行

號松坡光山人郡守泰

李禎

翎山

英宗朝文府尹

具相殷

字汝衡稜城人憲

李承益

號西湖韓

台重曾孫

憲宗

任尚鎬

字二叔號海隱豐川人憲

趙忠熙

朝文吏然有文學

見名宦篇

金商憲

見名宦篇

申應善

見名宦篇

趙重燁

字

高宗朝文大成

芝楊州人儒賢乘

李圭憲

字篤心號杞齋慶州人進士

白世鎮

志致

藍浦人儒賢願正后博涉經史有

吳麟泳

號翠松同

字致

藍浦人儒賢願正

后博涉經史有

吳麟泳

號翠松同

世遠近驚歎有鄉薦道啓墓表鄭氏籍溫陽晚好女遂安李相勉菴崔益鉉撰石村尹用求書

夫有奇矣盡心救護及其不淑欲藥之張氏籍仁同雲植女金具竭力營辦慈後竊入寢室而藥下從

閨範夙著其夫忽嬰奇疾百方治療漸至危殆朴氏籍密陽仁割股作羹以進及至城崩又斷髮指有褒賞狀

崔鍾環妻年十九于歸幾日其夫結學于公州高等學校猝嬰輪疾竟至不幸成婚時日不踰數朔及其族櫬還家之夕滌天

叩地幾至昏絕因於家族保護延緩幾頃乘間自縊於空櫬之下竟付同穴○掌禮院卿完山李載現撰烈婦碑銘曰蹟氏之

行凜二其烈香禮繞成夫何永訣義重於生殉至已決芳魂櫬上夜深月沒時異制變差晚棹楔士論峻發貞珉不滅

朴氏籍密陽應祥女志貞公光山金克成后若欽妻于歸克執婦道乃生一男曰洛潤產後七朔夫罹患百方治療及喪即

欲下從而顧七朔乳兒無他養申氏籍平山化堂敏一后恭五育舍忍撫養得保金氏之門

元妻孝事舅姑克執婦道早失所天固守貞李氏籍清州中樞節勤儉成家模楷壺庭取侄炳麟繼述家聲

忠臣應滄后贈協辦通川金榮敦妻性本儉約極有淑德奉先盡誠事姑養志早不生育為念後事盡誠龍佛生子閨煥早自

保學

保學

保學



從命高宗趙氏籍白川金寅基妻年纔二十寡及其葬前日送

鄭氏籍泗湯嘉善德好女敬寧君祿后全州李喜寓妻夫病二

掘地吐血殉李氏籍韓山武科應鍾女具益祖妻夫病歿守節

散再刺絕命有輔囊金氏籍慶州忠臣應漪后秘書承通川金敬漢妻夫

從事載李氏籍全州周鳳女慶州金商指妻夫病頻危齋沐

念其老姑養姪玳濟島任氏籍豐川義采女慶州金鳳喜妻夫

三男次子為媳叔系后不幸短命又以李氏籍慶州圭恪女宣

遺腹子再系其後遂成門戶入替補頌李氏籍慶州圭恪女宣

妻孝養舅姑敬順夫子及喪所天易戚備至終祥日仰藥殉從

又身後舍歛之具祭饌之羞預先備置從容就義有儒狀

韓氏籍清州上黨府院君明繪后章復女典籍白世鎮孫樂舜

歛葬之俱必誠必慎居喪哀敬俱至速練袍裘獻如禮辭色

不異以其飯餘分饋族黨及昏入寢室雍容從殉即夫卒日時

宣傳具益壽妻夫死 **李氏** 籍韓山必明女通德郎具孝
下從 肅宗朝旌 閔妻夫死下從 肅宗朝旌 **趙氏** 籍

陽弼重女置川任世憲妻夫死未替自 **蔡氏** 籍平康順後女趙
到 肅宗朝 命旌全齋任憲 晦撰記 固文妻夫死下從

英祖 **吳氏** 籍寶城襄武公子慶后以昌女名臣珣后聖舜妻夫
朝旌 **吳氏** 病粒米不入日沐髮露禱及喪翌日自刎 英祖朝

命旌載三綱錄全 **卜氏** 籍河川景祿女龍仁李普忠妻夫
齋任憲晦撰碣 病割股二次煎進回甦 繡薦生旌 **白氏**

籍藍浦師一女屢州李震榮妻于歸恭執婦道夫死不櫛不滌
哀毀骨立越二年夫死日流血淚數升而死合柩夫墓時年二

十一 高宗朝命旌 **任氏** 籍豐川以德女吳大權妻親迎未幾
持平李禮煥撰狀 奄遭夫喪披髮于歸治喪無憾率養

從任世俊為後 **申氏** 籍平山錫大女豐川任承模子憲順妻夫
守節終身鄉薦 死終祥翌日諺書遺言身後事自經從殉

症老梧齋任 **白氏** 籍藍浦東胤女長興任願奎妻夫病五六年
恭希撰記 產物没入藥餌之供及至城崩因飲毒下從

於柩 **申氏** 籍平山善模女通德郎坡平尹顯曾妻自幼孝親及
側 歸孝事舅姑承順君子年七十四哭崩城常事翌夜

毅然下從 高宗丙 **申氏** 籍平山基善女名宦白弘洙子樂完
子 命旌問在坪里 妻夫喪後禮終三年終喪日飲藥下

采亭 二一

疾嘗糞及喪一遵禮制
晨夕省墓狀薦載三綱錄
任恭頤字南叔號圭堂名臣珣后豐白

親怡愉承順生事
李奎淳字喜吾星州人父景公稷后天性仁
葬祭克遵制禮
厚孝友兼全事親極誠養志無違母

病三年侍側不怠斷指注血
金珀濟字振玉號聾隱商賢子天
生三日乃有儒章遠近稱之
性至孝繼述親志州望省

墓風雨不廢生庭親喪泣血
宋夏燮字奇賢礪山人忠靖公居
居亦遵禮制鄉薦文廟直員
信后性本至孝竭力事親

父病設壇禱天祈指灌血妻
崔鍾應慶州人議官駭基子天性
鄭氏亦孝有褒彰完議文
純實自幼至孝父嬰輪疾

百方試藥及至危篤嚙指注口
血未注出更
孝婦金氏籍晉
嚙出血甦延一日及喪禮終三年有褒揚文

煥女通政任赫籍妻性本仁善事舅至孝丁內憂飲送諸節極
盡逾禮媿祖又病大小便受出四五年及喪禮終三年人皆稱

孝林氏籍平澤通政景鎬女韓山李完在妻于歸克執婦道年
近七旬事姑盡誠姑病二年不脫巾帶糞屎自手受除

道薦金氏籍慶州鶴汝女申尚根妻于歸舅以癩瘡呻吟居處
道賞飲食承順其志十年如一日及喪飲羹無憾隣里咸

須有褒賞
貞烈高氏籍開城居正玄孫文內禁衛副司金氏籍彥陽持
直具忠謀妻光海朝命旌

政在中子性本至孝父病嘗糞驗症疏
米得緜二斗取汁得效繡衣有褒賞
金商賢字樂三號冀堂

生纜二旬遺失所估及長事偏母至孝病統嘗糞甜苦裂左右
指丁憂居廬酒肉不口朔望展墓膝處草枯鄉薦得許墓地

朴永龜字寧三密陽人文景公駱村忠元后母嬰輪疾
百方藥餌一無見效醫內指注口竟得回誕鄉薦**任箕宰**

字允汝滌默菴名臣珣附父有奇疾百方調製號哭禱天神人
所指乃得靈藥毋死甲年追服三年一如初喪又以為先盡誠

七代先墓俱立石儀子敬淳亦以孝行承襲庭訓以悅親心盡
誠竭力能守家業去庚午巨額寄附珠山農業補習學校永為

維持其篤志
一鄉稱頌
吳壽顯海州人文康公聖蒙后性本至孝母嬰酷
症欲食西菽時值霜雪號哭廣求幸得以

進病乃蘇成有贊
李鍾九字致福慶州人儒賢齊賢后孝友篤
揚文建孝子閣志早年失怙事母盡誠嘗患足腫左

右扶持朝夕吮舐已至七年及其家勢
稍溷竭力奉先推赤恤貧鄉譽膾炙
任奎宰字大圭名臣珣
后通政憲道子

天性極孝備盡志物之養及至病純嘗糞甜苦
割指注血丁憂居廬三年一遵禮制俱堅石儀
白鳳基字舜九
號梧軒

南均子自幼至孝繼述親志年纜上五梓當
大故泣血居廬遵禮終制兩世并美一鄉欽頌
韓德復字汝良宿
州女有宿

門承被獎 **任憲玉** 字允璋憲鼎弟事親極孝母病危欲往聞醫

剖水得供及其臨終製指灌血 **金炳綸** 安東人仙源尚容后進

金榮敦 字德順號南溪通川人忠臣應漪后高宗朝求禮縣監

江叩水求酬以適所思 **任熙榮** 長興人副提學獻后天性至孝

父罹淋疾百方治療或云吮膿最良日 **白南均** 字允甫號武隱

學心堂申應善門自幼孝友根天六歲丁祖母喪能知號哭受

鄉薦 **李鍾洪** 字應範號希善齊慶州人儒賢齊賢后肅齋門人

及繼母沉病藥餌無不適口及喪尤盡制禮三繼母喪 **李圭澈**

一如前制白雀徘徊戶苦夢有神人指吉地安葬鄉道薦 **金商綺** 字紹一

誠母病嘗糞驗症祝天得效 贈童蒙教官 **崔鎮奎** 字敬毅慶州人

原從勳漢后勉卷門人父邁疾割股裂 **崔鎮奎** 字敬毅慶州人

指和藥進之及喪以總中廬墓三年 觀稼亭清后通

幫中自洗不任奴婢往來鮮魚忽東鯉
西產之異鄉道薦 景宗朝贈承旨 黃燁 字汝華 獲碧堂廷

天嘗糞裂指探渴得 吳伯讓 字致三 襄武公子 慶后孝 任敬津

魚甘旨俱供有薦扶 吳伯讓 行中 異尚未蒙蒙人多惜之 任敬津

字義仲 號萃軒 司馬 潤澤 曾孫 肅齋 門人 自幼事親至孝 父罹

奇疾 嘗糞驗症危劇 斷指注血 及遭內艱 行素泣血 哭盡妻具

氏 吳成鎬 字公叔 號松齋 襄武公子 慶后進士 史權子 性至

孝 吳成鎬 志體俱養 誠血題試 慶占親山 終身省墓 憲

宗朝壽 金頤喜 字周卿 原從勳 漢后親 齋百方救護 竟遭父喪

通政 金頤喜 不離殯 所行素不櫛 深墨瘡骨 泣血三椽 鄉薦

任競模 字仲錫 號居易 齋名 匡珣 后恭曰 子躬耕 養親以小學

書各其堂 李在灃 龍仁人 隆仕世 楷玄孫 事親養志 盡誠 毋病

孝贈監察 李在灃 愛得良藥 煎進回甦 高宗朝 贈童蒙 教官

白景鎮 字雲興 號晚松 藍浦人 縣令 廖榮后 天性 昂良 孝友 兼

丁憂 翔望 省墓 路 任憲鼎 名臣 珣 后 舜模子 承順 父志 昏定晨

草不生 贈嘉善 任憲鼎 省旨 俱供 克養 志體 以孝行 高

宗朝 除議 白樂冕 字景福 號友堂 名宦 弘 殊 伍 夫 性 至 孝 兩 親

官陞 嘉善 白樂冕 之齋 斷指 進血 剖水 求魚 有文 學出 八肅 薦

保寧

三月辛巳

二二二

筭之感復戶弟德輝亦以誠命復戶李百貴
再輝從任事親至誠病欲

孝根天侍墓三年
泣竹裂指旋間在三賢里

吳相舜
寶城人襄武公子慶后以孝贈童蒙教官旋李其商
全州人臨瀛大君家后事

李其周
基商弟通德郎孝子碑在竹清里 金啓煥
號烏隱光山入勳臣克成后

通經史中司馬稟性至孝神明
有英才六歲學唐詩及長能

所感有雪雙水魚之異
命旌 吳治祚
襄武公子慶后年甫弱冠母病禱天願以身代

危銳斷指注血甦生數日父喪居
禮煥門人孝心出天 任殷模
名臣珣后李蘭菊濟

丁外憂善居喪階前映山紅三年不花
母病 金魯貞
慶州人原

係指延命丁憂一如前制全齋任憲
晦換銘 吳鼎熙
相

贈戶參旌間
贈司憲府監察旋間在勒田里 申錫鵬
字

子幼有聰明讀至孝當竭力忠則盡
命章則未嘗木 申錫鵬
字

三復感歎及其長居憂遵禮情事既
伸孝贈教官旋 申錫鵬
字

五平山人化堂敏一后直
字致和平山人壯節公崇謙

李承協
字仲華韓山人各臣 贈教官 ○金涵
字大振原從勳漢后天賦

隱遺逸恭夏子。高宗朝司馬學文有餘志孝篤行及屋社奉
高宗影幘入峨嵋山等上臺庵朔望瞻謁啖松自靖後人指其

墓曰處士隱淪臺有入山詩八山覺山靜
飲水知水清是非塵事從此不留名
孝 崔光弼 江陵人

必達后 宣祖朝進文吏 黃廷直 號汝碧堂長水人 龍村喜后
贈承旨以孝旌閭 以孝除司圃署別提旌閭復

戶 盧洽 字公彦 號當青堂 交河人 蘇真齋 思慎 后年十二遭亂
奉親到利川 賊欲刃父 泣乞代 賊死 亦義之 書佩小帖

自此無得除江 黃有業 號耻齋 廷直孫 命旌 高二大 濟州人 親齊嘗糞
陰縣令不就 仁祖朝 裂指手 贈監察

高得天 二大子 孝心 根天 朴承健 號星隱 密陽人 駱村忠 元曾孫
孝 贈童蒙教官 孝宗朝進文科 肅宗朝以孝旌

立齋宋 高弼文 得天子 人稱三世孝 李善元 字伯仁 號四吾堂
近味記 贈童蒙教官 星州人 陶隱崇 仁后

顯宗朝司馬 僉樞 孝贈 朴世胄 號靜水堂 承健子 年甫十三父
持平 尤菴宋時烈記 守龍安時以親齊禱天得效 移

守尚州時泣竹得荀府中 具萬元 綾城人 睡菴 繼禹后 徐漢慶
以為孟宗泣竹不足專美 旌 事親至孝 特命旌

達城 申光濟 高靈人 澤 李再輝 號三賢堂 全州人 德興大院君
人旌 子贈持平 諱昭 后母病嘗糞割指有米 鯉雪

保寧 月羊長其卷

公與馬召對膝置端宗額謂曰汝於他日善輔此兒及光廟受禪即日徒步還鄉終身不赴在李月沙集

忠臣善之子端宗遜位時父見就拿受兄訓圖命至湖西安眠島聞上主昇遐昏倒於地乃有詩曰喪父不能葬喪君亦

不從唯云天地大隻身無處容我父為君死我兒從父死無父無兒人如何不滅死轉至寧越莫知曾陵沽酒祭嚴上又慰父兄死

魂因感詩曰蜀山疊二蜀江溪蜀帝孤魂何金勛號松齋通川人處尋啼不如歸口不得聲二杜宇感人心版圖判書遠登

曾聚世宗朝文藍浦縣監官止參議端宗遜位遜元有貞州跡藍浦不復從仕與浦翁鄭之產從遊載東鶴誌

人名臣守身子宣祖朝官翊衛司蔡克哲字子畿號松塢仁侍直丙子胡乱與柳秀春上疏斥和川人仁川君壽后

明宗丁未士禍屏跡科塲杜門白樂寬字景教號秋江名宦弘洙讀書作詩見志人稱崇禎處士高家已卯上疏斥和

壬午再疏抗言不諱囚禁府謫濟州受後命任義準字致敬號於西門外丁未仲寬享濟州橋林壇有文集蘭圃名臣

珣后奉壽丁受學老權齋任泰希性剛毅素有經綸甲午首倡義旅為招討營巡捕中軍討滅匪徒丙申列邑褒薦軍部柳濬根

韓友鹿全州人文苑浩根從弟氣槩獨儻不事產業任學準號丙午與閔宗植舉義洪陽竟逮對馬島四年而還

公州但見聞各異雖有先後之別不無遺憾故昨秋除置該面
租包約一百石以待今日矣兇今事情又加閩州春艱便同昨

羊公州之人也葉欲躬進以爲面呈些少之物適因事故不得遂
意托從姪在一藍浦面十三洞里三千餘人同胞宛每八前以

租五升式一斗式助給之唯願諸氏勿以略少以李啟權
助一時之資焉還多報顏將此數行以表情曲

平人莊襄公從生后蔭仕敏翼孫性本寬李鍾來
厚季友根天傳施周窮一鄉欽仰有文行

本純厚勤儉致家奉先以誠接人功和賑
血貧窮特志教育一鄉彌頌官參奉

忠臣 金成雨 光山人與光后麗末為全羅右道都萬戶憲招
討營田事時倭敵忘湖西奉命討平太極

革命憚其威勇屢召乘馬佩刀到甘時謂馬曰吾與爾去將安
之馬亦下淚跪地因拔刀斬馬旋即自處事載保寧邑誌

金善之 茂朱人叅議堪子官校理端宗遜位與成朴諸公謀復上
王相對泣血託以廢明下鄉丙子事覺與弟漢之子有仁同

死妻俞李志仁 水原人麗末名賢子松后工議嶽子 宣祖朝
氏從殉 武科年十六必肅川府使從軍晉州與兩兄景

仁德仁同日 餘義 金子孟權 號晚翠堂忠臣成雨曾孫早登蓮
舉義并殉 榜 世宗朝選置集賢殿二十八人

保寧 月羊 長 一一一

有筆翰好辨論承順父之任世準字季顯號文菴孝子恭夤子天志操行卓異士友稱之性至孝事親盡誠持身莊敬志

篤教育捐出千圓補賑賑金渭字與伯原從勳漢后季友兼全助農校鄉里稱譽賑恤窮乏多年災菴惠及海邊

一鄉累薦田載鎮后字國弼號訥岩潭陽八文元公耕隱祖生英租朝武科高宗朝官監役性本仁善孝友篤行

廣開門戶接賓以禮清廉自持崔煥周字良執慶州人觀稼亭樂善好施散穀問恤成頌德義

養周恤貧窮推已李善圭求聞達孝友敦睦特志慈善一鄉欽仰廣施人皆稱善李善圭

李根壽字永祚原從勳愛說后早失怙特勤儉治清庵通川人忠臣應滿后進內藏院卿以租九十五石浦回十三里布告文鳴呼凡人生之窮達程度各有所足或

懶而至貧或勤而不富每當春夏之交舊穀已盡麥秋未及多少吁饑之色自古有之至於挽近人多地狹耕者未洽早旱後

水農失其持也客平四月分捐金二萬八千餘圓買二十餘袋滿州之粟查得公州郡一圓十三面二百十三洞里極貧同胞

二萬六千餘人每一人當一斗式救濟一視之時回憶藍浦而後

不侵之累代椒鄉而大小同胞俱是知舊也宜有先藍浦而後

行實是
君成夏國字大一蹄蘿雲昌寧人文孝公士達后蘿山晚

任憲圭字允執名臣后奕邁之姿喬嶽之像臨尚利鉉木

川人庶安公震后性本廉直勤儉成家用度自薄敦宗恤隣去

李翊鎬字周益號我石全義人水使熙訥孫弱冠武科歷南行宣

局恢弘事理綜被皮望所推不膺方面屢李昇圭號滄東全州

后半服庭訓文名卓冠歷諸地方職李弼珪號華隱韓山人名臣

晚遊京城選為教師訓誨諸生李錫九名官斗薰子賤

孫怡悅親戚詩酒自娛高宗朝參奉睦布惠列邑類

活京城高等女學校已付巨金為其維持三千石所俸土美行金魯臣

地永為寄付憤而罷散在古無比有頌德碑官參奉

字季元庶野逸原從勳漢后容貌如玉辨論懸任契模字應漸

河早習以令齊家為本事親至孝教導門徒號愚堂

名臣后恭鎮子性度溫謹事金良喜字聖八蹄心堂愚齋漢

親至孝家食好學訓導子侄后早襲家庭文行夙就

保寧
洋
二

稿任希鐸

字景淵，號警軒，名臣。蜀右軍。子從進，梅山。金商雨，字景

杞，泉原。從勳，漢后。光喜子。從學性，與準門。早習，功令。舞

善詩

任洙

字德淵，號然可。軒名臣。珣后。昇鐸子。性堂門人。天才超。蔡完默

臨笑川名宦。明胤后。年體弱。冠已通六經。尤

李起夏

號菜山。先

衡祥后 高宗朝



金成喜

號松堂。原從勳。漢后。高宗

著名有

申鉉祥

字國老。號老圃。平山人。蔭仕。縣監。白樂祖

字

善歸辭仙。儒賢。頤正后。縣監。師天玄。孫。表不凡。文書

申夏永

山名宦。應善子

高宗朝

金承烈

字景壽。號竹下。原。從勳。子玄

全早入斯文。博覽經史。文效嚴嚴

名望任恭彥

字上行。號家樂

海子。蘭菊。齋門人。全齋。任憲。晦。顧曰。吾宗。文以善。其言

播南人錦城尉明源玄孫在本
郡多始績有善政碑○以上保寧
梁柱石南京人文襄公誠之後

有頌朴履命李贊南履完柳光壁李敬簡申鳳圭宋能圭

徐來遠宋秉學成達榮鄭寅夏俱在藍浦有善績白東奎水原人休庵仁傑右

在藍浦華燮李頭宰延安人觀察使道宰第在藍浦多治績有善政碑金用濟字汝楫

善政立碑李子曾貞曾孫高宗朝再典○文章李山海見前蔡裕機

州郡在藍浦有清政立頌德碑字伯昌號湖洲平康人進士忠行子蔡彭胤字仲善號希菴各

仁祖朝文科湖堂典文吏判誼文惠柳煥字惟源號德隣

朝進文翰湖堂提學官止禮叅在薇垣時遺八箴疏有文集從厚濟恭序

后孝友文章為世所推舖衣裹啓以學柳浩根號四可煥曾孫天

行贈教官右相姜滄撰行狀有遺集柳浩根顯顯悟文學夙就

早習初令反究性理南塘私淑淹憤經籍講明春秋善文任聖尹

字士衡號奮義堂名臣珣右趙懷軒任將鐸字采譽聖尹子博覽

門人講辨義理文名顯世有遺稿

保寧

明洋

高宗朝文科奎章閣校知製教性
清廉有文學不求名利遜世無憫
申應善 號心堂平山人汾
高宗朝

文科承旨陞嘉善文學筆法
俱著為鄉黨師表有遺稿
洪秉璋 號蓮史南陽人鶴谷
瑞鳳后進府使陞至

嘉善文學 趙秉興 楊州人惠穆公昌遠后
為一鄉推仰 宗朝監役官至縣令有文
學 李秉奎 號芙蓉
全州人

禁將章濂子 高宗朝筮仕南行
宣傳四典州郡以清白名陞嘉善
趙重九 字正汝名宦忠烈從
任文科累典州郡治

蹟遠 李教頭 號怡堂名臣應植孫武宣傳六典州
郡清白為治入為農部協辦陞嘉善
蔡定默 名復

曾孫官郡守 李完鎮 字平汝號栢雲全州人梧里
吏畏民愛 元翼后生負官佐郎止縣監
沈在淑 號齋青

松人青松府院君溫祀 李斗薰 遺逸世煜后監役培根
孫屢典州郡有善政 子出典郡邑處官如家
尹命五

孫老圃儒行建五第以稅務官視察江界楚山琴結從土執結
俾免民瘼歷典利原北青積城丹陽碧清白島治有善政碑

朴芝陽 號綺庭潘南人黎湖文敬公嗣周后再
興州郡洽續茂著歸鄉恤窮頌聲載路
清白李是鍊

茲本郡有 金濟肯 茲本郡有 方孝涵 茲本郡有 朴鴻陽 字敦五
善政立碑 善政立碑 清政立碑 號錦南

李應植 字子正 全義人 兵使 潤春子 憲宗 名宦 白仲鶴 字雲

浦入松漢字經后新羅文聖 任子順 號和齋 豐川人 豐海君 天

王朝官至民部典書當兼臣謀國盡節輔佐終始一 李長吉 隋

心王語申賢曰子松子順即吾之社稷臣載名臣錄 李承春 牛峯人 斗

人子松子龍末官竇文閣大提學性貞忠介 李承春 峯吉培孫

成宗朝生員文大司成燕 李德温 號龜村 全州人 臨瀛大君 塚

節義載 蔡明胤 字仲宣 號五視 齋平康人 贈判書時祥子 肅

遺稿從孫濟恭撰狀 蔡成胤 字仲美 號九峯 明胤弟 肅宗

聞望一世孫濟 李禎翎 號崖軒 韓山人 篤賢之 函后 肅宗朝

恭貴贈左贊成 李禎翎 號崖軒 韓山人 篤賢之 函后 肅宗朝

省還陞 白弘洙 字子猷 號眉山 儒賢 頤正后 憲宗朝 文科官

吏議 白弘洙 兵參歷事三朝 高宗命賜真慎博通群典宿

寐治 趙忠熙 字信夫 號遂吾 齋儒賢 秉 金商憲 號韋觀 慶 人

保寧

明洋

十八

司成實文閣學士見麗史邑誌云
墓在縣東三十里羊角山西麓
任珣 豐川人各宦子順子非

抗疏直諫屢被恩譴適值
革命縣居藍浦五相洞
元守身 原州人參判李良子
宣祖

敵歷統制使
官至副將 趙啟遠 蕪藥泉揚州人昭敏公存性子丙子胡兵猝
上命赴元帥幕下啓遠使人各以布囊

盛沙積合為城一行俱全
祖朝官刑判原從勳謚忠靖 仁
李衰 字延之蕪果庵勳臣山海

判入耆社
有文集 趙師錫 字公舉 蕪晚悔啓遠子 顯宗
李秉常 號竹

山人參判廷夔孫 肅宗朝文
科官至吏判入耆社謚文清 李裕民 字寬甫 青海八松溪麟

入耆社 英祖朝錄原
從勳 贈崇政謚貞敏 蔡弘履 字士述 文章裕後 正祖 英祖朝

判入耆社
有文集 李台重 號三山 乘常從任 英
鄭弘淳 字毅仲 號範

坡翼憲公太和玄孫 英祖朝文
科 正祖朝官至右相謚靖敏 李昌壽 號老閒 齋全州人

英祖朝受科官
吏判謚文獻 李景在 字季行 號紹隱 韓山人 縣監儀先子

國原從顯官安大進字退之明宗朝文料校理知製孫教右相公

慶尚右水使立功錄扈聖宣李大忠字賢文全州人臨瀛大君

運都監累立功錄扈聖宣李大忠字賢文全州人臨瀛大君

丁丑戰亡李夢說號遜翁全州人完原君慥玄孫仁祖朝武科察訪

錄原從勳李夢說號遜翁全州人完原君慥玄孫仁祖朝武科察訪

雨道率風化尹洵茂松人勳臣子雲后宣祖朝副司果錄光

李貞敏字子正號玉溪龍仁人獲梅堂弘幹孫宣祖朝進士

承旨有遺稿陶谷金守玄字純仲慶州人漢后官工曹參議

李宜顯撰碣銘金守玄字純仲慶州人漢后官工曹參議

善金守精字仲叔原從勳金銓字士元守玄侄官樂安李遇春

字就卿諡松月堂臨瀛大君璆后肅宗功臣金弘達武主

朝武科英宗朝錄揚武原從勳官戶叅功臣金弘達武主

展起復為助戰將與其弟弘選黃葺光海特天兵南下白衣從

弘述赴戰殉節直長陞左副承旨各臣白文節字彬然號巖藍浦人名宦仲

保寧 明洋 卷之二

恬靜自守繼述先業樂樂山水任性淳字道卿號水軒豐川人
灑然清風圖書滿壁松菊盈庭憲壽孫尹三希堂門人
柳省齋私淑儀標端嶷性度剛毅早承師教文學
益精聞義即服臨事勇斷築室汀汀詩書自娛

動 尹子雲見上不祧廟篇 成宗朝策金克成字誠之號青
義孟權子文壯邑卯名人中宗朝錄靖

國勲官至領相封光城府院君諡忠貞 李夔見上不祧廟篇
勲官至兵判封李山海字汝受號鵝溪韓山人文烈公季甸曾

遼山君諡文敬 李山海字汝受號鵝溪韓山人文烈公季甸曾
光國平難兩勲入者 李山甫字仲舉號鳴谷韓山人儒賢之

社封鵝城府院君 李山甫字仲舉號鳴谷韓山人儒賢之
韓興君諡忠 李廷菴字仲薰號四留齋慶州人驚齋宏子明宗

簡亭花巖院 李廷菴字仲薰號四留齋慶州人驚齋宏子明宗
大捷却敵兩湖道路得通 行在即其力錄宣武

二等勲月山君諡忠穆享顯忠祠追配花巖院 **原從勲金漢**
齋慶州人桑村自粹從侄世宗朝文監察錄佐命原從勲

端宗癸酉遜于藍浦嘗有詩曰五柳清風今粟里一竿明月古

桐江乙亥夏聞遜位放聲而哭伴為 李克恭水原人參判長吉
狂易之態以掩其實竟傷憤成疾卒

字辨弘 謙儉 溪儒 行直 模子 認明 絕
金商弼 字允心 號眉山 京

性弘毅 之資才德 李炳斗 號松塢 公州人 進士 歲后 天才 拔萃
魚備琴書 自娛

聞達 教授 諸生 不 金商哲 字星七 號華堂 原從 勳漢 后英邁 之姿
幸早 世鄉里 惜之

鄉中人 韓光復 字明淑 清州人 清泉 尉景祿 后寓居 五星山 篤
皆欽仰

宮任熙昌 字允敬 號竹軒 長興人 貞敬 公懿 后愷悌 其姿 濟守
之行 篤於 多 齊畫 耕夜讀 以 奉事 親博洽 禮訓

申鶴均 字重玄 平山人 號監鶴 后早業 文學 居太學 李義仁 字
七載 博通 經傳 十五 發解 而未第 士友 惜之

執誦 石南 公州人 水使 思周 后受 策于 任昌鎬 字文叔 號蘭谷
樊川 蔡完 默門 力學 有行 薦文 廟直 員

后資 性仁 溫志 氣剛 毅誠 孝根 天言 行謹 慎 金商起 字景明 號
設塾 育英 自擔 學料 施惠 窮交 鄉里 咸頌

勳漢 后天 賦英 邁心 抱經 濟獻 策不 遇遜 世晦 各曾 有 任宣鎬
詩格 入本 性處 始覺 物中 靈體 與乾 坤一 用如 日月 明

字孺 賓滿 遜菴 豐川 人遺 逸興 準子 金心 岩門 人金 溪雲 私淑
容儀 端雅 志氣 高邁 內承 庭訓 外受 師教 進學 益勤 論禮 甚詳

保寧

周羊

一

一

能文有行士林
推重有文稿
白樂喆 字明淑號翠松菊史恭鎮孫從學秋江

敦行孝悌實踐
信義見重士友
蔡奎龍 號子雲平康人笑川完默子早襲庭訓

禁李應珪 號健堂韓山人儒賢之函后端雅其
志謹飭其行文學夙著士友推仰
李喬薰 號籬散全州人

遺逸世煜后外寬內德包容客宏
尤等性本慈善推己廣施學識高明一鄉稱譽
李應復 字謙五號

遜巷全州人認齋正文孫希堂尹錫鳳門人早服庭訓
晚從士友篤學力行博通經史固履實踐岩穴高風

任泰冕 字輔國號清菴豐川人名臣珣后宗沃子儀貌魁偉性
度剛直事親先極致誠敬立志制事莫不中規講磨

經義士友欽仰
李圭道 號尚古堂遺逸鼎榮子肅齋門人
親學兼備儒風博頌脩飾敬仰
任泰鎮 字聖

省齋名臣珣后黃白子承襲庭訓
將進後學安貧求志士友推重
吳世樞 字度明賢城人裏武

禮煥門人天姿純厚深根
經學誠正造極戰兢自持
申捷 字聖立平山人儒行命淵子家

稱士林
吳相麟 字公振號秋齋世樞子肅齋門人才德
俱備經紹庭訓沉潛經史師門樂許
任憲壽

廟士林
稱人



重菴柳省齋崔勉菴三門薰炙其餘緒乎朴永徽字元德號洪生篤守尊華大義解口苦藥備控遺稿中

文莊公啓賢后士林薦曰篤學力行巖穴高風學遊有源純正門路良齋田愚撰行狀曰志氣牢確操守堅定心堂申應善撰

墓銘曰有學有行有志有守實而非華苗而不秀其生雖短其聞也長過者當式賢人之箴志山金福漢拱墓誌銘曰聖遠言

溼學鮮為已彼哉世儒非名則利慥二朴公能知取舍卷于海曲時則長使事親從兄為仁之本靜坐讀書聖賢遺訓有得則記有

疑必質當世諸賢無不資益秀而不實惜其短齡回龍之原寔公攸哉孝子謁名聞幽之思我筆非謏後人是胎有文集

金商楫字蘆洲慶州人原從勳漢右趙龜元字錫一號青農漢

有文學氣節尚慕宋九庵尊攘之義秘淑南塘心性趙鍾郁字

運號許齋冀陽人魯菴元範后天性純粹靈器李鍾浣字周賢

從容固窮力學明於百家從事育英不求榮利李鍾浣字周賢

志學敦行博通經史信義昭著實參奉柳台根號蕪隱田可

友文行善繼父祖遺志冠趙翊淳字弼三號松庵揚州人學行

呆亭

月華

...

...

後學有文集 **李圭龜** 字仲瑞號東沼居士學樂子肅齋門人力

推重 指宗 **任直模** 字君方號睡翁豐州人各臣珣后蘭菊齋

一鄉 著名 **李敬植** 字蒼叔號希濂寓慶州人儒賢齊賢后資稟異

齋趙秉息 澗狀錦 **李一太** 字聖望號瀛雲堂全州人原從勳遇春

稿 **李正文** 字純汝號忍齋全州人茂山君孝貞公院后白坡金

固窮善道 勉進後學衣衿士林斯文推重其仲兄正舜 **申命潤**

才諳出類 氣槩豪爽操行端潔孝友敦篤博通經史

字敬泰 澗心齋 平山人文儒公槩后自少潛心力學 **尹建五**

汀坡平人 贊成重三后進士義植孫性素篤厚苦心力學孝友

為政謙卑 自牧惟人恐知及臨終戒子孫詩末句曰今此裕昆

訣矢心判 獸夷此 **閔鼎勳** 號錦霞號興人船平府院君

可見素履 之寫 **尹錫祺** 號芝山建五子世襲處訓

以守子載 國號月坡亦 **尹錫祺** 守天安剛介不染俗態執費於金

不為豈不誠南方豪傑之士我心嚴金志洙識其據曰守志也
學生順設寧志山金福漢表其墓曰思見如公者幾人欲扶也
底之微賜而不可得則乃為之歎息勉菴崔益鉉銘其碣曰世皆
術名我敦其實世皆飲利我周其種心石宋秉珣詔其堂曰以
孝以學著名于湖右交任興準字起叔歸認齊豐川人名也
遊者稱頌如古之鄭莊后恭希子敦民齊門人肅齋私

眾說以英豪拔萃之交踐履篤實進修益尊博採
衆說明於性理嚴立紀綱以諭後學有文集

善濂齋慶州人儒賢齊賢后遊肅齋趙秉惠門與菊齋李禮煥講
論經史孝行卓異白燕統望以特孝李喬翼沈履澤薦贈監察肅

齋趙秉惠狀白師亨字仲禮清溪藍浦人參議允哲后鄭性堂門人
惠撰狀白師亨與性渾米煥箕鹿門任聖周三山齋金履安徒遊

明經行修深遂任允白字清彥滌湖隱豐川人名臣珣后將鐸子
性理有文集

齋謂之以道義來默探聖白恭鎮字景華號菊史藍浦人參議允
旨博採禮說志行并著

明於禮說事親至孝米裡得齋嘗糞甘菘與甫齋趙秉惠從遊鄉
薦贈監察有實記志山金福漢撰碑銘石村尹用求書章觀金商

真撰任恭希字景三號老梧齋允白子任全齋門人深究經學篤
詩信師說性理之蘊疑義之辨虛心玩味洞然冰釋婆

保寧

月華

一

貞簡公 謬后 逸民堂 李養源 門人 贈執義 李世煜 字晦 伯 號梅窓

宗朝 生員 以舉行 闡名 於世 贈執義 孫南塘 門人 孝友 舉行 不

羽 謝 師 門 肅 宗 朝 生 員 朴 溥 源 孫 南 塘 門 人 孝 友 舉 行 不

幸 短 命 先 生 著 東 辭 朴 正 源 字 心 甫 密 陽 人 駱 村 忠 元 后 遂 巷

圃 嚴 尹 鳳 朝 撰 碼 趙 堦 號 炳 理 齋 漢 陽 人 迺 溪 弼 后 李 雪 川 鳳 趙 城 號 晚 啓

朝 司 趙 堦 號 炳 理 齋 漢 陽 人 迺 溪 弼 后 李 雪 川 鳳 趙 城 號 晚 啓

馬 遜 溪 弼 后 蔡 鳳 岩 門 人 年 十 六 費 謁 先 生 先 生 贈 詩 曰 老 去

人 遜 溪 弼 后 蔡 鳳 岩 門 人 年 十 六 費 謁 先 生 先 生 贈 詩 曰 老 去

倍 傷 墜 緒 徵 始 憐 初 學 問 依 歸 懇 懇 說 與 江 門 訣 夜 半 松 潭 月

上 靡 經 旨 禮 說 多 所 創 錄 最 趙 琇 號 野 菴 漢 陽 人 遜 溪 弼 后 李

宗 栗 谷 南 塘 兩 先 生 有 遺 稿 趙 琇 號 野 菴 漢 陽 人 遜 溪 弼 后 李

性 理 氣 之 辨 多 有 所 發 為 時 所 推 經 學 李 鼎 榮 字 士 九 號 允 可

薦 常 瀛 輯 家 塾 五 書 嘉 惠 後 學 有 遺 集 李 鼎 榮 字 士 九 號 允 可

齊 賢 后 李 蘭 菊 齋 門 人 孝 友 純 篤 文 學 宏 博 明 於 經 傳 顯 於 禮

說 與 肅 齋 趙 秉 憲 講 磨 道 義 有 文 集 高 宗 朝 贈 童 蒙 教 官 上

齋 任 憲 晦 撰 志 任 泰 夏 號 三 乎 堂 豐 川 人 贈 參 判 祥 子 高

山 全 福 漢 序 任 泰 夏 號 三 乎 堂 豐 川 人 贈 參 判 祥 子 高

有 實 記 約 齋 宋 炳 華 狀 其 行 曰 顧 今 聖 路 榛 蕪 三 綱 淪 而 九 法

類 公 能 毅 然 獨 立 不 屈 於 群 保 天 衷 而 扶 陽 騰 有 補 於 世 程 者

章鳳就志福介潔見時事日非隱居紫金洞
累徵不起壬辰扈駕錄勳除縣監不結
崔世慶濠州人

柏堂沂曾孫尤庵門人從遊尹童土
舜舉名重斯文顯宗朝德山縣監
鄭赫臣號性堂慶州人

私淑萬學經傳固守林樊迺參奉不就有文集嘗有詩吾生何
值醜胡辰愧作其氓况作臣泉下妻兒休謫我且甘凍餓庶終

身李禮煥號蘭菊齊慶州人儒賢壽賢后性堂門人與鰲村宋
雅圭肅齋趙秉憲為道義交力學明經博約俱至固

窮實踐羽冀斷文有文李度中號新齋延安人忠靖公時昉后
集高宗朝贈持平憲宗朝逸洗馬文學宏博撰李

子性理書其門趙鎮鶴字聖臯號敦良齊楊州人叅校仲輝后
人刊行有文集肅齋門人抱經林樊明於性理高宗

朝以學薦監役尹錫鳳號三希堂坡平人左贊成重三后金重
不就有文集菴柳省齋門人與崔勉菴柳毅庵為道

義交學本孝弟明理主敬養秉春秋辭嚴尊攘有遺集
高宗戊戌建集成堂於花汀村以高士林依歸之所

安士擢字之防廣州人司馬子文子早辭公
車傷躬力學有刻薦除參奉不就
金海壽號問渠亭

臣成兩后沙漢門人學有淵源各重
斯文肅宗朝官至縣監适乱錄勳
李賀春字慶甫號藍玉齋
全州人臨瀛大君

保寧

月羊長其卷

三



儒賢

白頌正

字若軒號養齋藍浦人名臣文節子晦軒門人高麗忠烈王朝文科會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三

重大陸上皇君謚文憲八元得程朱性理書誦傳之功李齊賢字仲

于東方李齊賢科忠佐翁師受有繼往開之切李齊賢思

益齋慶州人瑱子葵齋門人學問發於輪講文章德望蓋世

世東方之留名中國者崔孤雲後一人官門下侍中鷄林府院

君謚李之菴字馨仲號土亭韓山人文烈公季甸聚花潭門人

文忠李之菴百家諸書無不通曉國內山川無遠不適宜祖

朝逸升山縣監贈吏趙秉憲字儒文號蕭齋揚州人參判最

判謚文康享花嚴院厚子吳老洲洪梅山門人淵源

端的門路純正儒林宿德斯文宗匠憲宗李希參字

朝以逸經筵官至吏參謚文敬有文集李希參字

瑞號天休堂慶州人尚書邁后朴訥齋門人加歡賞曰他日必

甫十三已通大義縉紳先進登新之先生深加歡賞曰他日必

為國器仁宗昇遐社門自靖有詩曰東方一子載皇天生舜

論年天意竟難逾歎心變剛抑臣民如喪父士生欲李希參

何為盛事無田贈大憲祭酒享花嚴院有文集李希參

魯齋夢奎子聽松門人從粟各諸李山光號東溪韓山人

賢遊明宋朝進士洗馬不就有文集李山光

詩築亭世日遠鶴去雲空留地僻松身大山深樹水沁
問月亭

郡守金克讓建閱波亭縣監金玉溪亭任青蘿面玉溪里李貞可笑亭

在青蘿面長岷里金復澈錦可笑安東人仙源尚容后以隱居

心事本如水八蓋光陰以笑題詠徐居正字剛仲稱四佳亭大

錄佐理勲達城君官至贊成謚文忠曾有藍浦縣詩古郡瀕雨

海山河地裡雄島烟能作兩江樹易生風水染葡萄碧霞蒸蔚

島身紅白沙黃竹李安訥字子敏號東岳祖朝文禮判議文章浩博

有藍浦縣詩傍海潮聲壯連雲嶺勢雄城隍成獎邑父老夔淳

名百世清志士暮年餘崔澐有保寧高巒詩日落腥烟合秋來

老樹慙風惡驚濤得石喧

保寧

二月辛酉與卷

三

帶此為雄海氣作霧因風雨浪勢翻地自起風暝裏如聞鳥相
叫坐間渾覺境俱空○宋英望有詩樓外平湖百丈清驚擊變

息小蓬瀛於三帶五滕王閣陰闔陽開細柳營露兔高時羣動
島押駒戲處萬波驚冷然自悟長生訣不必真仙在玉京○朴

忠元有詩江亭高壓碧波心勝賞湖南豈似今賓主歡娛稀萬古
明朝回首惜分袂○成彦功有詩高亭迥出碧山頭倦客登臨

騁遠眸潮入江干侵野闊波連滄海蹙天浮歌聲激烈魚龍舞
詩興牢籠景物愁獨立飄飄遣世慮仙槎更欲泛河流○李安

訥有詩城上危樓跨太清仰捫星斗俯滄瀛汀洲島嶼神仙窟
舸艦旌旗節度營老病乘輅孺子笑秋風按劔健兒驚鯨濤互

指三山路八月孤槎入帝京○黃五有詩愁來步倚仲宣樓碧
樹涼生暮色迥鰲背海空風萬里鶴邊雲盡月千秋天連漢使

乘槎路地接秦童採藥洲長嘯晚翠堂在青蘿面連憂亭在大
一聲凌顛氣夕陽西下水東流士金孟權建憂亭在川面

藍谷里金支溪亭在青蘿面驛歸鶴亭在青蘿面滑峴上金紫
克成建支溪亭山李乘天建歸鶴亭洞下東溪李山光建有

自詩辭組還鄉里間居十載餘砌栽紅錦樹床積綵籤書魏闕
丹心苦江湖白髮陳平生多慷慨今日竟歸虛○龜峯宋翼明

有詩歸鶴亭猶在亭空鶴不留壇明天漢近簾重海雲流月落
泉鳴夜山高露滴秋無由聞遠笛岐路雪盈頭○后孫承夏有

泉鳴夜山高露滴秋無由聞遠笛岐路雪盈頭○后孫承夏有

士禮魄之藏而葛然有感焉
則又可謂之儒於百世矣
李夢奎 見學行篇墓在大川面獨亭里
李希參 見

行篇墓在周浦面
李德温 見名宦篇墓在珠山面甌山里
李恢 字大而通水鏡

公時助子官尚州牧便墓在鰲川面牛
李恒 字士常號東溪慣

善同敦寧墓在鰲川面孝時烽燧
李彥著 字大而號溪堂顯宗

忠靖公墓
樓亭 撫夷亭 在容館東世宗王子縣監鄭世達

朴迪孫重修觀來鄭眉壽
憑虛堂 在撫夷亭面○朴閻有詩地

頭湖急風吹霧水如鏡近渚無人禽自語客裡每為清境
惱日邊更覺故園遙苦吟不去之新語愁見落暈沈遠霄
客館

在藍浦舊邑○李承召有詩萬古孤松在山河表裡雄嵐深恒

作雨海近苦多風益竈燒烟白漁村返照紅行穿竹林去蒼雲

中 參途 海山樓 在保寧舊城內
控海館 在鰲川營門內東
永保亭 在鰲川

內燕山甲子水使李良填海口建此亭西湖名賦○朴閻有詩
地如拍口將飛翼樓似搖口不繫蓬北望雲山欲何極南來襟

保亭

月華亭

贈與人駱陽府院君羅重祀羅隆會正 高宗 國朝
贈領相駱城府院君溢純簡墓在周浦面館山里乙坐



金成雨

見忠臣篇墓在青蘿面昭陽里鉢山

金漢

見原從勳篇墓在蘇川面元陽暢洞丑坐墓表大司成奎章閣檢校

直隸知製教金商惠撰銘曰專在 端廟遜位之世集賢諸賢義不容不死若夫生六甲則無必死之義蓋死生雖殊塗同歸乎節

義也已故愚齋金公王者之後韓漢初諱樸籍慶州遠祖諱仁官於麗朝為太師至三司副使諱英伯生楊州牧使諱玳牧使生

自恭國初官奉禮寔公曾祖補察村諱自粹其從叔也公 世宗朝第又科官至通訓大夫司憲府監察錄原從功 端宗 西棄

官避于藍浦乙亥夏聞 遜位披靡而哭每乘醉伴為狂易之態以掩其實竟傷憤成疾以是年冬十月卒墓在藍之勝齋齋丑坐

原配光山金 郡守克胤女與公同生一男子惇主簿孫三長府使允輔次正郎允衡次進士允忠世居 藍分三派馮吟璜公終

始縱無死處義實無生之心其節高矣此足以不伏於梅月秋江諸賢之後而終於湮滅後世不能舉其名刻我蓋草薶善類之餘

棄官歸晦之自犯觸時諱則其子孫必不喜野人誦說而又屢經兵燹文獻散逸則並與生卒官次而失其詳也晦翁夫子曰祖有

其善而不能暴白以博後為不仁今尺碼記蹟雖能略足可暴白其善則公之子孫其可謂知為仁之本者歟且使來者知其為

可謂有子有孫矣今參判諸公託以墓道之文顧何忍以老病辭乎鮮曰於維延職忠定之胤延揚之季於友之義再安宗杜克

天理緊公所助入謂難兄又曰龍子一家三歎并燿麟閣人莫敢

改致砲砲忘夜與食炳然忠智孝廟初服事有至難於焉奉使

半開孤館赫喝萬端不憚不憚死拒拘問鼎鑊無祭半全士類從茲

人我事異做說孰知我痺製年識心有進無返死而復已御初送

終究厥云為公耳國耳我撮元守身見名臣篇墓在青巖李慶全

其槩以鑄斯石以示無止元守身見名臣篇墓在青巖李慶全

碑石樓韓山人勳臣山濤子仁祖朝文在參贊李襄見名臣

大川面元心顯里壬坐李慣字仲習李昌壽見名臣篇墓在珠山

碑文忠公李裕民見名臣篇墓在李昌壽見名臣篇墓在珠山

亥坐碑文子鄭弘淳見名臣篇墓在川李應植見名臣篇墓在

判事重出漢李景在見名臣篇墓在趙秉憲見儒賢篇墓在閔致祿

保寧 日月筆

公始雪文師之誣終著 宗社之功蔚然為文獻宗臣而公與廷
 賜樂有而喜書為文有氣力弱冠取解居上游俄見試取不以公
 輒自已專意經訓立朝幾四十年歷事 三朝盡心竭力克勤克虔
 受知 君上故歷變履險身名不瑕至其衰暮誠盡而智益髮短
 而心長其所議諸事 守居度支則檢上而益下論戎兵則形勝
 而實業然其區畫動遭緝禮竟不免齟齬而及可緣歎哉卒之日
 上以縉紳下至與權無不歎惜濟容雖其素不悅者其忠勤之實
 則終不能瑕飛亦可謂賢矣延安之李始自唐中郎將茂茂從蘇
 定邦平百濟留止而受籍于延世後世為衣冠族 本朝文康公
 名亨以文章勳業為 世祖名臣越三世有諱變游趙靜菴門漢
 為王堂南床位祖謹廷華不仕忠定公夫人張氏也公配李氏婦
 德甚備其多學能守儉也先公七年卒四男恆憤恒懣恆恒皆教
 使憤於判情縣監三女適生員隸以明承旨金世鼎縣監李迴象
 判男義著益著奎著茲著縣監技使男彥著為後於伯父技使公
 二女適洪重楷鄭覺先縣監男謙著升著女適金鎮玉內外曾玄
 多不能盡錄余自戊戌秋 孝宗大王猥處以樞樞公每與從容
 無非隱先之務已亥四月同受 明命別裁局議改貢案而 龍馭
 上仙般月血相視而已余既去國而公又逝去追思疇昔涕不勝
 披此豈獨為私而已公既沒猶夢告諸子以國事古人云死而後
 已公可謂死亦不已也諸子守職繼述皆如 仁廟聖教定公

其本而民賴之江都儲符亦以便宜從事又以為司贍奴婢推
九萬而今故貢者又二萬請別出其隱漏以補經用國初雖行推
刷而又百辨正之規今不可不并行也以便事將面出上使延
臨權察各職事亦異數也兼提管金吾又移刑曹以訊囚件旨遊
乞暇者墓于湖西忽有虹變上下涵灑即還朝既陳民瘼又條上
南漢棟宜又限常平廳罷置便否又與大臣爭論錢契復判刑曹
以事遂遠復八者凡三四間以宋室證上責公無餘地聞公鼎
重疏論其未安至曰漢高慢罵四皓避匿上責公無餘地聞公鼎
怒矣卿亦體四皓而去則誰與為國事蓋上歡謔之意譴然矣時
公西損頗仍熟見關防蕩然奪入侍謀議密勿文正公宋茂吉以
炭險請減沿海米公請均減決邑又吏胥與市民鬲為甚蓋而市民金
多獨免刑詔公抵距僚議而并訊之物情補快時有湖南大同議公請
知湖西米數十斗之外不可有加而支用之節一如皇明之制
俄而以事遠則曹為工曹判書復以湖南大同忤大臣意請急尤
切上特加慰諭又命與諸臣改定贖案蓋上於是時極欲
更張宿弊慨以規度公亦盡心盡力以答陸知而忽抱弓劍之
痛深山窮谷無不奔走悲傷而公則有甚焉每傷懷涕泣不能已
顯廟即位兼判義禁復議湖西大同又方繕修南漢而公已病矣
宋文正往問則精神不貌與語如平日矣庚子正月十六日以訃
聞享年六十七上特命禮葬墓在保寧牛峙坐甲之原自忠逆

保寧

保寧

保寧

保寧

朕宗室女以去而清陰諸公得免焉上又特授守禦使時延陽方掌訓局軍兵公又固辭如前移工曹復還刑曹有訟內奴婢者

上欲重究公爭之曰本曹詞訟內奴婢十居五六此非聖世事嘗因臺彈上答公辭疏曰卿之盡誠反致入言移戶曹專以革弊

為心金自點謀逆伏誅言者構公以親附地臣上曰不諒其為國盡誠遽爾請罪予其駭異大臣請姑遞度支上又曰若遽其

職是棄之也司諫金佐明以臺啓之理乎上曰其家之世傳忠赤三父子世傳忠孝豈有如臺啓之理乎

予嘗歎賞上既亦罷推公以鎮之公久請金吾待命至是始出江舍略進推緘曰臣始與器遠自點同衆勳籍死生

以之何事於親附至秋自點則兼有連姻之分逆狀未著之前不能隨衆憤罵是常情之所未免若以為終始眷戀則冤枉極矣俄

而叙為籌司堂上則入謝而還出江外拜戶曹判書時客使將至即命牌招公不得已出仕實使去後即呈告批曰卿家忠

義為世所知一時私論誰敢逞焉有罪無罪惟予在曷敢有越厥志公遂皇恐視事兼守禦使因災異進言曰弭災之道不外於反

躬修德因陳時弊甚切上嘉納又進言臣民之苦樂係於守令賢否雖未得一擇差大邑則請勿論職秩高下而差違焉又言

救民之策莫如省浮費存贏餘以蠲民役宮家橫占之弊亦宜禁斷上允之時虜使頻仍市民困弊公貸銀布使之取劑而只收

斷上允之時虜使頻仍市民困弊公貸銀布使之取劑而只收

書傳播之人歸金關上履事漸難夷遂兩解之自是公益加驚
 懼辭職益力上堅不許後謂 銓臣曰往年凶書時予謂延平
 之子必不如此也豈可親親也臣也公適入侍絕拜涕泣曰臣兄弟
 出於凶書臣等欲死而求能也今承 聖教萬死無恨上曰卿
 等子弟之虞心皆如卿等可也乞西清人來告飢使輸粟公領
 其事卒亦無恙夏 昭顯世子薨公受 命敦匠為戶曹參判歲
 適大使公主賑濟事皆得宜公常以為便民之策莫先於大同粟
 公於海西每歲收米五斗於私兩便今則只收三斗而亦無不足
 請先試於兩湖疏入 上意善之而不果行其後潛谷金相公培
 竟用公議湖民被難至於立碑頌德造為刑曹參判先是陞嘉義
 階丁亥必兵曹參判陞資憲復管賑事戊子拜工曹判書以前年
 賑廳先所餘別置常平廳仍管其事移判刑曹己丑受僨 命而出
 身示邊將之行間於虜譯者蓋慮蟻穴一開堤坊必潰也五月
 仁廟上賓差山陔提調以華元樂舉為飛一主於倫約九月判刑
 曹加正憲以副使使燕時以流官事機叵測至則監守甚固詰問
 本國事情窘辱百端公以死拒拒虜將以萬騎東出曰如此而尚
 可諱乎公又不動最後以汗言謂之曰金尚憲趙綱全集等主論
 盡逐舊臣悉用新人將欲何為又問主論臺諫公曰我亦 先朝
 舊臣寧有是理臺諫迭易頻數不能記得蓋公施無怖心故虜終
 不能屈公聞清使將東出密通 本朝使之先機善應清使至只

保寧

五月

使先往江都整齊軍事金公壘以體使至不得入軍門怒甚公
曰自有主將約束雖大駕至必待標信而開門大駕至以命
專管八路軍餉時有訛言虜已入城都公單騎馳往歷謁宗
廟定疊亂民船運用物以至行在戊辰三月為廣州牧兼防
禦使述入為漢城府左右尹癸酉忠定公沒丙子以羅州牧使
陞為本道監司時朝廷調發南兵以戍閩西公請募兩西民為
兵而南方則出賦以餉之朝廷不能用時虜衅已啓公築笠岩
城以備緩急其十二月虜騎岸迫京邑大駕幸南漢公悉以軍
兵屬兵使先發又湊合奇策以繼之議者皆言宜留本道以為
兵使督援且鎮人心公泣曰主上安在忍出此言當死於南
漢城下矣遂至安城時諸道兵相繼敗切本道兵使金俊龍始
頗憊險殺賊卒亦敗走丁丑正月公以兵授中軍還駐公州牧
合散公聞二元師方在楊根之迷原欲往赴之至滑州界聞構
成虜去上回鑿公馳進請罪上特命姑赴任所及臺啓再
發遂配定山庚辰蒙宥旋拜濟州牧使光海主先已處島中辛
巳七月發海路險遠難於稟知公率島中諸官素服入臨親自
襲斂厚无缺仍請擅輒罪時議皆稱處變之善壬午病逝冬
為廣州守禦使拜刑曹叅判因事罷甲甲復為守禦使公以伯
氏方搃畿輔戎務於事不便陳情力辭適有冰器遠遞變而有
言廣州階石下有凶書意指公公同伯氏待命廷議反疑得

為教曰今見任氏諸文蹟詳其本末則謾雖碎而墓身在實與
金氏墓無徵祭於壇之義顯有不同者矣既明辨其墓之為先
山則破其壇而直祭于墓云云全齋任先生之撰神道碑銘已
四十有餘年而今始刻豎後孫之稽綬不肖惟均噫幽明之痛
恨固百世無窮而儒賢之定論將百世不磨矣庶可以慰雲仍
追遠之思也歟十七世孫興准追認成均館大司成楊州趙重
燁書金克成見勳臣篇墓在青所回才井里碑趙昌遠見不祧廟篇
墓在大川面

竹亭里神道碑文李之菴見儒賢篇墓在周李山甫見勳臣篇
尤庵宋時烈撰李之菴浦面高亭里子坐李山甫墓在上同

李時昉字季明號西峯延安人忠定公貴子仁祖朝錄靖社
勳延城君官至戶判謚忠靖墓在鰲川面永保里牛峙

甲幽墓表玄石朴世采撰○神道碑尤菴宋時烈撰延平府院君
謚忠定李公諱貴有三子其季曰延城君諱時昉字季明延平

有忠孝大節嘗上疏訟粟谷諸賢之誣而斥山海之姦天啓
癸亥與諸子同昇平金公塗及忠義諸公諱西宮奉仁穆

大妃復其位號以大妃命歷光海主仁祖大王即位上
承宣廟大統攝攝曩倫復正宗社再安可謂不世之豐功大

業矣策勳並啓封號丁卯有虜警先時公持大夫人制因寇
起復出守州郡為工曹參判至是上將幸江都以公為巡檢

保寧 二月 葬 具 表 也

相吳鼎熙 見孝子篇 閩在 **金啓煥** 見孝子篇 閩在 **趙氏** 金實

見貞烈篇 **申氏** 白樂完妻 見貞烈篇 **碩塚** **白光元** 藍浦人 諫官 仲

王朝名臣墓在元藍浦深山 **白頤正** 見藍東幕洞先墓在羊角山下

甲坐神道碑 奉朝賀金履陽撰 禮判李翊會書吏判 **任珣** 見名

墓在保寧郡 **熊川** 面坪里 **元藍浦** 縣源田 **面羊角山** 東幕洞 卯

史公續厥緒 **致位高顯** 一介不復 **莫無蹇蹇** 惟世綿邈 厥迹泯泯

雖被入誣 考信則明 昔朱夫子失守 租塋 顛于有司 復舊不迷

其系雜 旬脂 牢譽 覆其祝 維何 承寧 斯宅 神飽 登爾 子孫 千億

彼析薪者 毋敢或傷 我銘 隱徑 用詔 茫茫 經筵 官傍 商憲 瞻撰

已友詠 决之 後稷 子護 之節 於胃 齋趙 先生 引安 東金 氏

之匪墓壇例 以焉 教者 以誌 石之 見失 一也 而今 日之 碑與 彼

永世美傳○頌德碑在熊川面杜龍里銘曰順天誠意體仁且
 惠患其不能州之有節以義親遠施恩恤貧曾無憎愛常多謙
 和○頌德碑在安面銘曰歲值饑荒邑里飢瘡多未歎人
 呼癸餒藍浦鳳村賑貧救恤周窮郭元活貧雷弼濟世生靈前
 藍浦面銘曰五面惠及萬人墜碑頌德多鐵字誰有願世德魯
 甫入無文淵善○頌德碑在藍浦面自漢城移立銘曰治仁一世
 歌可豐口碑○頌德碑在藍浦面自漢城移立銘曰治仁一世
 皆妙於利公體行仁惠及窮士新地施穀又平均忠良之道
 購書勤勉此碑真稱他方亦然四里同聲紀石永傳○頌德碑
 在嶺山面銘曰施賑恤節設校育英報橋利後均
 田助耕慕聖獎學修道判編頌德不忘勒石以錫
 見孝子篇閭在熊川面大昌里黃廷直見孝子篇閭在
 熊川面篁橋里高氏具思諾妻見貞烈
 谷李善元見孝子篇閨在熊川面篁橋里金氏具益壽
 烈篇閨在青蘿面玉漢里李氏具孝閨朴世胄見孝子篇閨在
 珠山面篁栗里具氏在聖舜妻見貞烈篇白氏李震妻見貞烈
 山面篁栗里具氏在聖舜妻見貞烈篇白氏李震妻見貞烈

保亭 日月年庚辰庚辰

六

尺廣四尺碑文孤雲崔致遠撰崔允書浮在龜頭上世補浮石
海東八大奇蹟之一○李秉廷字伯允延安人左贊成延平府
院君忠憲公默齋貴后有詩山高聖佳岳
碑古儒仙文選跡千羊事問來只白雲
光城府院君金克成

神道碑在青所面李夢奎遺墟碑在大川面李鳳九善政碑在

浦面寬閔泳商不忘碑在熊川面為本沈宜臣頌德碑在熊川

里為本道伯朴鴻陽頌德碑在周浦面馬江望李乾夏不忘碑

在熊川面為本道李錫九頌德碑在青蘿面蟻坪里販羅布惠

金閨煥序文和號清菴通川人忠臣應漪后高宗朝進士官

有頌德碑在藍浦面玉東里銘曰寬廣之德愷悌其儀捐廩明

恤萬口濟飢篤誡尊聖段木可師遠近咸頌求世有辭○頌德

碑在新興里銘曰公在公城為公于城保民以寧惠及保寧如

雨賑穀如旱雨穀減賸農作舞歸農作羹潤九里海潤千里德

重頭須刻龜頭○頌德碑在珠山面新九里銘曰遠境近來

普惠如流勸組公審褒賞拔優便宜給苗忠良刊漏片石可語

蒼松斷壑一蹊幽刺得仙緣更上樓古塔千年雲影逗諸天三
 界磬聲流毒春佳約使花氣盡日奇談點石頭借問禪房河所
 樂頓忘塵劫好相留○李晚榮禪宇潭慶州人文忠公白沙巨
 福后有詩中蓋菴古不知年惟有老僧望若仙偶托疎蹤秋日
 曉浮生漸送世塵烟○鄭顛朝有詩半輪秋月峨眉山
 僧與白雲心自閒寂口孤燈禮佛夜鍾聲時出聞人間

普通學校 大川面藍浦面鰲川面周浦面青蘿面
 熊川面珠山面嶺山面川北面各一 **尋常小學校**

在周 **尋常高等小學校** 在大 **不祧朝** **金克成** 見勳臣篤廟在
 浦面

祀孫 **趙昌遠** 字大亨揚州人丈剛公末生后 仁祖國舅封漢
 秉鉉 原府院君年甫十歲陪親赴亂能左右周旋不失

其宜謚惠穆廟在 **尹子雲** 字望之號樂聞齊茂松人松原府院
 青蘿面長山里 君景淵子 成宗朝佐理功臣領相

封茂松府院君謚文憲 **李夔** 字子侯遠安人叅判永肩孫 中
 廟在熊川面篋谷里 宗朝錄靖國功臣官至兵判封遼

山君謚文敬廟在 **李時稷** 字聖俞號竹憲延安人文康公樞軒
 青所面眞竹里 石草后文掌令江都殉節 贈吏判

諡忠穆享江華忠烈祠廟在 **堅禪** **大郎慧和尚碑** 在嶺山面聖
 嶺山面平羅里祀孫秉直 住里高十二

果亭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

里朱夫子九菴宋時烈○三影幘閣在嶺山面龍水里奉水鉉

希堂尹錫鳳創立春秋享祀在嶺山面校城里○趙翼元

祠在龍水里奉安梅寺刹禪林寺見上有詩禪林寺在古營頭

一面青山一面洲背後烏岑來牧笛眼前龍島送漁舟佛家梵唄

傳今日騷客登臨感昔秋回憶昇平當世事使君節鉞幾停留

天井菴在烏樓山頂龍華寺在大川面聖住寺在聖住山下只

塔碑文孤雲崔致遠拱崔沈書高十三尺廣四在嶺山玉溪寺在嶺山

尺浮在龜頭上世補浮石海東八大奇蹟之一在嶺山白雲寺在嶺山

忘歸路停驂五歷在嶺山中臺庵在嶺山峨嶧山南麓依峭壁俯蒼

願后有詩中台五月谷風寒作雨靈泉瀉石湍緩步能攀千仞

壁到頭更上一層欄墻花不語還供笑林身無驚得慣者喚起

主翁在齊僧何事拜神壇其二古寺鐘鳴後空山月上時

仙蹤憑鶴問隱至筆吹○任民鎬蹄小川豐川入和齋子順

后有詩老佛觀心闢海山鍾聲每聽四時閒落花寂雲溪路

短髮牧童弄笛還○任建宰號海石豐川入和齋子順后有詩

在熊川面 **蘿院橋** 在青蘿面 **珠山橋** 在珠山面 **古跡邑城** 石築周

本昌里 百九尺高十二尺 **城隍祠** 在地乙 **社稷壇** 在郡西 **唐山城** 在郡

緘內有三井 里石築周一千八 **新羅敬順王祠** 在王馬山 **馬梁鎮基** 在熊川

百十尺內有一井 李尚真巡撫到此以舡 **藍浦城** 石築周二千四百七十六尺高

泊不便移設于此仁 **藍浦城** 十五尺東南門皆有倉城內有 **姑蘇城**

三 **鰲川城** 石築周三十一百 **舊鎮城** 在通達山舊置兵 **藍浦**

井 在鰲川面 **沙峴城** 在柏山舊 **雲峯城** 在雲峯山 **社稷壇** 在藍浦

水營門外 **玉眉烽燧** 在熊川面 **仇火驛** 在珠山面 **保寧文廟** 在周浦面

藍浦文廟 在藍浦面 **鰲川文廟** 在鰲川面 **院** **新安祠** 在藍浦

山下朱夫子晏齋白願正益齋李齊賢 **花巖書院** 在青蘿面長

尤菴宋時烈遂菴權尚夏南塘韓元震 **集成堂** 在熊川

成建 肅宗丙寅額○土亭李之菡鳴谷李 **集成堂** 在熊川

山甫天休堂李夢奎○遺配四留齋李廷龍 **集成堂** 在熊川

保寧 月羊

三百人口七萬二千
二十二百二十
形狀 青烟微海王馬撐天李安愚有詩北

浪拍天好風時自李乘延詩山連東北週
至快意坐籌邊 山連東北海帶西南連立海帶西南九派

北鎮烏山西圍大海鄭夷朝詩北鎮烏山天
府圖西圍大海地雄州 田產 棉 麻 苧

稻 大麥 大豆 棗 栗 柿 梨 竹器 陶器 沙器 艾石

出郡南 烏石出聖住 箭竹出竹 當歸 白芷 芍藥 麥門冬

扶苓 銀口魚 紅蛤 青魚 秀魚 石花 石首魚

鰻魚 海衣 錢魚 道味 葛魚 民魚 鱸魚 金銀

汽車驛 大川驛在京南線北接廣 熊川驛北接大川驛 珠山

驛北接熊川驛 各所海水浴場一在大川面軍入浦 鰲川港在

川面舊水軍 節度使營 橋梁 大川橋在大川 青川橋在青川 藤川橋

護堤坊 在熊川面城東里長七百間 瓮洞堤 在藍浦面 東谷堤

在珠山面 武倉浦 在熊川面冠堂里海岸魚船往來產物多出

島 打鼓島 在郡西里 松島 在郡西二十里湖退則與高嶺島相

竹島 在郡西八里 高嶺島 在周浦面高亭○土亭 雙鰲島 在藍川水

島名為 元山島 在郡西海濱周四十七里南北打船經由之地

菅 挿矢島 在郡西周五十九里養鹿子 外烟島 在藍川面周 鹿

島 周二十里 開也島 嗚呼島 在郡南今稱於青島水路二百餘里

城址世稱田橫 栗島 在郡南 麥島 在月田里八疊石屏有子

致達所 巨次羅島 在熊川面 黃竹島 同上 石大島 在熊川面 竹島

在郡南二 海水浴場 在武倉浦○ 郡勢 面十里 戶數 二千

果寧 月 三

寺有千年古跡石榻世稱名勝地○僧道誥有詩行仁聖住
前路雲霧重仁不暫開看取牧丹何處折青山萬疊水千迴

九龍山 在郡南二十里 **雲峯山** 在郡南三十里 **珠簾山** 在郡南三十五里 **通達**

山 在郡南三十七里 **羊角山** 在郡南三十五里○鄭赫世見學行篇有
詩九星羊角半浮天湖海群山擁後前

地化翁多費力養 **栢山** 在郡南三十里 **峨嵋山** 在郡東三十五里月鳴
來東表幾英賢 三十里 峨嵋山 在郡東三十五里月鳴

池寺名 **金剛山** 在郡東三十里聖住山來脉羅列千峯奇妙絕
勝巨岳 勝有朝露花開兩峯世稱小金剛○李之藟見

儒賢篇有詩聖住幹龍接玉馬一朶牧丹向 **燈檠山** 在郡南
東開羊角蹲口如虎踞峨嵋盡口抱龍回 十里 大

川 在郡南三十里源出鴻 **青淵浦** 在大川下 **貯水池** 在藍浦西
山在房時流入于青淵浦 今荒場浦 貯水池 在藍浦西

龍岩川 在郡南四十里 **桃花潭** 在郡南三十里峨嵋聖住兩山水合流
成潭下流荒場浦潭上有補孝子村印

桃花 **鷹巖** 在龍岩川上層巖絕壁如鷹揚之勢擁立 **龍淵** 在桃
潭里 開帳如錦繡之屏名宰碩儒刻名尚存 龍淵 在桃

下深可千尺世 **濯纓岩** 在花山里龍湫上岩上可坐數 **生命保**
稱盧食三綱淵 十八鼻齋白頭正退隱哺咏處 生命保

如鈞戟形○趙翼元鼎桑湖漢陽人遯漢兩后曾任文廟直員

有詩一山峻嶒聳天根堡堞千年尚有痕馬塚荒涼新草合龍

宮深遠老猴喧參差古木旌旗到磅礪危巖王臺在郡南地乙

峴在郡東打鼓山在郡西我峴在郡西沙邑峴在郡南冠岩在郡

南十二里麗末金將軍成雨討滅倭敵海在郡西南大川在郡

時脞冠掛石故因以為名事載邑誌

市場前源花巖川在郡北青峴川在郡北白鷺洲在郡東軍入

浦在郡南十五里海岸麗末金將軍成雨討蟹浦在郡西伊川

瀑布在郡南伊川里龍淵在烏棲山下絕壁擁立懸如錦屏深

詩一自龍飛去深湫更作灘常蘿院川在郡東二十里源玉溪

留山外雨時灑古仙壇出色誌

在郡北十五里源出五聖山流入大川石壁扁○玉馬山在郡

里武夷山在郡南聖住山在郡東十里諸峯羅列蒼翠挿天多

保寧 月 峯 聖 住 山

郡守 純宗隆熙四年
庚戌後甲寅革屬本郡
新村 新邑 柵城 保寧 寺浦馬

出 鎮唐山 在郡北 烏棲山 在郡北 二十里來自天安廣德山

之巨岳為五行形體故一名五星山右有內院庵下有聖淵村

賢人才豪皆出於此山下○李東九號峭山駟州人毅憲公光

輪后有詩鬱碧嵯峨近碧空鍾英未必讓衡嵩秀形排空東南

界奇勢分成十二峯聖高十年猶有跡太皇一世景多功今來

古往相傳語隨序風烟也不窮○成熯甚號怡雲昌寧人文孝

公士達后官成均教授有詩山號以星仁五宜五星精彩畫難

移西南郡距中間屹十二峯回次第奇內院寺深僧禮佛聖堂

里僻士歌芝有如錦繡葱二裡佳景不同隨四時○鄭爽朝號

青隱東萊人文翼公光獨后有詩一抹烏山聚五星鳳飛龍卧

固為形百垸貨實多天造幾個英豪應地靈欲洗塵埃西拖海

遠分州鎮下通坳輿圖千載曾何漏信筆於今著竹青○金鳳

聲沸東蓮官學部主事有詩登覽名山愛亦宜應從驚背此間

後自生公益戲無盡特立形容大且奇競集騷人尋古寺 白月

山 在郡東 高巒山 在郡西 十里 天馬山 在郡西 十二里 古有鎮

幾多隱士採靈芝 洞天開出雲常住山 降於斯 必有時

城累有馬塚層岩之勢

伊寧郡南至舒川郡界四十里北至海城郡界三十里

建置沿革 本百濟時新村縣一云沙村新羅改新邑為潔城郡領縣

高麗初改今名顯宗時屬運州睿宗元年丙戌置監務朝鮮 太

宗朝例為縣監 孝宗三年壬辰合屬水營陞為府兼治府事

又因道伯李後山啓復設縣監 高宗三十二年乙未例改為

郡置郡守 純宗隆熙四年庚戌後大正三年甲寅罷監浦鰲川來

屬仍置郡守今因之

新舊屬縣 藍浦廢縣 本百濟寺浦縣在古邑面水岸新羅改今名 為西林郡領縣高麗顯宗九年移屬嘉林縣

後置監務恭讓王二年始置鎮城朝鮮 太祖六年置兵馬使兼 判縣事 世祖十二年革鎮例為縣監 高宗十二年例改為

郡置郡守 純宗隆熙四年 鰲川廢縣 本忠清道水軍節度使鎮營 年庚戌後甲寅革屬本郡 高宗光武六年廢鎮為郡置

章保

伊寧郡

滯深包海水為內海數十列島橫亘于海中形態奇恠有白沙汀周迴數十里有尊池若當春節海棠爛開香聞十里

安眠島橫連于恭安南方長七十里廣二三十里群峰環列豁洞甚多處有鏡浦金沙風景佳麗漁家雁戶村落櫛比又有農利民產殷富昔平坡一帶與陸相連故稱安眠串中葉取其漕運鑿去連陸處遂作一島其鑿處稱崛項浦

安眠島西南群島散列西有竹島產竹箭南有要兒梁波知島皆舊時水軍屯戍處於青島土地肥沃有古石城遺址世稱田橫島者月島古有白蓮庵僧無學出生于此價誼島插是島煙島外煙島鹿島

白牙島蔚島伊作島堀奈島等遙散在其外小島不能盡記

西人稱川泊船最宜其西方瑞山恭安間深入者即掘浦灣其

東又有淺水灣屈曲深入為良港然多暗礁淺沙不宜漕船

東山浦結城臨于內海潮流甚急船泊不便然安眠島列在前面

頗有勝概保寧鎮古水軍節度鎮亦枕于內海與安眠島相望西湖及

永保亭俱有山海勝景無數小島列在西南其他馬梁鎮庇仁

灣一名都豆音舒川浦並在沿海皆水淺不宜鉅艦碇泊

錦江排水口有龍堂津崎與全羅北道群山港隔江相對為京

南鐵道終點漸次發展將為忠南一大港口

恭安半島與瑞山僅通一路三面皆環海西有安興鎮所斤鎮

白岑山脉斗入海中巖礁危險漕船多敗故稱安興梁東方一

東為芙蓉津

一云芙蓉江

至公州東入于錦江沿山流出水色清佳

素沙河發于彌勒川

源出車嶺

北流至新昌為丹場浦并浦西轉至

牙山靈仁山邊匯停而與頤串津

出白山

相合為太湖澗山出于

水門濛入海河口一大巖石嶄然屹立狀如渤海之碣石其北

素沙坪

復

百里長野丁酉倭亂明提督麻貴放猿兵大捷于此

牙山澗

在忠清京畿間分作前後兩澗前澗即古

溫浦後澗即貢稅串湖舊時為本道貢稅米漕積之地

唐津浦在唐津郡北三十里古水軍萬戶鎮泊船便宜故往昔

中國使臣往來之要津有彩雲橋石門山兩國使臣賦詩稱賞

其名頗著孟串難知島草落島等列立與唐津浦相抱為一澗

西有水簾洞巖瀑絕竒北有講堂洞武陵水石亦佳其他高壑

笠巖岬恭味多佛川沔申巖唐象王海聖旺瑞山白萃恭安山脈盤結于海上等

安興等諸山並逶迤起伏列峙于本道西北海上

河流錦江為本道之鎮江其源有二一則發于德裕山朱為達

溪潭音召爾津朱高塘江咏一則發源于俗離山報合黃礮永同

深川諸水西流至沃川東北為車灘化仁津至赤登津與高塘

江合流為末訖灘利原津新灘津至公州東北與東津江合流

南抗而為尾灘錦江津熊津渡公白馬江扶至江景浦為鎮江

經林川韓山舒川等郡東界入于群山海東津江一名發源

于鎮川大門嶺聚合群峰間許多溪流南經清州文義至燕岐

全五峯燕等山蜿蜒起伏與東方諸大嶺相對又綿亘于天安

溫陽境上聳峙為燕岩山下溫泉湧出為古來有名溫井

車嶺聳峙于公州境上峻嶺深壑盤迴屈曲其北方一嶺稍低

通行即車峴連亘為茂城山恭華山公州山腹有麻谷寺即新羅

古刹朝鮮額靈山世祖遊幸有三十三層石塔現為忠南本寺又南

走為大峙白月隋七甲岷聖興林川有諸山列峙于錦江之西

鳥棲山在洪州南境峰巒嵯峨竦峭聳出于雲表其下群峰遙

遙羅列一支南走為聖住山蓋萬壽山鴻東有无量寺即金梅

月堂化仙處又連亘為峨媚飛鴻鴻明月庇千方嶠等諸山

伽倻山在德山西境東有伽倻寺洞壑即上古蒙王宮闕基址

火溫稟大哉閣孝廟賜李文貞敬輿臨批至痛在心日暮途遠

稱自溫其後宋文正時烈書與文貞子文簡敏叙而文

簡從子忠文頤命刻石建閣水北亭金興建散在東西江岸景致絕佳平濟塔

燕定方記切塔燕定方石像金庾信碑並屹立野中多因古跡為名而不能詳述自此南下為望月山城山勢亦臨江秀麗

又板峙一支南下為魚聖山魯城峰巒突起與鷄龍相峙上有古

石城仁內有佛庵多登眺景致其上峯為尼丘峯其南麓下建

闕里祠即孔朱兩夫子安靈之地也其南三十里許般若山津

有灌燭寺高麗光宗時距今九百七十年前僧慧明建石彌勒高五十四

尺為東洋石佛之最而每年端午男女往拜者計以萬數

錦江西北諸山自鎮川吉祥山金庾信生于此埋胎故一云胎灵山西南為鵲城

蜿蜒突起為月城山鳳凰山即公州邑鎮山邑北有雙樹山城
盤結于錦江之上其形恰如公字故州之得名以此因山勢而
築城為一道保障朝鮮仁祖避逆亂南幸駐驛于此上有雙
樹仁祖每倚樹北望一日飛騎急至乃捷書也仁祖大喜
仍封雙樹加以通政大夫號後官建小亭於山上名曰雙樹亭
亭下建駐驛事蹟碑閣今樹枯而亭存北有拱北樓頌壯麗臨
江為勝傍有靈隱寺背山臨流景致亦佳自板峙又西走為扶
蘓山扶餘即百濟古都東邊有半月城內有劉仁願碑閣西邊
有華嚴寺落花巖百濟亡宮女皆避岩投江上有石花亭泗泚樓景致皆絕
勝天政臺百濟時每由拾擇人拜相釣龍臺龜定方以白馬釣龍自溫臺義慈王每宴造奸臣先以

鷄龍山盤據于公州大田論山三郡界石峰簇立山勢逶迤精
秀磅礴鬱律為湖中名山其南深畜洞局名曰新都朝鮮初欲
定都為三日之役未果而礎石尚存其附近地名與漢陽相似
西有龍淵極深且溢為局中大溪自南流北橫貫儒城大野注
入于錦江山之南北亦多名勝西有新元寺岬寺二傍有西山
四溟靈圭三大師之表忠祠東有東鶴寺二傍有三隱閣即鄭
圃隱李牧隱吉冶隱三賢祭閣其傍有肅慕殿朝鮮端宗
遜位三相六臣寃死金梅月堂招六臣魂設壇祭之世祖幸
行以錦書下端宗及宗室以下死節諸臣使招魂祭之命建
招魂閣高宗朝額肅慕殿並為士林香火西支屈曲為板峙

刺史縣令以理之唐師既還新羅盡併其地敬順王降于高麗
成宗十四年分國內為十道以公運等十一州為河南道睿宗
元年合于閔內道稱楊廣忠清州道明宗元年分為二道忠肅
王元年復合為一道稱楊廣道恭愍王五年稱忠清道朝鮮
太祖朝以楊廣州所領郡縣屬京畿道忠清公洪州所領郡縣
仍稱忠清道各置觀察使高宗光武元年分公洪州所領郡
縣為忠清南道今因之領十四郡

忠清北道俗離山脉南為德裕山

茂

西為馬耳山

鎮安

復倒

行作鷄龍山一脉又西行為大門嶺摩日嶺至公州北為車嶺
折而為茂城山西止洪州境上為烏棲山

忠清南道地理總說

位置 本道在京畿道南方東連忠清北道西北沿邊諸郡突出于海上與黃海道延白倉津等郡遙口相峙西邊一帶臨于海面自中國天津上海往來日本通商航路南接全羅北道全州益山等郡東西略二百里南北略二百五十里自北緯三十五度至三十七度自東經百二十六度至三十七度半地勢東北峰巒重疊西南多平原曠野地質膏沃富島嶼

沿革 本道古馬韓之域後為百濟併有文周王自北漢移都熊津州公聖王又徙都泗泚扶餘義慈王二十年唐高宗遣蘓定方與新羅武烈王攻滅之析置五都督府各統州縣擢酋長為都督

忠清地理

日洋史與卷九

八百餘口于唐其他數萬口皆移住日本九州西海鹿兒島等地

其外又有靺鞨族蒙古族日本族等高麗初東西古真部落入

處西北兩道為蕃屬後東女真之完顏氏滅遼與宋入中國為

金國帝西女真之後裔為清國之始蒙古族高麗末年移住者

甚多日本族自古代來往複雜移住甚多日鮮併合以來官公

吏及農商民移住者每年增加至數十萬口

朝鮮方言

大駕洛東方國名三韓巨族謂之大駕洛羅祿新羅百官頒料以租給之故謂租曰羅祿假男兒高麗

稱女兒日乙那新羅時稱嬰兒曰乙那花郎新羅貴男子之稱號徐鬱文獻備考曰新羅國又號

徐耶伐後人稱京都日韓骨第一骨新羅王族後族曰第二骨

徐伐後轉變為徐鬱

朝鮮人種

朝鮮人種即亞細亞之黃色人種上古有九種部落隨文化之

關各地移住混雜大概其區別有三族一曰朝鮮本族即古初

土著民族自西北蔓延于東南者二曰漢族即中國人移住者

自殷周際至戰國及秦漢代因有事時移住如箕子率五千人東來燕齊趙民避

秦亂亡歸者數萬從衛滿亡命者數千人唐宋以來因戰亂移住者甚多三曰扶餘

族古濊種即檀君遺裔檀君後孫徙北扶餘北扶餘王解夫婁徙朝鮮東北

海濱為東扶餘即不耐濊王漸次蕃殖後濊君南問率二十八萬口

歸漢高句麗百濟亦扶餘族蕃衍于西南及亡遷句麗男女二

十萬口于唐其餘依長白山東為渤海國又徙百濟男女二千

朝鮮地理 月羊 卷之

不俟辨論自明界域

高宗御極三十四年

開國紀元五百六十六年丁酉距今三十三年前

國號改稱韓國

名建元光武歷十四年

純宗隆熙四年庚戌日本明治四十四年

秋七月併合于日

本凡二十七王共歷年五百十九年

自檀君開國紀元戊至隆熙四年庚凡四千二百四十三年

距今二十年前

明治十四年

置朝鮮總督府于京城朝鮮總督統率

陸海軍掌朝鮮防備事代法律制令發布管轄朝鮮中央統治

事務十三道各置長官

今知

十二府各置府尹革三百十七郡

為二百九郡各置郡守島置島司革四千三百五十六面為二

千四百六十一面各置面長分管行政事務

元桂秦瑛等審勘境界亦未決彼我間累經交涉未能安定蓋
白頭山大澤南十里許有定界碑其西邊數步地有溝壑卽鴨
綠江源東邊數步地亦有溝壑卽土門江源其中間溝形甚狹
兩岸之對立如門故謂之土門此所謂東為土門西為鴨綠者
土門江合各處山谷水東流三百里入松花江間島卽在土門
之南以土門定界則間島是我國疆界清人以為豆滿卽土門
亦補圖們音之訛傳且分水嶺發源之土門江卽松花江之上
流互相固執然豆滿之江源出於長山嶺則與分水嶺立碑處
距離為九十里不合於東為土門之碑文豆滿與土門字音畧
似發源迥異自分水嶺定界碑東發源者明是土門之江則更

太宗二年始置理山山楚渭原昌城朔州等四郡七年又置慶源

慶興二府後至世宗朝西北置茂昌間延虞芮慈城四郡命

金宗瑞北驅逐女真部落于豆滿江外恢復疆土開拓六鎮

宣祖朝勦滅藩胡設茂山府列於六鎮正宗朝置長津府

肅宗三十八年清康熙五十年壬辰清國烏喇總管穆克登與我使朴

權李義復等審定國界于白頭山至分水嶺上立定界碑刻文

于石面曰大清烏喇總管穆克登奉旨查邊至此審視西為鴨

綠東為土門故於分水嶺上勒石為記後歷一百七十二年即開

國紀元四百九十二年癸未以北間島勘界事清吉林將軍及我西北經畧

使魚允中互相審定未決其後勘界使李重復與清員德玉賈

朝鮮太祖距今五百三十九年前高麗凡三十四王歷年共四百七十五

年高麗統一在太祖五十八年乙未則實歷年四百五十八年

朝鮮太祖姓李諱旦初諱成桂開國紀元元年明太祖洪武二十五年壬申日本後小松帝南北統

一元中九年西曆紀元一千三百九十二年定都漢陽國號朝鮮初高麗恭愍王十

九年庚戌太祖率步騎兵一萬五千渡鴨綠江攻破北元東寧

府在遼東婆豬江兀刺山城又進兵攻破遼陽城榜諭人民曰遼河以東我

國疆土大小頭目亟宜來朝共享爵祿明年北元遼陽城平章

劉益以為遼陽本是朝鮮地欲歸附我國遣使來請時廷議不

一未有回報劉益遂以金州復州蓋平海城遼陽等地歸附于

明嗚呼當時若許劉益歸附恢復舊疆自失機會曷勝歎哉

朝鮮地理

月羊

柳仁雨攻破雙城今古和州又復和興登邊安定平長古長州在今

十五預古預州在今定平南四十五里高文文源宜德德源等州及宣德在今咸興南四十五

里元興在今定平南五十里寧仁在今永興東六十里耀德在今永興西二十里靜邊在今永興

東六等鎮蓋朔方道鏡道前以都連浦在今咸興南三十里為界築長城

德宗二年癸酉築長城自義州經寧寧設三關門定州宣防女真遠永興之耀德靜邊鎮直抵都連浦

為蒙古之所沒凡九十九年至是始復又收復咸州元補哈蘭府吉

州元補福州元補兗魯北青州元補四城四城為女真之所沒

凡二百四十餘年始歸高麗至恭讓王三年復甲州岬明年差

李必等招諭幹都里寧兀良哈諸部落是年明太祖洪武二年秋

七月天命歸于

長烏雅束

即金國康宗世祖劬里勃之子穆宗盈歌之兄子

自肅宗時累侵邊境遣元

帥尹瓘吳延寵率兵十七萬討平女真劃定地界東界火串嶺

北界弓漢伊嶺西界蒙羅骨嶺置英雄福吉

皆在今吉州以北

四州明

年又置咸宜二州及公嶮通恭平戎三鎮是為九城移往南界

民六萬八千戶立定界碑于先春嶺於是句麗之舊疆始歸版

圖既沒九城女真部落誓欲報復冒死寇侵邊警不息後四年

女真太師烏雅束遣公兄館史顯等請和親乞還九城遂朝議

許之乃撤還崇寧通恭及英雄福吉咸五州真陽宣化等鎮女

真酋長等咸州門外設壇天誓曰自今以後連年朝貢若渝此

盟蕃土滅亡其後咸北一路為女真蒙古所陷恭愍王五年遣

七十六年至成宗十二年癸巳契丹蕭遜寧大舉來侵聲言曰復

高句麗舊地時羣議畏虜欲割與黃州巴山嶺慈悲嶺在瑞興西六十里以

西賴侍郎徐熙抗辯無事封疆得長興歸化龜州郭州等四城

自是兵連禍結疆土之爭連年不息又歷二十七年至顯宗十

年起遣上元帥姜邯贊大破契丹兵大振國威又歷五十五年

至文宗二十七年癸丑東女真七州酋長率眾來附賜姓名各授

將軍號又三山三撤今北青大蘭支擲咸興西北薛罕嶺之南寧遠界等九村所乙

浦村小支擲前里大支擲等皆來附置十一州又東蕃即東女真大

齊者古河舍等十二酋長及豆籠骨伊今豆滿江餘波漢等諸蕃皆

歸服分置州縣又歷三十四年至睿宗二年丁亥時女真強盛酋

昏淫為新羅武烈王所滅王子豐起兵據周留城燕進圍龍津

欲復古業兵敗遂亡王子豐在位四年唐高宗龍朔三年癸亥凡三十一王歷年共

六百八十一年

高麗見上名義距今一千二年前新羅景明三年後梁太祖王建

漢州松岳郡人父隆與妻韓氏居松岳南及生太祖龍眼日角器度淮濠年十七往投弓裔見而奇之授鐵原太守南征北

伐累立戰功弓裔暴虐日甚忝封諸將推戴為王定都松岳城開建元天授滅後百濟甄

尚州人本姓李體貌雄奇多智畧因世亂盜起聚五千餘人襲武珍州今光州自立為王後移都完山稱後百濟居王位四十

四年降泰封弓裔新羅憲安王庶子生而有齒日官曰不利於于高麗泰封國使殺之乳母抱而逃及長為僧後叛據鐵原國

號泰封性暴虐見父王畫像拔劍擊之其妻康氏諫其非行裔以鉄杵撞殺之並二子高麗太祖舉義弓裔出逃為芥壤斥所

殺降新羅唐高宗王清泰統一全國西北接女真東南際于海歷

朝鮮地理 月羊宮三與卷力會

麗琉璃王二年漢成北扶餘人溫祚東史云高句麗東明王高

帝鴻嘉三年癸卯子沸流及溫祚恐不容於國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至漠

山今南漢登負兒岳今三角山望可居之地而沸流居彌鄒忽

今仁川溫祚都河南慰禮城今稷山後沸流以彌鄒忽

土濕水醜不得安居復歸慰禮城尋卒百姓皆歸溫祚南渡冽

水漢江定都于慰禮城稷山馬韓王割東北百里之地而與之十三

年移都漢山廣州南漢山城移住慰禮城民二十七年新莽元襲滅馬

韓有其地其疆域北限沮江今遼安離成江或云平山西南際

于海東隣新羅東北接樂浪濊貊歷三百七十二年近肖古王

粹移都北漢城今漢城又歷一百五年蓋鹵王二十失漢城文周

王元年新羅慈悲王十八年乙卯移都熊津州公又歷六十四年聖王十六年

年戊午又移都泗泚扶餘又歷一百十三年唐高宗顯慶五年庚申義慈王

中一名 又歷八十五年長壽王丁卯還都平壤又歷一百六十年

平原王二十六年丙午移都長安城在今平壤外城歷八十三年唐高宗總章元年戊辰王

滅為新羅文武王所滅其疆域起自蓋馬山白頭山西北漢玄菟

郡地稍稍吞併其傍近小國如沸沘荇人蓋馬句茶黃龍朱那

曷息東沃沮北沃沮扶餘樂浪肅慎梁貊等諸國後又取帶方

玄菟遼東等諸郡縣西至遼河北領北扶餘靺鞨諸邦東北窮

于滄海接蝦夷東南隣新羅百濟割取百濟疆土置南平壤地

方迨至三千餘里開拓甚廣子孫驕侈遂及亡凡二十八王歷

年共七百五年

百濟見上名義距今一千九百四十七年前馬韓王一百七十七年新羅始祖四十年高句

朝鮮地理 月洋夏里券覽 六

乙敬順王降于高麗朴昔金三姓相迭為王按朴氏十世昔氏八世金氏三十八

世文主 凡五十六王歷年共九百九十二年

高句麗名義 距今一千九百六十六年前馬韓王百五十八年新羅始祖二十一年漢

元帝建昭北扶餘省開原縣 王解慕漱其子解扶婁徙下朝鮮東海濱為東扶餘

始 子高朱蒙初解慕漱與河伯女柳花私通生朱蒙繼以高辛氏后因姓高七歲能射扶餘俗善射者謂朱蒙

因名 來于沸流水上或云今成川統骨城 建國都率本今鴨綠江北與京界內古渤海率寶

府始歷四十年琉璃王二十一年癸亥 移都國內城一名尉那巖城在今楚山江北兀刺山城

又歷二百七年山上王十五年己丑 移都丸都城在今江界滿浦江北 又歷三十九

年東川王二十一年丁卯 移都平壤又歷九十六年故國原王十一年壬寅 復都丸都

城為慕容皝所屠明年鄒叟移都于平壤東黃城在今平壤東四里木覓山

母姓傳十二世至仇友王降于新羅
法興王歷年共四百九十一年
大伽倻一名任那今高靈始

設智王為新羅真興王所滅
凡十六世歷年五百二十年
小伽倻城固碧珍伽倻星阿羅伽倻

咸古靈伽倻咸草八溪比只未詳多伐未詳及浦上八國漆原泗川 昌原熊川

地等于山國鬱陵等諸國皆併吞疆土漸大歷七百十七年至武

列王七年唐高宗顯慶五年庚申滅百濟與唐將蘇定方攻滅之唐分置 熊津、馬韓、東明、金湊、德安、五都

督府以劉仁願留鎮泗泚城後撤歸後九年唐高宗總章元年 戊辰文武王八年又滅高句麗唐

將李世勣攻滅之唐分置九都督府以薛仁貴留鎮安東府平壤尋撤還統一三國其疆域東西南

三面際于海西北以沮水今大江為界北與渤海國以泥河今德

為界始都金城在慶州東至婆娑王元年漢章帝建初五年庚辰移居月城在

東又移居明活城在月城東自統一後歷二百六十八年後唐濫王 清恭二年

朝鮮地理 月羊王 恩券而記 二

四郡三韓之際有起三國距今一千九百八十六年前馬韓王

十八年漢宣帝新羅始祖赫居世姓朴名赫居世初楊山林間

儀形端美浴於東川身生光彩以為神立為君時年十三昔

脫解初婆那國王娶女國王女生一卵裹帛浮江至辰韓老嫗

見有兒奴來時鵲隨鳴故省身以昔為姓以解續出故名脫解

後為南解王婿立為君味鄰王即闕智七世孫初脫解王聞

金城西始林間有鷄聲往視之有金色小犢掛樹白鷄鳴其下

王取開有兒奇偉喜曰天祿我胤仍為子名曰闕智出金檀故

以金為姓至七世孫為王初有鷄瑞故改始林為鷄林因為國號以辰韓六部人建國于鷄林

慶後為漸強伊西清押梁一名押骨火一名骨召文義城音汁伐

慶州屬地悉直三尸山海彌秩夫海葺山一名居漆甘文開沙伐

尚駕洛後改金官國今金海始祖金首露王初阿干刀等望見

出立先出者為君身長九尺龍眼重瞳以首出庶物故名首露

出金卵故姓金妃普熙太后許氏天竺國王女生十子二子從

昭二年甲申為高句麗併有歷年共七十二年

三韓即冽水江今漢以南之地古代辰國之部落也馬韓今京畿

以南忠清全羅皆其地距今二千一百二十三年前漢惠帝元年丁未

箕準為衛滿之所逐南走金馬郡今益山而王馬統合五十餘國

其域北隣樂浪南接倭境西臨大海後歷二百三年新莽元年己巳為

百濟併有辰韓今慶尚道洛東江以東之地北連濊貊西北接

馬韓東南接弁韓及日本統合十二國至漢宣帝五鳳元年子

為新羅之併有弁韓亦曰弁辰今慶尚道洛東江以西之地西

南跨智異山西北接馬韓東與辰韓雜居南接日本至漢元帝

永光五年壬午為駕洛及五伽椰國

封三年 癸酉 歷年共八十七年

四郡距今二千四十七年前漢武帝元封三年癸酉漢武帝滅衛右渠分

置四郡曰樂浪今平安道之地治朝鮮縣今平壤曰臨屯今江原黃海京畿以北之地

治東晡縣江陵一云臨津江沿岸地曰玄菟今咸鏡南道之地治沃沮城今咸鏡北曰真

番今鴨綠江以北 濛濛江之地治雲縣今與京歷二十七年至漢昭帝劉弗陵

始元五年己巳罷真番屬玄菟罷臨屯屬樂浪玄菟為夷貊之所

侵移郡于高句麗縣咸京省內自西北單大嶺今薛嶺以東沃沮及濊

貊皆屬樂浪後以境土廣遠分嶺東七縣置東部都尉治不耐

城今未詳置南部都尉治昭明縣樂浪屬縣 今春川其後遼東太守公孫

度分樂浪郡也有以南荒地置帶方郡今京畿黃海之地至漢元帝建

達今文化九月山或云唐歲京在今文化歷一百九十六年周

王元年遷居于北扶餘今中國盛京歷年共一千二百十二年

箕子見上距今三千五十一年前周武王元年東來亦都平壤其

區域西自中國廣寧永平府至遼東今盛京蓋平金州在盛京為

界南至洌水今漢東北接濊貊沃沮濊貊今江原道後孫襄弱

西界千餘里失於燕以滿潘汗在遼東為界歷九百二十九年漢

帝元年四十一世孫準為燕人衛滿之所襲棄南走金馬郡今

山居焉是為馬韓國王以下見三

衛滿距今二千一百二十三年前漢惠帝元年襲破箕準仍都王

儉城今平壤至孫右渠漢武帝劉徹討滅之分其地置四郡漢武

朝鮮地理 月羊子目卷九

朝鮮廣袤自東北至西南三千六百零里東西廣狹不齊或千餘里或六七百里其全面積一萬四千三百十二方里比之於全世界總面積則為一萬分之十六山野面積一千五百八十八萬三千町步為三千坪畝面積一百五十五萬三千九百九十八町步田面積二百七十六萬八千二百五町步火田面積七萬一千七百二十六町步總人口一千九百十三萬八千人

朝鮮沿革

朝鮮古初各分部落距今四千二百六十二年前唐堯二十五年戊辰檀

君見上名義始起定都平壤國號朝鮮其區域西北今滿洲地方東

今江原道等地歷一千十七年高武丁八年甲子移都于白岳山阿斯

黃海日本海間為橢長之半島國其極南端即濟州島毛瑟浦
北緯三十三度四十六分又莞島西南達陵甬北緯三十四度
五十五分其極北地即豆滿江沿岸慶源北緯四十三度二分
極西即長淵長山串東經百二十五度五分極東即俄國接境
豆滿江口東經百三十度五十八分全國在北溫帶中

朝鮮境界

朝鮮境界東西南三面臨于海其東南端隔朝鮮海峽與對馬
島遼二相對西北限鴨綠江與中國盛京省接壤北豆滿土門
們即圖二江為界與中國吉林省接壤東北與俄領烏蘆里分界

朝鮮廣袤

附山野畝田
火田面積及人口

古三韓地後三國起新羅東史曰古稱徐耶茂鷄林併辰韓駕

洛併弁韓後為新羅兼併百濟東史實鑑曰始祖溫祚初以烏干等十

濟併馬韓高句麗東史實鑑曰始祖高朱蒙生於遼東句麗占

有朝鮮地漢江以北後為新羅之併有至高麗東史實鑑曰取統一

新羅全區定都松京今開城歷四百七十五年天命歸于朝鮮

太祖定鼎于漢陽歷五百六年至高宗三十四年國號改稱

韓國東史曰韓方言大也建元光武歷十四年至純宗隆熙

四年庚戌日本明治四十二年併合于日本還稱朝鮮

朝鮮位置

朝鮮位置在亞細亞洲東部自中國大陸東北部突出於渤海

朝鮮寧輿勝覽

朝鮮地理總說

延安 李秉延 編輯

朝鮮名義

廣陵 安秉台 校閱

距今四千二百六十二年前唐堯二十五年戊辰檀君姓桓名王儉誕降於大白山今平安

北道寧邊妙香山檀木下石窟始起定都平壤國號朝鮮朝鮮

名義或曰有潮水汕水朝音潮見馬史索隱或曰國在東表日出之

地見輿地勝覽或曰朝日鮮明之義見金鶴峯誠一或曰國在鮮卑

山東故稱朝鮮朝謂東方見史綱目後一千二百十二年

周武王元箕子以子爵封於箕國故曰箕子東來周武王封箕子於朝鮮寧

詩書禮樂醫藥卜示都平壤國號仍稱朝鮮其漢江水古泗以南

朝鮮地理

碑殿附 豎 碑 旋閣 陵園 碩塚以上 卿 名墓 樓亭 題詠

人物部

道學篇 先正升 廡 諸 賢 儒賢道 學 宗 學 行 學 問 德 行 世 師 表 隱逸志 高 德 博 不 臣

王遺逸遜 世 無 悶 文 學 純 正 儒行學 有 淵 源 名 重 斯 文 文行卓 行 文 名

德業篇 勳臣錄 勳 封 君 原從勳附 忠 勳 功臣為 國 立 功 名臣位 躋 正 卿 致 君 澤 民 名

宦歷 叙 清 顯 名宦莅 官 名 政 清白莅 本 郡 清 政 文章附 文 苑 善 文 詩家附 善

詩筆苑附 善 筆 華 畫家附 善 畫 行誼附 名 望 善 行 眠睡附 善 慈

三綱篇 忠臣為 國 殉 節 附 節 義 孝子附 孝 女 順 孫 友 愛 孝婦 貞烈附 賢 媛 閨 媛 女 行

科宦篇 文科 司馬 武科 蔭仕 壽職 贈職 附名釋

目錄終

朝鮮寰輿勝覽目錄

朝鮮地理總說

朝鮮名義 同位置 同境界 同廣袤 附山野畝田 火田面積 人口

同沿革 同人種 同方言

道內地理總說

位置及境界 沿革 山岳 河流 海灣及島嶼

地理部

地誌篇郡四標 建置沿革 官員改替 新舊屬縣 廢合 郡名 新舊 山川

郡勢 土產 汽車驛 名所 附名勝 橋梁 形勝

古跡 校宮 宮殿 院祠 附社 附廟 寺刹 不祧廟

目錄 朝鮮地理總說 道內地理總說 地理部

世之下傳小舉消息者其將在此歟茲叙略首以俟後之君子
而庶有補於風化牖後之功亦大不勝感歎數語弁卷
孔夫子誕降二千四百八十年己巳小春上浣

石村居士 海平 尹用求識

上有天下有地人於其間萬物中最靈者而天則冥冥不可測
若地則有泰山喬嶽人則有功業卓行其義一也泰山則必有
名焉卓行則必有史焉人若未知地於山人於行之如何則是
無異如孟子所云泰山之高參天入雲而聳者莫之見也黃河
之濤衝激如雷而聳者莫之聞也云耳

資憲大夫掌禮院卿原任 奎章閣學士驪興閔京鎬書

朝鮮寰輿勝覽序

余少時讀禹貢略知中華山川中歲讀輿地勝覽亦知本邦沿革人物胥海稍濶然近代未有是書之續常以失自國精神為憂幸茲戚姪李秉延與數三同志積年考據先續寰宇沿革次述輿地人物亦增之以東史中大旨者改籤以寰輿勝覽其規有少異之義也嗚呼此書豈易易論哉惟我祖國版圖沿革賢人君子道德名節棟樑宇宙彪炳日月雖在降世義理所闕綱常所在凡有血氣者莫不悅服其為重於世教者明矣噫夫子言夏殷之禮而歎杞宋之無徵文獻叔孫豹論三不朽而曰立德立功立言蓋人之於事功事功之於文獻豈可忽乎哉苟百

序

月羊
卷一

一

朝鮮寰輿勝覽 序

